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김문길

우선희·여유진·정해식·곽윤경·홍성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0-5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발|간|사

사회이동성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한 사회의 사회통합 상태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사회이동성은 교육이나 소득, 직업 등의 측면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총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지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이동성은 한 사회의 불평등 상태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지만 누구라도 계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와 소득불평등 수준은 낮지만 이동이 없이 고착화한 사회 중 어느 쪽이 이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불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회이동성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부터 매해 사회통합 실태진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 차례 사회이동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이동성에 관한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그 실태는 예상하는 것만큼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격차가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실제 실증적인 연구에서 밝혀지는 실태와 별개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가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문길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정해식 연구위원, 박윤경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홍성운 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신 원내외의 전문가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빛어진 이 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7
제3절 이론적 논의	27
제2장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33
제1절 문제 제기	35
제2절 분석 방법	36
제3절 세대 간 이동의 실재	41
제4절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	50
제5절 소결	56
제3장 세대 간 주거자산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61
제1절 문제 제기	63
제2절 분석 방법	65
제3절 주거자산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68
제4절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	77
제5절 소결	89
제4장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이동 인식	93
제1절 문제 제기	95
제2절 분석 방법	96
제3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선호	99
제4절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107

제5절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114
제6절 소결	119
제5장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121
제1절 문제 제기	123
제2절 분석 방법	127
제3절 연령별 사회이동성 인식	130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 결정 요인	136
제5절 소결	144
제6장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변화	147
제1절 문제 제기	149
제2절 분석 방법	150
제3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인식 변화	151
제4절 소결	165
제7장 결론	16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71
제2절 정책적 함의	173
참고문헌	177
부록	183
[부록 1]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설문지	183
[부록 2]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표본 설계	205
[부록 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기초분석표	214
[부록 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사회이동인식 조사	292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모듈	15
〈표 1-2〉 각 연구주제별 사회이동성 개념	20
〈표 1-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개요	23
〈표 1-4〉 실태조사의 데이터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조치	24
〈표 1-5〉 세대 간 사회이동성 주요 조사 항목	25
〈표 1-6〉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26
〈표 2-1〉 사회이동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37
〈표 2-2〉 코호트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38
〈표 2-3〉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39
〈표 2-4〉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 간 이동률표	42
〈표 2-5〉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들 학력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42
〈표 2-6〉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간 이동률표	44
〈표 2-7〉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들 직업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45
〈표 2-8〉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47
〈표 2-9〉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에 따른 현재 주관적 계층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48
〈표 2-10〉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49
〈표 2-11〉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51
〈표 2-12〉 불공정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53
〈표 2-1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54
〈표 3-1〉 분석 대상 가구	66
〈표 3-2〉 주요 변수	67
〈표 3-3〉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보증금) 조달 비중	69
〈표 3-4〉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과 첫 주택의 점유형태	70
〈표 3-5〉 자산 이전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71
〈표 3-6〉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72
〈표 3-7〉 첫 주택 마련 시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내 점유형태의 변화	74
〈표 3-8〉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75
〈표 3-9〉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76
〈표 3-10〉 총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15세 무렵-현 점유형태)	76
〈표 3-11〉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77
〈표 3-12〉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79



〈표 3-13〉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79
〈표 3-14〉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과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0
〈표 3-15〉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81
〈표 3-16〉 현 점유형태와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82
〈표 3-17〉 자산 이전과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83
〈표 3-18〉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현 계층 인식	84
〈표 3-19〉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86
〈표 3-20〉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본인의 계층인식에 미치는 영향	88
〈표 4-1〉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관련 주요 변수의 설문 문항	98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101
〈표 4-3〉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2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위기 극복 정책 선호 분포	104
〈표 4-5〉 경제위기 극복 대책 선호의 결정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 대비)	106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생애 빈곤 가능성 인식 정도	109
〈표 4-7〉 빈곤 위험인식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0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분포	116
〈표 4-9〉 부정적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18
〈표 5-1〉 사회이동 관련 문항	128
〈표 5-2〉 성장환경 및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문항	129
〈표 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131
〈표 5-4〉 연령별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2
〈표 5-5〉 연령별 부모-본인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3
〈표 5-6〉 연령별 본인-자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4
〈표 5-7〉 연령별 세대 내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5
〈표 5-8〉 연령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6
〈표 5-9〉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7
〈표 5-10〉 부모-본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9
〈표 5-11〉 본인-자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0
〈표 5-12〉 세대 내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2
〈표 5-13〉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3



〈표 6-1〉 연령집단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152
〈표 6-2〉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152
〈표 6-3〉 연령집단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153
〈표 6-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154
〈표 6-5〉 연령집단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154
〈표 6-6〉 주관적 소득계층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155
〈표 6-7〉 연령집단별 응답자가 속한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	156
〈표 6-8〉 연령집단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조사 시점 40세 이상)	157
〈표 6-9〉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이상)	157
〈표 6-10〉 연령집단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158
〈표 6-11〉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159
〈표 6-12〉 연령집단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160
〈표 6-13〉 주관적 계층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160
〈표 6-14〉 연령집단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161
〈표 6-15〉 주관적 계층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162
〈표 6-16〉 연령집단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163
〈표 6-17〉 주관적 계층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163
〈표 6-18〉 연령집단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164
〈표 6-19〉 주관적 계층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165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이동성 지수(가로 축)와 지니계수(세로 축) 간의 관계	12
[그림 1-2] 사회이동의 개념도	25
[그림 2-1]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50
[그림 2-2]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51
[그림 2-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54
[그림 3-1] 분석 모형	65
[그림 3-2]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68
[그림 3-3]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73
[그림 4-1] 연구 모형	97
[그림 4-2]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100
[그림 4-3]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선호	103
[그림 4-4] 생애 위험과 빈곤 가능성 인식	108
[그림 4-5]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112
[그림 4-6]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1)	113
[그림 4-7]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2)	114
[그림 4-8]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분포	115
[그림 4-9] 본인 세대 계층이동성의 가능성 인식별 빈곤 위험인식도 점수	117
[그림 5-1]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6-2019)	125
[그림 5-2]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132
[그림 5-3] 부모-본인 사회이동 인식	133
[그림 5-4] 본인-자녀 사회이동 인식	134
[그림 5-5] 세대 내 사회이동 인식	135
[그림 5-6]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136

부표 및 부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2-1〉 표본 설계 개요	205
〈부표 2-2〉 서울 권역 구분	206
〈부표 2-3〉 지역 층화 결과	206
〈부표 2-4〉 만19-39세: 층별 모집단 분포	207
〈부표 2-5〉 만40-59세: 층별 모집단 분포	208
〈부표 2-6〉 만19-39세: 표본배분 결과	209
〈부표 2-7〉 만40-59세: 표본배분 결과	210
〈부표 2-8〉 만19-39세, 40-59세의 성별에 따른 학력 분포	211
〈부표 3-1〉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 부유한 집안 출신	214
〈부표 3-2〉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2.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215
〈부표 3-3〉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3. 본인의 좋은 학벌	216
〈부표 3-4〉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4. 야망을 갖는 것	217
〈부표 3-5〉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5. 열심히 일하는 것	218
〈부표 3-6〉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6. 열심히 일하는 것	219
〈부표 3-7〉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7. 지역 연고	220
〈부표 3-8〉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8. 뇌물을 주는 것	221
〈부표 3-9〉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9. 종교	222
〈부표 3-10〉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0. 성별	223
〈부표 3-1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 교육 기회	224
〈부표 3-12〉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2. 취업 기회	225
〈부표 3-13〉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3. 승진, 승급 기회	226
〈부표 3-14〉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4. 법의 집행	227
〈부표 3-15〉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5. 여성에 대한 대우	228
〈부표 3-16〉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6. 남성에 대한 대우	229
〈부표 3-17〉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230
〈부표 3-18〉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231
〈부표 3-19〉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9. 소득 분배	232
〈부표 3-20〉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0. 부(재산) 분배	233
〈부표 3-2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1. 지역 간 발전 수준	234
〈부표 3-2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 교육 기회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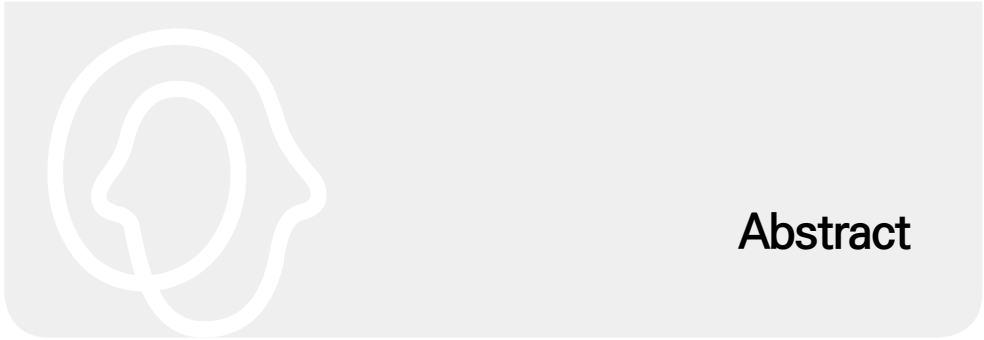


〈부표 3-23〉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2. 취업 기회	236
〈부표 3-24〉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3. 승진, 승급 기회	237
〈부표 3-25〉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4. 법의 집행	238
〈부표 3-26〉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5. 여성에 대한 대우	239
〈부표 3-27〉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6. 남성에 대한 대우	240
〈부표 3-28〉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241
〈부표 3-29〉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242
〈부표 3-30〉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9. 소득 분배	243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0. 부(재산) 분배	244
〈부표 3-3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1. 지역 간 발전 수준	245
〈부표 3-33〉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1.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	246
〈부표 3-34〉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247
〈부표 3-35〉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3. 실직이나 사업 부진	248
〈부표 3-36〉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4.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249
〈부표 3-37〉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5.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	250
〈부표 3-38〉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6.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251
〈부표 3-39〉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7.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	252
〈부표 3-40〉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8. 주택마련(전세값) 등의 부채 상황	253
〈부표 3-41〉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	254
〈부표 3-4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255
〈부표 3-4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256
〈부표 3-44〉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	257
〈부표 3-45〉 자녀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세대 지위 영향을 받는 정도	258
〈부표 3-46〉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님의 지위 영향을 받은 정도	259
〈부표 3-47〉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의 지위 영향을 받은(받을) 정도	260
〈부표 3-48〉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261
〈부표 3-49〉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62
〈부표 3-50〉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한다.	263
〈부표 3-5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	264



〈부표 3-52〉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65
〈부표 3-53〉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66
〈부표 3-54〉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67
〈부표 3-55〉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268
〈부표 3-56〉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5.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69
〈부표 3-57〉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70
〈부표 3-58〉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271
〈부표 3-59〉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72
〈부표 3-60〉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1.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273
〈부표 3-61〉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2.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274
〈부표 3-62〉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3.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275
〈부표 3-63〉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4.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276
〈부표 3-64〉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5.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277
〈부표 3-65〉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6.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278
〈부표 3-66〉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7.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279
〈부표 3-67〉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280
〈부표 3-68〉 일반적인 부모 세대 대비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281
〈부표 3-69〉 지난 10년 동안 가구 생활수준 변화	282
〈부표 3-70〉 앞으로 10년 이내 가구 생활수준 전망	283
〈부표 3-7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84
〈부표 3-72〉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85
〈부표 3-73〉 현재 우리 사회 신뢰도 평가	286
〈부표 3-74〉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	287
〈부표 3-75〉 어제 행복한 정도	288

〈부표 3-76〉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89
〈부표 3-77〉 이념적 성향	290
〈부표 3-78〉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291
〈부표 4-1〉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292
〈부표 4-2〉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293
[부그림 2-1] 성별 분포	212
[부그림 2-2] 연령 분포	213
[부그림 2-3] 국가승인통계 활용의 예	213



Abstract

A Study on Assessment of Social Cohesion Status with Policy Implications(VII) – Social Cohesion and Social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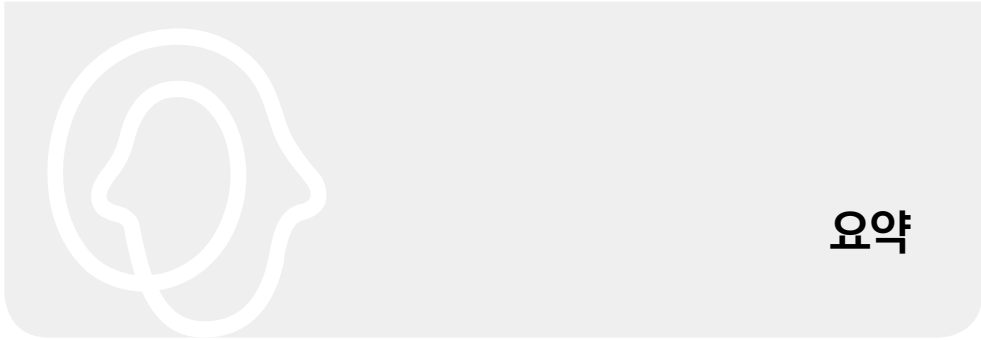
Project Head: Kim, Moon Gil

This study is the seventh study i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evaluation research series.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mobility. It started with the following background. First, recently, the importance of social mobility among the components of social integration is increasing. Secondly, ‘fairness’ has been highlighted as an issue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our society, and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mobility. Lastly,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social mobility and social cohesion in a situation where social anxiety due to COVID-19 is on the ris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has weakened in Korea, but we would like to prove how it appears in the most recent “Survey on Social Mo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we examine how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inequality in assets, which is spreading due to the rapid rise in real estate prices, is affecting social mobility in Korea. In addition, the impact of socioeconomic instability caused by COVID-19 on social mobility and social cohesion perception will be examined, and factors affecting social mobility perception will be investigated. Next, we will examine how social mobility and perceptions of social cohesion have changed, and how social mobilit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relate to other social integration-related items.

Keyword : Social Cohesion, Social Mobility, Generation, Cohort

Co-Researchers: ·Woo, Sunhee· Yeo, Eugene· Jung, Haesik· Kwak, yoonkyung· Hong, Sungwoon



요약

세대 간 사회이동 경험과 불공정 인식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측정된 세대 간 이동 실태를 출생 코호트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과 직업 측면의 세대 간 이동에서 출생 코호트별로 구분되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층에서의 학력과 직업 대물림이 다른 계층에 비해 뚜렷하기는 했지만 최근세대로 올수록 계층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으로 측정되는 세대 간 대물림은 모든 계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세대 간 비교분석 결과 민주화 세대는 현실의 불평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지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 세대는 사회이동, 불공정과 불평등 수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인식적 차원에서 모든 세대가 공히 현재 부와 소득의 분배의 불평등 수준이 기회의 불평등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 간 주거자산의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

과거 세대에 비해 최근세대는 첫 분가 시 주택마련에 있어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자녀 세대의 주택 점유형태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첫 분가 시 (조)부모 세대로부터 이전을 받은 경우 자가와 전세 비중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의 측면에서 세대 간 이동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5세 무렵 부모의 주거 점유형태와 본인의 현재 주거 점유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약 51%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은 출생 코호트별

로 사회이동성 인식(계층 상승 가능성)과 경험(15세 무렵 계층과 현재 계층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이동성 인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다양한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고,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선호의 차이로 이어졌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실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는 위기 경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의 대상(보편지원-선별지원)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본인 세대의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모든 세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히 동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세대의 사회이동성 인식에는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가, 본인에서 자녀로의 이동에 관한 전망에는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활동상태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이나 증여 경험은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이동성 인식 변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인식은 2015년에 비해 2020년 들어서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차이가 더 크고 뚜렷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전망은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일반화하여 질문할 경우 청년 세대 내에서의 인식

의 분화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즉, 20대가 30대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체화하여 질문할 경우에는 20대와 50대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할 때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최근 청년층의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사회통합, 사회이동성, 세대, 코호트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3절 이론적 논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은 OECD(2011)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함께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다. OECD는 통합된 사회를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위해 노력하고, 배제와 소외를 극복하며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정의한다(OECD, 2011; Xavier, 2018. p. 245; 김문길 외, 2019, p.30 재인용).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사회통합이 잘 된 사회는 1)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 등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없는 사회적 포용이 이루어진 사회, 2) 사회적 신뢰와 시민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잘 구성된 사회, 3)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이동이 가능하거나 그 가능성을 믿는 정도가 큰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이동은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다음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사회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회이동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이동은 불평등 정도와 사회이동성 간의 역(逆)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대표하듯이 사회적 불평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어 빈곤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이동성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은 어떤 수준일까? 우선 한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인식적 측면과 실태적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식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이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09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2009년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인 48.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29.4%의 국민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35.7%에서 23.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 2020a).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있어서는 잠재성장률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 소득이나 계층지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불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오늘날 세대 간 사회이동 전망이 극적이라 할 만큼 비관적으로 변화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의 실태는 어떤 수준일까? 실제 교육, 직업, 소득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이 최근에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이다. 인식의 차원에서 사회이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의 사회이동성은 그리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남재욱, 2019; 정인관, 2020). 사회이동성을 소득으로 측정할 경우 부모 세대의 소득은 자녀 세대의 회고적 응답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득 대신 교육수준이나 직업위세, 주관적 계층의식 등의 변수를 활용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수준을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절대적으로는 비교적 열악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한국을 비롯한 33개국의 16세~74세 성인 22,2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사회이동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이동성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개발한 사회이동성 지수는 건강, 교육 접근, 교육의 질 및 평등, 평생교육, 사회적 보호, 기술 접근성, 공정한 임금, 근로 환경, 일자리 기회, 포용성 등 10개 부문 5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여기서 한국은 71.4점으로 82개국 중에서 25위를 차지하였다¹⁾. 비교대상 국가에 저

1) 전체 82개 국가들 중 사회이동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85.2점의 덴마크이며, 다음으로 노르웨이(2위), 핀란드(3위), 스웨덴(4위), 아이슬란드(5위) 등으로 나타나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순위에 포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캐나다(14위), 일본(15위), 호주(16위) 등이 중상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21위), 뉴질랜드(22위), 에스토니아(23위), 포르투갈(24위), 리투아

개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OECD 37개국을 추려서 순위를 매겨보면 23위에 해당된다. 즉, 비교대상을 OECD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하위 그룹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점수로 볼 경우에도 OECD 국가 평균인 72.7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회이동성 지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기술 접근성(92.4점), 건강(91.1%)이고, 높은 유치원 입학률, 최소성취수준(minimum proficiency) 미달률,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교사 비율 등의 교육적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회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들로는 불안정 고용, 낮은 사회보장 수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이 꼽혔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24). 이 같은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수준은 교육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낮은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 지수를 불평등 지수(지니계수)와 대비시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상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사회이동성지수를 가로축으로 하고, OECD 소득분배지표의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해서 각국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사회이동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이동성 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 간에는 강한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별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지니계수 간의 정(正)의 관계(자녀의 소득이 부모 소득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를 그래프로 그린 마일즈 코락(M. Corak)의 ‘위대한 개츠비 곡선’(Corak, 2013)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위대한 개츠비 곡선’의 세로축인 세대 간 소득탄력성 대신 사회이동성 지수를 대입하더라도 동일한 관계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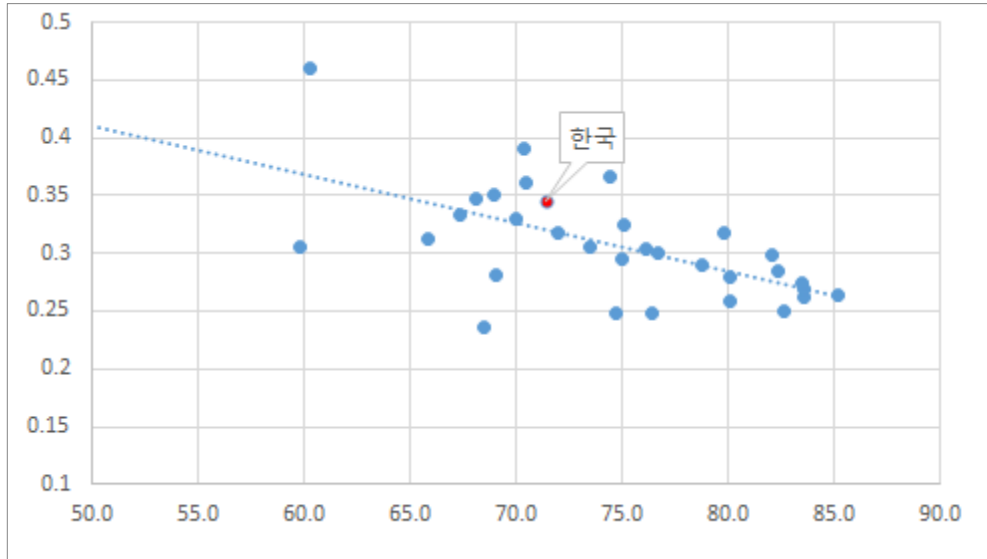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니계수와 사회이동성 지수 모두 중위 값(median) 근처에 위치한다. 그러나 평균 값(mean)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0.345)는 전체 평균(0.306)보다 높고 사회이동성 지수(71.4)는 전체 평균(72.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사회이동성과 소득불평등 수준의 상대적인 위치에서는 비교 대상 OECD 국

니아(26위), 미국(27위), 스페인(28위) 등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4위), 미국(25위), 스페인(26위), 폴란드(27위), 라트비아(28위), 슬로바키아(29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7).

가들의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불평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사회이동성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사회이동성 지수(가로 축)와 지니계수(세로 축) 간의 관계

(단위: 점)



주: 지니계수는 국가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신자료를 사용. 네덜란드는 2016년 전망치.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는 제외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0); OECD income distribution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2020.12.10. 인출)

사회이동성 인식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다양한 항목들 중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항목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항목을 세계경제포럼에서 수행한 사회이동성에 대한 글로벌 인식(Global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조사를 통해서 국가별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음 중 현재 부모세대보다 현재 청년세대에서 더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모 세대 보다 청년 세대가 정보의 접근성과 문화 접근성은 더 나아졌고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군별로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중국, 인도, 칠레,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는 청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성공적인 커리어 갖기(having a successful career), 주택 자가 소유(being able to own your own

home), 잘 살기 위해 충분한 돈 갖기(having enough money to live well) 등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청년 세대에서 해외여행의 기회(being able to travel abroad), 좋은 교육 받기(having a good education)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다음 중 현재 부모세대보다 현재 청년세대에서 더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청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자기 집 소유하기(being able to own your own home), 범죄 및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being safe from crime),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기(being able to live comfortably when you retire from work), 안정적인 직장 갖기(having a secure job), 충분한 돈 갖기(having enough money to live well), 성공적인 커리어 갖기(having a successful career), 잘 살기 위해 충분한 돈 갖기(having enough money to live well) 등이 꼽혔다. 반면에, 중국, 인도, 칠레,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은 적은 편이었다(OECD, 2020a).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해외여행 기회와 교육기회이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자가 소유, 안전, 노후 삶의 질, 좋은 일자리와 성공적인 경력, 경제력 등이다. 이는 사회이동성 지수로 측정된 실태의 측면과 거의 유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 상향이동의 유용한 도구인 양질의 교육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을 결정짓는 자산, 소득,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일견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계층 상향이동의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①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의 일환, ② 최근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중 사회이동성의 중요성이 커진 점, ③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슈로 ‘공정성’이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 ④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부터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2014년에는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여 사회통합의 다양한 영역과 지표들을 도출하여 검토하고, 사회통합

정책 함의를 제시하였다(김미곤 외, 2014). 2015년에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의 관계를 심층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이동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여유진 외, 2015). 2016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하여 사회통합 인식의 구성,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그리고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정해식 외, 2016). 2017년에는 사회병리 등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여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정해식 외, 2017). 2018년은 사회갈등을 주요 주제로 하여 사회계층별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을 다루었다(정해식 외, 2018). 2019년은 지난 5년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의 종합·비교, 전술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별 실태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 불평등 인식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김문길 외, 2019).

이와 같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수행되었고, 각 연도별로 아래와 같은 주제 모듈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4년 첫 연구를 기획할 당시에는 각 주제별로 5개년에 걸친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고, 6년차부터는 지난 5년간의 모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6년차인 2019년에는 다시 국민행복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어야 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 별도의 연구(정해식 외, 2019a)가 기획되면서 연구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5년간의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간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통합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려는 목적에서다(김문길 외, 2019. p.17). 이에 이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의 두 번째 회귀로서, 2015년 연구(여유진 외, 2015)의 주제였던 사회이동성을 주제로 삼게 되었다.

〈표 1-1〉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모듈

연도 (차수)	주제	연구과제 명
2014 (1차)	국민행복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015 (2차)	사회이동성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I)-사회통합과 사회이동
2016 (3차)	사회통합 국민인식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II)-사회통합 국민 인식
2017 (4차)	사회문제(사회병리)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V)-사회문제와 사회통합
2018 (5차)	사회갈등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사회갈등과 사회통합
2019 (6차)	사회통합 종합 진단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I)-사회통합 상태진단

둘째,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중 사회이동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커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문길 외(2019)는 이전까지의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을 대표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해식 외(2016)에서 작성했던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요소들을 대표하는 변수 군을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인식 변수와 사회통합 조건 변수로 구분하여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2016년에는 두 가지 변수 군 모두 사회적 포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2019년에 들어서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문길 외, 2019. p.180-181). 동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동 연구가 수행되던 당시 유력 공무원과 정치인들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배치되는 행태로서 다수의 국민들, 특히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과 절차의 공정성이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의 두 번째 회귀의 첫 번째 연구주제로 사회이동성을 택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청년층의 문제에서 사회통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슈는 공정성이

라 할 수 있다. 과거 세대와 달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립을 이룸으로써 성인으로의 이행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이 공정한 기회 또는 기회의 평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청년들이 고용과 경제력 같은 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조선시대 계급사회와 같이 계층 간 이동이 제약되어 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경제적 환경과 전반적 고학력화를 지향하는 교육환경이 맞물리면서 과거에는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성이 활발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발생한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시장 기회구조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사회이동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세습중산층 사회』는 90년대 생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들의 부모 세대인 60년대 생과의 관련성을 통해 탐색하고 있는데, 저자는 교육이 “세습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는 불평등 제조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조귀동, 2019: 16).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모 세대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분포에 따라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학입시제도나 채용시스템이 공정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어쨌거나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강한 청년층, 특히 20대(90년대 생)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이동성과 연관 지워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세대와 비교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9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질병 그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 등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놓았다.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소득감소 또는 상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그리고 이들이 유발하는 정신건강의 악화 등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특히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들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향점인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통합에 대한 진단과 결정요

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포용적 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행복 증진이라고 본다면 사회통합 전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고,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이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조망하면서 사회통합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이상과 같은 배경과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과 7장은 각각 서론과 결론 내용을 담고 있고, 5개의 장에서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약화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시점에서 조사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자산의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이동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본다. 이어서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이동성 경험과 인식이 여타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항목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장별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은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모의 지위(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가 자녀의 지위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사회이동성 저하의 경향이 발견되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사회이동, 불공정,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코호트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이동의 실재와 인식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코호트를 민주화 세대(60년대

생), X세대(70년대 생), IMF 세대(80년대 생), 스마트 세대(90년대 생)로 구분해서 코호트별로 사회이동 경험과 공정성 인식에 대한 차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앞서 사회이동성을 두 세대의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의식을 통해 살펴본 것과 달리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자산의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 세대로부터의 주거자산 이전 여부에 다른 자녀 세대의 주거 여건의 격차를 살펴본다. 그리고 첫 분가 시 주거 점유형태와 현재 점유형태, 그리고 15세 무렵 점유형태와 현재 점유형태의 비교를 통해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세대 내, 세대 간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인식의 측면에서,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의 경험과 그에 따른 현재 주거 점유형태가 사회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세대 간 이전의 코호트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장과 같은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분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이전에 따른 주거자산 형성과 관련한 불평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 문제를 다룬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몇 가지의 설문 문항을 통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종 불안정성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장에서는 당초 사회이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계획대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대신 코로나 19라는 특수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기의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여유진 외(2015)에서는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자료를 이용해서 세대 간 직업계층 이동성과 사회이동성 인식의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제5장). 동 연구에서 ISSP 자료의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모듈을 활용하였는데, 사회불평등 모듈은 1987년, 1992년, 1999년, 2009년의 네 개 시점을 사용할 수 있었고, 동 연구에서는 세대 간 직업계층 이동성은 2009년 자료를, 사회이동성 인식은 1999년과 2009년 자료를 각각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기획될 단계에서는 10년 주기로 자료가 생성되는 점

을 고려하여 2019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연구의 착수워크숍과 중간워크숍 단계에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았고, 2020년 12월 말 현재까지도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사회이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이동 관련 인식은 일반적인 인식, 사회이동 경험(부모 세대-본인 세대, 본인 세대-자녀 세대)과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전망으로 구분하여 인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이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역시 일반적 사회이동, 사회이동 경험, 사회이동 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사회이동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장에서는 앞선 장들과 달리 4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지 않고, 현재 청년기본법 상 연령인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의 인식을 앞선 세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청년, 중년, 장년으로 구분하였다.

제6장에서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함의를 제시한다. 201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와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각 장별로 연구주제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회이동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각 장에서 사용한 사회이동 개념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2〉 각 연구주제별 사회이동성 개념

구 분	내용		사회이동 단위	세대 구분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제2장)	실태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	부모 - 본인	60년대 생, 70년대 생, 80년대 생, 90년대 생
	인식	불평등 인식	-	
		사회이동 인식		
		불공정에 대한 인식		
	불공정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제3장)	실태	주거자산 이전과 주택의 점유 형태	부모 - 본인 본인 - 본인	60년대 생, 70년대 생, 80년대 생, 90년대 생
		주거자산 이전과 세대 내 점유형태 변화		
		자산의 이전과 세대 간 점유형태 계승		
	인식	자산 이전 경험과 사회이동 인식	-	
	주택 점유형태와 사회이동 인식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제4장)	인식	코로나 19 영향과 정책 선호	-	60년대 생, 70년대 생, 80년대 생, 90년대 생
		불안정 인식과 정책 선호		
		불안정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사회이동 인식의 결정 요인 (제5장)	인식	사회이동 일반 인식, 경험, 가능성	-	청년(20~34세) 중년(35~44세) 장년(45~59세)
		사회이동 인식(일반 인식, 경험, 가능성) 결정 요인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제6장)	인식		부모 - 본인 본인 - 본인	코호트, 청·중·장년

사회이동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들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동성의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세대 내 상향 이동성이 큰 편이고, 중장년층은 세대 내 상향이동성이 크지 않고, 노인층은 하향 이동의 가능성이 큰 편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세대 간 이동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저점에서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 이동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과거 고성장 시기에 경제활동 참여를 했던 세대의 경우는 절대적 측면에서와 상대적 측면에서 높은 상향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주제에 따라 연령효과에 주목할 수도 있고, 세대효과에 주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각 장별로 세대구분을 달리 한다. 2장, 3장, 4장은 60

년대 생, 70년대 생, 80년대 생, 90년대 생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코호트별 사회이동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5장은 연령집단별 사회이동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20~34세), 중년(35~44세), 장년(45~59세)으로 연령층을 구분하고 있다. 6장은 두 가지 세대구분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가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은 사회이동성의 실태와 인식을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세(細) 절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여타 조사 혹은 선행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사회이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면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둘째, 기존 자료들이 세대 간 사회이동, 세대 내 사회이동 전망에 대한 설문 위주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외 사회이동 경험, 부모세대로부터의 영향 정도,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사회이동 인식 차원의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이동 실태와 사회이동 인식 변수를 결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사회이동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조사 방법 및 조사 설계

가. 조사 방법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사회이동성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 근거를 고찰하기 위한 문헌 연구, 사회통합 실태조사 실시 및 원 자료 분석, 그리고 사회통합 포럼으로 구분된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적 측면과 실태적 측면을 두루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통합포럼을 3차례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 조사 설계

과거 조사가 전국 만 19세 이하 7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개인 1인을 응답자로 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을 59세 이하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세대를 60년대 생(50대), 70년대 생(40대), 80년대 생(30대), 90년대 생(20대)과 같이 10세 구간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최소 연령을 20세로 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대행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샘플(Master Sample)을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마스터샘플은 전국의 국민을 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대면 면접, 집 전화 면접, 휴대전화 면접, e-mail 설문응답, 집단 면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집한 54만 여명의 패널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마스터샘플 규모는 535,086명이다. 이 샘플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통계승인번호: 32103), ‘휴대전화·e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통계승인번호: 34204) 등 통계청 승인통계의 표집 틀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공신력을 가진 패널로 평가할 수 있다.

대신 최근 사회이동성과 관련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세대의 인식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표본 수를 확대하고, 비교를 위한 장년층의 표본 수도 동일하게 배분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1-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	
조사 대상	조사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	
표집틀	(주)한국리서치 Master Sample(54만 명)	
표본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전국 6,000명 - 만 20-39세 3,000명 - 만 40-59세 3,000명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1.26%p	
표본 단위	개인	
표본 추출	① 층화 : 시/도(20개 권역), 동부/읍면부 - 1차 :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도지역을 층화함(17개 시도) - 2차 : 서울은 생활권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함(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 3차 : 광역시 이외의 시도는 동부/읍면부로 층화함	
표본 배정	- 청년층(만 20-39세), 장년층(만 40-59세) 균등 배분 (각 3,000명) - 청년/중장년층 집단 내 지역(28개 층)*성별(남녀)*연령별(5세 단위) : 비례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웹/모바일 조사)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기간	2020년 8월 1일~2020년 8월 31일	
조사 문항	가구 일반 사항	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 가구 형태, 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소득 평가, 재산과 부채, 주거 특성 등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태어난 연도,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 여부, 경제활동 상태, 직업, 근로시간, 고용 형태, 종사상 지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분가	별도 가구 구성 여부, 첫 독립 시기, 주택 유형(독립 전후), 점유 형태(독립 전후), 거주 지역(독립 전후), 주택 구입 비용 조달 방법, 결혼 후 분가 관련 정보
	사회이동성	소득 이동 인식, 생활수준 변화, 생활수준 변화 전망, 세대 내 이동성 전망, 세대 간 이동성 전망, 15세 무렵 학업 성적, 15세 무렵 부모님의 근로 형태 및 직업, 조부의 교육 수준, 직업
	일반 사회인식	성공에 있어 중요한 사항, 영역별 불평등 인식, 영역별 불평등 해소 필요성 인식, 상황별 빈곤 가능성, 코로나19 영향(가계 경제, 대책), 소득불평등 상태, 자녀세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극서에 영향을 받는 정도, 정부의 역할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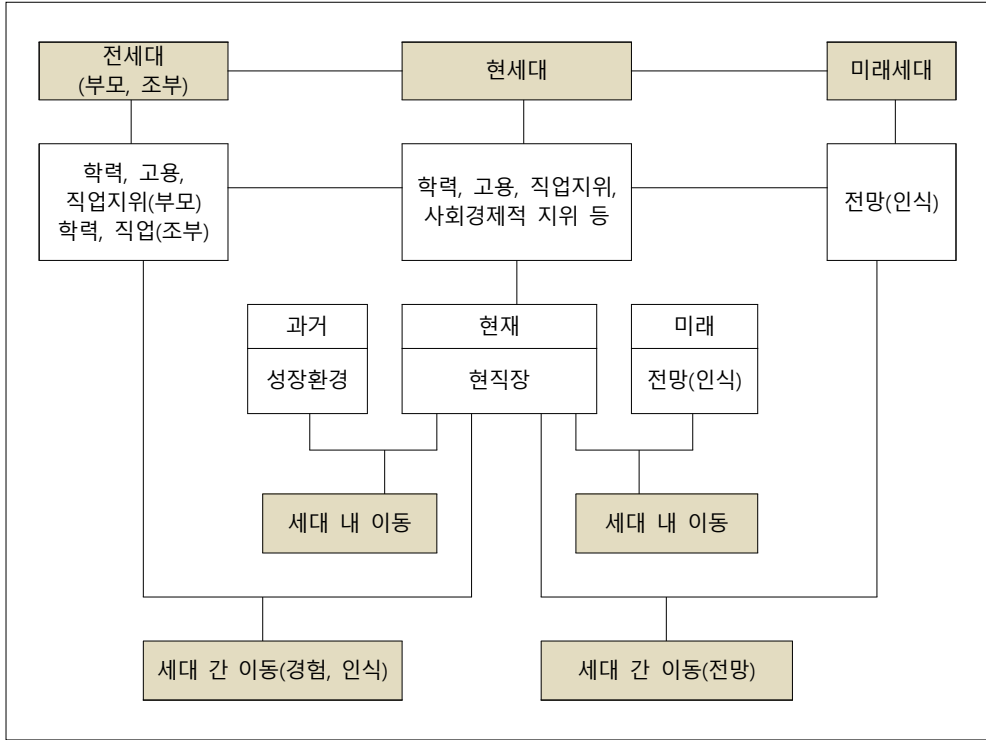
대면조사로 실시된 이전 사회통합 실태조사(2014년~2019년)와 조사방법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① 2014~2019년 사회통합 조사의 리뷰 가이드에 기반한 설문로직 설계, ② 주요 문항 내 응답지침 삽입, ③ 설문상담원 투입을 실시하였다. 또한 8단계 사후검증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4〉 실태조사의 데이터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조치

구분	내 용
설문로직 설계	자기기입설문의 비상식적 응답을 방지하고자 2014~2019년 사회통합 조사의 리뷰 가이드에 기반한 웹설문 로직가이드를 제작하여 적용
주요 문항 내 응답지침 삽입	2014~2019년 사회통합 조사의 면접원 지침에 기반하여 주요 문항에 설문응답 지침 또는 응답 시 유의사항을 삽입하여 자기기입식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제고
설문상담원 투입	조사 진행 중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설문 교육을 받은 '설문 상담원'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8단계 사후 검증	ISO/DIS 26362, Access panels in market, opinion and social research (2008-06)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8단계 검증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같은 보기 선택이 93%를 넘는 경우 검증 후 삭제 · 오픈 및 척도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같은 보기 선택이 95%를 넘는 경우 검증 후 삭제 · 스케일 문항에서 같은 보기 선택이 97%를 넘는 경우 검증 · 평균 시간 대비 하위 5% 이하는 일괄 삭제 · 검증 모듈에 삽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값을 체크 · 응답자가 응답 중 인터넷 검색을 위하여 인터넷 창을 벗어나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문제가 있는 컴퓨터 체크 · 오픈 응답 결과 검증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실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전 세대를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교육성취의 3대 요소로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할아버지의 재력'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배경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이동의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리고 세대 간 사회이동성 측정을 위한 세대 별 주요 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2] 사회이동의 개념도



<표 1-5> 세대 간 사회이동성 주요 조사 항목

구분	항목	본인	조부	부모
경제	임금(근로소득)	○		
	가구소득	○		
	재산	○		
직업	근로형태	○		○
	정규/비정규	○		○
	사업체규모	○		○
	직업	○	○	○
	총사상 지위	○		○
	일자리 지위 비교			○
교육	15세 무렵 학업성적	○		
	최종학력	○	○	○
	사교육비	○		
	고교유형	○		
기타	부모 생존 여부	○		
	부모 동거 여부	○		
	주거	○		
	주관적 계층	○(5점)		○(10점)

이번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8,81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6,022명이 응답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66.3%다.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6,022	100.00
성별	남성	3,086	51.25
	여성	2,936	48.75
연령	20대 이하	1,422	23.62
	30대	1,338	22.22
	40대	1,600	26.57
	50대	1,662	27.60
지역1	수도권	3,143	52.20
	비수도권	2,879	47.80
지역2	대도시	2,627	43.62
	중소도시	2,646	43.93
	농어촌	750	12.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2	10.32
	중하층	2,643	43.88
	중간층	2,299	38.17
	중상층(+상층)	459	7.6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1	12.81
	200만 원대	1,145	19.02
	300만 원대	1,145	19.02
	400만 원대	934	15.51
	500만 원 이상	2,026	33.65
학력	중졸 이하	66	1.09
	고졸	3,241	53.82
	대졸 이상	2,715	45.0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38	50.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69	9.45
	고용주·자영자	530	8.80
	무급 가족 종사자	73	1.22
	실업자	679	11.28
	비경제활동인구	1,132	18.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800	19.11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494	59.62
	숙련 및 기술직	586	14.01
	단순노무 종사자	304	7.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86	71.77
	무기계약직	233	6.47
	비정규직	784	21.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2	16.96
	중도적	3,174	52.70
	진보적	1,827	30.34

주: 직업-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해당/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만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3절 이론적 논의

1. 해외

사회이동성 혹은 상향이동성의 전망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알레시나와 라 페라라(Alesina & la Ferrara, 2001)은 미래 소득에 대한 전망이 소득 재분배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클수록 즉 세대 내 상향이동 가능성이 클수록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입각해서 유럽과 비교할 때 미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약한 이유는 중위투표자가 상향 이동의 기회가 많다고 인지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들의 위험기피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경쟁이 공정하다고 믿는 미국인들은 사회이동성을 소득재분배의 좋은 대안으로 여긴다고 보았다(Alesian & Glaeser, 2012).

기회의 땅으로 불리던 미국의 국민들은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분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난은 게으른 자의 자기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정책이 약한 편이다. 유럽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계급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어 사회이동의 기회가 미국에 비해 약하며,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알레시나와 글레이저는 실태분석 결과를 통해 미국의 사회이동성이 유럽보다 높은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미국의 중산층(중위투표자)이 미래에 더 잘 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았다(Alesina & Glaeser, 2012: 116).

최근 富(부)는 유전의 산물일까 환경의 산물일까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다. 블랙 등(Black, Devereux, Lundborg & Majlesi, 2020)은 부모와 자녀의 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관계가 나타난 원인을 제시하였다. 스웨덴의 입양아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입양아의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의 부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이들은 생물학적 부모의 부에 비해 양부모의 부가 입양아가 성인이 된 후의 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부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은 유전적 요인이,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적 결정은 환경적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한다.

국제적 소득불평등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밀라노비치는 최근 저서에서 부모와 자녀 소득의 연관성을 자본주의의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오늘날 미국과 같은 자유 성과주의 자본주의(liberal meritocrat capitalism)²⁾ 유형에서 둘 간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1914년 이전의 영국과 같은 고전적 자본주의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비해 자유 성과주의 자본주의의 특징을 고임금 계층이 높은 자본소득과 결합하여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Milanovic, 2020: 52).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ting) 또는 동질혼의 경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유형의 자본주의의 마지막 특징으로 재산과 인적 자본의 대물림의 심화를 꼽는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세금으로 조달되는 공교육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상속세율이 높아지면서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소득의 세대 간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세대 간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코락(Corak, 2013)의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잘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층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불평등은 세대에 걸쳐 더욱 강하게 대물림 될 것이다.

전술한 동질혼 경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게리 버틀리스(Burtless, 2007)는 미국에서 1979년과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불평등의 10~16%를 남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커진 것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 구성의 변화, 동질혼의 확산을 통해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의 고학력자의 지원을 받는 자녀와 두 명의 고학력자의 지원을 받는 자녀가 제공받는 긍정적인 환경의 절대적인 양과 질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환경이란 교육비 지출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들, 즉 부모와 보내는 시간, 부모의 돌봄 수준,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자본 등을 포함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Heckman)이 부모를 잘 못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시장 실패’라고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을 단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다.

2) ‘능력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2. 국내

우리나라에서 사회이동성이 최근 들어 저하되었는지 아니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의 심화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는 대중적인 인식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정인관 등(2020)은 우리나라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기회의 이동성 추세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 직업의 세대 간 상관성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증가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세대 간 계급적 상관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발견되며, 서구 국가들에 비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학력 취득에서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증거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3) 최근 일부 연구들은 세대 간 이동성이 교육을 통한 것보다 교육과 무관한 연계 경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절대적 계급 이동성은 높은 수준의 이동률을 보이고 있으며(차중천, 2002),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Park, 2003), 1945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세(Park and Cha, 200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출생 코호트를 포함한 연구들에서는 최근 절대적 이동성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Chung and Park, 2019; 계봉오·황선재, 2016; 여유진, 2019). 한편, 상대적 이동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상대적 이동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Park and Cha, 2008). 절대적 이동성의 감소는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배경과 연관 짓고 있다(정인관 외, 2020. p. 21).

계층이나 계급지위를 주로 활용하는 사회학자들과 달리 경제학자들은 세대 간 소득이동을 세대 간 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elasticity: IGE)을 통해 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최근 사회이동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인식과 달리 실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희삼, 2009; 김민성 외, 2009; 최지은·홍기석, 2011).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김현익(2017)의 연구는 예외적으로 부의 학력을 도구변수로 사용할 경우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앞서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은 인식되는 것과 달리 그렇게 저하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인식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왕원·김문조·최율(2016)은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적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이동성 인식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세대에서 상향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신광영(2016)은 중장년층의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용관(2018)은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소득과 사회이동성 인식간의 관련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문상균·최재성(2020)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비교집단 내 상대적 위치에 따라 사회이동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비교집단 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상향이동 가능성을 달리 인식하는 경향을 보고한다. 시간적으로는 2011년 이전 표본과 2015년 이후 표본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단별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수도권 거주와 40세 미만 연령층에서 상향이동 가능성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여유진 외(201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유진 외(2015)는 크게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2장), 교육성취와 사회이동(3장),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4장), 사회이동 수준 국제 비교(5장)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을 제외하면 사회이동 인식보다는 실재를 규명하는데 할애한 특징이 있다.

여유진 외(2015)에서 발견한 사회이동의 실재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별 사회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 직업지위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양쪽 꼬리(하층과 상층)에서의 고착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지위에서는 전문관리직, 사회경제적 계층에서는 중상층 이상과 하층의 지위 고착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본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대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산업화 세대는 본인의 학력이, 민주화 세대는 부모의 학력과 본인의 학력이, 정보화 세대는 부의 학력과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정보화 세대에서는 본인 학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고학력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 성적과 학력 수준의 분포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상승의 영향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서의 상향이동성이 둔화하고 있었다. 2) 하위계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은 젊은 세대로 오면서 더 낮아졌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노동시장 지위(근로 형태)나 근로소득(분위별 분포) 상 우위를 점할 확률도 젊은 세대로 오면서 낮아졌다. 3) 교육 성취 결정요인 분석 결과, 부의 학력은 기대만큼 자녀의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효과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세대 내 사회이동과 세대 간 사회이동으로 구분하여 사회이동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적 경험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 세대에서 가장 높고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통합 인식에는 연령이나, 소득계층, 주거 점유 형태, 고용 형태 등의 귀속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유진 외(2015)에서 이동률 표를 이용한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실재는 이 연구에서도 그대로 분석한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로 구분했던 코호트를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 세대(60년대 생), X세대(70년대 생), IMF 세대(80년대 생), 스마트 세대(90년대 생)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을 교육, 직업, 주관적 계층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편, 여유진 외(2015)에서 다루었던 교육성취와 사회이동 부분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가 11점 척도로 설문한 '15세 무렵 학업성적'이었는데, 주관적 응답을 사회이동의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는데 따르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 주제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게 되었다. 대신 최근세대 내, 세대 간 격차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자산(부동산)에 주목하여 주거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이동성을 관련지어 분석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코호트별 사회이동 현황과 주거자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실재적인 분석과 더불어 인식의 측면에서도 다룬다는 측면에서 여유진 외(2015)와 차별성을 가진다. 부연하자면, 횡단면 조사를 통해 사회이동성의 '실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만 다루기로 한

다. 대신 이 연구에서는 인식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여유진 외(2015)의 국제 비교 부분은 전술한 것과 같이 최신 ISSP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부득이 답을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제2장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세대 간 이동의 실재

제4절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

제5절 소결

제 2 장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사회 계급(계층)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특히 교육부문, 부의 세습 등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사회이동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인식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지만(이경희, 2017), 절대적·상대적 이동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계봉오, 황선재, 2016; 여유진, 2019)에서는 세대별 두드러진 차이나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울(2020)의 연구에 의하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시기에 따른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 역시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다만, 최상층과 빈곤계층에서 다른 계층보다 더 강한 대물림이 일어난다거나(김위정, 김왕배, 2007), 최근세대에서 자산 이전이 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여유진, 2019)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세대별 사회이동 경향성에서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관련 변수의 미비, 조사방식의 문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 등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사회이동의 실재와 인식 간의 실질적인 괴리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앞서 언급한 정인관 외(2020)는 실증 연구 결과와 대중적 인식 간의 간극에 대해, 절대적 이동의 감소 혹은 정체로 인한 기회의 제약,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기회 불평등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결과,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가, 최근 출생코호트에 대한 분석 누락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가설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다차원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즉,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고착화의 실질적 경향과 기회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연령 코호트별 인식 차이 간의 간극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및 세대 구분

이 장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이동, 불공정, 불공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 출생 코호트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이동의 실태와 계층 대물림에 대한 인식 간에 실질적인 괴리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20세~6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³⁾ 분석에 활용된 전체 사례수(N)는 6,022명이다.

이 장에서는 출생 코호트를 민주화세대(60~70년생), X세대(71~80년생), IMF세대(81~90년생), 스마트세대(91~00년생)⁴⁾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박재홍은 1961~1970년생을 386세대 또는 민주화세대, 1971~1980년생을 신세대 또는 IMF세대, 1981~1990년생을 W세대 또는 88세대, 1991~2005년생을 웹2.0세대로 구분한 바 있다(박재홍, 2009, p.24). 본 연구에서는 1971~1980년생을 X세대, 1981~1990년생을 IMF세대로 칭한다는 점에서 박재홍(2009)의 분류 방식-정확하게는 명명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상이한 방식으로 출생 코호트를 명명한 것은 세대담론 연구의 초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1971~1980년생은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 개방화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황폐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가 주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문화적·이념적으로까지 체화하고 내재화한 세대는 외환위기 당시 아동·청소년 시기를 보낸 1981~1990년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인

3) 조사방식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을 참조하시오.

4) 스마트세대는 2020년 현재 시점에 만 20~29세로 아직 학업 중인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 문항에서 교육수준 항목은 재학 중인 경우 한 단계 아래 학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들 세대 응답자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인 직업을 가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세대 간 학력과 직업 이동 분석에서는 스마트세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식의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1981~1990년생을 IMF세대로 지칭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출생 코호트별 사례 수는 민주화세대 1,617명, X세대 1,450명, IMF세대 1,453명, 스마트세대 1,502명이다.

2. 주요 변수

사회이동 관련 변수로 이 장에서 주목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학력, 직종, 주관적인 계층 세 가지이다(〈표 2-1〉 참조). 상급 학교 진학률의 시기별 차이를 감안하여 아버지 세대의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본인 세대의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계급지위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직종은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의 6개로 구분하였다. 15세 무렵과 현재의 주관적 계층은 1~10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분포를 고려하여 4개 계층, 즉 하층(1~2), 중하층(3~4), 중상층(5~6), 상층(7~10)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2-1〉 사회이동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항목
부모의 SES	부의 교육수준	부의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부의 계급지위	직종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부의 경제적 수준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 (4개 범주)	하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
본인의 SES	본인의 교육수준	본인의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본인의 계급지위	직종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
	본인의 경제적 수준	본인의 주관적 계층 (4개 범주)	하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

코호트별 응답자 본인의 일반적 특징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의 비율은 대체로 절반 정도씩 분포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민주화세대 54세, X세대 44.2세, IMF세대 34.5세, 스마트세대 24.2세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지만,

아직 대학 재학 중인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 이들은 고졸로 응답하였다- 스마트세대는 예외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인 민주화 세대에서 관리·전문직 비중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전문직은 스마트세대(15.5%), 사무직은 IMF세대(48.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계층의 경우 81%가 중하층 혹은 중상층으로 분류되었으며, 10.3%는 하층, 8.8%는 상층으로 분류되었다. 상대적으로 민주화세대에서 하층으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스마트세대에서 상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스마트세대의 경우 아직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결과 중상층과 상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코호트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¹⁾

(단위: 명, 세, %)

구분	항목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전체
	사례수	1,617	1,450	1,453	1,502	6,022
성별	남자	50.5	50.7	51.7	52.4	51.3
	여자	49.5	49.3	48.3	47.6	48.8
	평균 연령	54.0	44.2	34.5	24.2	40.3
학력	고졸이하	62.3	57.0	38.7	58.9	54.9
	전문대졸	7.1	12.2	12.8	9.1	10.1
	4년제 대학 이상	30.6	30.8	48.5	32.1	35.0
직업	단순노무직	11.0	7.7	5.2	9.0	8.3
	숙련기능직	15.1	14.5	9.9	9.2	12.7
	서비스판매직	26.7	21.1	17.2	24.2	22.3
	사무직	26.3	39.7	48.3	36.7	37.3
	준전문직	13.7	11.8	14.2	15.5	13.6
	관리전문직	7.2	5.3	5.1	5.4	5.8
주관적 계층	하층	12.3	11.0	10.2	6.9	10.3
	중하층	42.4	42.3	41.7	39.1	41.5
	중상층	36.7	40.3	40.4	41.2	39.5
	상층	8.5	6.4	7.7	12.8	8.8

주: 사례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값이며, 나머지 변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사회이동 및 공정성 인식 관련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문항	조작적 정의	
사회이동 관련 인식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점(100점 환산)		0~100점
공정성 인식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기회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0점)~ 매우 불평등하다(4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
		취업 기회	
		승진·승급기회	
		법의 집행	
		여성에 대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대우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소득분배	
		부(재산) 분배	
		지역 간 발전 수준	
총점(100점 환산)		0~100점	
불공정 해소 방식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0~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 인식)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총점(100점 환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조사표.

첫째, 사회이동 인식 관련 변수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10점 척도이다. 최종적인 사회이동 인식 변수는 4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며 사회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부모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공정성 인식 문항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승진 및 승급기회, 법의 집행,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소득과 부의 분배, 지역 간 발전 수준에 있어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불평등하지 않다’를 0점, ‘매우 불평등하다’를 4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공정성 인식 문항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가 불공정 혹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불공정 해소 대책에 대한 인식 문항은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하위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각 하위 항목은 0~10점 척도이며, 총점은 7개 항목의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 해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세대 간 이동의 절대적·상대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통한 이동률표와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t analysis)을 통한 오즈비 산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차 분석표는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교차 분석표이다. 교차 분석표에서 대각선은 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가 동일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immobility)을 의미하며, 대각선의 왼쪽 하단은 상향 이동을, 오른쪽 상단은 하향 이동을 의미한다. 한편, 다항로짓분석 결과의 오즈비(odds ratios)는 부모와 자신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순 구조적 변화, 즉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식이 특정 사회·경제적 지위로 귀착될 상대적 기회를 나타낸다.⁵⁾

제3절 세대 간 이동의 실재

1. 출생 코호트별 객관적 계층 이동 실태

가. 학력

먼저, 아래 <표 2-4>와 <표 2-5>는 각각 출생 코호트별로 아버지(origin)와 아들(destination)의 학력에 대해 교차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버지와 본인 모두 고학력자, 즉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서 본인도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69.9%로, 아버지는 중졸 이하이면서 본인은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 24.8%에 비해 45.1%p 더 높게 나타났다. 출생 코호트별로 볼 때,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의 경우 고학력자 아버지를 둔 자녀 중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각각 61.0%, 67.7%, 77.7%로 중졸 이하 저학력자 아버지를 둔 자녀의 4년제 대학교 이상 학력을

5) 사회이동 분석 방법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여유진 외(2015), 계봉오·황선재(2016) 등을 참조하기 바람.

4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가진 사람의 비율(각각 23.1%, 22.3%, 33.3%)에 비해 각각 37.9%p, 45.4%p, 44.4%p 더 높았다.

〈표 2-4〉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 간 이동률표

(단위: %)

구분	구분		아버지 학력			계	Pearson's chi2 test
	세대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본인 학력	전체	고졸 이하	64.9	45.8	22.1	52.0	Pr=0.000
		전문대졸	10.2	12.7	8.0	10.7	
		4년제 이상	24.8	41.5	69.9	37.4	
	민주화 세대	고졸 이하	69.4	54.4	33.5	61.1	Pr=0.000
		전문대졸	7.5	7.8	5.5	7.3	
		4년제 이상	23.1	37.8	61.0	31.6	
	X세대	고졸 이하	66.6	49.3	21.3	55.3	Pr=0.000
		전문대졸	11.1	15.3	11.0	12.4	
		4년제 이상	22.3	35.4	67.7	32.2	
	IMF 세대	고졸 이하	51.7	37.3	14.2	36.9	Pr=0.000
		전문대졸	15.0	13.6	8.1	12.8	
		4년제 이상	33.3	49.1	77.7	50.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스마트세대의 경우 연령상 대학 재학 중인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 단계 아래의 학력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고졸로 응답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편의가 있을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표 2-5〉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들 학력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구분	본인학력 (base=고졸 이하)	아버지학력 (base=중졸 이하)	전체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로그 오즈	전문대졸	고졸	0.566***	0.289	0.616***	0.233
		대학 이상	0.834***	0.425	1.131***	0.674*
		상수	-1.848***	-2.231***	-1.790***	-1.241***
	4년제 이상	고졸	0.862***	0.735***	0.763***	0.714***
		대학 이상	2.112***	1.700***	2.252***	2.137***
		상수	-0.961***	-1.101***	-1.093***	-0.440***
오즈비	전문대졸	고졸	1.762	1.335	1.852	1.262
		대학 이상	2.303	1.530	3.098	1.963
	4년제 이상	고졸	2.368	2.086	2.144	2.042
		대학 이상	8.269	5.474	9.507	8.475
N			4,102	1,416	1,316	1,370
chi2			435.3	107.5	125.6	139.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표 2-5>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즈비 산출 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아버지를 둔 아들이 고졸 이하 저학력 대신 4년제 이상의 고학력을 가질 확률은 저학력 아버지를 둔 아들이 고졸 이하 저학력 대신 4년제 이상 고학력을 획득할 확률에 비해 8.27배 더 높았다. 세대별로 볼 때 이는 민주화세대에 비해 X세대와 IMF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즉, 민주화세대에서 그 확률은 약 5.5배였지만, X세대와 IMF세대에서는 각각 9.5배와 8.5배로 높아졌다. 특히, 민주화세대와 X세대까지만 해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 아버지를 둔 자녀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IMF세대에 들어 고학력 아버지의 비율이 크게 늘면서⁶⁾, 세대 간 학력 전승의 가시적 효과 역시 실제로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직업의 세대 간 이동 실태

다음으로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간의 전승 실태를 행렬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직업군의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직업 전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0.5%로 전체 평균인 7.6%에 비해 2.9%p 더 높았다. 사무직 아버지를 둔 자식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4.5%로 전체 평균(38.3%)에 비해 16.2%p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1.1%로, 아버지가 다른 직종에 종사한 자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 코호트별로 보면, 민주화세대에서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자녀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8.5%로 전체 평균 7.1%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X세대 역시 그 비율은 15.8%로 전체 평균(5.3%)에 비해 3배 정도 높았으며, IMF세대에서는 19.7%로 전체 평균(5.5%)로 3.6배 정도 높았다. 이와 같이, 제한된 ‘좋은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진 아버지’를 둔 자녀가 역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행렬표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최근세대로 올수록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는 징후를 확인하기는 어

6) 본 조사의 응답자 중 고학력 아버지를 둔 비율은 민주화 세대 14.1%, X세대 12.6%였으나, IMF세대로 오면 23.5%로 크게 늘어난다.

려웠다. 오히려 상대적인 배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민주화세대였다.

〈표 2-6〉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간 이동률표

(단위: %)

구분			아버지 직업						Pierson's chi2 test	
	세대	직업	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준전문직	관리전문직		계
본인 직업	전체	단순노무직	10.5	6.9	7.1	4.9	6.7	4.4	7.6	Pr=000
		숙련기능직	17.0	18.8	8.5	6.0	10.7	5.2	12.9	
		서비스판매직	22.4	21.8	26.9	15.8	19.1	15.2	21.8	
		사무직	33.3	37.0	38.0	54.5	37.5	41.2	38.3	
		준전문직	11.9	11.4	14.7	12.9	22.0	12.9	13.4	
		관리전문직	4.9	4.0	4.9	5.9	4.1	21.1	6.0	
	민주화세대	단순노무직	11.7	13.8	7.5	6.5	14.3	4.9	10.5	Pr=000
		숙련기능직	18.5	19.0	9.7	9.1	15.7	6.6	15.0	
		서비스판매직	27.2	22.7	35.3	20.9	25.6	23.4	27.3	
		사무직	23.8	28.5	30.5	37.6	24.3	18.3	26.7	
		준전문직	13.1	11.7	12.8	14.2	15.7	18.3	13.5	
		관리전문직	5.6	4.4	4.3	11.7	4.3	28.5	7.1	
	X세대	단순노무직	10.0	4.9	8.3	5.3	2.7	6.2	7.2	Pr=000
		숙련기능직	20.6	18.7	7.9	6.4	11.3	3.2	13.8	
		서비스판매직	19.7	24.9	23.7	19.1	20.2	14.2	21.4	
		사무직	34.9	37.7	40.1	56.7	35.1	51.4	40.1	
		준전문직	9.9	10.4	15.1	9.3	24.7	9.3	12.3	
		관리전문직	5.0	3.5	4.9	3.2	5.9	15.8	5.3	
	IMF세대	단순노무직	8.5	4.3	5.5	3.6	3.2	2.3	5.1	Pr=000
		숙련기능직	8.5	18.8	8.0	3.6	5.5	5.8	9.6	
서비스판매직		16.6	18.0	22.7	9.9	12.1	9.4	16.4		
사무직		50.6	42.3	42.5	63.8	51.6	51.2	48.7		
준전문직		12.4	12.4	16.0	14.9	25.4	11.6	14.7		
관리전문직		3.3	4.3	5.4	4.3	2.2	19.7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스마트세대의 경우 대학재학 중인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이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성격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하지만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들 직업의 로그 오즈와 오즈비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주목할 만한 지점이 포착된다. 모든 세대에서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관리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은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관리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우 높았다. 하지만 그 승수는 민주화세대에서 약 12배였던 것이 X세대로 오면 5.1배로 크게 낮아졌다가 IMF세대로 오면서 21.6배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아직 노동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완성되지 않은 스마트세대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표 2-7〉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들 직업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본인직업 (base= 단순 노무직)	아버지직업 (base= 단순노무직)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로그 오즈	오즈비	로그 오즈	오즈비	로그 오즈	오즈비
숙련 기능직	숙련기능직	-0.136	0.873	0.628	1.874	1.485**	4.417
	서비스판매직	-0.204	0.815	-0.765	0.465	0.382	1.466
	사무직	-0.109	0.897	-0.539	0.583	0.010	1.010
	준전문직	-0.363	0.695	0.710	2.034	0.530	1.699
	관리전문직	-0.162	0.850	-1.372	0.254	0.906	2.475
서비스 판매직	숙련기능직	-0.346	0.708	0.961*	2.615	0.777	2.174
	서비스판매직	0.705*	2.023	0.376	1.457	0.758	2.135
	사무직	0.333	1.395	0.602	1.826	0.359	1.431
	준전문직	-0.260	0.771	1.334	3.796	0.656	1.928
	관리전문직	0.716	2.046	0.160	1.173	0.728	2.071
사무직	숙련기능직	0.015	1.016	0.798*	2.221	0.516	1.675
	서비스판매직	0.694*	2.002	0.327	1.387	0.273	1.314
	사무직	1.053*	2.867	1.116*	3.052	1.108*	3.028
	준전문직	-0.180	0.835	1.312	3.712	0.994	2.701
	관리전문직	0.605	1.831	0.873	2.394	1.312	3.715
준전문직	숙련기능직	-0.280	0.756	0.773	2.166	0.694	2.003
	서비스판매직	0.423	1.527	0.615	1.850	0.700	2.014
	사무직	0.680	1.974	0.576	1.779	1.059	2.884
	준전문직	-0.018	0.983	2.224**	9.245	1.689*	5.412
	관리전문직	1.203	3.330	0.431	1.538	1.231	3.425
관리 전문직	숙련기능직	-0.409	0.664	0.359	1.431	0.945	2.574
	서비스판매직	0.174	1.190	0.158	1.171	0.933	2.543
	사무직	1.332*	3.788	0.178	1.194	1.129	3.091
	준전문직	-0.462	0.630	1.469	4.343	0.549	1.732
	관리전문직	2.491***	12.079	1.631*	5.108	3.075***	21.642
N		905		939		1,001	
chi2		70.0		71.1		94.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출생 코호트별 주관적 계층 이동 실태

앞서 학력과 직업의 세대 간 전승이 객관적인 실태 측면에서의 사회이동 현황을 보여준다면, 15세 무렵의 계층과 현재 계층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극히 빈한함에도 불구하고 상층이라고 응답하거나 고급 아파트에 외제차를 몰면서도 하층이라고 응답하는 극단적 사례를 배제한다면 계층 인식은 자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태 인식’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은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는 앞서 분석한 학력과 직업 이동에 비해 훨씬 더 극적이다.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사람의 경우 현재 상태 역시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에 비해 3배에서 4배가량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부모 세대가 하층이면서 본인 세대 역시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전체 평균 10.3%에 비해 3.2배 더 높았다.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⁷⁾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7.2%, 32.3%, 40.1%, 35.7%(37.2%)로 평균에 비해 각각 2.2배, 2.9배, 3.9배, 3.9배(5.4배) 더 높은 수치였다. 반면, 15세 무렵 자신의 계층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현재도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6.4%에 달했으며 이는 평균에 비해 4.1배 높은 수치였다.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3.3%, 23.2%, 35.6%, 51.7%(60.5%)로 평균에 비해 각각 2.9배, 3.6배, 4.7배, 4.8배(4.7배) 더 높은 수치였다. 학력과 직업 이동 행렬표의 결과와는 달리 주관적 계층 이동 행렬표 분석 결과는 최근세대로 올수록 계층의 대물림과 고착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 오즈와 오즈비 분석 결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로그 오즈값은 몇 개 값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5세 무렵 상층이던 사람이 현재 하층이 아닌 상층일 확률은 15세 무렵 하층이던 사람이 현재 하층이 아닌 상층으로 계층 상승할 확률에 비해 1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 세대 36배, X세대 69배, IMF세대 176배, 스마트세

7)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괄호 안은 스마트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대 158배로 대체로 최근세대에서 극히 그 차이가 커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는 IMF세대에서 두드러지는데 모든 계층 상승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세대에서 하층이던 사람이 계층 상승할 가능성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낮았다.

〈표 2-8〉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단위: %)

구분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						Pierson's chi2 test	
	세대	주관적 계층	하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		계
현재 주관적 계층	전체	하층	33.0	7.2	4.6	6.5	10.3	Pr=0.000
		중하층	53.9	56.3	27.5	19.6	41.5	
		중상층	11.5	33.2	58.9	37.5	39.5	
		상층	1.5	3.3	9.0	36.4	8.8	
	민주화 세대	하층	27.2	9.4	8.2	10.3	12.3	Pr=0.000
		중하층	51.2	48.9	34.2	30.3	42.4	
		중상층	19.9	35.9	47.2	36.1	36.7	
		상층	1.7	5.8	10.3	23.3	8.5	
	X세대	하층	32.3	7.1	4.9	7.1	11.0	Pr=0.000
		중하층	53.6	50.7	31.7	18.5	42.3	
		중상층	12.6	39.0	54.7	51.2	40.3	
		상층	1.5	3.2	8.7	23.2	6.4	
	IMF 세대	하층	40.1	6.5	4.1	5.5	10.2	Pr=0.000
		중하층	55.5	62.0	25.3	15.3	41.7	
		중상층	2.9	29.7	63.2	43.6	40.4	
		상층	1.5	1.7	7.4	35.6	7.7	
	스마트 세대	하층	37.2	4.7	1.1	3.0	6.9	Pr=0.000
		중하층	57.9	69.1	19.0	12.3	39.1	
		중상층	3.8	24.8	70.4	24.2	41.2	
		상층	1.1	1.4	9.5	60.5	12.8	
스마트 세대 ¹⁾	하층	35.7	7.7	1.9	5.4	9.2	Pr=0.000	
	중하층	55.8	63.0	21.7	12.5	39.5		
	중상층	6.8	25.8	70.0	30.5	40.5		
	상층	1.7	3.5	6.3	51.7	10.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스마트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계층과 동일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따로 분석한 결과임. 사례수는 310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표 2-9〉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에 따른 현재 주관적 계층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구분	본인계층 (base=하층)	아버지계층 (base=하층)	전체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¹⁾
로그 오즈	중하층	중하층	1.568***	1.015***	1.464***	1.928***	1.551**
		중상층	1.301***	0.795***	1.360***	1.491***	2.096**
		상층	0.606**	0.450	0.451	0.697	0.709
		상수	0.490***	0.631***	0.505***	0.324*	0.548
	중상층	중하층	2.583***	1.651***	2.652***	4.151***	2.824***
		중상층	3.606***	2.062***	3.355***	5.365***	5.312***
		상층	2.798***	1.572***	2.922***	4.704***	3.481***
		상수	-1.052***	-0.313	-0.946***	-2.634***	-1.605*
	상층	중하층	2.305***	2.268***	2.239***	1.969**	1.312
		중상층	3.761***	2.976***	3.618***	3.882***	4.218**
		상층	4.797***	3.571***	4.229***	5.171***	5.064***
		상수	-3.083***	-2.750***	-3.045***	-3.302***	-2.711**
오즈 비	중하층	중하층	4.799	2.759	4.323	6.875	4.714
		중상층	3.672	2.214	3.894	4.443	8.136
		상층	1.833	1.568	1.570	2.008	2.032
	중상층	중하층	13.233	5.210	14.181	63.509	16.839
		중상층	36.807	7.859	28.654	213.877	202.741
		상층	16.413	4.815	18.575	110.399	32.500
	상층	중하층	10.023	9.661	9.384	7.163	3.713
		중상층	42.997	19.615	37.281	48.526	67.879
		상층	121.166	35.543	68.637	176.078	158.153
N			6,022	1,617	1,450	1,453	310
chi2			1,535	172	268	458	125

주: 1) * p<0.05, ** p<0.01, *** p<0.001

2) 스마트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계층과 동일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따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3. 학력 및 직업 이동과 주관적 계층 이동 간의 차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대 간 객관적인 계층 이동, 즉 학력과 직업 이동의 경우 특히 상층에서의 대물림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아들 간 고학력과 관리전문직의 전승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간 전승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IMF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관

리전문직의 세대 간 이전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스마트세대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의 세대 간 이전은 수치상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근세대로 올수록 그 경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층과 상층의 세대 간 고착은 심각한 수준-실재든 인식이든 간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상관관계를 산출한 <표 2-10>에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학력과 직업의 세대 간 전승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일관성을 찾기도 힘들다. 하지만 아버지 세대와 본인 세대 간 계층(10점 척도)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0.45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세대로 올수록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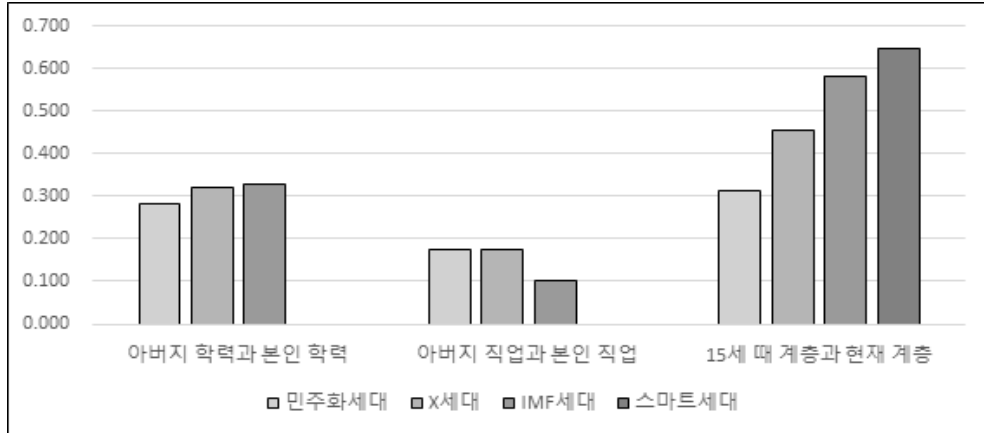
하지만 계층의 세대 간 대물림이 최근세대로 올수록 더욱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세대로 올수록 15세 무렵과 현재 간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계층 변화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덜 뚜렷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세대의 경우 현재 20대이기 때문에 15세와 현재 간격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5년이다. 물론 이 사이에 결정적인 계층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40대나 50대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40~50대에 비해 20~30대의 경우 아직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는 최근세대와 이전 세대 간 실증 비교 연구의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다.

<표 2-10>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구분	전체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	0.246	0.282	0.320	0.327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0.152	0.176	0.177	0.103	
15세 때 계층과 현재 계층	0.450	0.313	0.453	0.580	0.6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2-1]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4절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 직업의 고착화는 특히 계층 사다리의 위쪽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상층에서의 세대 간 전승이 최근세대로 올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거나 적어도 예단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주관적 계층 인식에 있어서의 세대 간 대물림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근세대로 올수록 더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관 외(2020)는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와 일반인의 인식 간의 괴리에 대해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중 최근 기회 불평등과 공정성 담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출생 코호트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직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사회 전반의 불공평, 불공정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점⁸⁾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1990년대생(스마트세대)을 포함한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과 공정성

8) 물론 이러한 주장이 최근세대로 올수록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계층 이동이 예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화가 심화된다는 '착시'를 일으킨다는 주장과 동일한 주장은 아니다. 그들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 시점에서의 코호트별 불공정 인식 차이 비교와 함께, 과거와 현재의 공정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종단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만 실재와 인식 간 괴리에 대한 느슨한 단서(clue)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사회이동의 실재와 인식 간의 괴리 원인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이동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먼저, <표 2-11>은 소득 불평등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의 출생 코호트별 평균 점수(0~10점)를 산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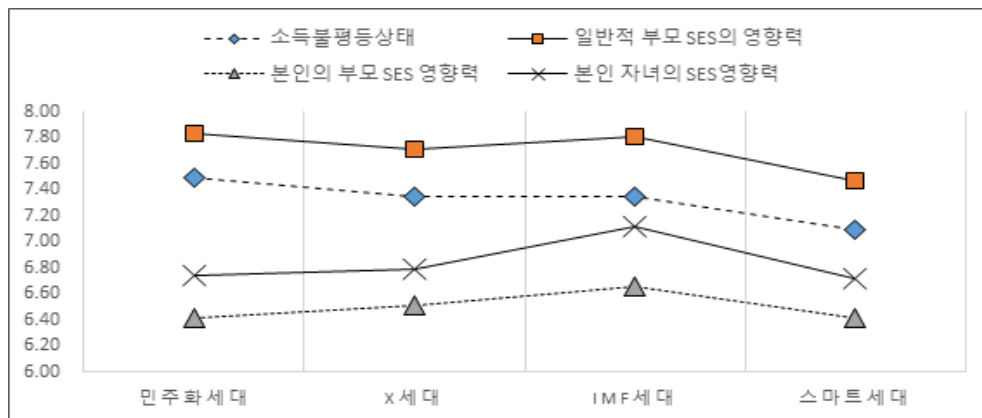
<표 2-11>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F값	유의도(P/F)	전체
소득불평등상태	7.49	7.35	7.35	7.10	12.75	***	7.33
일반적 부모 SES의 영향력	7.84	7.71	7.80	7.46	12.82	***	7.71
본인의 부모 SES 영향력	6.42	6.52	6.66	6.42	3.19	*	6.50
본인 자녀의 SES 영향력	6.75	6.79	7.11	6.71	10.24	***	6.83
사회이동인식 점수	71.24	70.92	72.32	69.23	9.24	***	70.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2-2]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10점 만점에 7.7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7.3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생 코호트별 점수를 살펴보면, 민주화세대에서 불평등과 부모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세대에서 가장 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본인과 부모, 자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전승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IMF세대가 자기 부모로부터의 영향이나 자식으로의 영향을 각각 6.66점과 7.11점으로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화세대는 앞서 현재의 불평등 상태나 일반적인 부모 영향력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이나 자신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스마트세대는 의외로 본인과 부모, 자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나. 불공정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표 2-12>는 다차원적 불공정 또는 불평등 영역별 인식을 출생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지역 간 발전 수준(2.89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법의 집행(2.83점), 부의 분배(2.81점), 소득 분배(2.74점)가 잇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혹은 덜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영역은 교육 기회(1.99점), 여성에 대한 대우(2.31점), 취업 기회(2.43점) 등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상당히 높게 평등한 것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기회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잘 보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채롭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 기회나 취업 기회는 어느 정도 공정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재산과 소득으로 대변되는 부모 경제력의 불평등이 출발선의 차이로 작용하고 그 결과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2-12〉 불공정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구분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F값	유의도 (P>F)	전체
교육 기회	1.92	1.98	2.06	2.02	4.94	***	1.99
취업 기회	2.43	2.42	2.46	2.43	0.49		2.43
승진·승급기회	2.53	2.54	2.56	2.55	0.40		2.54
법의 집행	2.86	2.79	2.83	2.84	1.55		2.83
여성에 대한 대우	2.37	2.33	2.28	2.22	6.42	***	2.31
장애인에 대한 대우	2.65	2.73	2.78	2.61	9.60	***	2.69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2.63	2.64	2.57	2.43	14.28	***	2.57
소득분배	2.82	2.78	2.76	2.58	20.66	***	2.74
부(재산)분배	2.86	2.86	2.84	2.66	16.59	***	2.81
지역 간 발전 수준	2.88	2.91	2.93	2.84	3.20	*	2.89
불공정인식 점수	69.49	69.96	70.52	68.16	4.90	***	69.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이러한 해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민주화세대와 X세대에 비해 기회의 불공정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민주화세대와 X세대는 IMF세대와 스마트세대에 비해 결과의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 대우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과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자면, 이전 세대는 결과적, 실질적 불평등을, 현 세대는 절차적, 형식적 불공정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불공정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가장 선호되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7.94점)이었으며, 다음으로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7.85점),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7.85점)의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6.48점),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7.19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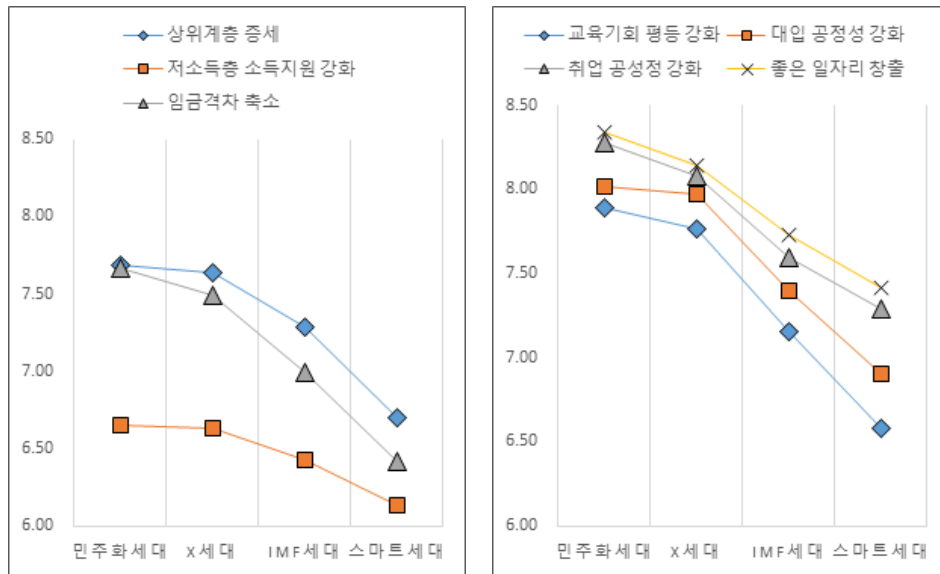
〈표 2-1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F값	유의도 (P)F)	전체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7.68	7.64	7.29	6.70	52.78	***	7.36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6.65	6.63	6.43	6.13	15.02	***	6.48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7.67	7.49	7.00	6.41	92.51	***	7.19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7.89	7.76	7.15	6.58	110.61	***	7.39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8.02	7.97	7.40	6.91	91.68	***	7.62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8.28	8.08	7.59	7.29	72.69	***	7.85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8.34	8.15	7.73	7.42	65.12	***	7.94
불공정 해소방안 관련 인식 점수	77.89	76.75	72.26	67.77	109.14	***	74.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그림 2-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대체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보다는 기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과 연결하여 볼 때 역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더 심각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공정 해소 대책에서는 기회 공정성 제고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이동 인식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결과의 불평등이 '출발선상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결과 불평등의 시정에 상대적으로 '덜 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역설적이라 할 만하다. 우리 사회는 결과의 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향후 기회 공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불공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 견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절차와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불공정 해소에 대한 점수가 전반적으로 최근세대로 올수록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점수는 민주화 세대가 가장 높고 스마트세대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매우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 결과 총점에서 민주화세대(77.89점)와 스마트세대(67.77점) 간에는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난다. 세대 연구에서의 세 가지 효과, 즉 연령효과, 세대효과, 시점효과 중 연령효과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평등(공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최근세대로 올수록 이를 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에 있어 연령효과에 비해 세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민주화세대는 그 세대명에서도 할 수 있듯이 87년 민주항쟁 이후 세대로서 사회 진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세대였다. 세계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퇴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결과를 통시적으로 비교한 오세제(2015)의 연구에서도 386세대의 진보적 세대효과는 내면화되어 잠복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념 대립이 강조된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

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X세대는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산업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기에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풍요와 자유를 향유한 세대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 역시 ‘진보적 학습’의 기회를 어느 정도 공유한 세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사교육 열풍 속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IMF세대와, 정치적 보수주의와 고교 서열화 시기에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스마트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경험과 교육을 체화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대에게 공정이란 사회가 정하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게임의 결과로 인한 박탈과 불평등은 각자가 받아들여야 할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⁹⁾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출생 코호트를 민주화세대(60~70년생), X세대(71~80년생), IMF세대(81~90년생), 스마트세대(91~00년생)¹⁰⁾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코호트별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의 세대 간 이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만 스마트세대의 경우 학력과 직업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 불공정(불평등), 불공정 시정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학력과 교육에서의 세대 간 이동에서 출생 코호트별 명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정인관 외(2020), 여유진(2019), 계봉오, 황선재(2016) 등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층에서의 학력과 직업 대물림이 다른 계층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계층 대물림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

9) ‘각자 도생’,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금수저 흙수저’ 등의 자조 섞인 유행어들은 현재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개개인의 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10) 스마트세대는 2020년 현재 시점에 만 20~29세로 아직 학업 중인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 문항에서 교육수준 항목은 재학 중인 경우 한 단계 아래 학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들 세대 응답자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인 직업을 가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세대 간 학력과 직업 이동 분석에서는 스마트세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미흡했다. 이는 여유진(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비해 주관적 계층의 세대 간 전승은 모든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현 세대로 올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계층 대물림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지, 세대 간 주관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연구 방법론상의 한계, 즉 최근세대일수록 부모 세대로부터 분리된 시간적 간격이 좁아서 나타난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좀 더 엄밀한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객관적 지표로서 학력과 직업이 계층과 계급의 대리지표로 얼마나 타당도 높은 지표인지에 대한 논증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 이수자가 70~80%에 달하는 경우 고등교육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리 지표로서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계층 차이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객관적' 계층 지표보다 '주관적' 계층 지표가 현실을 더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 이 또한 향후 사회이동 연구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고조됨으로써 사회이동의 객관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계층 대물림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통념이 팽배한 것일까? 이는 시점 효과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종단 비교 연구가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연구 한계로 전제하면서 세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세대는 현실의 불평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의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의 불공정 문제를 다른 세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세대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불공정을 해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을 더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세대와 극히 대조를 이루는 세대는 스마트세대로 이들 세대는 세 개의 영역, 즉 사회이동, 불공정과 불평등 수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서 대체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특히 불공정 해소에 대해서는 민주화세대에 비해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X세대와 IMF세대의 경우 대체로 민주화세대와 스마트세대의 중간 정도의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IMF세대의 경우 본인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과 본인의 자녀에게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친(혹은 미칠) 영향력을 네 개 세대 중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한 모든 세대에 걸쳐 현재 부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수준이 기회 불평등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불공정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입시, 채용의 공정성 강화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회 불평등 해소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이동 현실과 인식 간 괴리에 어떠한 함의를 던지고 있는가? 우선 모든 세대에 걸쳐 현재의 불평등과 계층 대물림(부모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민주화세대는 일반적인 불평등과 계층대물림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는 대신 본인 세대는 부모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세대라는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과외금지, 평준화세대이면서 고도 경제성장기를 관통해 온 민주화세대는 전반적인 물질적 향상을 경험했으며 상대적으로 공정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세대라는 자기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민주화 운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외환위기로 인해 이러한 풍요와 평등의 분위기는 일시에 반전되었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이후에도 확대되었지만 서열화는 심화되었다. IMF세대는 사교육 자유화와 교육 서열화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좌절을 일찌감치 경험한 세대이다. 교육 투자의 차이가 줄세우기식 교육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로 이어졌다. 좋은 일자리로의 입직구는 좁아졌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계층 간 균열과 갈등도 심해졌다. 현재 30대인 이들이 20대 중반~30대 중반이던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중반에 ‘88만원 세대’¹¹⁾ ‘삼포세대’(2011년)¹²⁾, 수저계급론(‘금수저·흙수저’) 담론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결국, 민주화세대는 본인 세대보다 현재 세대에 계층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IMF세대는 본인 세대가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머지 세대는 그 중간이다.)

11) 우석훈, 박권일 두 사람의 저작 『88만원 세대』에서 기원한 용어로 “취업에 성공하고서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인 당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12) 2011년 경향신문 특별기획 <복지국가를 말한다: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에서 제기된 용어로, 졸업해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자신감을 잃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유정인·박은하, 2011.5.11.)

그 함은 현재가 과거보다 계층 대물림이 심화되었다는 합치된 인식이다.

문제는 실재가 그러하든 아니든 간에 최근세대로 올수록 계층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 대체적인 인식의 공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이며 현 세대로 올수록 소극적이라는 데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취업, 대학입시, 교육기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 등을 불공정 해소 방안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사실 국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정책은 현재 좋지 않은 일자리를 인식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학입시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혁하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교육 투자의 극심한 차이와 학교 서열화를 그대로 두고 대학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마른 눈에 물대기’에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통합 차원에서 보면 승자와 패자가 명백히 갈리거나 승자가 뿔을 독식하는 게임에서 ‘물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는 자명하다. 다함께 협력하고 다함께 즐기는 게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영역에서는 중요하다.



제3장

세대 간 주거자산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주거자산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제4절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

제5절 소결

제 3 장 세대 간 주거자산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최근 몇 년 간 우리사회에는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난 6개년 간의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 내 계층 이동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응답(약간 낮다+매우 낮다)이 2015년 46.9%에서 2019년 49.4%로 증가하였고, 세대 간 계층이동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응답(약간 낮아질 것이다+매우 낮아질 것이다) 역시 2015년 32.5%에서 3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유진 외, 2015; 김문길 외, 2019).

이러한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소득 및 자산,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모의 업적에 기대어 진학 및 취업 등이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인식의 확산은 사회이동성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록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12년(0.385)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0.355)과 2017년(0.354) 정체를 지나, 2018년(0.345), 2019년(0.339)로 다시 감소(통계청, 국가지표체계¹⁾) 추세를 있다 하더라도, OECD 국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불평등 상황 역시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OECD, 2020b²⁾).

그런데 최근 불평등 측면에서 소득보다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산이다. 그 이유는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으며,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부모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축적될 수 있고, 자산을 보유한

1)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5#quick_02에서 2020. 11. 18. 인출

2) 동 보고서에서 세후 지니계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독일, 리투아니아, 미국, 터키, 멕시코, 칠레로 보고되고 있다.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산이 소득에 비해 경제적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산은 2017년 기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고,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전병유, 2019, p. 50). 국제 비교 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산불평등 수준은 낮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대표적 실물자산이 주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주택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그 수준만을 비교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윤덕룡 외, 2019, p. 26).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더욱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질 것임이 자명하다.

자산의 불평등은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정해식 등(2019b)의 연구에서는 40세 미만 가구들의 상속·증여 경험에 따른 가구의 총자산 분포를 분석했을 때, 2007년부터 상속·증여를 경험한 가구들의 총자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의 결혼이나 분가 시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형태로 자산 증여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는데,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신혼가구의 주택자금 마련 원천이 '부모·친인척 상속'인 경우가 7.0%, '부부자금 및 부모·친인척 상속'인 경우가 13.8%로, 총 20.8%가 부모·친인척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5).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자산 이전은 세대 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모세대의 계층이 자녀세대로 대물림되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계층 이동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주거자산 이전과 그에 따른 주거 여건의 격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주거자산의 이전 경험과 주거 여건의 격차가 사회이동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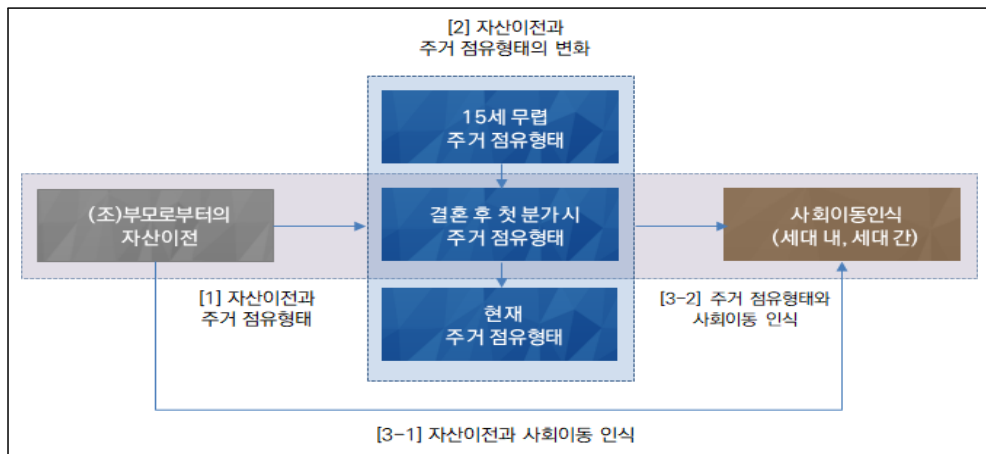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다음 3가지의 연구문제를 통해 세대 간 주거자산의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여부가 자녀 세대의 주거 여건의 격차, 즉 점유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는 시점 또는 결혼 후 첫 분가한 시점의 주거자산 이전과 점유형태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이 자녀세대 내의 주거 이동과 세대 간 주거여건의 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첫 분가 시 점유형태와 현 점유형태, 15세 무렵의 점유형태와 현 점유형태를 비교하고, 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이 점유형태의 변화 양상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산이전과 세대 내, 세대 간 주거 이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과 그러한 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점유형태가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사회이동 인식에 자산 이전 경험 여부와 주거 여건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고자 한다.

[그림 3-1] 분석 모형



이장의 분석에서는 분가하여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개인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총 6,022명 중 미혼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개의 가구를 구성하였거나, 결혼을 통해 부모 가구에서 분가한 총 4,22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기혼인 사람은 전체의 78.1%이며, 연령이 낮은 최근 세대일수록 기혼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의 혼인 비율은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3-1〉 분석 대상 가구

(단위: 명, %)

구분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세대	전체
연령	61~70년생	71~80년생	81~90년생	91~00년생	6,022
전체	1,534	1,474	1,463	1,551	
부모와 동거	154	204	380	1,063	1,801
분가	1,380	1,270	1,083	488	4,221
기혼	94.3	88.4	71.6	20.3	78.1
미혼	5.7	11.7	28.4	79.7	21.9

주: 1) 사례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값임.

2) 기혼에는 결혼, 이혼, 별거, 사별이 포함되며, 미혼의 분가가구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구로서 학교를 다니기 위한 주거분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세대는 민주화세대(61~70년생), X세대(71~80년생), IMF세대(81~90년생), 스마트세대(91~00년생)로 구분하여 세대별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등 주택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세대별 비교를 통해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편,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한 것은 10세 간격으로 2020년 기준 50대, 40대, 30대, 20대를 나타내며, 본 연구 제2장의 세대구분을 차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산이전은 첫 분가 시 부모로부터 주택구입 비용 마련의 도움 여부와 이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상속 및 증여 경험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 주택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는 현재의 점유형태, 첫 분가 시 점유형태, 그리고 본인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를 통해 점유형태의 세대별 격차 및 세대 내, 세대 간 주거이동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인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계층상승

가능성의 인식,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그리고 계층 이동 경험 인식이 그것이다. 먼저 계층상승 가능성의 인식은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을 통해 살펴보고, 계층 결정에 대한 영향력 인식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 이동 경험 인식은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가 40세 즈음(될 무렵)에 귀하는 어디에 속하셨다고(속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의 비교를 통해 계층이동 경험 인식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주요 변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항목
세대	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 세대	민주화세대(61~70년생), X세대(71~80년생) IMF세대(81~90년생) 스마트 세대(91~20년생)
자산 이전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 마련 시 부모의 도움이 있는 경우	
	총 자산 이전	첫 분가 시 자산이전을 포함한 상속, 증여 등을 경험한 경우	
점유 형태	현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	- 자가 - 전세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독립 또는 결혼으로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 월세(보증부 월세) - 기타(비가구원 가족 명의로 주택 및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부모세대 주택의 점유형태	본인이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	
사회 이동 인식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세대 내)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약간 낮다 ④ 매우 낮다
		(세대 간)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영향 받지 않음 ~ ⑩ 완전히 영향 받음
계층 이동 경험 인식 (부모-본인 계층 차이)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하 ~ ⑩ 최상
	귀하가 40세 즈음(될 무렵)에 귀하는 어디에 속하셨다고(속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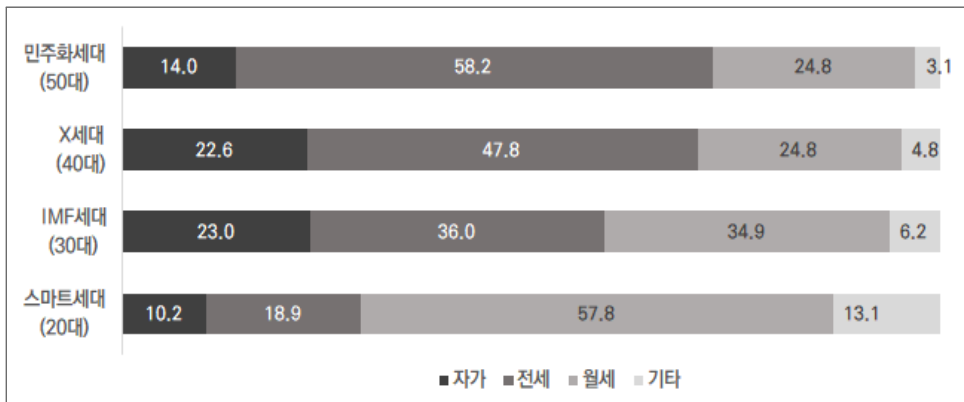
제3절 주거자산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1.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아래 그림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20~59세)이 직장 등의 이유로 처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단독 거주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부모 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생성할 때의 첫 주택의 점유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세대와 X세대, 그리고 IMF세대에서 첫 주택 점유형태는 전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각각 58.2%, 47.8%, 36.0%), 스마트세대는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율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세대의 월세 비중이 높은 것은 미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세대의 경우 결혼한 사람은 전체의 20.3%로 나타나는데, 기혼자만을 분석해보면 자가 25.2%, 전세 35.3%, 월세 34.6%, 기타 5.0%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하여 분가한 경우 전세가구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세대의 결혼 여부를 감안하더라도, IMF세대와 스마트세대의 첫 주택 점유형태의 월세 비중이 민주화세대와 X세대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의 청년들의 첫 분가 시 주거 여건이 이전 세대보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2]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에서 첫 분가 시 주택마련 비용 중 (조)부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지원금 비중은 첫 주택가격(보증금)의 평균 약 20.1%로 나타났다. 민주화세대는 19.7%, X세대는 20.0%, IMF세대는 18.7%, 스마트세대는 25.4%로 나타났다. 스마트세대의 경우, 첫 주택 점유형태에서 월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비용 중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금액의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대인 스마트세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주택구입 자금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한 자산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 스마트세대의 첫 분가 시점 평균 나이가(23세) 다른 세대의 분가 시점 나이(민주화 및 X세대 29세, IMF세대 28세)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세대의 첫 분가는 결혼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주택구입 자금 이전 또한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스마트세대의 부모로부터의 도움 비중은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보다 실제로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모아둔 돈의 비중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세대와 X세대는 주택구입 비용의 약 60% 내외의 비용을 자력으로 준비하였지만, IMF 세대는 49.5%로 낮아지고 스마트세대의 경우 41.2%로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 등의 대출 비중은 민주화세대는 18.3%로 낮았지만, X세대는 22.2%로 상승하고,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3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자력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하겠다.

〈표 3-3〉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보증금) 조달 비중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20~59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모아둔 돈	61.2	57.6	49.5	41.2	55.6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증여, 상속 등)	19.7	20.0	18.7	25.4	20.1
금융기관 대출, 부모 및 다른 가족에게 빌림	18.3	22.2	31.5	32.9	23.9

주: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의 조달 비용 비중의 평균값으로, 월세와 기타 점유형태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주거자산의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이전세대(조부모 또는 부모)의 도움은 첫 분가 주택 점유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주택마련을 위해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을 이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점유의 안정성이 높은 자가나 전세의 점유율이 높고 월세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이전을 받은 사람은 첫 주택의 점유형태가 기타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에서 독립 및 결혼 후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대의 경우 첫 분가 시 자산 이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가 점유 비율은 15.1%이고, 자산 이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가 점유 비율은 13.5%로 그 차이가 1.6%p로 크지 않으나, 민주화 세대 이후,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산 이전 유무에 따라 그 차이가 10%p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X세대 12.0%p에서 IMF세대는 16.3%p 그 차이가 더 증가했다가, 스마트세대는 14.0%p로 다소 그 차이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분가 시 부모로부터의 도움 여부가 첫 주택의 점유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고, 그것은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다만, 앞선 표에서도 보았듯이 스마트세대의 경우는 분석대상 중 기혼인 비율이 2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세 점유형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전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유무에 상관없이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이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4〉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과 첫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세대(20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자가	15.1	13.5	30.6	18.6	33.7	17.4	19.9	5.9
전세	70.1	52.8	57.0	43.1	46.4	30.5	22.7	17.2
월세	14.7	29.4	12.4	31.1	19.9	42.6	57.4	58.1
기타	0.0	4.4	0.0	7.2	0.0	9.4	0.0	18.9
χ^2	65.067***		109.0311***		105.6901***		45.7459***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한편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부모 세대로부터의 도움 여부에 따른 현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민주화세대를 제외한 세대에서 자산 이전에 따른 점유형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민주화세대에서는 첫 분가 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보다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축적이 현재의 점유형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X세대 이후의 세대에서는 모두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은 자가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X세대는 13.0%p, IMF세대는 12.4%p, 스마트세대는 12.9%p의 자가 점유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 분가 시 주택마련 자금 지원을 포함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상속 및 증여 여부에 따른 현 주택의 점유형태의 분포는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에 따른 현 주택의 점유형태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이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본 분석을 통해서도 연령효과인지(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본인의 자산축적의 효과), 코호트 효과인지(민주화세대만이 겪은 주택시장의 효과 등) 구별하기 어렵지만, 40대인 X세대까지는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이 현 주택의 점유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자산 이전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세대(20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첫 분가 시 주거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	자가	63.8	65.2	67.4	54.4	50.7	38.3	25.9	13.0
	전세	17.3	14.7	18.2	17.9	32.6	26.4	31.4	31.1
	월세	15.2	17.3	11.7	23.2	14.6	28.8	39.4	45.0
	기타	3.7	2.8	2.8	4.6	2.2	6.5	3.3	10.9
	χ^2	3.0547		32.4913***		38.0232***		16.5263***	
현재까지 총 자산 이전	자가	67.5	63.1	68.2	52.7	52.0	37.0	27.6	11.8
	전세	14.9	15.9	18.2	17.8	31.6	26.7	32.1	30.7
	월세	14.2	18.1	10.7	24.9	13.4	30.1	35.9	46.8
	기타	3.5	2.9	3.0	4.7	3.0	6.2	4.4	10.6
	χ^2	4.8174		50.327***		45.4451***		21.5278***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3. 자산의 이전과 세대 내 점유형태의 변화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증부)월세 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자가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제약이 없다면 개인의 선호가 점유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점유형태는 주거의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점유형태는 경제적 제약 하에서 점유형태의 선택과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의 점유형태를 보면, 연령이 가장 높은 민주화 세대에서 상향이동(전세→자가, 월세→전세 및 자가)한 비율이 가장 높고, 최근 세대로 올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첫 분가 시와 현재의 시점 차이가 길고, 이 기간 동안 자산 축적이 이루어져 주거의 상향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점유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스마트세대가 가장 높고 민주화 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세대는 민주화 세대와 반대로 첫 분가 후 현재까지의 시점 차이가 짧기 때문에 자산축적이 이루어질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6〉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χ^2
상향 이동	59.1	46.6	35.5	31.2	***187.2981
유지	30.3	44.0	57.5	62.9	
하향 이동	10.6	9.4	7.1	6.0	

주: 1) 최근 분가한 조사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전세 임대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여 지난 3년(2018~2020년) 분가한 3가구는 제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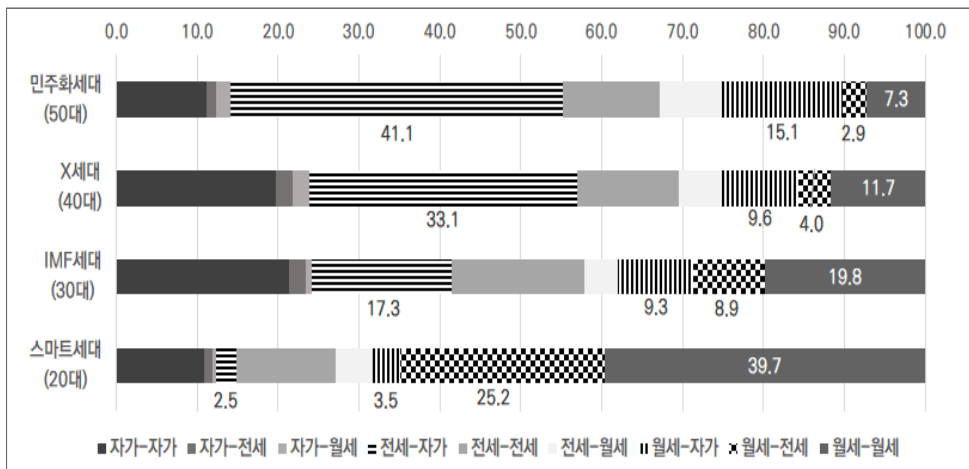
좀 더 세부적으로 점유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세나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월세에서 전세로의 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세대는 전세에서 자가로 41.1%가 이동하였으나, X세대는 33.1%, IMF세대는 17.3%, 스마트세대는 2.5%가 이동하였다.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자가로의 이동 비율이 높다는 점은 소득활동을 통한 자산 축적을

통해 자력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세대의 7.3%, X세대의 11.7%는 첫 분가 시 주택을 월세에서 시작하여 현재도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월세 고착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첫 주택의 점유형태가 월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그림 3-2 참조), 특히 스마트세대의 경우는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 중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도움의 비중이 높아졌음(표 3-3 참조)에도 불구하고 첫 분가 시 월세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도 이전 세대들과 같이 주거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게 한다. 청년 세대의 자가 소유 위축은 생애주기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주거사다리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임덕영 외, 2017; 이수욱, 2016)

[그림 3-3]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단위: %)



주: 1) 최근 분가한 조사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전세 임대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여 지난 3년 (2018~2020년) 분가한 3가구는 제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렇다면, 첫 주택을 마련할 때의 (조)부모의 도움을 포함한 상속 및 증여의 경험이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시점 주택의 점유형태의 변화, 즉 주거 안정성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분석 결과는 자산 이전 유무에 따라 주거 안정성 변화 유형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에는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세대 내 주거 안정성의 변화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이 주거 안정성 상향 이동,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이동에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자산 이전이 첫 주택마련 시 점유형태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7〉 첫 주택 마련 시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내 점유형태의 변화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세대(20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상향 이동	59.4	58.9	47.3	46.1	33.9	36.5	23.9	35.5
유지	30.5	30.1	45.1	43.3	58.1	57.1	69.4	59.0
하향 이동	10.0	11.0	7.7	10.6	8.1	6.4	6.7	5.5
χ^2	0.2909		3.0371		1.108		2.6809	

주: 1) 최근 분가한 조사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전세 임대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것을 감안하여 지난 3년(2018~2020년) 분가한 3가구는 제외함.

2)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4. 자산의 이전과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의 점유형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 전체적으로 51.3%로 과반 이상이 부모세대의 점유형태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점유형태의 전이현상은 마강래와 권오규(2013), 김주영과 유승동(2016), 이길제와 최막중(2017), 이지은과 정세은(2020) 등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점유형태의 세대 간 계승은 세대별로 차이가 발견되는데, 민주화세대가 55.6%로 가장 높고, 이후 세대로 올수록 낮아져 스마트세대는 34.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세 무렵의 부모 나이가 40대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아직 부모의 나이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차이가 점유형태

의 하향 이동 비율을 높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40대 이상인 X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경우 과반이상이 부모의 점유형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3-8〉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20~59세)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χ^2
상향 이동	17.4	18.7	20.4	14.8	8.8	165.812***
유지	51.3	55.6	53.7	48.2	34.0	
하향 이동	31.3	25.7	25.9	37.1	57.2	

주: 1) 부모의 점유형태는 본인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를 의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본인의 자산축적으로 인한 주택의 점유형태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의 점유형태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를 비교해보면 스마트세대의 주거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전체의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는 본인이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같은 경우가 32.8%로 나타나고, 하향 이동한 경우가 59.0%로 나타나지만, 스마트세대의 경우 각각 29.9%와 65.2%로 유지한 경우는 줄어들고, 하향 이동한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민주화세대 이후 X세대와 IMF세대로 오면서는 유지 비율이 증가하고, 하향 이동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이 스마트세대에 오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 부모 세대로부터의 도움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와 비교해 점유형태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은 점은 스마트세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9〉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20~59세)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χ^2
상향 이동	8.2	6.6	11.1	7.8	4.9	69.9487***
유지	32.8	27.6	34.9	39.2	29.9	
하향 이동	59.0	65.8	54.0	53.0	65.2	

- 주: 1) 부모의 점유형태는 본인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를 의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 상황을 자산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는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 점유형태를 지금까지의 총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것인데, 민주화세대와 X세대는 자산의 이전 여부에 따라 주거 점유형태의 계승 양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주화세대와 X세대는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경험한 경우 부모의 점유형태를 계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IMF세대와 스마트세대의 경우는 자산 이전 유무에 따라 점유형태 계승 양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15세 무렵의 부모 나이에 아직 이르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0〉 총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15세 무렵-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세대(20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상향 이동	13.6	21.9	18.1	22.0	14.3	15.1	7.7	9.4
유지	62.6	51.2	61.5	48.2	53.0	45.1	37.0	32.3
하향 이동	23.8	26.9	20.4	29.8	32.7	39.9	55.4	58.3
χ^2	20.7947***		21.8627***		5.7113		0.9145	

- 주: 1) 부모의 점유형태는 본인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를 의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4절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

1.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앞에서 살펴본 결과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의 질(주거의 안정성)을 결정하고, 이것은 세대 내에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세대의 경우,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 마련 시 (조)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은 이전 세대(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에 비해 더 열악함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간 주거여건의 차이,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여부 등이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이절에서는 자산 이전의 여부 및 주거 점유형태와 사회이동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대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가일 경우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가는 2.58점으로 전세 2.52점, 월세 2.46점보다 낮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대 4점을 기준으로 2.50점은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가하는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로는 X세대와 IMF세대에서만 점유형태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세대와 스마트세대는 현 주택의 점유형태에 상관없이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세대(20대)	전체
자가	2.58	2.62	2.54	2.53	2.58
전세	2.55	2.52	2.50	2.50	2.52
월세	2.51	2.45	2.39	2.50	2.46
F Value	0.99	8.51***	4.98**	0.1	14.09***

주: 1) 세대 내 계층이동 인식과 세대 간 계층이동 인식 '①매우 높다(높아질 것이다)~④매우 낮다(낮아질 것이다)'의 4점 척도의 역코딩 값을 2로 나눠 분석함.

2) 주거 안정성을 파악하기 모호한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을 세분화하여 세대 내와 세대 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성 인식의 차이가 점유형태 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대 내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X세대에서만,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IMF세대에서만 점유형태별 계층 이동성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X세대만 세대 내 이동성 인식이 점유형태별로 다른 이유는 첫 내 집 장만 나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 내 집 장만 평균 나이가 42.8세로 나타나고 있다(강미나 등, 2020). 이러한 실태는 많은 사람들이 40대의 주택 점유형태가 이후 생애주기의 점유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대 내 계층 상승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이 시기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 안정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대 간 이동성 인식에서는 IMF세대만 점유형태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본 연구의 앞선 2장에서도 IMF세대가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들 세대가 사교육 자유화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작하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 세대 간 이동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3-12〉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세대 내 이동성 인식	자가	2.50	2.55	2.46	2.52	2.51
	전세	2.46	2.40	2.43	2.43	2.43
	월세	2.36	2.32	2.34	2.51	2.38
	F Value	2.82	9.78***	2.07	0.57	10.10***
세대 간 이동성 인식	자가	2.66	2.69	2.61	2.54	2.66
	전세	2.64	2.63	2.57	2.56	2.60
	월세	2.67	2.59	2.44	2.48	2.55
	F Value	0.11	2.81	6.07**	0.65	10.41***

주: 1) 세대 내 계층이동 인식과 세대 간 계층이동 인식 '①매우 높다(높아질 것이다)~④매우 낮다(낮아질 것이다)'의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2) 주거 안정성을 파악하기 모호한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으로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분기 시 자산 이전을 경험한 경우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로 나눠 살펴보면 X세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40대인 X세대들만 부모 세대로부터의 이전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대감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표 3-13〉 첫 분기 시 자산 이전 경험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유	2.57	2.66	2.52	2.50	2.58
무	2.56	2.52	2.47	2.50	2.52
F Value	0.12	19.35***	0.92	0.09	8.37**

주: 1) 세대 내 계층이동 인식과 세대 간 계층이동 인식 '①매우 높다(높아질 것이다)~④매우 낮다(낮아질 것이다)'의 4점 척도의 역코딩 값을 2로 나눠 분석함.

2) 점유형태별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구분하여 이전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과 이동성 인식을 살펴보면, X세대에서만 첫 분가 시 (조)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 여부에 따라 이동성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위 표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세대들은 이전 여부의 경험이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성 인식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점유형태에 따라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달리 인식했던 IMF세대는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4〉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과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세대 내 이동성	유	2.49	2.59	2.44	2.46	2.51
	무	2.46	2.41	2.41	2.50	2.44
	F Value	0.44	14.39***	0.38	0.38	6.38
세대 간 이동성	유	2.66	2.73	2.59	2.55	2.66
	무	2.66	2.62	2.54	2.50	2.60
	F Value	0.01	8.93*	1.53	0.5	6.01

주: 1) 세대 내 계층이동 인식과 세대 간 계층이동 인식 '①매우 높다(높아질 것이다)~④매우 낮다(낮아질 것이다)'의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2) 점유형태별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위에서는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통해 사회이동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 점유형태 또는 자산 이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점유형태에 따른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은 전체적으로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화와 X세대에서는 월세의 경우, IMF세대에서는 전세의 경우, 스마트세대에서는 자가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의 점유형태의 차이는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첫 분가 시 자산이전을 포함한 이전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 여부에 따른 본인의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계층상승의 가능성 인식에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경험이 일부 세대 또는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점유형태와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은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에 대한 인식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현 점유형태	자가	6.3	6.4	6.5	6.9	6.4
	전세	6.3	6.4	6.9	6.4	6.5
	월세	6.9	6.5	6.6	6.3	6.6
	F Value	3.94	0.2	2.6	2.08	1.70
자산 이전 경험	유	6.5	6.5	6.8	6.6	6.6
	무	6.4	6.5	6.5	6.4	6.4
	F Value	0.87	0.02	3.37	0.93	3.44

주: 1)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영향 받지 않음~㉡완전히 영향 받음'의 11점 척도를 분석함.

2) 점유형태별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3.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의 인식

마지막으로 사회이동 인식을 계층 이동 경험, 즉 15세 무렵 가족의 계층 인식과 40세 즈음 본인의 계층 인식 간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 주택의 점유형태는 계층 이동 경험의 인식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계층이 상향이동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상향이동 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0.8%이고, 전세의 경우 48.3%, 월세의

경우 41.9%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하향 이동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유형태에 따른 계층 이동 경험 인식의 차이는 스마트세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세대의 경우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본인이 40세가 될 무렵의 계층에 대한 상향 이동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16〉 현 점유형태와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χ^2
민주화세대 (50대)	상향 이동	50.2	43.9	37.9	26.6188***
	유지	29.1	25.3	28.0	
	하향 이동	20.7	30.9	34.1	
X세대 (40대)	상향 이동	49.6	44.3	27.8	49.6482***
	유지	27.5	21.1	35.5	
	하향 이동	22.9	34.6	36.8	
IMF세대 (30대)	상향 이동	53.1	50.8	40.1	15.4255**
	유지	27.8	28.8	29.0	
	하향 이동	19.2	20.4	30.8	
스마트세대 (20대)	상향 이동	57.7	57.8	68.7	5.7048
	유지	22.9	25.8	18.0	
	하향 이동	19.4	16.5	13.3	
전체	상향 이동	50.8	48.3	41.9	35.1965***
	유지	28.1	25.3	28.3	
	하향 이동	21.2	26.4	29.8	

주: 1) 계층이동경험 인식은 15세 무렵 가족의 계층과 40세일 때의 본인의 계층인식의 차이를 의미함.

2) 무상 등의 기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가, 전세, 월세 가구만 포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또한 자산의 이전 경험은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으나, 세대별로 살펴보면 민주화세대에서만 그 차이가 의미가 있다. 민주화세대의 경우 부모세대로부터 자산의 이전을 경험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 이전을 경험한 경우 중 43.1%가 상향이동 했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 이전 경험이 없는 경우 49.5%가 상향이동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로부터 자산 이전을 경험

한 경우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즉 부모의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 있고, 이것이 부모세대(본이 15세 무렵)의 계층보다 자신의 40세 무렵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17〉 자산 이전과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단위: %)

구분		유	무	χ^2
민주화세대 (50대)	상향 이동	43.1	49.5	12.4912**
	유지	27.1	29.0	
	하향 이동	29.7	21.5	
X세대 (40대)	상향 이동	45.2	43.6	0.813
	유지	27.7	28.0	
	하향 이동	27.1	28.4	
IMF세대 (30대)	상향 이동	46.9	50.5	5.2665
	유지	26.6	29.5	
	하향 이동	26.5	20.0	
스마트세대 (20대)	상향 이동	55.2	67.0	5.6353
	유지	27.0	18.7	
	하향 이동	17.8	14.3	
전체	상향 이동	45.8	49.7	11.1562**
	유지	27.2	27.7	
	하향 이동	27.0	22.6	

주: 1) 계층이동경험 인식은 15세 무렵 가족의 계층과 40세일 때의 본인의 계층인식의 차이를 의미함.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러나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의 경험은 현재의 계층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계층 점수는 최하 1점에서 최상 10점으로 응답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4.7점으로 가장 높고,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는 4.4점,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는 3.6점으로 가장 낮다. 또한 부모세대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4.7점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 4.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점유형태와 자산이전의 경험이 계층 이동의 경험 인식에는 차이를 만들지 않지만, 현재의 계층 인식에는 모든 세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3-18〉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현 계층 인식

(단위: 점)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스마트세대 (20대)	전체
점유형태	자가	4.6	4.7	4.8	5.4	4.7
	전세	4.3	4.3	4.5	4.8	4.4
	월세	3.2	3.6	3.6	4.3	3.6
	F Value	76.74***	63.93***	56.74***	56.74***	166.63***
자산 이전	유	4.4	4.7	4.8	5.3	4.7
	무	4.2	4.2	4.2	4.4	4.2
	F Value	4.57*	34.25***	39.43***	29.59***	85.21***

주: 1)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최하~⑩최상'의 10점 척도를 분석함.

2) 점유형태별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점유형태는 제외하고 분석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4.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경험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의 경험이 사회이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사회이동의 세 가지 측면 중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스마트세대의 경우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사례수가 적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먼저 세대 내 계층 상승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의 점유형태는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모두에서 세대 내 계층 상승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은 X세대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X세대에서는 자산 이전을 경험한 경우, 자산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보다 세대 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현재 계층의식은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모두에서 세대 내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세대 내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층상승의 가능성에 성별 효과는 민주화세대와 X세대에는 나타나지만, IMF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민주화세대와 X세대의 경우 남성일 경우 세대 내 계층상승 가

능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는 현재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경험이 민주화세대, X세대, IMF세대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내 계층상승 가능성의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계층인식은 모든 세대에서 세대 간 계층상승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의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세대 간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15세 무렵 부모의 교육수준은 민주화세대와 IMF세대에서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모가 중졸이하에 비해 고졸 및 대졸인 경우 세대 간 계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계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본인 세대와의 계층 비교 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다만, X세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이 다른 세대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세대 내 계층상승 가능성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현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00833	-0.05515	0.00739	0.03876	-0.01681	0.01112	
	월세	0.00396	-0.03092	0.03237	0.09721	0.00401	-0.06496	
자산 이전 경험(없음=0)		0.0698	0.09788*	-0.02509	0.04096	0.07144	0.04268	
부모 (본인 15세 무렵)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01781	0.00571	-0.01646	0.05015	-0.01449	0.11227
		월세	0.03857	-0.09756	0.09748	0.06126	-0.07622	0.02539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0.08221	0.06348	-0.00293	-0.03907	0.0534	-0.20261***
		대졸	-0.11654	0.09828	-0.00324	-0.13588*	0.00138	-0.2018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06164	-0.06499	-0.07781	0.01083	-0.00777	-0.04577
		고용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04065	0.01827	0.03032	-0.01117	0.052	0.03455
		실업 및 비경활	0.05909	-0.15308	-0.26442*	0.00551	-0.21783**	-0.1551
	계층인식(1~10)		-0.02304	-0.03708*	0.01819	0.0567	0.00072***	-0.00273
	거주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3783	-0.05807	-0.06397	0.02082	-0.02739	-0.11927
		농어촌	0.06703	0.04284	-0.09842	-0.02154	-0.0592	-0.00287
본인	성별(여성=0)		0.16872***	0.11233*	-0.03295	0.01912	-0.00576	-0.05472
	혼인상태(미혼=0)		0.07771	0.12246	-0.00671	0.05145	0.19262**	0.0839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0.09173	-0.47851	-0.27244	0.15099	-0.41806	-0.29888
		대졸	0.17349	-0.41189	-0.34905	0.17556	-0.49926	-0.337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15434	0.08645	0.05125	0.02445	0.00835	-0.00521
		고용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13963*	0.11168	-0.03848	-0.0399	0.04887	-0.03316
		실업 및 비경활	0.08296	0.20124***	-0.04404	-0.05596	0.0622	0.0320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0)	300만원대	-0.10208	-0.04628	0.10744	-0.02497	0.03979	0.09653
		400만원대	-0.01251	0.01712	0.08517	-0.04438	0.08262	0.088
		500만원 이상	-0.06902	0.01466	0.13499	-0.08145	-0.02297	0.14876*
계층인식(1~10)		0.12674***	0.11096***	0.10971***	0.05596***	0.06304***	0.06575***	
거주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1387	0.02762	0.07694	-0.0201	-0.04937	0.04179	
	농어촌	0.07706	0.04518	0.08777	0.03305	0.02517	0.01451	
상수		1.65379***	2.32415***	2.11004***	2.31333***	2.87375***	2.55618***	
사례 수		1255	1132	958	1255	1132	958	
adj.R2		0.0601	0.0765	0.0666	0.0106	0.0400	0.0626	

주: 1)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는 15세 무렵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하며, 아버지가 사망 및 실종한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함.

2) 세대 내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대 간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①매우 높다~④매우 낮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3)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런데 앞선 <표 3-18>에서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경험이 현재의 계층인식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표 3-19>에서 현재의 계층인식이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이 현재의 계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의 조정된 R^2 값이 0.3472~0.4404로 계층이동성에 대한 분석 모형의 설명력(0.0106~0.0765)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계층인식에는 현재의 점유형태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가에 비해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광영(2013), 이병훈과 윤정향(2006)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IMF세대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만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계층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산 이전 경험은 IMF세대에서만 계층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산 이전 경험이 있는 경우 계층 인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15세 무렵 점유형태도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현재의 점유형태와 그 영향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점유형태가 자가에 비해 전세나 월세인 경우 현재의 계층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F세대의 경우 월세만 유의미). 이는 어린 시절 점유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과거의 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그에 비해 현재의 계층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X세대와 IMF세대에서 본인의 현재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고용주·자영자인 경우 계층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관련 요인 중 15세 무렵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현재의 계층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다. 한편 본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현재의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활동상태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모든 세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일 경우 계층인식이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계층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민주화세대의 경우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교육수준은 민주화세대 이후 세대에서는 계층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요하지만, 본인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 그

리고 월평균가구소득 등과 함께 현재의 점유형태와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 그리고 자산 이전 경험 등이 현재의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의 계층인식을 통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20〉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본인의 계층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민주화세대 (50대)	X세대 (40대)	IMF세대 (30대)	
현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32219***	-0.32075***	-0.16934	
	월세	-0.98201***	-0.58176***	-0.5484***	
자산 이전 경험(없음=0)		-0.08212	0.12767	0.21184**	
부모 (본인 15세 무렵)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27995***	0.19813*	0.1054
		월세	0.29972*	0.38865***	0.36115***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0.01188	-0.04842	0.01171
		대졸	-0.00758	-0.15806	-0.040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15829	-0.17877	0.14444
		고용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16771	-0.19108*	-0.26941**
		실업 및 비경활	-0.16675	0.01456	0.12954
	계층인식(1~10)		0.30775***	0.35261***	0.45199***
거주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244	0.08883	0.04351	
	농어촌	0.11256	0.16394	0.04161	
성별(여성=0)		-0.10712	0.09476	-0.00514	
혼인상태(미혼=0)		-0.00031	-0.19973	-0.02971	
본인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0.70967*	-0.78509	0.07822
		대졸	0.90143**	-0.48485	0.4256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36425***	-0.28993*	-0.37934*
		고용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03499	0.05058	-0.23892
		실업 및 비경활	-0.11579	0.12322	-0.113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0)	300만원대	0.40674***	0.45376***	0.54682***
		400만원대	0.71997***	0.77025***	0.60643***
		500만원 이상	1.42006***	1.35916***	1.07429***
거주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7194	-0.114	-0.02583	
	농어촌	0.12469	-0.1034	-0.07114	
상수		1.83203***	3.15422***	1.78773***	
사례 수		1255	1132	958	
adj. R2		0.3472	0.4018	0.4404	

주: 1)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는 15세 무렵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하며, 아버지가 사망 및 실종한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함.

2)본인의 계층인식은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①최하~⑩최상을 분석함.

3)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앞선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세대의 첫 분가 주택의 점유형태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본격적인 경제활동 시작 시기의 연기로 스마트세대는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 중 (조)부모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로부터의 도움은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주거의 안정성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주택의 점유형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의 일부를 (조)부모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 자가와 전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거 점유형태의 상향이동을 위한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 내 점유형태의 이동분석 시, 민주화세대(50대)의 경우에도 첫 주택의 점유형태가 현 주택의 점유형태로 이어진 경우가 30.3%로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출발선이 어디인가가 생애 주거여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본인의 현 주택 점유형태가 같은 경우가 전체의 51.3%로 점유형태의 세대 간 계승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자산 이전 여부에 따른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은 40대 이상인 X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점유형태 계승 양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IMF세대와 스마트세대는 15세 무렵의 부모 나이에 아직 이르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고, 자녀세대가 부모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의 자산이전이 부모의 점유형태를 계승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이동 인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에는 특정 세대에서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친 영향력 인식에는 모든 세대에서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15세 무렵의 계층과 현재의 계층 인식 차이에는 특정 세대에서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이동 인식에 점유형태와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이 특정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현재의 본인 계층인식이 전 세대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여부가 현재의 계층인식의 차이를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여 부모세대 및 본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계층인식에 현재의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요하지만, 현재의 계층인식에 본인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 등과 함께 현재의 점유형태와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 그리고 자산 이전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의 계층인식을 통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점유형태나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이 사회이동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확연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이동 인식의 긍정적 변화(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의 제고)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산 이전을 통한 주거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은 점점 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주거사다리를 오르는 첫 발의 위치를 다르게 한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IMF세대(30대)나 스마트세대(20대)가 처음 분가할 때 부모로부터의 도움 여부에 상관없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주거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의 제도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자가 점유 지원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이수옥, 2016; 김민철, 2017).

또한 X세대(40대)는 현재의 점유형태와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이 계층 상승 가능성, 특히 세대 내 계층 상승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연령대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시기(2019년 기준 42.8세)로 이들의 주거 안정은 다른 측면에서 IMF세대와 스마트세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애주기 상 가구규모가 가장 커 주거비 지출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비 등으로 다른 지출 수준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는 생애주기보다도 주거 안정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이 시기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한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이동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 X세대, 즉 40대에게는 자가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자가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40대 주택 비소유 가구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 요건의 소득기준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도 40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김민철, 2017).

마지막으로 이장의 분석의 한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은 부모세대로부터의 자녀세대에게 자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조사에서는 첫 분가 시점 정보는 있으나, 결혼 시점의 정보가 없으며, 스마트세대의 경우 기혼 비율이 20%대로 낮아 자산 이전 경험을 정치하게 비교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의 점유형태만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제약이 주거의 점유형태를 결정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거주자의 선호에 따라 점유형태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주택(본인 15세 무렵)이나 첫 분가 시 주택의 여건은 회고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시의 주택 가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에 주거의 안정성 측면을 주택의 규모나 질, 가격 등을 심도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점유형태라는 단편적 특성을 통해 검토했다. 첫 분가 시 주택구입 자금 조달 방법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비중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산 이전의 규모가 아닌 자산 이전의 경험 여부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통해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계층인식이 계층상승 가능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이 계층상승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이동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선호

제4절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제5절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제6절 소결

제4장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이동 인식

제1절 문제 제기

사회의 구조적 위기는 한 사회가 설정해왔던 기존의 발전 경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전 세계가 2020년 겪고 있는 미증유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생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제적 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사회적 위기라는 방식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통합을 ‘체계에의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정해식 외, 2018, p.71), 체계에의 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데는 기존 사회제도의 틀이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그래서 체계에의 통합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조와 그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사회구조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인식 정도가 위기 이후의 사회 체계에 대한 판단, 평가,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의 극복 이후에도 이전의 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고,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체계가 새로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체계라는 인식 하에 체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2008년,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는 위기 이후의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에서 경기 회복이 이뤄졌지만 실질 노동 소득의 증가는 저소득층에서는 낮았고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높았다(OECD,

2016). 경제위기의 충격이 특히 컸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하위 10% 근로 연령 인구의 소득증가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OECD, 2016). 경제위기의 충격이 실업의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충격을 주었음을 고려하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포용 성장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코로나19 이전의 그것과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선호, 그리고 그러한 불안정성 인식이 사회이동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계층 집단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특히, 이러한 불안정성 인식은 코로나19라는 독특함으로 인해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선호를 먼저 살펴본다. 이러한 불안정성 인식은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낮은 사회통합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력이 넘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자 할 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상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4장에서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20세~6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 웹조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조사가 시작된 시기에는 50명 미만이었다가 8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확진자가 크게 급증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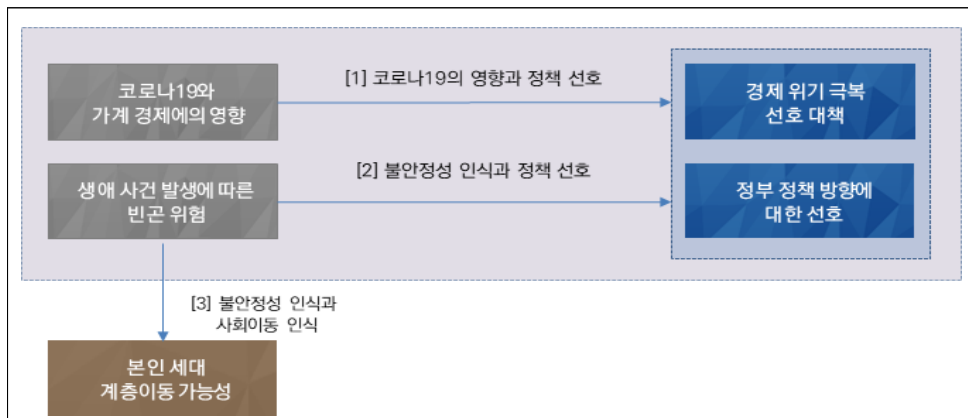
1) 조사방식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을 참조하시오.

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바 있다. 그렇지만 실제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별 선호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되는 정책 대안도 설문지 구성 단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내용 중심임을 미리 밝힌다.

4장의 분석에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분류할 때 앞선 2장, 3장에 비교하여 특징적인 차이는 코호트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대 연구에서 세대(cohort)란 ‘사회변화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이며(함인희, 2000, p.191), 이에 따라 이들은 동일한 사회경험 속에서 형성된 사회인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규범을 체득한 집단이 된다. 그래서 만약 생애주기 과정들에서 경험한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들-산업화, 교육 팽창, 민주화, 정보화 등-이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면 이러한 코호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4장에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석에 보다 집중하므로 코호트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연령집단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물론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코호트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4-1]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분석을 시도한다. 이때 활용하는 설문 문항 및 변수에 대해서는 <표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연구 모형



자료: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첫째,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 선호이다. 이때 정책 선호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방식,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인) 현금 지원 방식, 기업에 대한 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정책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해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사건 발생에 따른 빈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 선호이다.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사건들과 이에 따른 빈곤 위험을 불안의 정도로 평가하고, 이러한 불안 인식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를 살펴본다.

셋째, 불안의 정도가 사회이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때 사회이동 인식은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다.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미래의 불안이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기로 한다. 사회적 불안 정도는 그 하위 항목에 대해서 ‘매우 높다(5)~매우 낮다(1)’로 다시 정리한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4-1〉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관련 주요 변수의 설문 문항

구분	변수	설문	하위 항목
불안정성 인식	코로나19와 가계 경제에의 영향	최근의 코로나-19 유행이 귀 하의 가계 경제에 얼마나 영 향을 미쳤습니까?	①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③ 별로 영향이 없다 ④ 전혀 영향이 없다
	사회적 불안 정도 [생애 사건 발생에 따른 빈곤 위험]	다음의 사건을 경험하신다면,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 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3) 실직이나 사업부진 (4)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5)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 (6)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7)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 (8) 주택마련(전셋값) 등의 부채 상황
정책 선호	경제 위기 극복 선호 대책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②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창출 ③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④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구분	변수	설문	하위 항목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5)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사회이동 인식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약간 낮다 ④ 매우 낮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조사표

제3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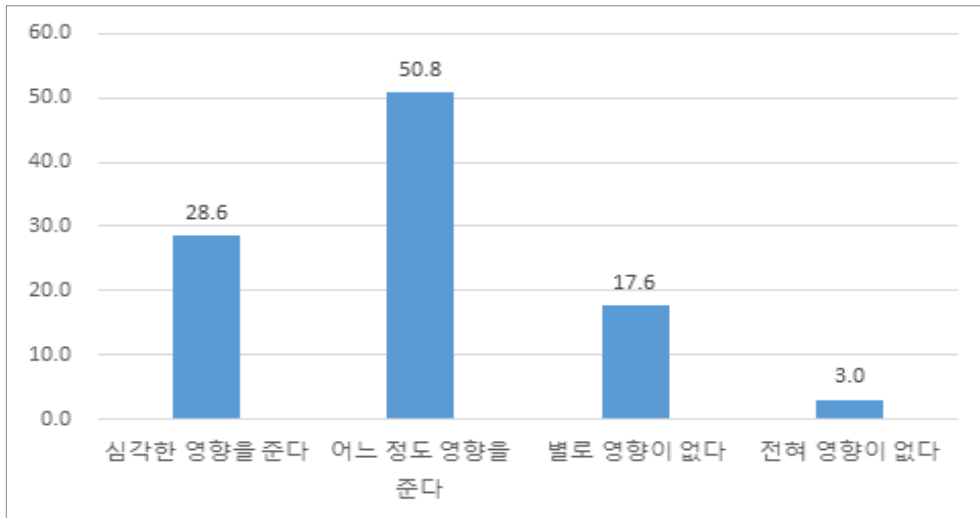
1.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15-64세 고용률은 2020년 10월에 65.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4%p 하락하였는데, 임금근로자는 30.6만명이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11.5만명이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b). 줄어든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가 26.1만명으로 가장 많고, 일용근로자는 5.9만명이 줄어들었는데, 상용근로자는 1.4만명이 늘어났다(통계청, 2020b).

다음 [그림 4-2]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답의 분포이다.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6%였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8%,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3.0%가 있었다.

[그림 4-2]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단위: %)



주: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응답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9.119$, $p<0.05$).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50대에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20대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석 대상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성과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 대한 영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성과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74.720$, $p<0.001$).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 보면 하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로 높았고, 중상층(상층 포함)의 경우에는 12.3%로 낮았다.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계층과 코로나19의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544.183$, $p<0.001$). 교육수준에 따라서 보면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가 55.1%가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과 코로나 19의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79.334$, $p<0.001$).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자영자, 고용주가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2.6%로 나타나서 이들 자영자 집단에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컸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고,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0.3%나 되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 정도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 정도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40.479$, $p<0.001$, $\chi^2=46.022$, $p<0.001$).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구분		영향 정도				χ^2
		심각한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별로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전체		28.6	50.8	17.6	3.0	
성	남성	28.5	49.6	18.6	3.4	9.119*
	여성	28.6	52.1	16.6	2.6	
연령대별	20대 이하	25.8	48.0	21.0	5.3	74.720***
	30대	25.8	53.1	17.7	3.4	
	40대	30.1	53.0	15.5	1.6	
	50대	31.7	49.4	16.8	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2	34.2	8.6	2.1	544.183***
	중하층	32.1	53.8	12.5	1.6	
	중간층	20.5	53.2	22.6	3.7	
	중상층(상층)	12.3	44.5	34.7	8.5	
교육수준	중졸 이하	55.1	34.2	9.5	1.3	79.334***
	고졸	31.7	50.3	15.4	2.6	
	대졸 이상	24.1	51.9	20.5	3.5	
경제활동 상태별	상용직 임금근로자	21.9	52.7	21.8	3.7	340.749***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	31.4	52.5	14.0	2.0	
	고용주, 자영자	51.0	42.6	5.7	0.7	
	무급가족 종사자	38.5	56.1	5.4	0.0	
	실업자	43.2	45.2	10.1	1.5	
	비경제활동인구	25.1	51.8	19.2	3.9	
종사상 지위별 (N=3,603)	상용직 임금근로자	21.9	52.7	21.8	3.7	46.023***
	임시직 임금근로자	28.6	53.4	16.0	2.1	
	일용직 임금근로자	40.3	49.9	7.9	2.0	
	소계	23.4	52.7	20.6	3.4	

주: 1) 비율은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제시함.

2)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수는 6,022케이스임.

3)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 표는 코로나19가 가계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여러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이 1.59배, 고용주와 자영자가 4.70배, 무급가족 종사자가 5.28배, 실업자가 2.43배, 비경제활동인구가 1.13배 높게 코로나19로 가계경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 여부는 특히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설명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형설명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남성=0)	1.19	1.05	1.35	1.18	1.03	1.34	1.16	1.02	1.32	1.17	1.02	1.34
연령대(20대=0)												
30대	1.34	1.13	1.58	1.21	1.02	1.44	1.26	1.06	1.51	1.39	1.15	1.67
40대	1.74	1.45	2.07	1.52	1.27	1.82	1.54	1.28	1.84	1.63	1.35	1.97
50대	1.52	1.28	1.80	1.30	1.09	1.54	1.29	1.08	1.54	1.26	1.05	1.52
주관적 소득계층(하층=0)												
중하층				0.73	0.55	0.96	0.76	0.58	1.01	0.83	0.62	1.09
중간층				0.34	0.26	0.45	0.37	0.28	0.48	0.41	0.31	0.55
중상층(상층)				0.17	0.12	0.23	0.18	0.13	0.25	0.21	0.15	0.29
학력(중졸 이하=0)												
고졸							0.69	0.31	1.55	0.79	0.35	1.77
대졸 이상							0.58	0.26	1.29	0.67	0.29	1.5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1.59	1.24	2.04
고용주, 자영자										4.70	3.25	6.80
무급가족 종사자										5.28	1.90	14.63
실업자										2.43	1.88	3.14
비경제활동인구										1.13	0.94	1.35
LR chi2	50.77			306.80			315.70			469.15		
Log likelihood	-3060.8706			-2932.8557			-2928.4059			-2851.6789		
Pseudo R2	0.0082			0.0497			0.0511			0.07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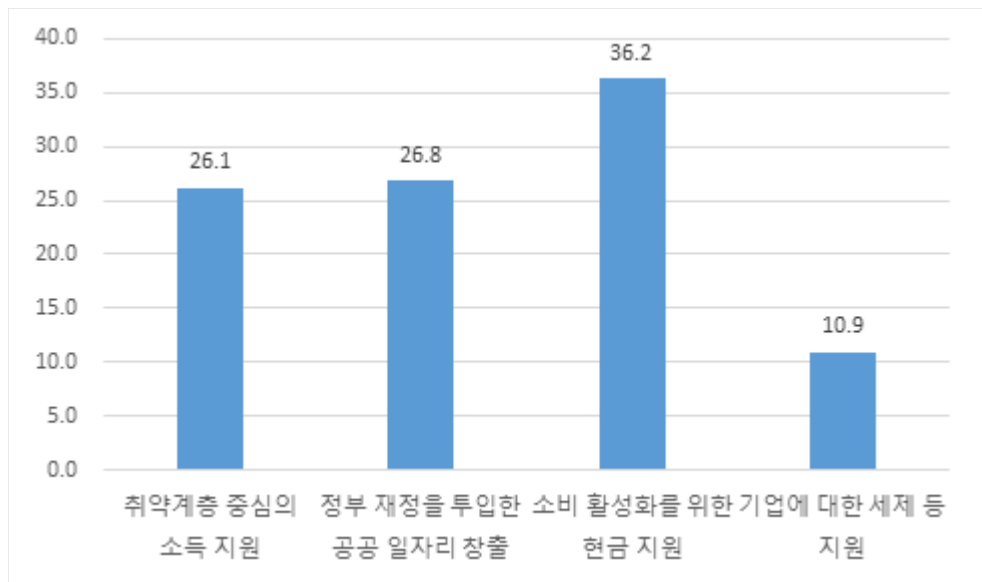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호 대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위기에 영향을 받은 정도가 집단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선호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위기의 경험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정책 선호도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그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을 선호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6.1%였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창출’은 26.8%,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은 36.2%,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은 10.9%였다.

[그림 4-3]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선호

(단위: %)



주: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정책의 선호가 다를 수 있다. 먼저 모든 집단에서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그 다음 선호하는 정책으로 ‘취약계

층 중심의 소득 지원'을 언급하였는데, 그 비율은 31.1%였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이들과 별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호가 그 다음이었는데, 각각 29.0%, 27.1%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다음으로 선호하였는데, 그 비율은 24.7%였다.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위기 극복 정책 선호 분포

(단위: %)

구분		정책 선호				χ ²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창출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전체		26.1	26.8	36.2	10.9	
성	남성	27.9	22.7	38.2	11.2	51.638***
	여성	24.2	31.1	34.1	10.5	
연령대별	20대 이하	27.4	31.1	29.9	11.5	77.589***
	30대	25.9	22.3	41.1	10.6	
	40대	26.7	23.6	40.4	9.3	
	50대	24.6	29.8	33.7	1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9	23.4	29.9	6.8	98.431***
	중하층	26.2	27.5	36.8	9.6	
	중간층	22.8	26.9	38.0	12.3	
	중상층(상층)	23.8	26.5	32.8	16.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9	14.2	50.0	9.9	74.648***
	고졸	28.8	28.3	34.3	8.6	
	대졸 이상	22.9	25.3	38.2	13.7	
경제활동 상태별	상용직 임금근로자	25.3	23.8	39.5	11.3	99.834***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	27.1	31.3	33.7	8.0	
	고용주, 자영자	28.0	20.8	35.6	15.6	
	무급가족 종사자	32.1	25.7	28.6	13.6	
	실업자	28.2	36.2	28.1	7.5	
	비경제활동인구	25.2	29.7	34.3	1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2	22.8	29.0	23.0	239.001***
	중도적	26.0	28.2	35.6	10.3	
	진보적	26.8	26.6	41.4	5.1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심각한 영향	31.1	23.0	37.1	8.8	80.636***
	어느 정도 영향	24.0	29.0	36.5	10.5	
	별로 영향이 없음	24.6	27.1	35.3	13.0	
	전혀 영향이 없음	24.7	22.9	28.7	23.7	

주: 1) 비율은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제시함.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영향에 비해서 선호하는 정책 방향은 이념적 지향과 같은 다른 요소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책별 선호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확연히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한 선호가 23.0%로 높게 나타난다.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집단은 전체 집단 평균과 유사하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가 41.4%로 크게 높아서 전체 집단 평균인 36.2%보다 높다. 반대로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해서는 5.1%만 지지해서 전체 집단 평균 10.9%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정책 선호를 보였다.

다음 표는 이념적 성향과 코로나19의 영향여부를 포함하여 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몇 가지 확인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정책 선호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고용주, 자영자의 경우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이념적 성향에 따른 선호도 구분된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의 경우보다 ‘취약 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덜 선호하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 한편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집단도 보수적인 집단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5〉 경제위기 극복 대책 선호의 결정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 대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지원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연령대(20대=0)			
30대	-0.343*** (0.102)	-0.513*** (0.103)	-0.399** (0.140)
40대	-0.332*** (0.098)	-0.434*** (0.098)	-0.368** (0.137)
50대	-0.291** (0.100)	-0.040 (0.095)	-0.041 (0.132)
주관적 소득계층	-0.216*** (0.046)	0.011 (0.045)	0.166** (0.063)
학력	-0.188** (0.069)	-0.026 (0.068)	0.380*** (0.095)
경제활동 상태(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070 (0.121)	0.356** (0.117)	-0.127 (0.183)
고용주, 자영자	0.183 (0.122)	-0.065 (0.132)	0.486** (0.154)
무급가족 종사자	0.510 (0.306)	0.368 (0.323)	0.693 (0.396)
실업자	0.294* (0.116)	0.665*** (0.111)	0.007 (0.177)
비경제활동인구	0.009 (0.095)	0.250** (0.092)	0.117 (0.129)
이념적 성향(보수적=0)			
중도적	-0.169 (0.098)	0.037 (0.100)	-0.950*** (0.110)
진보적	-0.255* (0.104)	-0.165 (0.106)	-1.862*** (0.142)
코로나19의 영향여부(없음=0)	-0.118 (0.087)	-0.086 (0.086)	-0.433*** (0.111)
상수	1.097*** (0.239)	-0.084 (0.241)	-1.171*** (0.329)
사례 수	6022		
Pseudo R2	0.0270		

주: 1) 비율은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제시함.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4절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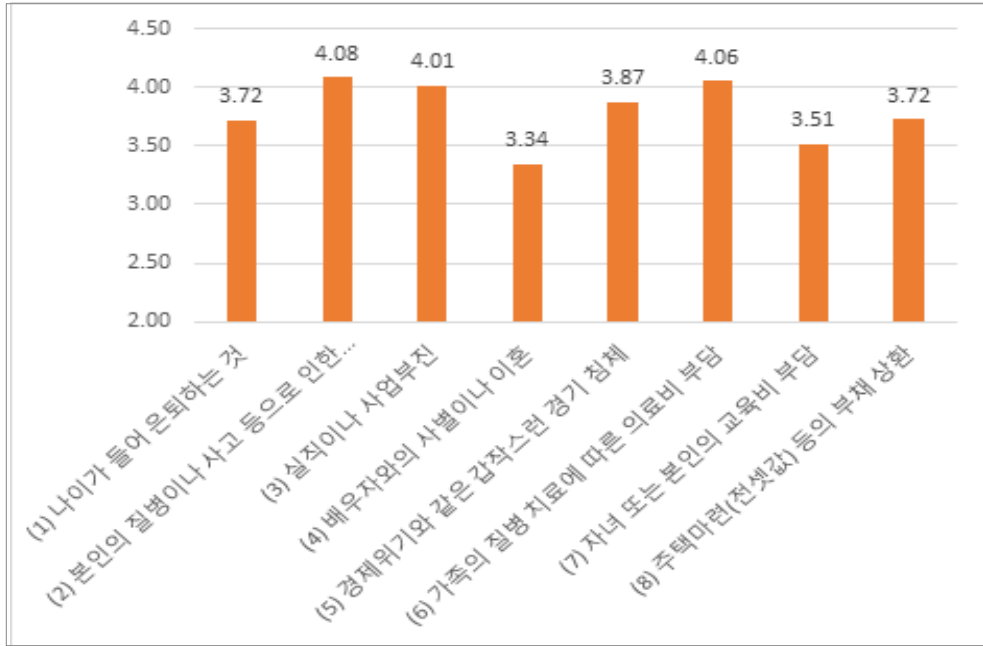
1. 사회, 경제적 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인식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영향은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영향이 컸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자영자, 고용주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 정도에 따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선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선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념적인 특징에 따른 선호도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이념적 특징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험여부와 정책적 선호가 분리된다는 점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도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4]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제시하고, 그 경험을 할 때 빈곤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묻은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빈곤해질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3.72점을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통(3점)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4.08점을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4.06점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실직이나 사업부진에 따른 빈곤의 위험도 4.01점으로 높았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빈곤 위험에 대해서는 3.34점,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은 3.51점으로 낮았다.

[그림 4-4] 생애 위험과 빈곤 가능성 인식

(단위: 점)



주: 해당 사건을 경험하여 빈곤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 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생애 위험별 빈곤 가능성 인식의 총점수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지 않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주목해볼 부분은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층 집단에서 이러한 생애위험에 따른 빈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는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 집단과, 실업자 집단에서 높은 빈곤 가능성 인식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별로 보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집단에서 빈곤 가능성 인식도 높고,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 집단에서는 빈곤가능성 인식의 정도가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생애 빈곤 가능성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생애 위험에 따른 빈곤 가능성 인식 정도		F value
		평균	표준편차	
성	남성	29.86	6.15	38.1***
	여성	30.82	5.96	
연령대별	20대 이하	29.81	5.97	5.88***
	30대	30.39	6.03	
	40대	30.73	6.07	
	50대	30.33	6.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43	6.21	139.44** *
	중하층	31.46	5.58	
	중간층	28.86	5.82	
	중상층(상층)	26.95	6.3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81	7.77	7.75***
	고졸	30.55	6.14	
	대졸 이상	30.02	5.93	
경제활동 상태별	상용직 임금근로자	29.80	6.01	11.08***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	31.19	5.99	
	고용주, 자영자	30.57	6.26	
	무급가족 종사자	31.17	5.85	
	실업자	31.25	5.89	
	비경제활동인구	30.59	6.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58	6.27	1.1
	중도적	30.26	6.03	
	진보적	30.31	6.03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심각한 영향	32.12	6.20	134.56** *
	어느 정도 영향	30.30	5.56	
	별로 영향이 없음	28.31	5.99	
	전혀 영향이 없음	25.56	7.30	

주: 1) 비율은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제시함.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 표는 생애 위험별 빈곤 가능성 인식을 빈곤 위험인식도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빈곤 위험인식도는 성, 연령, 학력까지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여성일 때 0.917점이 더 높고, 20대에 비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1에서 학력은 대졸

이상에서 중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설명력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활동상태가 포함된 모형2에서 학력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형2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는데, 임시·일용직의 빈곤 위험인식도, 실업자의 빈곤위험인식도가 특히 더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포함된 모형3에서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빈곤 위험인식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중도적인 집단이 위험인식도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를 고려할 때,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 특히 빈곤 위험인식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빈곤 위험인식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성별	0.917*** (0.156)	0.812*** (0.162)	0.894*** (0.156)	0.915*** (0.156)	0.856*** (0.154)
연령대 (20대=0)					
30대	0.649** (0.232)	0.910*** (0.236)	0.355 (0.228)	0.365 (0.228)	0.253 (0.226)
40대	0.911*** (0.220)	1.168*** (0.226)	0.579** (0.218)	0.593** (0.218)	0.427* (0.217)
50대	0.450* (0.219)	0.617** (0.224)	0.020 (0.216)	-0.010 (0.217)	-0.099 (0.214)
학력 (중졸=0)					
고졸	-1.234 (0.755)	-1.062 (0.753)	-0.290 (0.722)	-0.255 (0.723)	-0.237 (0.715)
대졸	-1.730* (0.757)	-1.395 (0.756)	0.100 (0.728)	0.112 (0.728)	0.171 (0.7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					
임시·일용직		1.362*** (0.280)	0.817** (0.270)	0.800** (0.270)	0.656* (0.267)
고용주, 자영자		0.733* (0.287)	0.587* (0.275)	0.567* (0.275)	0.196 (0.274)
무급가족 종사자		1.110 (0.713)	0.651 (0.684)	0.692 (0.684)	0.340 (0.677)
실업자		1.561*** (0.262)	0.809** (0.253)	0.818** (0.253)	0.566* (0.251)
비경제활동인구		0.601** (0.227)	0.647** (0.217)	0.658** (0.217)	0.624** (0.215)
주관적 소득계층			-2.293*** (0.100)	-2.295*** (0.100)	-2.093*** (0.101)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이념적 성향 (보수적=0)					
중도적				-0.469*	-0.484*
진보적				-0.233	-0.180
(0.210)				(0.226)	(0.224)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없음=0)					2.136***
상수	29.896***	29.141***	34.095***	34.364***	32.400***
	(0.801)	(0.806)	(0.802)	(0.814)	(0.824)
사례수	6022	6022	6022	6022	6022
adj. R-sq	0.010	0.018	0.097	0.097	0.116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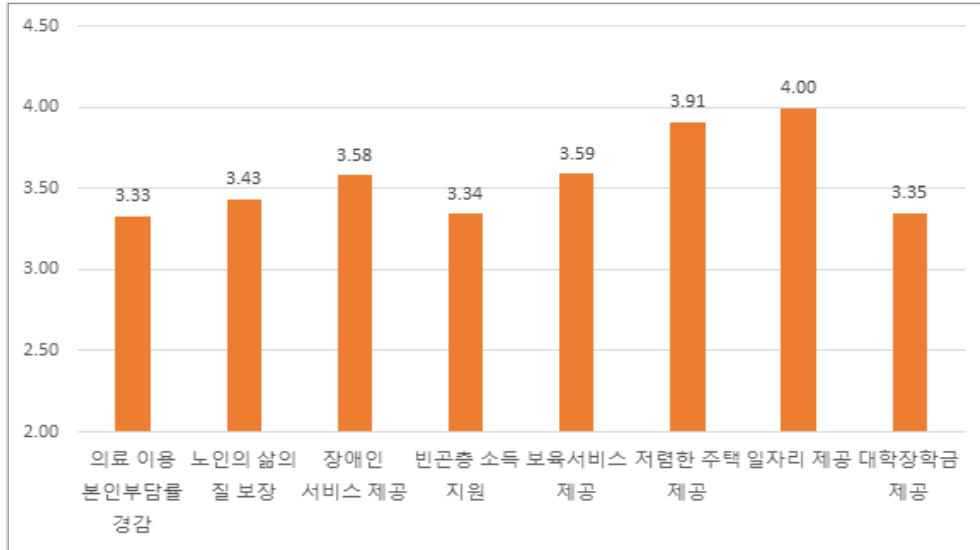
2.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이제부터는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선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정부지출의 각 영역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도를 응답한 결과이다. 질문은 각 정책 영역별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1)'부터 '훨씬 덜 지출해야 한다(5)'로 응답하였지만, 이를 5점부터 1점으로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이하에서 동일하다.

영역별로 보면 일자리 제공이 4.00점으로 가장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저렴한 주택 제공이 3.91점, 보육서비스 제공이 3.59점, 장애인 서비스 제공이 3.58점,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이 3.43점, 대학장학금 제공이 3.35점, 의료 이용 본인부담률 경감이 3.3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5)~훨씬 덜 지출(1)로 값을 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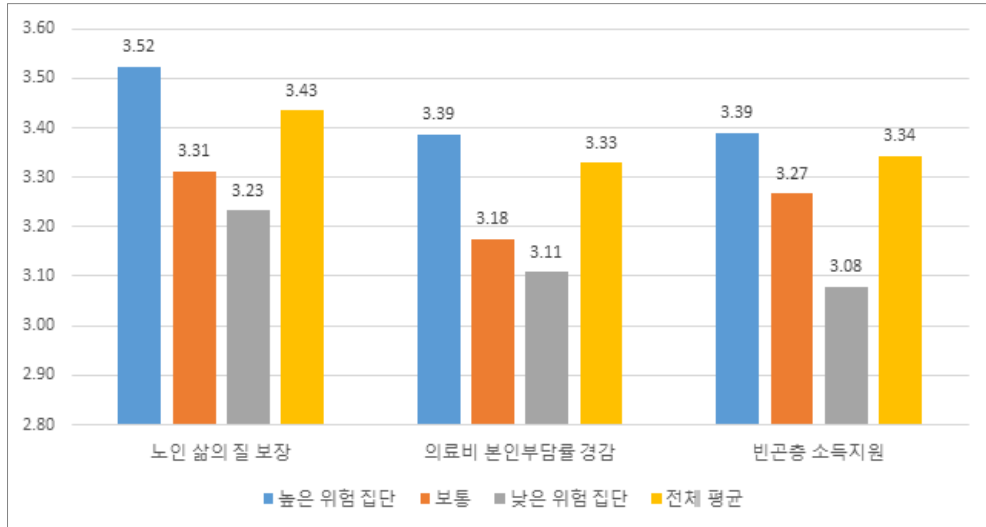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생애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과 복지 지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의 빈곤 위험이 '매우 높다', '약간 높다'에 응답한 사람들을 높은 위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 집단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부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3.52점)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지출확대에 대한 동의 수준이 3.31점으로 낮아지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23점으로 더 낮아졌다.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에 대해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에 3.39점을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3.11점을 보였다. 실직이나 사업부진에 따른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빈곤층 소득지원에 대해서 3.39점으로 응답했고, 낮은 위험 집단에서는 3.08점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 삶의 질 보장,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빈곤층 소득지원과 같은 정책에서는 위험을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6]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1)

(단위: 점)



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5)~훨씬 덜 지출(1)로 값을 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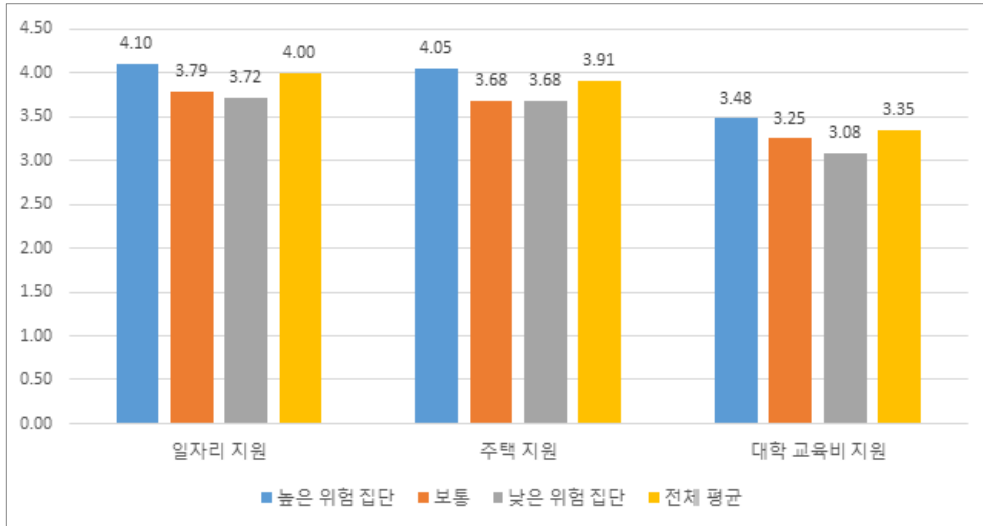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렇지만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높은 위험 인식 집단과 낮은 위험 인식 집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택 지원에서도 이러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에 따른 빈곤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일자리 지원 확대를 4.10점으로 동의하였고, 이러한 위험을 낮게 보는 집단은 3.72점으로 동의하였다. 주택 마련 등의 부채 상환에 따른 빈곤위험을 높게 보는 집단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에 4.05점을 보이면서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3.68점을 보였다.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3.48점의 동의를,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3.08점의 동의를 보여서 큰 차이 없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지출 확대의 동의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지원과 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와 무관하게 정부 지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2)

(단위: 점)



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5)~훨씬 덜 지출(1)로 값을 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제5절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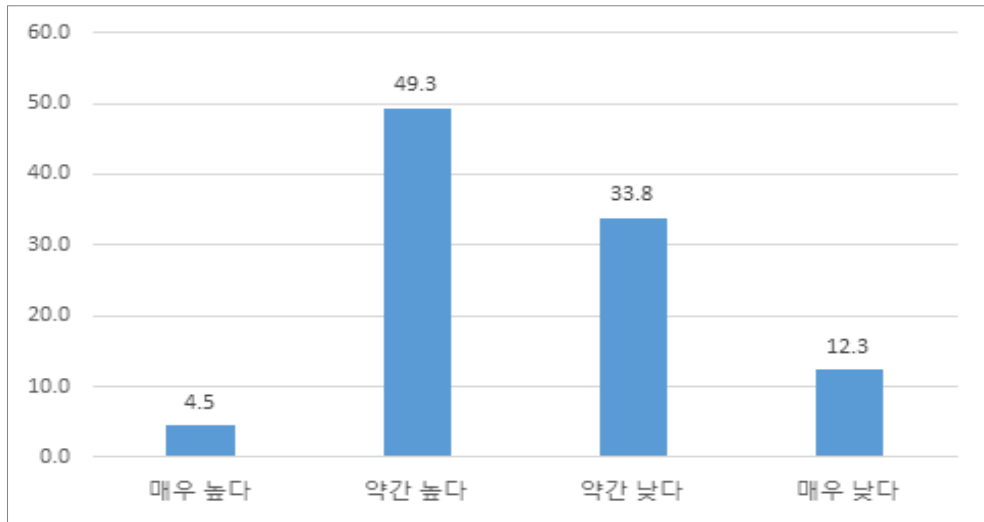
1.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 낮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지 약 10년 가량 지났다. 낮은 사회이동성을 공정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김문길 외, 2019),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계층 상승 이동의 가능성 제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 '약간 높다'는 각각 4.5%, 49.3%를 보이고, '약간 낮다', '매우 낮다'는 각각 33.8%, 12.3%를 보인다.

[그림 4-8]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 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에 따른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교육수준별로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개략적으로 보면 남성이, 젊은 연령대에서,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상층(상층포함)일 때,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할 비율이 적어진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고용주, 자영자 집단에서 높고,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집단에서 높다.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 경제활동상태, 이념적 성향,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에 따라서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분포

(단위: %)

구분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χ^2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전체		4.5	49.3	33.8	12.3	
성	남성	5.6	50.8	31.5	12.1	29.934***
	여성	3.4	47.8	36.3	12.5	
연령대별	20대 이하	5.8	49.9	34.2	10.1	35.393***
	30대	3.4	46.5	37.4	12.7	
	40대	3.9	50.4	33.6	12.1	
	50대	4.8	50.1	30.9	1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	31.6	32.3	31.2	424.677****
	중하층	3.0	45.7	36.8	14.6	
	중간층	5.1	56.3	32.6	6.1	
	중상층(상층)	9.8	59.7	25.2	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	42.3	33.7	17.6	22.667****
	고졸	4.8	47.2	34.2	13.8	
	대졸 이상	4.1	52.1	33.4	10.5	
경제활동 상태별	상용직 임금근로자	3.7	49.5	35.0	11.8	32.41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	4.7	48.3	34.4	12.7	
	고용주, 자영자	7.4	49.7	29.9	13.0	
	무급가족 종사자	4.3	41.7	36.5	17.6	
	실업자	4.9	46.5	33.4	15.2	
	비경제활동인구	5.0	51.4	32.4	1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1	52.9	28.5	12.5	29.962****
	중도적	3.6	48.5	35.8	12.2	
	진보적	5.3	48.7	33.5	12.5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심각한 영향	5.3	42.6	33.3	18.8	128.171****
	어느 정도 영향	3.9	50.2	35.6	10.3	
	별로 영향이 없음	4.6	56.7	30.4	8.3	
	전혀 영향이 없음	7.7	54.3	29.1	8.9	

주: 1) 비율은 모집단 비례 조정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제시함.

2)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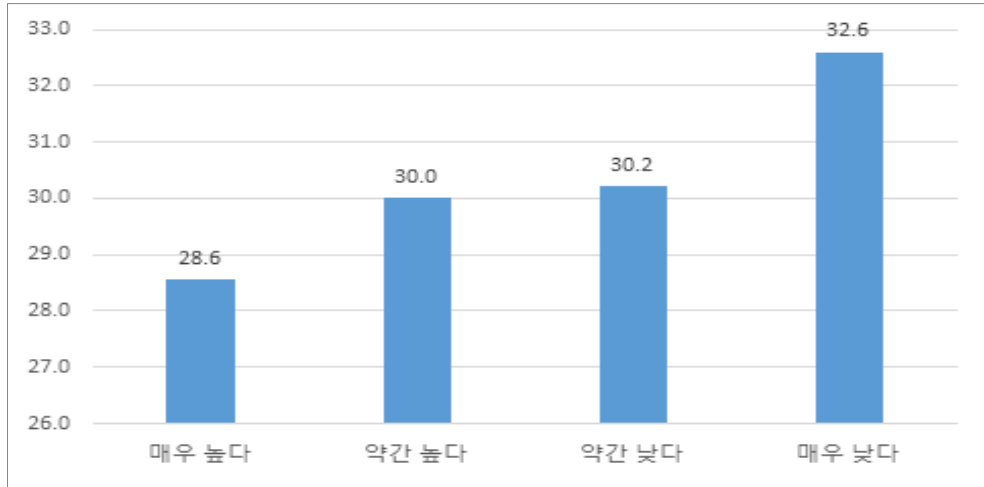
2.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별로 불안정성 인식 점수에 어떤 차이를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집단의 빈곤 위험인식

도는 28.6점으로 낮았지만,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집단의 빈곤 위험인식도는 32.6점으로 높았다.

[그림 4-9] 본인 세대 계층이동성의 가능성 인식별 빈곤 위험인식도 점수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이제부터는 한국 사회에서 본인 세대 계층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빈곤 위험인식도와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1은 성,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 학력, 경제활동 상태만 투입한 모형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이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고, 30대 집단에서 20대 집단에 비해서 부정적 평가의 가능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인 집단은 하층인 집단에 비해서 부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학력에 따른 부정적 평가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부정적 평가의 가능성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자 집단에서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상용직 대비 적었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높지 않았고,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 본인 세대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할 확률이 상용직 임금근로자 대비 낮았다.

모형2는 앞서의 모형에 이념적 성향을 투입한 모형이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서 중도적 성향,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모형3은 빈곤위험 인식도를 투입한 모형이며, 빈곤위험 인식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보일 확률이 높았지만 유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신에 모형4는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를 투입한 것인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부정적인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표 4-9〉 부정적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남성=0)	1.30	1.17	1.45	1.29	1.16	1.44	1.28	1.15	1.43	1.28	1.15	1.43
연령대(20대=0)												
30대	1.14	0.98	1.33	1.13	0.97	1.32	1.13	0.97	1.32	1.12	0.96	1.31
40대	0.92	0.79	1.07	0.91	0.78	1.06	0.90	0.78	1.05	0.89	0.77	1.04
50대	0.88	0.76	1.03	0.89	0.77	1.04	0.89	0.77	1.04	0.88	0.76	1.03
주관적 소득계층(하층=0)												
중하층	0.58	0.48	0.69	0.58	0.48	0.69	0.59	0.49	0.70	0.58	0.48	0.69
중간층	0.34	0.28	0.41	0.34	0.28	0.41	0.35	0.29	0.43	0.35	0.29	0.42
중상층(상층)	0.25	0.19	0.33	0.25	0.19	0.33	0.27	0.20	0.35	0.27	0.21	0.35
학력(중졸 이하=0)												
고졸	1.03	0.62	1.72	1.01	0.61	1.68	1.01	0.61	1.68	1.01	0.61	1.69
대졸 이상	0.98	0.58	1.63	0.96	0.58	1.61	0.96	0.58	1.61	0.97	0.58	1.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0)												
임시·일용직	0.85	0.70	1.02	0.85	0.71	1.03	0.85	0.70	1.02	0.84	0.70	1.01
고용주, 자영자	0.83	0.69	1.01	0.84	0.69	1.03	0.84	0.69	1.02	0.81	0.67	0.99
무급가족 종사자	1.17	0.73	1.88	1.15	0.72	1.86	1.15	0.71	1.85	1.11	0.69	1.79
실업자	0.90	0.75	1.07	0.89	0.75	1.06	0.89	0.74	1.06	0.87	0.73	1.03
비경제활동인구	0.78	0.67	0.91	0.78	0.67	0.91	0.78	0.67	0.90	0.78	0.67	0.90
이념적 성향 (보수적=0)												
중도적				1.31	1.13	1.52	1.31	1.13	1.52	1.31	1.13	1.52
진보적				1.26	1.07	1.47	1.26	1.07	1.48	1.26	1.08	1.48
빈곤위험 인식도							1.01	1.00	1.02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없음=0)										1.25	1.09	1.43
LR chi2	248.10			261.17			264.33			271.76		
Log likelihood	-4032.9523			-4026.4192			-4024.8384			-4021.1203		
Pseudo R2	0.0298			0.0314			0.0318			0.0327		

주: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약간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하는 경우의 가능성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제6절 소결

2020년 한 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의 파고가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4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인식이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 인식에 따라서 정책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위험을 넘어선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정책 선호를 보이는지를 진단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분배 상황에 따른 또 다른 갈등을 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위험 인식과 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이동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장래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다양한 집단에게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이 1.59배, 고용주와 자영자가 4.70배, 무급가족 종사자가 5.28배, 실업자가 2.43배, 비경제활동인구가 1.13배 높게 코로나19로 가계경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 여부는 특히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설명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정책 선호는 위기의 경험 정도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념적인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고용주, 자영자의 경우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의 경우보다 '취약 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을 '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보다 덜 선호하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 한편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집단도 보수적인 집단에 비해서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불안정성 인식은 특히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높았다. 한편으로 생애 위험 요소별로 사람들은 각각의 정부 정책에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동의 수준의 차

이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방식에서 확인된 이념 집단별 차이는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을 상존시킨다.

넷째,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서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의 부정적 인식이 확인된다. 2020년 한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은 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이동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말하는 위기 극복 이후의 K자 성장은 사회적 위험이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계층 간 차이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갈등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낮아진 사회이동 인식의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람들의 불안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는 일자리 지원과 주거 지원에서는 그러한 위험의 인식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확대는 분배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불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연령별 사회이동성 인식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 결정 요인

제5절 소결

제 5 장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제1절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수저계급론, N포 세대, 헬(탈)조선 등의 신조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팍팍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여유진 외(2015)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연구에서는 산업화세대(1940년생~59년생), 민주화 세대(1960년생~74년생), 정보화 세대(1975년생~95년생)로 넘어올수록 학력, 계층, 직업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주화 세대에서 정보화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여유진 외, 2015). 한준(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직업군을 비교한 결과, 386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서 상향이동이 활발히 일어난 반면, 예코세대에서는 상향이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한국인들의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한준 외, 2017).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2017)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일생동안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비중이 2013년 75.2%에서 2017년 83.4%로, 지난 4년 동안 약 8% 정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높았는데, 박재완(2017)은 그 이유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과 부모세대의 학력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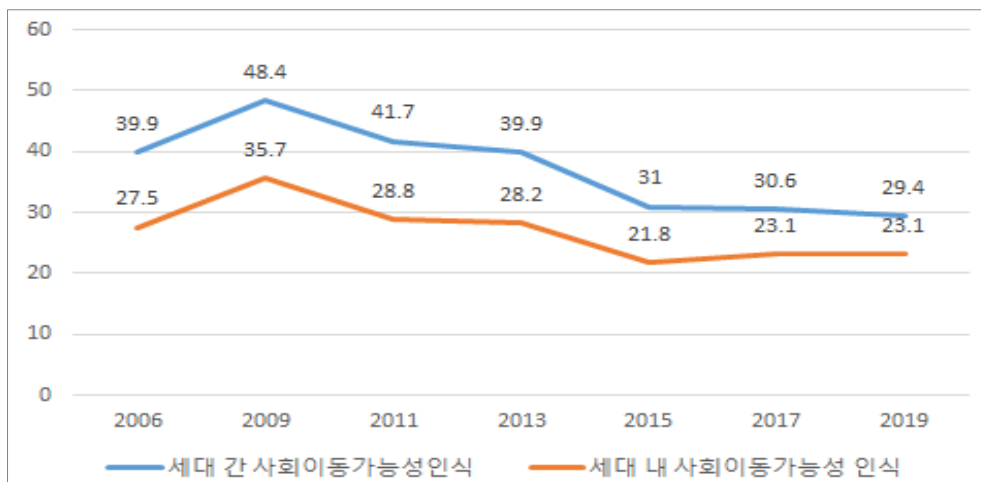
사회 이동성 인식은 한 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한 개인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및 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준, 2018, p.313). 개인이 사회이동 가능성의 기회가 많다고 느끼게 되면, 즉,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기회와 보상이 주어진다고 인식하게

되면, 개인은 상향이동에 대한 강한 동기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이동 가능성과 기회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동기는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이는 곧 사회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Dolan et al.(2008)은 사회이동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개인은 현재의 불평등에 대해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현재의 불평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호 등(2013) 또한,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세대 간의 위화감 및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20년 현재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이동 현황과 인식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사회이동성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부모-본인 그리고 본인-자녀로의 사회이동 경험 그리고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 가능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하고자 한다.

2. 사회이동성 현황과 선행연구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그림 5-1]). 구체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2009년 48.4%에서 2019년 29.4%로,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2009년 35.7%에서 2019년 2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그림 5-1]).

[그림 5-1]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6-2019)¹⁾

출처: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2020)

사회이동가능성인식(<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3> 에서 2020.11.02. 인출)

이왕원 외(2016)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 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의 변화를 연령, 코호트 그리고 기간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의 경우, 첫 직장을 갖는 20, 30대에서 중상층 의식이 점차 상승하다가, 50대에 정점에 이르고 난 후, 은퇴를 하는 60대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왕원 외, 2016). 코호트별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업화세대(1944-60)는 높은 상향이동의식을 가진 반면, 에코 세대(1980-1985)의 상향이동의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왕원 외, 2016). 다음으로, 기간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세대 내 상향이동의식은 20대 초반에 가장 높다가, 30대 중반에는 가장 저조하였고, 50대 이후부터 7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왕원 외, 2016). 세대 간 상향이동의식은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상승하였다(이왕원 외, 20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취업 전후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향이동 의식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2006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1년~2015년의 경우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서는 19세 이상 가구주를,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에서는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청년 혹은 중장년 등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도 있다. 신광영 등(2016)은 2016년 기회 불평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보았다. 중장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본인세대에서 상승이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자녀세대가 본인 세대보다 상향 계층이동을 할 것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신광영 외, 2016). 특히, 하층 계급 부모일수록 상층 계급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신광영 외, 2016).

청년의 사회 이동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수 진행되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15)에서 발표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보고서에서는 중상층 이상 청년층 중 78.5%는 본인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봤지만, 중하층 청년은 55.3%, 빈곤층 청년은 52.2%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용관(201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관련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들이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외, 2017; 김지경, 2017). 한준 외(2017)는 현재의 청년층(1987~1994년생)이 1990년대의 청년층(1966~1975년생)에 비해 상승이동 비율이 약 12%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하강 이동 비율은 오히려 약 8% 높아졌는데,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계층의 고착화를 꼽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회 이동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대 내 이동성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줄어들었다(김희삼, 2016). 특히, 30대와 40대 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 이동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김희삼, 2016). 종사상 지위 별로는 고용주가 가장 사회이동에 낙관적이었고, 자가일수록 사회이동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김희삼, 2016).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사회이동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김희삼, 2016). 다음으로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삼, 2016). 배우자가 있을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김희삼, 2016). 가구 규모별로는 3인 가구가 기타 가구에 비해 사회 이동성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김희삼, 2016). 또한, 자신을 중간층 및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상류층이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 이동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김희삼, 2016).

한편, 사회이동을 계층 혹은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정도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김병조(2000)는 소득,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이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용관(2018)은 2013,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개인과 부모 및 가구의 특성, 사회적 지지 및 자원, 사회 참여 여부, 문화적 및 정서적 자원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8). 2013년과 2017년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 및 주택 자가 여부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점차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8). 특히, 2017년 가구 소득이 청년의 주관적 계층의식 및 이동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3년에 비해 커진 반면, 자원봉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8). 다음으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된 단체 수가 많을수록, 시군읍면 거주자일수록, 돈을 빌릴 수 있는 주변 지인이 많을수록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관, 2018).

제2절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의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만 20~59세의 전국 성인 남녀 6,02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개인 단위로 응답하였다.

2. 측정 변수

가. 종속변수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회이동 경험 (부모-본인 이동, 본인-자녀 이동),

그리고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세대 내 사회이동, 세대 간 사회이동)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표 5-1〉). 먼저,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는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이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본인의 사회이동 그리고 본인-자녀의 사회이동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부모-본인 사회이동의 경우,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인-자녀의 사회이동의 경우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으로는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세대 간 이동을 살펴보았다. 전자는 ‘귀하는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후자는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선택하였다.

〈표 5-1〉 사회이동 관련 문항

구분		주요 문항
일반적 사회이동		-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이동 경험	부모 - 본인 이동	-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 자녀 이동	-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세대 내 이동	-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대 간 이동	-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조사표.

나. 독립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우선, 15세 무렵 성장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15세 무렵 응답자 가족의 주택 자가 보유 여부, 문화생활, 양육방식 및 태도, 학업 성적 그리고 주관적 계층 인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

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15세 무렵 응답자 아버지의 학력, 경제활동 참여 상태, 직업, 현재 본인과 의 일자리 비교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5-2〉 성장환경 및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문항

구분	주요 문항	
15세 무렵 성장 환경	주택 자가 여부	- 귀하가 15세일 무렵 귀댁은 자가를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생활	- 귀하가 15세일 무렵에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ㄱ)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관람 ㄴ) 미술관, 박물관 관람 ㄷ) 연극 및 영화 관람 ㄹ) 가족 여행
	양육 방식 및 태도	- 귀하가 15세일 무렵에 귀댁의 가정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ㄱ)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의 학교 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셨다 ㄴ)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ㄷ)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 주셨다. ㄹ)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ㄴ)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학교 공부보다는 본인의 적성을 살리라고 가르치셨다. ㄷ)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직업적으로 출하계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ㄹ)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학업 성적	- 귀하는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주관적 계층 인식	-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세 무렵 아버지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 귀하가 15세 무렵 아버님의 교육 수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귀하가 15세 무렵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직업	- 당시 아버지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자리 비교	- 귀하의 현재 일자리 지위와 귀하가 15세일 무렵 귀하의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 부의 경우, 응답자가 15세 무렵 상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조사표.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남/여), 거주 지역, 혼인 여부(기혼, 사별·이혼·별거, 미혼), 학력(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상태(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직업(관리자·전문가,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다주택 여부, 상속·증여경험,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적 성향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장에서의 연령 구분은 다른 장과 연령 구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나이 기준을 청년은 20~34세로 보았다. 그리고 보통 45세 전후로 중년과 장년을 구분하는 기존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년은 35~44세, 그리고 장년은 45~59세로 구분하였다.

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연령별로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전체 응답자, 청년, 중년 및 장년별로 사회이동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밝혀 볼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15세 무렵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15세 무렵 성장환경이 일반적 사회이동인식과 사회이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인이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5세 무렵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15세 무렵 성장환경이 사회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 연령별 사회이동성 인식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아래 <표 5-3>와 같다. 남녀의 비율은 청년, 중년 그리고 장년 모두 절반씩 분포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약 10 ~ 13%를 차지하였다. 혼인 상태의 경우, 청년은 미혼이라는 응답이 82.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년과 장년이 기혼인 비율은 66.8%, 77.5%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청년은 고졸이

라는 응답은 50.5%, 중년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51.9%, 그리고 장년이 고졸인 경우는 60.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종사자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라는 비율이 청년은 38.3%, 중년은 47% 그리고 장년은 41.35%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 월평균 소득자가 각 연령대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표 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단위: 명, %)

변수		청년 (20~34세)	중년 (35~44세)	장년 (45~59세)
사례 수		2,208	1,498	2,316
성별	남성	52.1	51.1	50.4
	여성	47.9	48.9	49.6
거주 지역	대도시	46.1	42.7	42.2
	중소도시	43.4	43.7	44.5
	농어촌	10.5	13.7	13.3
혼인 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16.5	66.8	77.5
	사별, 이혼, 별거	0.9	5.4	11.8
	미혼	82.6	27.8	10.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9	1.6
	고졸	50.5	47.2	60.2
	대졸 이상	49.0	51.9	38.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4.7	58.3	50.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7	8.3	9.2
	고용주·자영자	3.3	8.1	13.5
	무급가족 종사자	1.1	1.3	1.3
	실업자	16.4	8.1	9.0
	비경제활동인구	23.8	15.8	16.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6	14.3	14.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8.3	47.0	41.3
	숙련 및 기술직	6.2	10.2	12.3
	단순 노무 종사자	3.7	4.5	6.5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9.9	13.2
	200만 원 대	23.5	17.2	16.5
	300만 원 대	17.7	22.6	18.0
	400만 원대	13.0	17.4	16.4
	500만 원 이상	31.4	32.8	3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사회이동성 인식

가. 일반적 사회이동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회이동 인식 수준은 다음과 같다(〈표 5-4〉, [그림 5-2]). 우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 지위에 영향을 받는 정도’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청년, 중년 그리고 장년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장년층의 응답은 약 88%로 청년층의 응답인 약 82.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자녀 세대의 지위가 부모세대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연령별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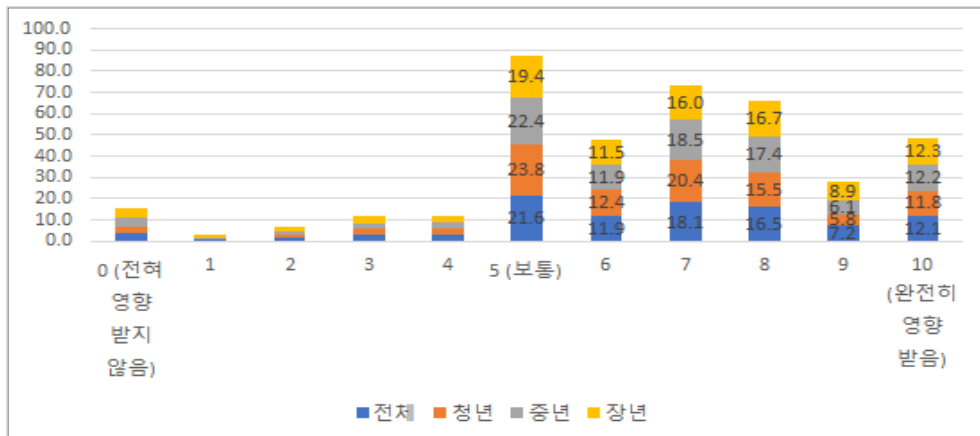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	0.5	1.4	1.6	13.7	8.5	19.8	20.7	12.2	21.2
청년	0.3	1.0	.5	1.4	1.6	13.7	8.5	19.8	20.7	12.2	21.2
중년	0.2	0.1	.1	1.2	1.3	10.6	9.1	20.0	22.4	12.5	22.5
장년	0.3	0	.3	.8	1.3	9.4	7.5	18.8	25.7	16.0	19.9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5-2]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나. 사회이동 경험

사회이동 경험 중 부모-본인 그리고 본인-자녀의 사회이동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부모-본인 이동,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5.8%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청년, 중년, 장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 부모의 지위가 현재 나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5-5〉 연령별 부모-본인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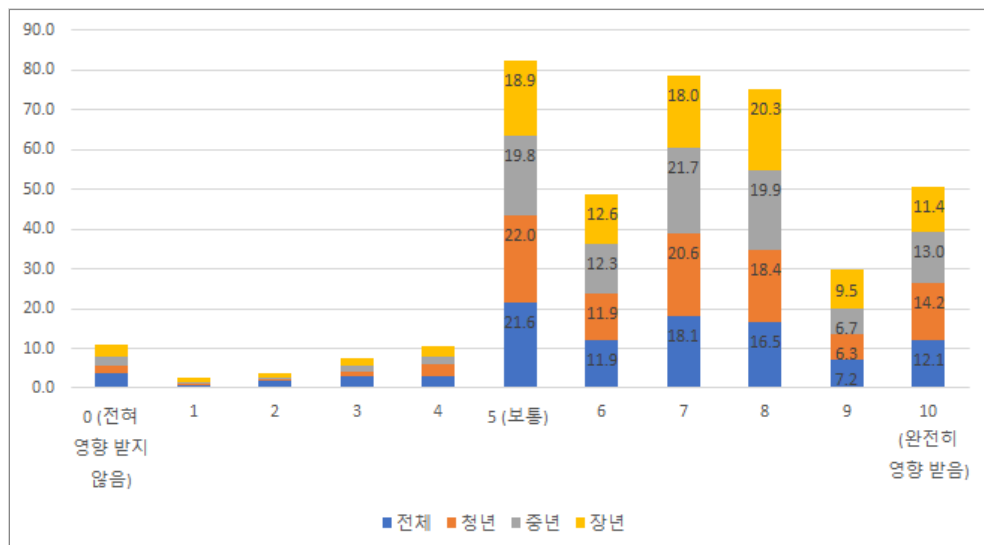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3.9	.8	1.7	3.0	3.1	21.6	11.9	18.1	16.5	7.2	12.1
청년	3.1	.2	1.2	2.7	3.0	23.8	12.4	20.4	15.5	5.8	11.8
중년	3.8	.5	1.6	2.6	3.0	22.4	11.9	18.5	17.4	6.1	12.2
장년	4.7	1.5	2.3	3.6	3.1	19.4	11.5	16.0	16.7	8.9	12.3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5-3] 부모-본인 사회이동 인식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으로, 본인-자녀로의 사회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인-자녀 사회이동, 즉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체 응답자 그리고 연령별 응답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년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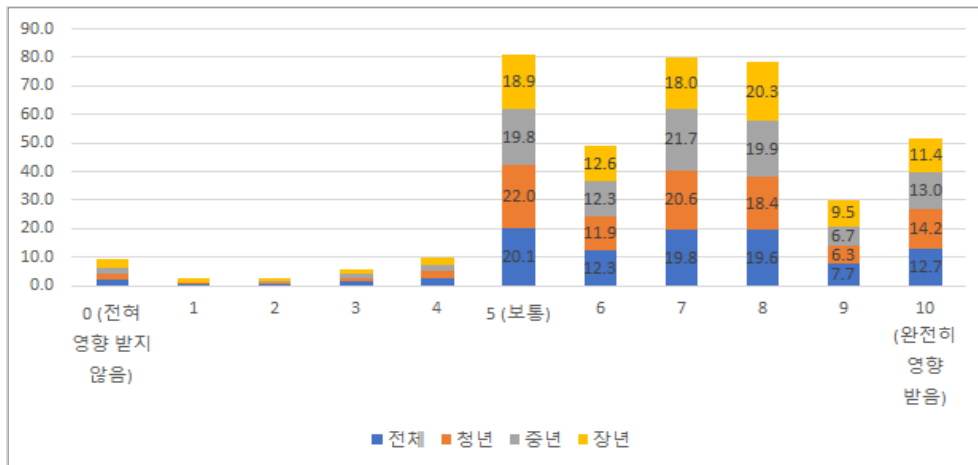
〈표 5-6〉 연령별 본인-자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4	.7	.6	1.5	2.6	20.1	12.3	19.8	19.6	7.7	12.7
청년	1.7	.3	.5	1.2	2.9	22.0	11.9	20.6	18.4	6.3	14.2
중년	2.3	.3	.6	1.6	1.8	19.8	12.3	21.7	19.9	6.7	13.0
장년	2.9	1.2	.8	1.6	2.8	18.9	12.6	18.0	20.3	9.5	11.4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5-4] 본인-자녀 사회이동 인식



주: 0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5 - 보통, 10 - 완전히 영향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 사회이동 가능성

사회이동 가능성 중 세대 내 이동성 그리고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세대 내 사회이동 인식에 대해 보면, [그림 5-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간 높다'와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약 54%로,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이 세대 내 이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특히, 청년은 53.4%, 중년은 52.9%로, 장년은 54.6%로 세대 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장년이 세대 내 이동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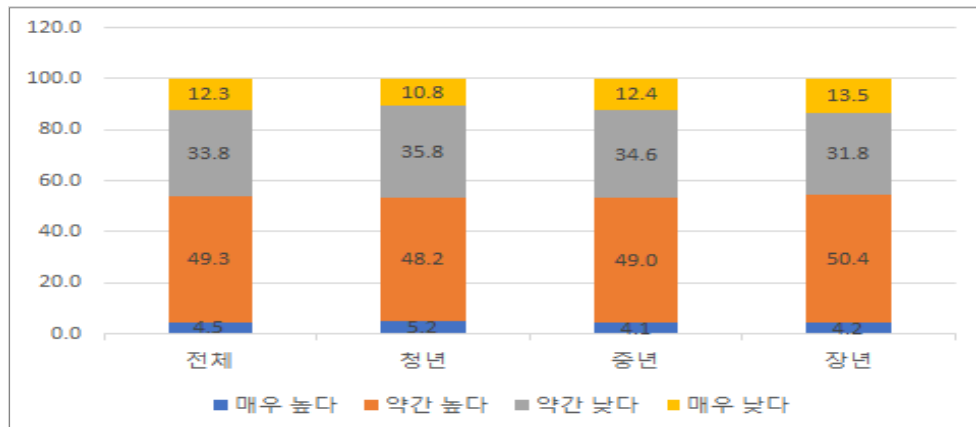
〈표 5-7〉 연령별 세대 내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전체	4.5	49.3	33.8	12.3
청년	5.2	48.2	35.8	10.8
중년	4.1	49.0	34.6	12.4
장년	4.2	50.4	31.8	1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그림 5-5] 세대 내 사회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다음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문항에 대해 '매우 높다'와 '약간 높다'라고 응답한 이는 약 39%로, 전체적으로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세대 내 이동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이동성을 청년은 55.8%, 중년은 37.1%, 장년은 33.3%로, 청년이 세대 간 이동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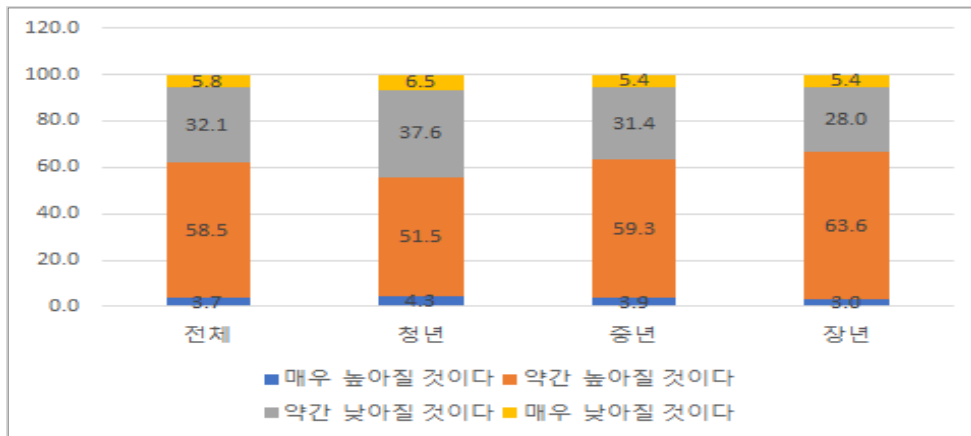
〈표 5-8〉 연령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전체	3.7	58.5	32.1	5.8
청년	4.3	51.5	37.6	6.5
중년	3.9	59.3	31.4	5.4
장년	3.0	63.6	28.0	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그림 5-6〕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 결정 요인

1. 일반적 사회이동

먼저, 사회이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9〉와 같다.

조사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15세 무렵 성장환경 관련 요인 중에서는, 성장지역, 문화생활, 가족이 속한 계층, 본인의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성장지역이 도시일수록, 가족과의 문화생활 경험이 적을수록,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이동 인식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무렵 아버지의 지위 중,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별과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이동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 중년 그리고 장년 집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의 경우, 15세 무렵 성장지역, 가족이 속한 계층, 본인의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도시에서 성장할수록,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이동 인식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5세 무렵 아버지의 경제활동 상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학력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중년의 경우 15세 무렵 양육방식 및 태도, 가족이 속한계층, 그리고 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부모의 양육방식 및 태도가 비지지적일수록,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이동 인식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및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이동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의 경우, 15세 무렵 성장지역, 문화생활, 가족이 속한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청년		중년		장년		
	B	β	B	β	B	β	B	β	
상수	7.128***		6.655***		7.370***		7.185***		
15세 무렵 성장 환경	성장지역	.266***	.059	.333*	.057	.184	.040	.299**	.076
	문화생활	-.202***	-.085	-.071	-.026	-.130	-.055	-.330***	-.131
	양육방식 및 태도	-.145	-.028	-.055	-.010	-.347*	-.067	-.050	-.009
	가족이 속한 계층	-.095***	-.091	-.131***	-.124	-.092**	-.089	-.072**	-.072
	학업성적	.014*	.037	.035**	.082	.025*	.061	-.002	-.006
15세 무렵 아버지 지위	학력	.062	.027	.071	.028	.095	.041	.063	.026
	경제활동 상태	.087**	.042	.159*	.067	.040	.018	.054	.029
	동거여부	-.074	-.010	-.180	-.025	-.138	-.019	.007	.001
통제 변수	성별	.147**	.041	.139	.037	.067	.019	.212**	.061
	거주 지역	-.072	-.028	-.062	-.022	-.019	-.008	-.106	-.042
	혼인상태	-.004	-.002	-.071	-.031	.138*	.070	.004	.002

변수	전체		청년		중년		장년	
	B	β	B	β	B	β	B	β
학력	.407***	.119	.395***	.108	.466***	.138	.399***	.119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	.061	.027	.081	.035	.045	.017	.054	.025
다주택 여부	.003	.001	-.001	.000	.222	.047	-.122	-.027
F(p)	13.367***		4.820***		4.012***		6.533***	
R ² (수정된 R ²)	.039(.036)		.047(.037)		.044(.033)		.044(.037)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사회이동 경험

가. 부모 - 본인 이동

부모에서 본인으로의 사회이동, 즉, 부모님의 지위가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15세 무렵 성장환경, 15세 무렵 아버지의 지위 그리고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10>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15세 무렵 성장환경 중, 성장지역, 양육방식 및 태도, 그리고 가족이 속한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 그리고 15세 무렵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가 비지지적일수록,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부모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도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나의 지위가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장년 역시, 15세 무렵 성장지역,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 가족이 속한 계층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학력과 다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10〉 부모-본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청년		중년		장년		
	B	β	B	β	B	β	B	β	
상수	5.87***		5.16***		6.350		6.33***		
15세 무렵 성장환경	성장지역	.291**	.049	.213	.031	.140	.023	.348*	.061
	문화생활	.084	.026	.032	.010	.088	.028	.073	.020
	양육방식 및 태도	-.48***	-.070	-.434*	-.066	-.682	-.101	-.395*	-.050
	가족이 속한 계층	-.050*	-.037	-.009	-.007	-.043	-.031	-.078*	-.054
	학업성적	.011	.022	.022	.047	-.005	-.009	.011	.023
15세 무렵 아버지 지위	학력	.081	.027	.107	.036	.131	.043	.049	.014
	경제활동 상태	-.003	-.001	.240***	.086	-.131	-.044	-.061	-.022
	동거여부	.180	.019	.178	.021	.353	.037	.120	.012
통제 변수	성별	.138	.029	-.008	-.002	.181	.040	.214	.042
	거주 지역	-.073	-.021	-.137	-.041	.052	.016	-.133	-.036
	혼인상태	.064	.025	-.104	-.038	.138	.054	.159	.042
	학력	.120	.026	.004	.001	.019	.004	.241*	.049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	.010	.003	.157*	.058	-.002	-.001	-.072	-.023
	다주택 여부	-.131	-.020	-.005	-.001	.172	.028	-.313*	-.048
F(p)	4.021***		2.385**		1.634		2.913***		
R ² (수정된 R ²)	.012(.009)		.024(.014)		.018(.007)		.020(.013)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나. 본인 - 자녀 이동

본인에서 자녀세대로의 사회이동, 즉,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15세 무렵 성장환경과 15세 무렵 아버지의 지위 등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5-1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15세 무렵 가족이 속한 계층 그리고 본인의 학업성적과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본

인의 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15세 무렵 가족이 속한 계층, 본인의 학업성적, 아버지의 학력과 아버지의 경제활동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혼인상태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미혼일수록, 본인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의 경우, 본인의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자녀의 사회이동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 역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15세 무렵 가족이 속한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본인-자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전체		청년		중년		장년		
	B	β	B	β	B	β	B	β	
상수	5.788***		6.381***		4.946***		6.108***		
15세 무렵 성장 환경	성장지역	.133	.025	.090	.014	.290	.053	.071	.014
	문화생활	.012	.004	-.044	-.015	.049	.018	-.076	-.023
	양육방식 및 태도	-.195	-.031	-.205	-.034	-.345	-.057	-.163	-.023
	가족이 속한 계층	-.087***	-.072	-.082*	-.072	-.030	-.025	-.107**	-.084
	학업성적	.014*	.033	.026*	.060	.007	.015	.010	.024
15세 무렵 아버지 지위	학력	.117*	.043	.189*	.069	.132	.048	.008	.002
	경제활동 상태	.039	.016	.208**	.081	-.012	-.005	-.026	-.011
	동거여부	.199	.024	-.025	-.003	.459	.054	.250	.027
통제 변수	성별	.228***	.054	.064	.016	.353**	.087	.266*	.060
	거주 지역	-.066	-.021	-.131	-.043	.080	.028	-.113	-.035
	혼인상태	-.008	-.004	-.163*	-.065	.021	.009	-.023	-.007
	학력	.352***	.086	.145	.037	.372**	.094	.463***	.106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	.025	.009	.091	.037	-.006	-.002	.027	.010
	다주택 여부	-.025	-.004	-.025	-.004	.243	.044	-.164	-.028
F(p)	6.030***		3.094***		2.620***		3.210***		
R ² (수정된 R ²)	.018(.015)		.030(.021)		.029(.018)		.022(.015)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3. 사회이동 가능성

가. 세대 내 이동

세대 내 이동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12>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15세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5세 무렵 부모님의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 내 이동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혼인상태, 월평균 근로소득, 다주택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다주택일수록, 세대 내 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모형 2의 경우,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와 본인의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세대 내 이동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혼인상태, 월평균 근로소득, 다주택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 본인의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혼인상태, 월평균 근로소득, 다주택 여부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세대 내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OR	B	OR	B	OR
15세 무렵 아버지 지위	학력	.084*	1.087			.014	1.014
	경제활동 상태	.027	1.027			.050	1.051
15세 무렵 성장 환경	성장지역			-.052	.949	-.081	.922
	문화생활			.009	1.009	.007	1.007
	양육방식 및 태도			.512***	1.669	.513***	1.670
	학업성적			.039**	1.040	.032**	1.033
	가족이 속한 계층			.027	1.027	.034	1.034
통제 변수	성별	-.219***	.803	-.228***	.796	-.218***	.804
	거주지역	-.005	.995	.010	1.010	.002	1.002
	혼인상태	-.076*	.926	-.068*	.934	-.078*	.925
	학력	.099	1.104	.046	1.047	.047	1.048
	경제활동상태	.033	1.034	.024	1.025	.025	1.026
	월평균 근로소득	.113**	1.119	.127**	1.136	.119**	1.127
	다주택 여부	.243**	1.276	.232**	1.261	.247**	1.281
상속·증여 경험	.094	1.098	.060	1.061	.066	1.068	
상수항	-.740**	.477	-1.547***	.213	-1.538***	.215	
		-2LL=6474.799 Nagelkerke R2: .017 Hosmer & Lemeshow test: χ^2 8.490(p=.387)		-2LL=7001.064 Nagelkerke R2: .034 Hosmer & Lemeshow test: χ^2 5.282(p=.727)		-2LL=6306.719 Nagelkerke R2: .033 Hosmer & Lemeshow test: χ^2 8.112(p=.423)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나.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13〉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혼인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일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15세 무렵 성장환경 중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 본인의 학업성적 그리고 가족이 속한 계층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15세 무렵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15세 무렵 본인의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세대 간 이동을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혼인상태와 상속·증여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일수록, 상속·증여 경험이 있을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무렵 성장지역, 양육방식 및 태도, 학업성적, 가족이 속한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세 무렵 도시에서 성장할수록, 부모님의 양육방식 및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본인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이 속한 계층이 낮을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처럼,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OR	B	OR	B	OR
15세 무렵 아버지 지위	학력	-.210***	.811			-.240***	.787
	경제활동 상태	-.034	.967			-.008	.992
15세 무렵 성장 환경	성장지역			.110	1.116	.184*	1.202
	문화생활			-.035	.966	.014	1.014
	양육방식 및 태도			.311**	1.365	.373***	1.452
	학업성적			.039**	1.039	.032*	1.033
	가족이 속한 계층			-.073***	.929	-.060**	.941
통제 변수	성별	-.020	.980	.010	1.011	-.010	.990
	거주지역	-.015	.985	.013	1.013	.014	1.015
	혼인상태	-.196***	.822	-.222***	.801	-.205***	.814
	학력	-.051	.950	-.134	.875	-.067	.935
	경제활동 상태	.007	1.007	-.006	.994	.004	1.004
	월평균 근로소득	.055	1.057	.073	1.075	.057	1.059
	다주택 여부	.087	1.090	.087	1.090	.083	1.087
	상속·증여 경험	.101	1.106	.145*	1.156	.117	1.124
상수항	.815**	2.259	-.070	.932	.006***	1.006	
		-2LL=6187.460 Nagelkerke R2: .029 Hosmer & Lemeshow test: χ^2 7.400(p =.494)		-2LL=6734.447 Nagelkerke R2: .030 Hosmer & Lemeshow test: χ^2 14.395(p =.072)		-2LL=6049.054 Nagelkerke R2: .037 Hosmer & Lemeshow test: χ^2 6.366(p =.606)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제5절 소결

지금까지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이동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부모-본인 그리고 본인-자녀로의 사회이동 경험,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사회이동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이동성 인식 및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그리고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이 고착되는 현상을 느끼는 것은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2009년부터 전체 응답자에게서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사회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수행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의 현황과 인식’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이 본인 부모-본인로의 계층이동보다 약 3~11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신광영 외, 2016). 중장년층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성장 및 교육에 있어 충분한 재정적 지원해 주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광영 외, 2016). 이처럼 전 세대에 걸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향후 계층적 갈등을 촉진하고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사회이동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청년의 경우 부모-본인으로의 이동은 15세 무렵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가, 본인-자녀로의 이동은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 및 경제활동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지위에 관한 영향력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여유진(2008)은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20대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관(201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세대의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세대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속 증여 경험과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여 경험이 있을수록 세대 간 이동 가능성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물려주는 경제적 자원이 본인의 혹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상속세 신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약 13.1% 증가하였고, 2015년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영, 2020). 또한 올해의 증여세 신고 역시 2019년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영, 2020). 이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속증여는 다음 세대의 사회이동에 영향력을 미쳐,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회 평등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이 계층의 사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는 만큼,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맞춤형 대면제도,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임금체계, 능력 중심 고용,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부모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충분히 세대 내 이동을 가능케 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계층 고착화 현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역동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자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증여 및 상속 비율의 증대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혹은 경제활동상태는 자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산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드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참여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 할 만큼, 고소득 응답자가 물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5세 무렵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15세 무렵 성장환경 역시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후속 연구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제6장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변화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인식 변화

제4절 소결

제 6 장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변화

제1절 문제 제기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과 세대간 사회이동 추세를 감안할 때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다섯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약 4.5세대에 비해 더 길다(OECD, 2018). 같은 자료에서 OECD는 한국은 교육이동성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소득 이동성은 평균에 가깝고, 직업 이동성은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소득 이동성은 소득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으로 상향이동 하는 것과 소득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으로 하향이동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전술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낮은 것과 동시에, 소득 최상위 집단의 소득 이동성이 더 낮아 ‘굳어진 바닥’과 ‘굳어진 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관, 2018). 청년들의 사회계층 이동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13년에 46.8%에서 2017년에는 61.5%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사회이동성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사회이동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이동성에 관한 전망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이동성의 저하는 OECD(2018)가 지적하는 것처럼 다수의 재능(자원)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경제성장 저해, 삶의 만족도, 웰빙 및 사회통합 저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인식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연령대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사회통합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사회통합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수행된 2020년 조사를 비교한다. 이 장에서는 2015년에 수행했던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공통된 문항들을 이용하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상기 두 조사의 표집방식과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2015년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집계구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대면조사 방식을 취했으며 가구원 중 빠른 생일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면, 2020년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엄밀히는 두 조사 간의 시계열상 단절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2015년 조사의 응답자를 2020년 조사의 응답자와 동일하게 20세부터 5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집방법과 조사방법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두 조사 간의 절대적 값의 차이가 아니라 각 조사에서의 집단별 분포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편, 이 장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을 연령대와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연령대는 2장에서 사용한 출생 코호트(민주화세대-50대, X세대-40대, IMF세대-30대, 스마트 세대-20대)와 법정 청년 연령을 고려하기 위하여 청년(20~34세), 중년(35~44세), 장년(45~59세)의 연령구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의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을 하층과 중간층을 묶어 하층으로, 중상층과 상층을 묶어 상층으로 다시 코딩해서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제3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인식 변화

1. 사회통합 관련 주요 인식 변화

사회통합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문항으로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사회적 신뢰(‘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 삶의 만족도(‘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행복도(‘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를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설문되었다. 이들 문항은 2014년 사회통합 영향연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설문해왔던 문항들이다.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2015년 4.70점에서 2020년에는 4.92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 같은 상승은 두 조사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네 개 연령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에는 50대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4.8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2020년에는 40대가 5.1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나 20대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연령집단간 편차와 그 통계적 유의성도 더 커졌다. 연령집단을 청년(19~34세), 중년(35~44세), 장년(45~59세)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먼저 2015년에는 장년, 청년, 중년의 순이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년, 중년, 청년의 순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5년에는 연령집단별 사회적 신뢰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20년에 들어서 연령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표 6-1〉 연령집단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20대	4.76	3.9**	4.68	14.2***
	30대	4.53		4.84	
	40대	4.70		5.12	
	50대	4.81		5.02	
연령대별2	19~34세	4.69	2.4	4.71	18.6***
	35~44세	4.60		4.98	
	45~59세	4.77		5.07	
전체		4.70		4.92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0점으로 응답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해서 사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중층이 4.8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층과 하층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상층이 5.6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5년보다 계층간 인식 점수의 차이가 더 커졌다. 2020년 들어 사회적 신뢰수준이 주관적 소득계층에 완전히 비례한다.

〈표 6-2〉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주관적 소득계층별	하층	4.55	14.5***	4.54	141.2***
	중층	4.89		5.31	
	상층	4.75		5.69	
전체		4.70		4.92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0점으로 응답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이번에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5.69점이었는데, 2020년 들어서 4.96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술한 이유에 따라 2020년에 크게 하락한 것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조사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격차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에는 20대가 5.93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다음으로 30대, 5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020년에는 40대,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연령집단별로 비교해보면, 2015년에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5.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년, 장년의 순이었다. 2020년에는 세 집단이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어 2015년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3〉 연령집단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20대	5.93	6.1***	5.02	2.4
	30대	5.68		4.90	
	40대	5.57		5.05	
	50대	5.61		4.88	
연령대별2	19~34세	5.86	8.6***	4.98	0.1
	35~44세	5.65		4.96	
	45~59세	5.55		4.95	
전체		5.69		4.96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상층이 6.7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에도 역시 상층이 6.63점으로 가장 높고, 역시 중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에 비해 집단간 점수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표 6-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층	5.16	178.9***	4.26	493.3***
	중층	6.22		5.63	
	상층	6.78		6.63	
전체		5.69		4.96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연령집단별 행복감 분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의 경우 20대가 6.30으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50대, 40대의 순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에는 40대, 50대, 2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세 개의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청년, 중년, 장년의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장년, 중년=청년의 순이었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 않았다.

〈표 6-5〉 연령집단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20대	6.30	6.6**	5.40	2.3
	30대	6.11		5.27	
	40대	5.92		5.48	
	50대	5.96		5.44	
연령대별2	19~34세	6.24	9.3***	5.35	2.3
	35~44세	6.06		5.35	
	45~59세	5.91		5.48	
전체		6.07		5.40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조사 직전일의 행복했던 정도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계층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상층이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나 행복도가 주관적 계층에 완전히 비례하였다. 계층별 행복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2020년에도 역시 상층이 6.8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층, 하층의 순이어서 역시 주관적 계층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 비해 계층별 행복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으로 커졌다.

〈표 6-6〉 주관적 소득계층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층	5.59	132.7***	4.79	324.9***
	중층	6.53		5.98	
	상층	7.08		6.85	
전체		6.07		5.40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조사 직전일의 행복했던 정도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2.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이하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연령집단별 분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공정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별 분포와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계층의식이 낮고 하향추세에 있는 청년들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이희정, 2018)를 참고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활용된 변수는 현재의 계층의식('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시점에 40세 이상 응답자에 대해서 40세 무렵 계층의식('귀하가 40세 즈음에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시점에 40세 미만 응답자에 대해서 40세 무렵 계층의식('귀하가 40세가 될 무렵 귀하께서는 어디 즈음 속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까?)의 3 문항이다. 40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생애주기상 계층지위가 안정화 되는 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 문항은 1점(최하층)에서 10점(최상층)까지의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응답자가 속한 계층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20대가 4.6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20년에는 20대가 4.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개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세 집단 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가 2020년에는 청년, 중년, 장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연령집단별 응답자가 속한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20대	4.63	2.4	4.66	16.5***
	30대	4.54		4.38	
	40대	4.58		4.35	
	50대	4.42		4.29	
연령대별2	19~34세	4.61	2.4	4.59	19.6***
	35~44세	4.56		4.35	
	45~59세	4.47		4.31	
전체		4.54		4.41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가장 낮은 계층을 1점, 가장 높은 계층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조사 당시 40세 이상의 응답자에 대해서 연령집단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50대가 40대보다 조금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20년에는 50대가 4.56점으로 40대 4.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40대는 현재와 40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이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40세 무렵에 4.56점에서 현재 4.29점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표 6-8〉 연령집단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조사 시점 40세 이상)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40대	4.69	1.3	4.35	14.8***
	50대	4.78		4.56	
연령대별2	40~44세	4.70	0.3	4.38	2.7
	45~59세	4.74		4.49	
전체		4.73		4.46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가장 낮은 계층을 1점, 가장 높은 계층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조사 당시 40세 이상의 응답자에 대해서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40세 쯤 본인의 계층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과 2020년 모두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다만,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1.72점이었는데, 2020년에는 2.28점으로 더욱 커졌다. 그리고 주관적 소득수준이 하층이나 중층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전망하는 계층 수준이 더 낮아졌지만, 상층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40세 무렵에 전망되는 계층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9〉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이상)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4.17	148.5***	3.91	405.8***
	중	5.35		5.08	
	상	5.89		6.19	
전체		4.73		4.46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가장 낮은 계층을 1점, 가장 높은 계층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조사 당시 40세 미만의 응답자에 대해서 연령집단별로 40세 무렵 본인의 계층 수준을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의 경우 20대는 5.90점, 30대는 5.41점으로 20대가 30대에 비해 40세 무렵의 계층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도 20대가 30대 보다 높은 계층 수준을 전망하고 있지만 그 수준의 격차가 더 크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을 청년 연령과 30대 중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두 연령집단 간 전망하는 계층 수준의 차이와 통계적 유의성이 더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40세 무렵에 전망하는 계층수준이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낮아졌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하락 폭이 더 크게 되면서 두 연령집단 간 전망하는 계층 수준의 격차가 더 크고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10〉 연령집단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연령대별1	20대	5.90	41.7***	5.68	161.0***
	30대	5.41		4.89	
연령대별2	19~34세	5.81	49.5***	5.51	118.9***
	35~39세	5.20		4.74	
전체		5.65		5.30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가장 낮은 계층을 1점, 가장 높은 계층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40세 무렵에 속하게 될 계층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40세 미만의 하층에 속하는 경우는 5.18점, 중층은 6.02점, 상층은 7.03점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세 무렵의 계층 지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역시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40세 무렵의 계층 지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역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020년 각 집단이 전망하는 40세 무렵의 계층 지위의 수준은 대체로 낮지만, 집단 간 전망하는 계층 지위 수준의 차이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6-11〉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구분		2015년		2020년	
		평균	F	평균	F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5.18	106.0***	4.48	477.7***
	중	6.02		5.58	
	상	7.03		6.96	
전체		5.65		5.30	

주: * p<0.05, ** p<0.01, *** p<0.001

STATA 13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을 활용하였음.

가장 낮은 계층을 1점, 가장 높은 계층을 10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3. 사회이동 인식 변화

여기서는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이동 인식의 분포를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이동 인식의 변수로 사용하는 문항은 4가지다. '일생동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20대와 5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2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분포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를 청년(19~34세), 중년(35~44세), 장년(45~59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청년층의 긍정적 전망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적인 전망은 중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긍정적인 전망은 장년층에서 가장 높고, 부정적인 전망은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청년층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청년층 내에서도 20대의 경우는 최근에도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청년층 내

에서도 연령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12〉 연령집단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연령대별1	20대	3.8	46.5	34.2	12.2	3.3	100.0	5.8	49.9	34.2	10.1	-	100.0
	30대	2.2	45.2	34.7	13.7	4.2	100.0	3.4	46.5	37.4	12.7	-	100.0
	40대	2.9	44.6	32.2	17.2	3.1	100.0	3.9	50.4	33.6	12.1	-	100.0
	50대	4.2	47.0	31.8	14.1	2.8	100.0	4.8	50.1	30.9	14.2	-	100.0
연령대별2	19~34세	3.2	46.9	34.7	11.8	3.4	100.0	5.2	48.2	35.8	10.8	-	100.0
	35~44세	2.1	44.9	32.2	16.8	4.0	100.0	4.1	49.0	34.6	12.4	-	100.0
	45~59세	4.1	45.4	32.5	15.1	2.9	100.0	4.2	50.4	31.8	13.5	-	100.0
전체		3.3	45.8	33.2	14.4	3.3	100.0	4.5	49.3	33.8	12.3	-	100.0

주: 2020년에는 모르겠다는 선택지 없이 설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두 시기 모두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주관적 소득수준별 인식의 격차가 다소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6-13〉 주관적 계층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2.4	37.1	37.9	18.8	3.9	100.0	3.4	43.0	36.0	17.7	-	100.0
	중	3.4	54.7	29.5	9.4	3.0	100.0	5.1	56.3	32.6	6.1	-	100.0
	상	9.3	62.0	18.4	8.9	1.4	100.0	9.8	59.7	25.2	5.2	-	100.0
전체		3.3	45.8	33.2	14.4	3.3	100.0	4.5	49.3	33.8	12.3	-	100.0

주: 2020년에는 모르겠다는 선택지 없이 설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두 번째 문항인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다고 전망하는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40대와 50대가 약 6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57.3%), 30대(56.6%)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인식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대를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으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15년에는 세 연령집단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장년층,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20대가 두 시기 모두 긍정적으로 본 반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가 자신의 지위 상승 가능성을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자식세대의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기간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생애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확정되는 시기를 40세 정도로 본다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전망은 30대의 인식,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전망은 50대 또는 40대의 인식에 각각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4〉 연령집단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구분		2015년						2020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연령대별1	20대	3.7	57.3	27.1	5.0	6.9	100.0	4.9	52.4	35.9	6.9	-	100.0
	30대	2.8	58.1	25.0	7.9	6.2	100.0	3.1	53.5	37.2	6.2	-	100.0
	40대	4.7	54.6	26.7	8.3	5.7	100.0	3.7	62.7	28.7	4.9	-	100.0
	50대	4.8	56.7	25.3	6.4	6.8	100.0	3.0	63.7	28.0	5.4	-	100.0
연령대별2	19~34세	3.1	57.3	27.0	5.6	7.0	100.0	4.3	51.6	37.6	6.5	-	100.0
	35~44세	4.0	55.6	27.1	8.2	5.2	100.0	3.9	59.3	31.4	5.4	-	100.0
	45~59세	5.0	56.7	24.4	7.4	6.6	100.0	3.0	63.6	28.0	5.5	-	100.0
전체		4.1	56.6	26.0	6.9	6.4	100.0	3.7	58.5	32.1	5.8	-	100.0

주: 2020년에는 모르겠다는 선택지 없이 설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2020년 모두 중층에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하층에서 상승 가능성을 가장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이동성에 대해서는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15〉 주관적 계층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구분		2015년						2020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합계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2.7	55.5	26.9	7.8	7.1	100.0	2.9	56.6	32.9	7.6	-	100.0
	중	5.6	58.2	24.5	5.8	6.0	100.0	4.3	61.2	30.8	3.7	-	100.0
	상	5.8	56.5	28.1	7.0	2.6	100.0	5.7	58.0	32.4	3.9	-	100.0
전체		4.1	56.6	26.0	6.9	6.4	100.0	3.7	58.5	32.1	5.8	-	100.0

주: 2020년에는 모르겠다는 선택지 없이 설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자료 분석.

세 번째 문항인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는 세대내 사회이동성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상한 것이다. 2015년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는 약 31%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0년에 들어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중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청년층이 가장 낮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장년층과 청년층이 비슷한 수준에서 중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이동성의 상향이동 경험은 두 시기 모두 30, 40대 혹은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하향이동 경험은 50대 혹은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들어 청년층의 하향이동 경험이 높아진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 자녀와 장년 부모로 구성된 가구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한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

〈표 6-16〉 연령집단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상당히 좋아짐	다소 좋아짐	차이 거의 없음	다소 나빠짐	상당히 나빠짐	합계	상당히 좋아짐	다소 좋아짐	차이 거의 없음	다소 나빠짐	상당히 나빠짐	합계
연령대별1	20대	2.0	28.7	53.5	13.4	2.4	100.0	3.8	28.5	40.7	20.3	6.7	100.0
	30대	1.4	35.8	49.0	11.7	2.2	100.0	3.5	30.8	40.4	18.3	7.0	100.0
	40대	2.4	30.1	46.0	17.9	3.6	100.0	2.3	34.1	38.9	18.5	6.3	100.0
	50대	1.3	30.2	42.7	20.1	5.7	100.0	2.1	31.6	37.8	19.5	9.0	100.0
연령대별2	19~34세	1.7	30.2	53.2	12.7	2.2	100.0	3.7	28.4	41.2	20.0	6.8	100.0
	35~44세	1.9	36.1	45.7	13.2	3.1	100.0	3.0	33.8	38.4	18.3	6.6	100.0
	45~59세	1.8	28.9	43.8	20.7	4.9	100.0	2.2	32.3	38.5	19.0	8.1	100.0
전체		1.8	31.2	47.6	15.9	3.5	100.0	2.9	31.3	39.4	19.1	7.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경험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두 시기 모두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층, 중층, 하층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의 상향이동 경험과 주관적 소득수준 간에 완전한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층, 상층, 중층의 순으로 나타나 완전한 비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7〉 주관적 계층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상당히 좋아짐	다소 좋아짐	차이 거의 없음	다소 나빠짐	상당히 나빠짐	합계	상당히 좋아짐	다소 좋아짐	차이 거의 없음	다소 나빠짐	상당히 나빠짐	합계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0.5	20.6	50.0	23.3	5.6	100.0	0.9	23.3	38.7	25.1	12.0	100.0
	중	2.7	41.5	47.4	7.4	1.0	100.0	3.8	39.0	43.6	12.0	1.7	100.0
	상	6.9	54.0	29.7	7.5	2.0	100.0	11.8	50.3	23.4	12.3	2.2	100.0
전체		1.8	31.2	47.6	15.9	3.5	100.0	2.9	31.3	39.4	19.1	7.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네 번째 문항인 향후 10년 이내 가구 생활수준 전망을 연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201년의 경우 20대와 30대는 60% 이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한편, 40대는 절반 정도, 그리고 50대는 32% 정도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나, 2030세대가 향후 사회이동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는 2030세대의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기는 하지만 2015년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와의 긍정전망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비율도 50대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지만 40대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으로 구분해서 보면, 2015년에는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의 순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관적인 전망은 정확히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낙관적 전망 비율과 비관적 전망 비율에서 중년층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다른 지표와 다른 특징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긍정적인 전망 비유리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경험한 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경기전망이 어두운 시기에 조사가 된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타 문항들의 경우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 문항에서는 향후 10년으로 시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전망에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반영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8〉 연령집단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상당히 좋아질 것	다소 좋아질 것	차이 거의 없을 것	다소 나빠질 것	상당히 나빠질 것	합계	상당히 좋아질 것	다소 좋아질 것	차이 거의 없을 것	다소 나빠질 것	상당히 나빠질 것	합계
연령대별1	20대	3.8	57.1	35.5	3.2	0.4	100.0	5.8	31.8	44.3	14.9	3.2	100.0
	30대	3.2	58.9	33.1	4.3	0.5	100.0	4.0	33.6	43.6	15.0	3.7	100.0
	40대	4.8	44.4	43.4	6.5	0.8	100.0	3.3	31.9	44.1	17.7	3.1	100.0
	50대	1.2	31.1	55.1	12.2	0.4	100.0	1.3	24.8	41.0	27.7	5.2	100.0
연령대별2	19~34세	3.8	59.4	33.3	3.1	0.3	100.0	5.5	32.2	43.6	15.3	3.3	100.0
	35~44세	4.8	49.9	39.3	4.9	1.1	100.0	3.4	34.6	43.8	14.9	3.4	100.0
	45~59세	1.8	35.0	51.8	11.0	0.4	100.0	1.9	26.2	42.5	24.9	4.6	100.0
전체		3.3	47.5	42.0	6.7	0.6	100.0	3.5	30.3	43.2	19.2	3.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주관적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먼저 2015년에는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 주관적 소득수준과 긍정적 전망 간에 완전한 비

레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은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비관적 전망은 상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하층, 중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들어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층과 중층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층에서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6.1%로 양 시기 모든 집단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하층에 있어서 10년 후 미래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9〉 주관적 계층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구분		2015년						2020년					
		상당히 좋아질 것	다소 좋아질 것	차이 거의 없을 것	다소 나빠질 것	상당히 나빠질 것	합계	상당히 좋아질 것	다소 좋아질 것	차이 거의 없을 것	다소 나빠질 것	상당히 나빠질 것	합계
주관적 소득수준별	하	2.7	41.9	46.6	8.2	0.7	100.0	2.2	26.8	41.9	23.0	6.1	100.0
	중	3.5	53.5	38.6	4.0	0.4	100.0	4.1	33.5	46.7	14.6	1.1	100.0
	상	6.8	56.6	25.9	10.7	0.0	100.0	9.4	38.4	34.8	15.5	1.9	100.0
전체		3.3	47.5	42.0	6.7	0.6	100.0	3.5	30.3	43.2	19.2	3.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자료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공통문항으로 조사하였던 사회적 신뢰,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사회통합 관련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커졌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2015년에 연령집단별 비교적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커졌다. 즉,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

는 비례관계가 더 뚜렷해졌다.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들어서 연령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거의 사라진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더 뚜렷한 비례관계가 확인되었다.

주관적 계층 수준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5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대의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청-중-장년으로 구분해도 마찬가지 결과다. 40세 무렵의 계층을 회상(40대 이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0년 들어 40대와 50대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해졌고, 주관적 소득수준별로도 수준의 격차가 크고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40세 무렵 계층을 예상(40대 미만)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시기 연령대별 뚜렷한 인식의 격차가 있었지만 2020년 들어 그 격차가 더 크고 뚜렷해졌다. 20대가 30대 보다, 청년이 중년보다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주관적 소득수준별로도 역시 2020년 들어 인식의 격차가 더 크고 뚜렷하게 변했다.

사회이동 인식에 대한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의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서 2020년에 2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별 인식 분포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층을 청-중-장년으로 구분하면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 내에서도 연령대별 인식의 분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소득수준별로는 두 시기 모두 비례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연령대별 인식의 격차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가능성을 전망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2030세대보다 4050세대가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세대인 2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는 2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대 간 이동성은 20대에게 가장 먼 미래의 일어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일종의 '기간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이동성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지난 10년 간 생활수준 변화' 문항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두 시기 모두 3040세대 혹은 중년층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20대와 50대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와 청년 자녀와 장년 부모로 구성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소득수준별로는 두 시기 모두 생활수준의 상향이동 경험은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과 사회이동과 관련된 관련 인식이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더 크게 분화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최근 들어 사회통합 및 사회이동에 관한 객관적 현실의 변화가 인구집단별로 상이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이는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과거 세대에 비해 보다 팍팍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기회 보편적인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생애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의 시퀀스가 짧아진 것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기회구조의 협소화로 안정성을 누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정성을 청년을 자녀로 둔 장년층도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의 연령집단별 분화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사회경제적인 긍정적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인구집단에 대한 실제적인 차원의 정책개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 7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먼저,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을 분석한 결과(제2장)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출생 코호트별로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세대 간 이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교육에서의 세대 간 이동에 있어서 출생 코호트별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의 세대 간 전승은 모든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젊은 세대일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세대 간 비교분석 결과 민주화 세대는 현실의 불평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스마트 세대는 사회이동, 불공정과 불평등 수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슈에 대해 민주화 세대와 스마트 세대 간에 인식의 간극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모든 세대가 공히 현재 부와 소득의 분배의 불평등 수준이 기회의 불평등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 간 주거자산의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제3장)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세대로 올수록 첫 분가 시 주택마련에 있어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열악한 특징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은 주택의 점유형태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분가 시 (조)부모세대로부터 이전을 받은 경우 자가와 전세 비중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서도 세대 간 전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무렵 부모의 주거 점유형태와 본인의 현재 주거 점유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약 51%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의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넷째, 주거 점유형태와 자산 이전 경험은 출생 코호트별로 사회이동성 인식(계층 상승 가능성)과 경험(15세 무렵 계층과 현재 계층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이동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제4장)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가 유발한 위기는 다양한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실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는 위기 경험 정도와 더불어 이념적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의 대상(보편지원-선별지원)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분명하게 나뉜다. 셋째,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가 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경고한다. 넷째,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분석 결과(제5장)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청년, 중년, 장년 모든 세대에서 공히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년층이 청년층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는 것에는 이들이 청년세대의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세대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사회이동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경우 사회이동 경험에는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가, 본인에서 자녀로의 이동에 관한 전망에는 15세 무렵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활동상태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속 증여 경험은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인식적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제6장)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인식에 관한 연령집단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의 분화가 더 크고 뚜렷하게 변화하였다. 사회이동성에 관한 전망에서 청년층 내부에서의 인식의 분화가 발견되는데, 이는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일반화하여 질문했을 경우에 성립한다. 즉, 20대가 30대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체화하여 질문하였을 경우에는 20대와 50대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할 때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은 최근 청년층의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각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가 정책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각 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함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데는 세대를 막론하고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주의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입시나 취업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만 마련되면 그 결과가 격차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세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1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라노비치가 명명하는 '자유성과주의(혹은 능력주의) 자본주의'의 속성과 궤를 같이 한다. 밀라노비치의 '능력주의적 평등'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연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능력(노력)에 따라 획득하는 지위는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장애가 없는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주의가 가진 허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Sandel, 2020)이 최근 저서에서 능력주의가 가진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폭력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는 『공정이라는 착각』으로 번역된 그의 저작의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으로 직역하자면 '능력주의의 학정'이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논리는 그 재능과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운에 의하거나 무작위적으로 주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운 조차도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 배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된(composed)'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Reeves, 20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보다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구조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사교육을 통한 교육의 불평등과 대학서열화와 같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에서 열위의 조건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개입과 적극적 우대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심화하고 있는 자산불평등 문제와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구조에서 일어나는 계층별 비대칭적인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문제에 대응할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산불평등의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계층별 비대칭적인 자산 이전 문제는 주거의 비용과 주거의 질의 격차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현 세대의 격차를 유발하는 동시에 증여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커다란 비용을 유발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은 자산(특히 주거용 자산)의 활용성의 경직성에서 유발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 보유량도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거자산을 처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선택보다 끝까지 보유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유산 상속의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건강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산보유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주거비용 완화(주택가격 하락)와 노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누진적 조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윗 세대로부터 자산 이전 경험 여부에 따라 주택 점유형태에 차이를 보이고, 이는 본인의 현재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관련한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윗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 경험의 결과가 몇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는 다시 알레시나와 라 페라라(Alesina and La Ferrara, 2001)의 논리에 따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소의 비약이 있겠지만, 현재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를 위해서는 중산층(중위투표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실제적인 위협과 위험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내, 세대간 이동성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불안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앞선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증여 및 상속 비율의 증대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혹은 경제활동상태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 세대의 자산 불평등과 그 세대 간 전이의 비대칭성이 유발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결과의 불평등은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식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헤크만 식의 결손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 개입 등) 앳킨슨의 처방과 같이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과가 세대 간 이전(대물림)을 통해 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누진적 조세체계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이명진.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 계봉오, 황선재. (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1-28.
-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2020). 사회이동가능성인식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3> 에서 2020.11.02. 인출)
- 국토교통부. (2015). 신혼부부 가구 84.7%, '내 집 꼭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 2015.5.6.
- 김문길, 정해식, 곽윤경, 김미곤, 우선희, 이정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사회통합 상태 진단.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성, 김봉근, 하태욱. (2009).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국제경제연구. 제15권 2호, 87-102.
- 김민철. (2017).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정책 Brief, 603, 1-8.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241-268.
- 김영란, 장혜경, 이운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위정, 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주영, 유승동. (2016). 주택점유의 세대간 이전성. 감정평가학 논집, 15(1), 1-10. 한국감정평가학회.
- 김지경. (2017).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KLIPS 한국노동패널 2017년 학술자료집, 1-22.
- 김현익. (2017).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통계개발원, 299-305.
- 문상균, 최재성. (2020). 비교집단 내 상대적 위치와 사회이동성 인식. 제22차 사회통합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강래, 권오규. (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1권 2호. 169-188. 한국주택학회.
- 박상영. (2020). 작년 10억 이상 상속 7309명, 100억 넘게 받은 이는 237명.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71646001&code=920100 (2020.10.18.).
- 박재완. (2017).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방향. 3-58.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 -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전경련회관 2017.08.08.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2009(3), 10-34.
- 신광영. (2016).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53-74.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신광영, 김영미, 양재진, 이성균. (2016).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서울: 동그라미 재단.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82(2), 53-80.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61-81.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세제. (2015). 386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5(1), 133-164.
- 우석훈, 박일권.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유정인, 박은하. (2011). 복지국가를 말하다: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경향신문(2011. 5.11 특집기사).
- 윤덕룡, 이동은, 이진희. (2019).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경희. (2017). 소득계층 이동성 실태와 동적 변화, 노동리뷰 2017(6). 77-19.
- 이길제, 최막중. (2017).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 이전과 성별 효과. 주택연구. 25(1). 35-62.
- 이병훈, 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111-140.
- 이수욱.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560. 국토연구원.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하이동의식 변화: 연령,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247-284.
- 이용관. (2018).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보건사회연구

- 구. 38 (4): 465-491.
- 이지은, 정세은. (2020). 주택취득여부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제52권 3호. 119-164.
- 임택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조귀동. (2019). 세습중산층 사회. 생각의 힘.
- 전병유. (201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을.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2020(9), 12-59.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유지수. (2019a).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태완, 김현경, 정은희, 오욱찬, 이원진...권혁진. (2019b).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중천. (2002). 최근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 추세: 1999~2000. 한국사회학. 36(2). 1-22.
-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3호, 157-182.
- 통계청. (2020a).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 통계청. (2020b). 2020년 10월 고용동향(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062에서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원자료.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개원심포지엄: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청년의 시선으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심포지엄.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026 (20.08.13).

한준. (2017). 한국 사회의 이동성 제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 흡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08.08.

한준. (2018).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8, 308-317.

한준, 계봉오, 황선재. (2017). 한국 사회의 이동성 제고 방안.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seminar/conference_data_view.jsp?yyyy=2017&mmmm=11&mseq=395&dseq=1679 (20.08.13).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 사상, 2000 봄호, 188-209.

현대경제연구원. (2017).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서울: 동 기관.

Alesina, R., Glaeser, E. (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 (전용범 역). 생각의 힘. (원서출판 2004).

Alesina, R., la Ferrara, E. (2001).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NBER Working Paper, No. 8267.

Black, S., Devereux, P., Lundborg, P., & Majlesi, K. (2020). Poor Little Rich Kids? The Role of Nature versus Nurture in Wealth and Other Economic Outcomes and Behaviour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7(4): 1683-1725.

Burtless, G. (2007). "Income Supports for Workers and Their Families: Earnings Supplements and Health Insurance," In Harry J. Holzer and Demetra Smith Nightingale, eds., *Reshaping the American Workforce in a Changing Economy* (Washington: Urban Institute Press, 2007).

Chung, I., Park. H. (2019).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102307.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Dolan, P., Peas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IPSOS. (2020). Global Divide on Social Mobility. <https://www.ipsos.com/en-us/news>

- polls/Global-Divide-on-Social-Mobility (20.09.02).
- Milanovic. B. (2020). *홀로 선 자본주의* (정승욱 역). 세종. (원서출판 2019).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 *Income Inequality Update(November 2016)*. Center for Opportunity and Equality, OECD.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0a).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OECD.
- OECD. (2020b). *OECD Economic Surveys KOREA Executive Summary*. OECD.
- Park, H. (2003). Intern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0, pp. 227~253.
- Park, H., Cha, J. (2008).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cross Four Cohorts in South Korea.” in Hiroshi Ishida(ed.).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Late-Industrializing Countries*. The 2005 SSM Research Series 14. The 2005 SSM Research Committee. pp. 79~104.
- Reeves. R. (2019). *20 VS 80의 사회* (김승진 역). 민음사 (원서출판 2017).
- Sendel. M. (2020).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원서출판 2020).
-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 equality, opportunity and a new economic imperative*.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Xavier, F., Stephan, L., & Frances M.T.B. (2018).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32. 231-253.



[부록 1]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설문지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 참여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0-61호)을 받아 진행되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결과 분석이나 해석 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의 개인정보는 조사가 종료된 직후 폐기됩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 책임자: 김문길 연구위원
- ◇ 설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 설문조사 책임자: 한국리서치 김보미 차장(02-3014-1056)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답자 선정질문

SQ1. 귀하는 몇 년 몇 월 생입니까?

_____ 년생 _____ 월 (1960년 8월생 ~ 2001년 7월 생)

SQ1_1. 연령 (자동코딩)

1. 만19-24세
2. 만25-29세
3. 만30-34세
4. 만35-39세
5. 만40-44세
6. 만45-49세
7. 만50-54세
8. 만55-59세

SQ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기혼(배우자 있음)
2. 사별, 이혼, 별거
3. 미혼

SQ3. (29세 이하 미혼만)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부모와 함께 거주
2. 부모로부터 독립함 (별도 가구)
3.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음 (예. 본가로부터 용돈 받아 생활하는 자취생) → 설문종료

S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SQ5.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 17. 세종 | | | |

SQ5-1. (SQ5=1)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서울특별시 남동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서울특별시 남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3. 서울특별시 북동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 서울특별시 북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SQ5-2.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동 지역 (SQ5=1,5,6 자동 입력)
2. 읍/면 지역

SQ6.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고, 재학/중퇴이신 경우 한 단계 아래 학력으로 체크)

1. 무학 → 문1로
2. 초등학교 졸업 → 문1로
3. 중학교 졸업 → 문1로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학 졸업
6. 4년제 대학 졸업
7. 대학원 졸업

SQ6-1. 귀하께서 다녔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입학당시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응답)

1. 일반고(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2. 특목고(과학·외국어·국제고), 자사고
3. 예술·체육고
4. 특성화고(상고, 농고, 공고, 수고, 마이스터고 등)
5. 기타(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응답자 고용상태****문1. 귀하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경우, 복귀가 확실하면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주 → 문4로
3. 무급가족종사자 (※ 무급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농장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일을 돕는 경우) → 문4로
4. 실업자 (※ 구직활동, 창업 준비 중이신 경우) → 문6으로
5.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음 (※ 전업주부, 학생 등) → 문6으로

문2.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 문4로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문4로

문3.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정규직
2. 무기계약직
3. 비정규직

문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직(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 등)
2. 전문직 I(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연구직 등)
3. 전문직 II(공무원, 교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
4. 사무직
5. 서비스·판매직
6. 농림어업
7. 생산직(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8. 단순노무직
9. 군인

문5. 현재의 일자리(직장)는 귀하가 성인이 된 후 처음 시작한 일자리(직장)입니까?

1. 예
2. 아니오

문6. 귀하는 처음 일을 언제 시작하셨습니다?

1. 처음 일을 시작한 연도 : _____ 년
2. 일자리(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 문7로

문6-1. 귀하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학력이 현재 최종 학력과 동일합니까?

1. 예 → 문6-3으로
2. 아니오

문6-2. 귀하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였습니까?

※ 현재 직장 첫 직장이 동일하더라도 첫 직장에서의 근로형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응답합니다.

(※현재 학력보다 높은 학력 응답 불가)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학 졸업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 졸업

문6-3. 귀하는 처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문5=1응답자는 문1 응답값 자동 코딩)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주 → 문6-6으로
3. 무급가족종사자 (※ 무급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거나 농장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일을 돕는 경우) → 문6-6으로

문6-4. 귀하의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 문6-6으로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문6-6으로

문6-5. 귀하의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정규직
2. 무기계약직
3. 비정규직

문6-6. 귀하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현재 직장과 첫 직장이 동일하더라도 승진, 자격증 취득 등의 이유로 직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 응답합니다.

1. 관리직(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 등)
2. 전문직 I(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연구직 등)
3. 전문직 II(공무원 교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
4. 사무직
5. 서비스·판매직
6. 농림어업
7. 생산직(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8. 단순노무직
9. 군인



가구 일반 사항

문7. 귀하를 포함해 귀 닥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가구원 수 응답하는 방법

-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주말 부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면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셰어하우스, 기숙사 등에서 함께 사는 타인은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_____명

문8. 귀하는 귀 닥의 가구주입니까?

1. 예 (문7=1명 자동입력)
2. 아니오

문9. 귀 닥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단독가구(1인 가구) (문7=1만 응답가능, 자동코딩)
2. 모자가구(※ '모'와 만17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단, 자녀가 학생이면 21세까지 해당)
3. 부자가구(※ '부'와 만17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단, 자녀가 학생이면 21세까지 해당)
4. 조손가구(※ '조부모'와 만17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5. 그 외 일반가구 (※ 부모동거가구,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형제자매가구, 친인척 가구 등)

문10. 귀 닥의 7월 말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가구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닥은 최근 6개월(2월~7월) 동안의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가구소득 응답하는 방법

근로소득 + 임대/이자 소득 + 공적/민간연금 + 따로 사는 가족에게 받는 용돈 + 정부 지원금(생계급여, 양육·아동수당 등)

- | | |
|---------------|---------------|
| 1. 0~49만원 | 2. 50~99만원 |
| 3. 100~149만원 | 4. 150~199만원 |
| 5. 200~249만원 | 6. 250~299만원 |
| 7. 300~349만원 | 8. 350~399만원 |
| 9. 400~449만원 | 10. 450~499만원 |
| 11. 500~549만원 | 12. 550~599만원 |
| 13. 600~649만원 | 14. 650~699만원 |
| 15. 700~749만원 | 16. 750~799만원 |
| 17. 800~849만원 | 18. 850~899만원 |
| 19. 900~949만원 | 20. 950~999만원 |
| 21. 1000만원 이상 | |

문11. 귀하의 7월 말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은 올해 2월~7월의 근로소득을 6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근로소득은 임금 및 사업소득(순수입)을 의미합니다.

한 달 평균 _____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문11-1. 그렇다면 2019년 12월 당시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세금공제 전)은 얼마였습니까?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은 2019년 6월~12월 근로소득을 6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근로소득은 임금 및 사업소득(순수입)을 의미합니다.

한 달 평균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문12. 귀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예: 빌라, 다세대주택)
4. 기타 (예: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13.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속한 '가구'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 가구라면 '자가'에 해당합니다.

- 단, 부모님과 별도 가구라면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에 해당합니다.

1. 자가 → 문13-1로
2. 전세 → 문13-2로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문13-3으로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포함) → 문13-4로
5.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예: 시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 문14로
6. 기타(예: 사택 등에 무상 거주) → 문14로

문13-1. (문13=1)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택가격 (7월말 시세 기준)

※ 검색창에서 7월 기준 주택의 시세를 검색해서 입력해주세요 //시세 검색 가능한 링크 삽입//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 문13-5로

문13-2. (문13=2)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 문13-5로

문13-3. (문13=3)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 문13-4로

문13-4. (문13=3,4)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액 (※연세는 월세로 환산)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 문13=3응답자는 문13-5로, 문13=4응답자는 문14로

문13-5. (문13=1,2,3)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채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 등)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 문14로

문14. 귀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분가

(문15A 파트 : 미혼만 응답)

문15A. 귀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 부모님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비자발적으로 독립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시설이나 친인척 집에 거주하게 된 경우는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1. 예 (문7=1명 자동입력)
2. 아니오 → 문16으로

문15-1A. 귀하가 처음 독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주의: 부모와 따로 살게 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분가(별도 가구를 구성)한 시기를 응답합니다.

_____년

문15-2A. 독립하기 전 부모님과 살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택유형)

1.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예: 빌라, 다세대주택)
4. 기타 (예: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15-3A. 독립하기 전 부모님과 살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점유형태)

※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거주하셨다면 '자가'에 해당합니다.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포함)
5.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예: 친인척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6. 기타 (예: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문15-4A. 독립하기 전 부모님과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도 지역 시부(~도~시)
4. 도 지역 군부(~도~군)
9. 해외

문15-5A. [제시 : 15-1A년] 처음 독립해서 귀하가 살았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택유형)

※ 부모와 따로 살게 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분가(별도 가구를 구성했을 때를 응답합니다.

1.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예: 빌라, 다세대주택)
4. 기타 (예: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15-6A. 처음 독립해서 귀하가 살았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점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포함)
5.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예: 부모나 친인척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6. 기타 (예: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문15-7A. 처음 독립해서 귀하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도 지역 시부(~도~시)
4. 도 지역 군부(~도~군)
9. 해외

→ 문15-6A=4,5,6 응답자는 문16으로 이동

문15-8A. (문15-6A=1,2,3 응답자) 처음 독립해서 귀하가 살았던 주택의 구입비용(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주택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경우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 상속 등)'에 100%로 기입합니다.

1. 본인이 모아둔 돈	%
2.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 상속 등)	%
3. 금융기관 대출, 부모 및 다른 가족에게 빌림	%
총 주택 구입비용(주택가격 또는 보증금)	100%

→ 문16으로

(※ 문15B 파트 : 기혼, 사별, 이혼, 별거만 응답)

문15-1B. 귀하가 결혼하여 처음 분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첫 분가 시기 _____년
2.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음 → 문16으로

문15-2B 결혼 후 분가 당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택유형)

1.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예: 빌라, 다세대주택)
4. 기타 (예: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15-3B 결혼 후 분가 당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점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포함)
5.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예: 친인척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6. 기타 (예: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문15-4B 결혼 후 분가 당시 부모님이 사시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도 지역 시부(~도~시)
4. 도 지역 군부(~도~군)
9. 해외

문15-5B 결혼 후 처음 분가하여 귀하가 살았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주택유형)

1.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예: 빌라, 다세대주택)
4. 기타 (예: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15-6B 결혼 후 처음 분가하여 귀하가 살았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점유형태)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포함)
5.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예: 부모나 친인척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6. 기타 (예: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문15-7B 결혼 후 처음 분가하여 귀하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도 지역 시부(~도~시)
4. 도 지역 군부(~도~군)
9. 해외

→ 문15-6B=4,5,6 응답자는 문16으로 이동

문15-8B (문15-6B=1,2,3 응답자) 결혼 후 처음 분가하여 귀하가 살았던 주택의 구입비용(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주택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경우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 상속 등)'에 100%로 기입합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모아둔 돈	%
2. (조)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 상속 등)	%
3. 금융기관 대출, 부모 및 다른 가족에게 빌림	%
총 주택 구입비용(주택가격 또는 보증금)	100%

→ 문16으로

(※ 모든 응답자)

문16.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 받은 것만 기재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목돈을 지원받으셨으면 '있다'에 체크해주세요.
 ※ 상속 및 증여는 살아계셨을 당시, 또는 돌아가시고 난 후 받은 결혼 및 사업자금, 기타 현물 및 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있다
2. 없다 (문15-8A=2 혹은 문15-8B=2, (조)부모의 증여 및 상속에 1% 이상 응답 시 비활성화)

→ 문17-1로

문16-1. 누구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속·증여 받은 총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가 됩니까?

1.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_____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2. (나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 _____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문16-2.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께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는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 전혀 도움 안됨
2. 별로 도움 안됨
3. 보통
4. 약간 도움이 됨
5. 매우 큰 도움이 됨

문17-1. 귀하의 아버지는 현재 살아계십니까?

※ 친부가 아닌 경우도 부모님에 포함됩니다.

1. 생존
2. 사망
3. 생사불명

문17-2. 귀하의 어머니는 현재 살아계십니까?

※ 친모가 아닌 경우도 부모님에 포함됩니다.

1. 생존
2. 사망
3. 생사불명

문18.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				보통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문19-1. (응답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귀하가 40세 즈음에 귀하는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				보통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문19-2. (응답자가 40세 미만인 경우) 귀하가 40세가 될 무렵 귀하께서는 어디 즈음 속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최하	←				보통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III. 사회이동

문20-1.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 해당 지역이 승격·편입·통합된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도 지역 시부(~도~시)
4. 도 지역 군부(~도~군)
9. 해외 → 문21로

문20-2.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읍면동)

※ 해당 지역이 승격·편입·통합된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1. 동 (문20-1=1 응답자는 1 자동입력)
2. 읍
3. 면

문21.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 귀 댁은 '자가'를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 당시 실제 거주하였던 집이 전월세였어도, 부모님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자가 보유에 해당합니다.

1. 자가 보유
2. 자가 보유 안 함

문21-1.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문21=1만 응답가능, 자동코딩)
2. 전세
3.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4. 월세(사글세)
5. 기타 (가구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집 또는 사택 등에 무상 거주)

문22.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 보통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문23. (SQ6=3,4,5,6,7만 응답) 귀하는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의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무학, 초졸은 향후 데이터 제공 시 99. 비 해당 처리)

최하			← 보통				← 최상		
1	2	3	4	5	6	7	8	9	10

문24.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댁의 가정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 부모님이 안계시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른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주양육자가 전혀 없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해당 없음
	1	2	3	4	5	9
(1)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의 학교 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셨다						
(2)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3)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 주셨다						
(4)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5)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학교 공부보다는 본인의 적성을 살리라고 가르치셨다						
(6)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직업적으로 출세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7) 부모님(주양육자)께서는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문25. 귀하가 15세일 무렵(중학교 3학년)에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월 2회 이상	월 1회 정도	1년에 2번 이상	1년에 한번	2~3년에 한번	한번도 한 적 없다
	1	2	3	4	5	9
(1)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관람						
(2) 미술관, 박물관 관람						
(3) 연극 및 영화 관람						
(4) 가족 여행						

※ 귀하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아버님에 대한 질문입니다(친부가 아닌 경우도 아버님에 포함됩니다).

문26. 귀하가 15세 무렵 아버님이 생존해 계셨습니까? (※ 친부가 아닌 경우도 아버님에 포함됩니다)

1. 생존
2. 사망 → 문27로
3. 생사불명 → 문27로

문26-1. 아버님이 생존해 계셨다면, 15세 무렵 함께 생활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26-2. 귀하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아버님의 교육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였습니까?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5. 전문대학 졸업 | 6. 대학교 졸업 |
| 7. 대학원 졸업 | | |

문26-3. 귀하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 당시 아버님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또는 이후 자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버지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1. 임금 받고 일하는 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주 → 문26-6으로
 3. 무급가족종사자 (※ 무급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농장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일을 돕는 경우) → 문26-6으로
 4. 일하지 않음(실업, 비경제활동) → 문27로
99. 잘 모른다 → 문27로

문26-4. 당시 아버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1.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 문26-6으로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문26-6으로
99. 잘 모른다 → 문26-6로

문26-5. 당시 아버님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어떠했습니다?

1. 정규직
 2. 비정규직
99. 잘 모른다

문26-6. 당시 아버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당시 아버님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또는 이후 자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버지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1. 관리직(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 등)
 2. 전문직 I(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연구직 등)
 3. 전문직 II(공무원 교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
 4. 사무직
 5. 서비스·판매직
 6. 농림어업
 7. 생산직(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8. 단순노무직
 9. 군인
99. 잘 모른다 → 문26-7로

문26-7. 귀하의 현재 일자리 지위와 귀하가 15세일 무렵 귀하의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현재 일자리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보다 훨씬 높다
2.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보다 높다
3. 현재 내 일자리 지위와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가 비슷하다
4.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보다 낮다
5.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아버지의 일자리 지위보다 매우 낮다
6. 나는 아직 일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문6=2만 응답가능, 자동코딩)

99. 잘 모른다

※ 귀하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친모가 아닌 경우도 어머니에 포함됩니다).

문27. 귀하가 15세 무렵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습니까?

1. 생존
2. 사망 → 문28로
3. 생사불명 → 문28로

문27-1.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다면, 15세 무렵 함께 생활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27-2. 귀하가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기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였습니까?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5. 전문대학 졸업 | 6. 대학교 졸업 |
| 7. 대학원 졸업 | | |

문27-3. 당시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당시 어머니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또는 이후 자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임금 받고 일하는 근로자
 2. 자영업자, 고용주 → 문27-6으로
 3. 무급가족종사자 (※ 무급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농장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일을 돕는 경우) → 문27-6으로
 4. 일하지 않음(실업, 비경제활동) → 문28로
99. 잘 모른다 → 문28로

문27-4. 당시 어머니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 문27-6으로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문27-6으로
99. 잘 모른다 → 문27-6으로

문27-5. 당시 어머니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어떠했습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99. 잘 모른다

문27-6. 당시 어머니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 어머니의 일자리가 자주 변동된 경우는 가장 길고 주된 일자리, 또는 이후 자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1. 관리직(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 등)
2. 전문직 I(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연구직 등)
3. 전문직 II(공무원, 교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
4. 사무직
5. 서비스·판매직
6. 농림어업
7. 생산직(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8. 단순노무직
9. 군인
99. 잘 모른다

문27-7. 귀하의 현재 일자리 지위와 귀하가 15세일 무렵 귀하의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현재 일자리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보다 훨씬 높다
2.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보다 높다
3. 현재 내 일자리 지위와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가 비슷하다
4.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보다 낮다
5. 현재 내 일자리 지위가 어머니의 일자리 지위보다 매우 낮다
6. 나는 아직 일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문6=2만 응답가능, 자동코딩)
99. 잘 모른다

※ 귀하의 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8. 귀하께서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어떠합니까?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5. 전문대학 졸업 | 6. 대학교 졸업 |
| 7. 대학원 졸업 | 99. 잘 모른다 | |

문28-1. 귀하께서 기억하시는 할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관리직(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 등)
2. 전문직 I(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연구직 등)
3. 전문직 II(공무원, 교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
4. 사무직
5. 서비스·판매직
6. 농림어업
7. 생산직(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8. 단순노무직
9. 군인
10. 무직
99. 잘 모른다



IV. 일반 사회인식

문29.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 부유한 집안 출신					
(2)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3) 본인의 좋은 학벌					
(4) 야망을 갖는 것					
(5) 열심히 일하는 것					
(6)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을 아는 것					
(7) 지역 연고					
(8) 뇌물을 주는 것					
(9) 종교					
(10) 성별					

문30.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1	2	3	4	5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승진·승급 기회					
(4) 법의 집행					
(5) 여성에 대한 대우					
(6) 남성에 대한 대우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9) 소득 분배					
(10) 부(재산) 분배					
(11) 지역 간 발전 수준					

문31.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2	3	4	5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승진·승급기회					
(4) 법의 집행					
(5) 여성에 대한 대우					
(6) 남성에 대한 대우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9) 소득 분배					
(10) 부(재산) 분배					
(11) 지역 간 발전 수준					

문32. 만약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의 사건들을 현재 경험 중에 있으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1	2	3	4	5
(1)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3) 실직이나 사업부진					
(4)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5)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					
(6)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7)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					
(8) 주택마련(전셋값) 등의 부채 상황					

문33. 최근의 코로나-19 유행이 귀하의 가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심각한 영향을 준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3. 별로 영향이 없다
4. 전혀 영향이 없다

문33-1.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2.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 창출
3.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4.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문 34.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 보통 —————→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0	1	2	3	4	5	6	7	8	9	10	

문 35.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받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 받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 35-1.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받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 받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 35-2.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 받지 않음	←————— 보통 —————→										완전히 영향 받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 36.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5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					

문37.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1	2	3	4	5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5)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문38.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2.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4.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5.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6.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7.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문39.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1	2	3	4

문40.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1	2	3	4

문45.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6.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셧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47.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	2	3	4

문48.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1	2	3	4	5

문49.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1	2	3	4	5

[부록 2]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II)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개요

〈부표 2-1〉 표본 설계 개요

분 류	내 용
모집단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 일반가구 내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
표집틀	-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54만 명)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전국 6,000명 - 만19-39세 3000명 - 만40-59세 3000명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1.26\%p$
표본추출방식	① 층화 : 시/도(20개 권역), 동부/읍면부 - 1차 :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도지역을 층화함(17개 시도) - 2차 : 서울은 생활권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함(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 3차 : 광역시 이외의 시도는 동부/읍면부로 층화함
표본배정방식	- 청년층(만19-39세), 장년층(40-59세) 균등 배분 (각 3,000명) - 청년/중장년층 집단 내 지역(28개 층)*성별(남녀)*연령별(5세 단위) : 비례배분
가중치 산정	- 셀가중

2. 조사대상

- 이 조사의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임.
- 본 조사의 목표 표본수는 6,000명임.
- 단, 본 조사는 청년층을 별도로 분석할 목적에 따라, 만19-39세 청년층과 만 40-59세 장년층을 각각 3000명씩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층화

□ 전국을 28개 층으로 층화

- 1차 :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 도지역을 층화함(17개 시도)
- 2차 : 서울은 생활권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함.

〈부표 2-2〉 서울 권역 구분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3차 : 광역시 이외의 시도는 동부/읍면부로 층화함.

〈부표 2-3〉 지역 층화 결과

지역	층화	층 수
서울, 6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6개)	10
도 지역	9개 지역(동부)	9
	9개 지역(읍·면부)	9
전체 합계		28

4. 표본배분

□ 본 조사는 2020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해(〈부표 2-4〉, 〈부표 2-5〉) 모집단의 성, 연령,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배분함(〈부표 2-6〉, 〈부표 2-7〉).

□ 또한 고학력자가 과대 표집되지 않도록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해 만 19-39세, 40-59세의 학력 분포를 추가로 할당함(〈부표 2-8〉).

〈부표 2-4〉 만19-39세: 총별 모집단 분포

행정구역		19-39세	19-24		25-29		30-34		35-3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14,357,540	2,027,354	1,857,863	1,857,452	1,658,510	1,640,171	1,517,950	1,941,166	1,857,074
서울특별시	남동	643,868	74,504	76,394	75,972	84,167	75,340	82,825	82,727	91,939
서울특별시	남서	982,769	107,197	116,146	138,833	142,462	124,994	116,569	122,824	113,744
서울특별시	북동	906,659	117,714	124,844	121,235	118,328	102,693	101,171	111,979	108,695
서울특별시	북서	529,299	60,215	67,887	68,988	73,850	61,136	64,714	65,918	66,591
부산광역시	대도시	895,988	127,222	118,268	117,608	106,295	99,008	92,983	119,073	115,531
대구광역시	대도시	651,775	101,552	90,228	86,684	73,578	72,934	62,881	82,497	81,421
인천광역시	대도시	848,100	115,059	107,253	112,530	101,930	96,943	89,478	115,754	109,153
광주광역시	대도시	418,201	66,950	61,517	52,593	48,088	42,651	40,129	53,709	52,564
대전광역시	대도시	428,791	63,940	60,031	57,469	50,101	48,761	42,674	53,839	51,976
울산광역시	대도시	315,434	47,814	38,295	41,667	32,186	37,281	31,255	45,185	41,751
경기도	동부	3,319,751	451,014	421,241	421,869	382,851	378,544	359,353	459,167	445,712
경기도	읍면부	547,688	80,914	67,610	73,827	55,484	65,535	52,934	81,098	70,286
강원도	동부	233,722	38,879	33,579	29,297	24,599	24,801	22,576	30,245	29,746
강원도	읍면부	131,164	22,841	16,588	19,003	12,119	15,475	12,148	17,490	15,500
충청북도	동부	261,864	41,710	36,763	36,019	28,431	28,466	25,155	33,154	32,166
충청북도	읍면부	151,950	21,792	17,425	20,590	14,393	19,325	15,607	23,155	19,663
충청남도	동부	307,179	42,192	38,411	38,118	32,803	37,409	32,889	44,306	41,051
충청남도	읍면부	232,053	36,542	28,359	29,567	20,583	28,202	22,403	36,542	29,855
세종특별자치시		100,391	10,419	9,551	9,647	9,968	12,450	13,053	17,160	18,143
전라북도	동부	337,799	57,019	50,842	41,644	36,555	34,107	32,217	43,049	42,366
전라북도	읍면부	88,450	15,592	12,174	11,386	8,592	9,670	8,201	12,286	10,549
전라남도	동부	213,728	36,260	30,221	27,283	21,816	22,138	19,935	29,134	26,941
전라남도	읍면부	197,239	35,037	27,510	24,466	19,101	20,499	18,597	27,895	24,134
경상북도	동부	368,986	58,828	48,283	46,886	37,024	41,948	35,705	51,161	49,151
경상북도	읍면부	242,024	39,362	29,793	31,483	22,318	29,446	23,380	35,771	30,471
경상남도	동부	573,287	91,289	74,846	71,589	58,257	63,415	55,724	81,623	76,544
경상남도	읍면부	255,853	39,110	30,525	30,019	23,546	29,056	26,117	40,047	37,433
제주특별자치도		173,528	26,387	23,279	21,180	19,085	17,944	17,277	24,378	23,998

〈부표 2-5〉 만40-59세: 총별 모집단 분포

행정구역		40-59세	40-44		45-49		50-54		55-5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16,991,447	1,981,085	1,917,647	2,255,463	2,184,076	2,222,442	2,175,253	2,143,653	2,111,828
서울특별시	남동	680,181	82,025	91,496	90,845	96,568	82,993	84,560	73,323	78,371
서울특별시	남서	907,593	110,290	107,023	120,326	117,263	112,753	114,747	110,396	114,795
서울특별시	북동	960,840	106,864	106,109	125,121	127,521	123,918	128,422	118,856	124,029
서울특별시	북서	528,367	60,406	62,313	69,596	71,657	66,596	68,987	63,026	65,786
부산광역시	대도시	1,089,107	122,352	118,638	136,383	136,941	137,719	143,830	141,020	152,224
대구광역시	대도시	815,126	87,766	89,078	103,320	107,277	106,708	110,929	102,769	107,279
인천광역시	대도시	1,000,037	117,873	111,373	130,607	126,541	127,569	129,171	129,310	127,593
광주광역시	대도시	477,189	56,526	57,337	64,298	65,281	61,667	62,447	54,198	55,435
대전광역시	대도시	482,622	55,105	55,729	64,442	64,549	62,754	62,725	58,261	59,057
울산광역시	대도시	399,691	46,245	42,997	49,877	50,008	54,032	53,534	53,264	49,734
경기도	동부	3,789,171	465,343	458,249	512,149	510,284	480,838	485,139	442,872	434,297
경기도	읍면부	727,639	87,401	76,811	101,676	84,676	100,866	85,722	101,481	89,006
강원도	동부	303,607	32,497	33,671	40,303	40,201	40,768	39,791	37,777	38,599
강원도	읍면부	190,766	19,138	16,311	24,296	19,313	27,639	23,416	31,768	28,885
충청북도	동부	309,123	34,630	34,583	40,294	40,983	40,778	41,916	37,973	37,966
충청북도	읍면부	207,088	23,517	19,439	27,059	21,657	29,999	25,017	32,275	28,125
충청남도	동부	324,957	42,874	40,962	44,738	43,683	40,769	39,834	37,120	34,977
충청남도	읍면부	343,999	39,847	32,077	47,862	36,900	48,463	39,179	53,052	46,619
세종특별자치시		110,258	17,405	17,600	16,724	14,959	12,311	11,190	10,328	9,741
전라북도	동부	417,229	47,021	47,875	56,568	56,938	54,612	54,291	49,793	50,131
전라북도	읍면부	155,016	15,507	11,544	20,940	14,856	24,228	18,318	26,893	22,730
전라남도	동부	265,370	30,334	29,271	34,895	34,238	36,744	34,520	33,021	32,347
전라남도	읍면부	311,509	32,560	26,470	42,633	31,756	47,941	36,778	50,751	42,620
경상북도	동부	465,258	52,995	52,476	60,039	61,079	60,915	61,300	57,733	58,721
경상북도	읍면부	382,611	39,137	31,717	49,641	39,286	56,566	47,293	63,201	55,770
경상남도	동부	741,812	85,835	83,616	98,908	98,311	97,879	97,661	90,061	89,541
경상남도	읍면부	380,949	43,241	37,743	50,120	42,024	53,677	46,746	55,747	51,651
제주특별자치도		224,332	26,351	25,139	31,803	29,326	30,740	27,790	27,384	25,799

〈부표 2-6〉 만19-39세: 표본배분 결과

행정구역		19-39세	19-24		25-29		30-34		35-3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3,000	423	389	386	348	343	317	405	389
서울특별시	남동	135	16	16	16	18	16	17	17	19
서울특별시	남서	205	22	24	29	30	26	24	26	24
서울특별시	북동	189	25	26	25	25	21	21	23	23
서울특별시	북서	110	13	14	14	15	13	13	14	14
부산광역시	대도시	186	26	25	24	22	21	19	25	24
대구광역시	대도시	135	21	19	18	15	15	13	17	17
인천광역시	대도시	176	24	22	23	21	20	19	24	23
광주광역시	대도시	87	14	13	11	10	9	8	11	11
대전광역시	대도시	89	13	13	12	10	10	9	11	11
울산광역시	대도시	67	10	8	9	7	8	7	9	9
경기도	동부	693	94	88	88	80	79	75	96	93
경기도	읍면부	115	17	14	15	12	14	11	17	15
강원도	동부	48	8	7	6	5	5	5	6	6
강원도	읍면부	28	5	3	4	3	3	3	4	3
충청북도	동부	56	9	8	8	6	6	5	7	7
충청북도	읍면부	32	5	4	4	3	4	3	5	4
충청남도	동부	65	9	8	8	7	8	7	9	9
충청남도	읍면부	49	8	6	6	4	6	5	8	6
세종특별자치시		22	2	2	2	2	3	3	4	4
전라북도	동부	72	12	11	9	8	7	7	9	9
전라북도	읍면부	19	3	3	2	2	2	2	3	2
전라남도	동부	46	8	6	6	5	5	4	6	6
전라남도	읍면부	41	7	6	5	4	4	4	6	5
경상북도	동부	77	12	10	10	8	9	7	11	10
경상북도	읍면부	50	8	6	7	5	6	5	7	6
경상남도	동부	120	19	16	15	12	13	12	17	16
경상남도	읍면부	52	8	6	6	5	6	5	8	8
제주특별자치도		36	5	5	4	4	4	4	5	5

21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2-7〉 만40-59세: 표본배분 결과

행정구역		40-59세	40-44		45-49		50-54		55-5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3,000	349	340	397	386	391	382	380	375
서울특별시	남동	120	14	16	16	17	15	15	13	14
서울특별시	남서	159	19	19	21	21	20	20	19	20
서울특별시	북동	170	19	19	22	22	22	23	21	22
서울특별시	북서	94	11	11	12	13	12	12	11	12
부산광역시	대도시	192	22	21	24	24	24	25	25	27
대구광역시	대도시	144	15	16	18	19	19	20	18	19
인천광역시	대도시	176	21	20	23	22	22	23	23	22
광주광역시	대도시	85	10	10	11	12	11	11	10	10
대전광역시	대도시	84	10	10	11	11	11	11	10	10
울산광역시	대도시	71	8	8	9	9	10	9	9	9
경기도	동부	669	82	81	90	90	85	86	78	77
경기도	읍면부	129	15	14	18	15	18	15	18	16
강원도	동부	54	6	6	7	7	7	7	7	7
강원도	읍면부	33	3	3	4	3	5	4	6	5
충청북도	동부	54	6	6	7	7	7	7	7	7
충청북도	읍면부	36	4	3	5	4	5	4	6	5
충청남도	동부	58	8	7	8	8	7	7	7	6
충청남도	읍면부	61	7	6	8	7	9	7	9	8
세종특별자치시		20	3	3	3	3	2	2	2	2
전라북도	동부	74	8	8	10	10	10	10	9	9
전라북도	읍면부	28	3	2	4	3	4	3	5	4
전라남도	동부	46	5	5	6	6	6	6	6	6
전라남도	읍면부	56	6	5	8	6	8	6	9	8
경상북도	동부	82	9	9	11	11	11	11	10	10
경상북도	읍면부	68	7	6	9	7	10	8	11	10
경상남도	동부	130	15	15	17	17	17	17	16	16
경상남도	읍면부	67	8	7	9	7	9	8	10	9
제주특별자치도		40	5	4	6	5	5	5	5	5

〈부표 2-8〉 만19-39세, 40-59세의 성별에 따른 학력 분포

구분	모집단			표본		
	전체	대졸미만	대졸이상	전체	대졸미만	대졸이상
만19-39세	14,469,889명 (100%)	6,585,175명 (46%)	7,884,714명 (54%)	3000명	1,365명	1,635명
만40-59세	16,466,098명 (100%)	10,135,495명 (62%)	6,330,603명 (48%)	3000명	1,847명	1,153명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5. 가중치 부여

- 본 조사는 만19-59세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3000명 씩 조사하였으므로 모집단 인구 분포와 그 구성이 다름.
- 만19-59세 6,000명을 모집단의 인구구성비에 비례하게 배분하면 만19-39세 청년층은 2,750명, 만40-59세는 3,250명임.
- 따라서 만19-59세 전체 6,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당 연령대 모집단의 인구구성비에 맞게 가중치 보정을 실시함.
-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20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가중치(weighting)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 i: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j: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j = 1(남), 2(여))
- k: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k = 1(19-29세), 2(30-39세), 3(40-49세), 4(50-59세))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n: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6. 표집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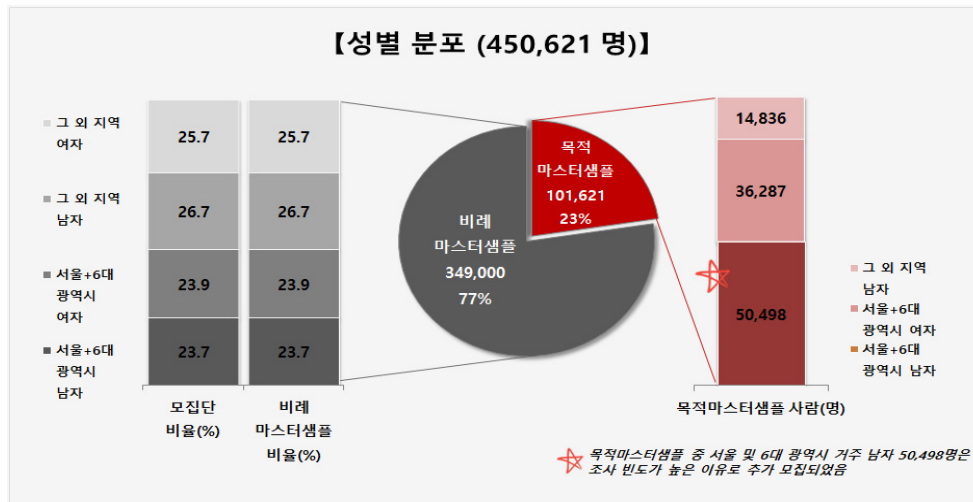
□ Master Sample 패널의 정의 및 규모

- 전국의 국민을 지역, 성-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54만 여명의 명단(2020년 현재 535,086명)
- 대면 면접, 집전화 면접, 휴대전화 면접, e-mail 설문응답, 집단 면접에서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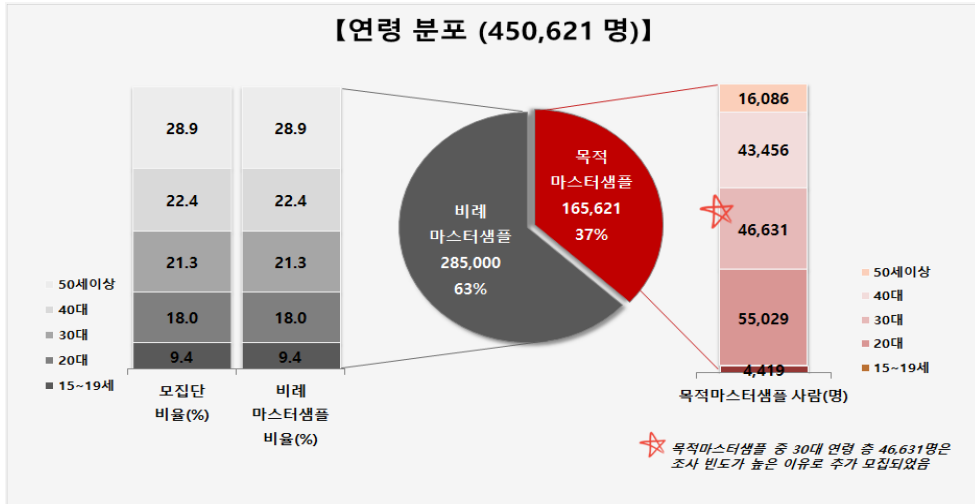
□ Master Sample 패널의 공신력

- 인구센서스와 인구학적 분포가 유사함.
 - 전국의 국민을 지역, 성-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모집-관리함.

[부그림 2-1] 성별 분포



[부그림 2-2] 연령 분포



○ 국가승인통계 활용

-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 등은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표집틀로 활용한 설계안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실시됨.

[부그림 2-3] 국가승인통계 활용의 예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설계 : 일반가구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표본추출방법	연령/지역/가구소득을 고려한 층화비례할당 추출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표본추출방법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조사: 성, 연령,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및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비율에 근거하여 추출 이메일 스팸수신량 조사: 성, 연령, 지역 등의 구성비는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및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2015)에 근거 작성									

[부록 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기초분석표

<부표 3-1>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 부유한 집안 출신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X ² (df)
전체		41.49	40.23	12.89	3.72	1.68	
성별	남성	41.98	38.00	14.00	3.92	2.10	21.609(4) ***
	여성	40.97	42.57	11.71	3.50	1.24	
연령	20대 이하	40.47	37.99	15.67	3.54	2.32	33.258(12) ***
	30대	45.39	37.35	12.40	3.49	1.37	
	40대	40.32	41.64	12.48	3.86	1.69	
	50대	40.35	43.09	11.29	3.91	1.37	
지역1	수도권	43.01	40.43	11.73	3.26	1.57	14.739(4) **
	비수도권	39.83	40.01	14.14	4.22	1.80	
지역2	대도시	41.82	40.39	12.67	3.61	1.51	14.615(8)
	중소도시	41.90	39.90	13.20	3.52	1.47	
	농어촌	38.88	40.83	12.51	4.76	3.0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99	26.48	6.82	3.36	3.35	250.495(12) ***
	중하층	45.37	40.87	9.53	2.99	1.24	
	중간층	34.56	42.30	17.17	4.42	1.55	
	중상층(상층)	28.80	44.76	18.97	4.87	2.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30	36.79	15.72	4.98	4.21	61.159(16) **
	200만 원대	40.75	39.90	14.55	3.22	1.57	
	300만 원대	44.71	38.50	11.15	4.40	1.24	
	400만 원대	41.21	41.31	12.78	3.46	1.24	
	500만 원 이상	41.43	42.20	11.90	3.25	1.23	
학력	중졸 이하	37.20	37.50	10.72	5.00	9.58	36.241(8) ***
	고졸	42.09	39.00	12.99	3.86	2.06	
	대졸 이상	40.87	41.75	12.82	3.52	1.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09	39.95	12.89	3.38	1.69	19.519(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0.14	40.49	12.64	4.89	1.83	
	고용주, 자영자	43.07	39.67	12.39	3.69	1.17	
	무급가족 종사자	39.59	32.99	19.99	7.44	0.00	
	실업자	43.87	39.08	12.32	3.17	1.56	
	비경제활동인구	38.51	42.27	13.12	4.11	1.9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7.52	38.85	17.28	4.74	1.61	43.558(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93	41.22	11.45	3.22	1.19	
	숙련 및 기술직	43.39	36.31	13.89	3.30	3.11	
	단순노무 종사자	42.23	38.26	11.59	5.66	2.27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42.16	39.32	13.24	3.57	1.71	9.357(8)
	무기계약직	37.92	47.68	10.99	1.80	1.61	
	비정규직	41.68	40.12	12.10	4.35	1.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54	41.56	9.92	2.96	2.03	36.946(8) ***
	중도적	39.44	39.86	15.14	3.91	1.66	
	진보적	43.90	40.13	10.64	3.81	1.53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2.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단위: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0.90	42.07	19.57	5.55	1.91	
성별	남성	30.47	41.63	19.69	5.93	2.28	6.507(4)
	여성	31.34	42.53	19.44	5.16	1.52	
연령	20대 이하	25.69	39.07	25.17	7.42	2.65	121.958(12) ***
	30대	30.92	39.78	21.38	6.35	1.58	
	40대	30.33	43.17	19.80	5.08	1.62	
	50대	35.88	45.41	13.10	3.78	1.83	
지역1	수도권	31.55	42.13	19.71	4.98	1.63	7.614(4)
	비수도권	30.18	42.00	19.41	6.18	2.22	
지역2	대도시	30.76	42.64	19.23	5.46	1.92	5.221(8)
	중소도시	31.22	41.94	19.73	5.43	1.67	
	농어촌	30.25	40.50	20.18	6.33	2.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99	29.95	15.64	4.39	3.02	154.882(12) ***
	중하층	33.65	41.72	17.94	5.25	1.43	
	중간층	24.99	44.56	22.44	6.03	1.99	
	중상층(상층)	22.83	48.00	19.89	6.51	2.7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1.19	35.55	22.21	7.51	3.54	68.163(16) ***
	200만 원대	29.75	38.69	23.60	5.81	2.15	
	300만 원대	33.78	41.15	18.05	5.26	1.76	
	400만 원대	30.18	42.90	19.89	5.75	1.28	
	500만 원 이상	30.13	46.59	17.00	4.75	1.53	
학력	중졸 이하	32.50	40.49	17.70	6.35	2.97	26.254(8) ***
	고졸	31.11	39.80	20.59	6.08	2.41	
	대졸 이상	30.60	44.81	18.39	4.91	1.2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66	42.80	19.08	5.60	1.86	35.920(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9.05	42.02	21.52	5.51	1.90	
	고용주, 자영자	35.96	42.75	16.52	3.04	1.72	
	무급가족 종사자	31.56	27.87	31.18	9.39	0.00	
	실업자	31.70	40.15	21.44	4.87	1.83	
	비경제활동인구	29.56	41.87	19.47	6.79	2.3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38	43.62	17.62	5.29	2.09	13.57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0.70	43.42	19.33	5.08	1.47	
	숙련 및 기술직	31.43	39.67	20.31	5.94	2.65	
	단순노무 종사자	33.37	36.53	21.50	6.33	2.27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0.71	42.83	18.89	5.78	1.79	7.713(8)
	무기계약직	27.14	44.34	21.34	3.84	3.34	
	비정규직	30.38	41.71	20.79	5.47	1.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49	42.85	14.80	4.62	2.23	65.379(8) ***
	중도적	28.35	40.65	23.07	6.03	1.89	
	진보적	32.75	44.09	16.15	5.25	1.76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3. 본인의 좋은 학벌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4.85	42.38	16.86	4.43	1.49	
성별	남성	34.71	41.23	17.32	4.89	1.84	11.115(4) *
	여성	35.00	43.59	16.36	3.94	1.11	
연령	20대 이하	31.39	40.65	20.43	5.66	1.87	69.920(12) ***
	30대	33.42	41.01	18.93	4.86	1.78	
	40대	34.45	43.36	17.12	3.86	1.21	
	50대	39.36	44.01	11.87	3.58	1.18	
지역1	수도권	36.39	42.82	15.45	4.00	1.34	15.965(4) **
	비수도권	33.17	41.90	18.39	4.90	1.65	
지역2	대도시	34.58	42.37	17.27	4.36	1.42	10.199(8)
	중소도시	36.18	42.10	16.02	4.32	1.37	
	농어촌	31.13	43.40	18.33	5.04	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71	29.50	13.66	4.74	3.39	147.988(12) ***
	중하층	37.59	43.08	14.75	3.53	1.05	
	중간층	29.28	44.86	19.46	4.88	1.51	
	중상층(상층)	28.24	43.37	20.24	6.89	1.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2.55	35.43	19.61	8.13	4.29	115.200(16) ***
	200만 원대	32.84	41.85	19.85	4.41	1.04	
	300만 원대	37.27	40.30	16.83	4.55	1.05	
	400만 원대	34.51	44.09	16.76	3.61	1.04	
	500만 원 이상	35.66	45.71	14.17	3.34	1.12	
학력	중졸 이하	35.55	44.11	10.38	4.99	4.97	24.985(8) **
	고졸	35.76	40.16	17.46	4.81	1.81	
	대졸 이상	33.75	44.99	16.29	3.96	1.0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09	43.59	16.73	4.19	1.41	30.38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4.08	41.19	17.43	5.60	1.69	
	고용주, 자영자	39.52	39.97	15.63	3.40	1.49	
	무급가족 종사자	31.37	39.84	15.55	13.24	0.00	
	실업자	35.06	40.26	19.23	3.90	1.56	
	비경제활동인구	35.20	42.30	16.14	4.72	1.64	
직업	관리자, 전문가	34.18	41.24	18.09	4.82	1.66	18.65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45	44.45	16.19	3.75	1.15	
	숙련 및 기술직	35.84	38.80	17.60	5.82	1.93	
	단순노무 종사자	36.25	40.27	14.98	6.35	2.15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3.98	43.58	16.73	4.25	1.46	1.902(8)
	무기계약직	33.56	43.76	17.15	3.91	1.62	
	비정규직	34.62	41.82	17.11	5.07	1.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03	41.39	12.68	3.18	1.72	60.551(8) ***
	중도적	31.78	42.28	19.65	4.68	1.61	
	진보적	36.74	43.10	14.33	4.69	1.14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4. 야망을 갖는 것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5.71	40.57	18.57	3.72	1.43	
성별	남성	35.67	38.32	20.13	4.17	1.72	23.131(4) ***
	여성	35.75	42.94	16.94	3.24	1.13	
연령	20대 이하	38.40	36.10	19.84	3.68	1.99	47.903(12) ***
	30대	34.68	38.86	21.13	3.83	1.50	
	40대	32.56	43.07	19.43	3.79	1.14	
	50대	37.27	43.37	14.60	3.58	1.18	
지역1	수도권	36.80	40.35	18.13	3.37	1.35	5.514(4)
	비수도권	34.52	40.81	19.06	4.10	1.52	
지역2	대도시	36.45	39.65	18.81	3.61	1.47	6.006(8)
	중소도시	35.56	41.25	18.38	3.50	1.31	
	농어촌	33.64	41.40	18.42	4.84	1.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46	32.03	18.41	3.61	4.48	87.093(12) ***
	중하층	35.79	42.34	17.45	3.37	1.04	
	중간층	33.12	41.92	20.05	3.73	1.18	
	중상층(상층)	40.43	35.18	17.83	5.75	0.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08	36.26	19.44	5.94	4.28	113.610(16) ***
	200만 원대	31.72	41.21	21.62	4.24	1.21	
	300만 원대	37.35	39.37	17.31	4.60	1.37	
	400만 원대	34.34	41.34	21.54	2.49	0.30	
	500만 원 이상	38.29	42.18	15.87	2.64	1.03	
학력	중졸 이하	35.46	38.12	17.06	4.71	4.64	22.403(8) **
	고졸	35.12	39.72	19.05	4.31	1.80	
	대졸 이상	36.41	41.65	18.04	2.98	0.9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20	41.05	18.91	3.65	1.19	23.555(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5.19	38.25	21.20	4.49	0.86	
	고용주, 자영자	39.83	40.00	15.64	2.95	1.58	
	무급가족 종사자	31.25	39.26	26.78	2.71	0.00	
	실업자	36.68	39.92	18.01	3.66	1.72	
	비경제활동인구	35.11	41.19	17.52	3.97	2.21	
직업	관리자, 전문가	37.51	38.08	19.51	3.78	1.12	11.78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5.56	41.56	18.69	3.23	0.97	
	숙련 및 기술직	33.93	40.50	18.87	4.82	1.87	
	단순노무 종사자	35.69	38.31	19.74	4.60	1.6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5.46	40.93	18.87	3.65	1.09	5.636(8)
	무기계약직	33.63	42.85	17.88	3.56	2.08	
	비정규직	34.81	38.87	21.03	4.27	1.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50	37.31	15.09	3.32	1.78	39.740(8) ***
	중도적	32.87	41.56	20.02	3.96	1.58	
	진보적	36.84	40.67	18.00	3.51	0.98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5. 열심히 일하는 것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44.80	35.33	15.05	3.45	1.37	
성별	남성	43.19	33.34	16.98	4.50	1.98	63.609(4) ***
	여성	46.48	37.43	13.01	2.35	0.72	
연령	20대 이하	43.89	32.46	16.95	4.90	1.80	93.702(12) ***
	30대	39.51	34.81	19.86	4.17	1.65	
	40대	44.75	37.60	13.72	2.78	1.15	
	50대	49.87	36.03	10.82	2.29	0.98	
지역1	수도권	45.41	34.98	14.95	3.30	1.36	1.327(4)
	비수도권	44.13	35.72	15.15	3.62	1.38	
지역2	대도시	44.09	36.07	14.94	3.72	1.19	5.549(8)
	중소도시	45.71	34.94	14.72	3.15	1.48	
	농어촌	44.04	34.17	16.58	3.62	1.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83	27.43	14.29	4.63	4.82	86.092(12) ***
	중하층	44.18	36.30	15.25	3.16	1.11	
	중간층	43.99	36.94	15.06	3.26	0.76	
	중상층(상층)	46.92	32.44	14.86	4.52	1.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83	33.05	15.82	4.75	2.54	40.379(16) ***
	200만 원대	41.65	35.97	17.36	3.16	1.87	
	300만 원대	44.41	34.49	15.97	3.61	1.53	
	400만 원대	44.97	35.80	15.14	3.44	0.64	
	500만 원 이상	47.08	36.11	12.88	3.05	0.88	
학력	중졸 이하	60.18	22.73	7.70	7.74	1.64	32.353(8) ***
	고졸	46.48	35.04	14.23	2.72	1.53	
	대졸 이상	42.41	35.99	16.20	4.23	1.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54	36.30	16.96	3.85	1.35	53.236(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6.52	34.34	13.98	3.43	1.73	
	고용주, 자영자	53.39	31.83	10.74	2.94	1.11	
	무급가족 종사자	37.32	44.30	13.12	5.26	0.00	
	실업자	45.02	34.88	15.61	3.23	1.26	
	비경제활동인구	48.99	34.58	12.26	2.67	1.51	
직업	관리자, 전문가	44.35	35.97	14.11	4.16	1.41	18.39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3.19	36.10	16.25	3.54	0.92	
	숙련 및 기술직	44.95	33.38	15.13	3.60	2.93	
	단순노무 종사자	42.80	34.93	16.55	4.06	1.6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41.84	36.13	16.95	3.93	1.15	9.180(8)
	무기계약직	39.59	39.75	15.61	3.28	1.78	
	비정규직	44.77	34.40	15.22	3.45	2.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28	33.77	12.20	3.45	1.29	21.536(8) **
	중도적	42.76	36.30	16.17	3.21	1.56	
	진보적	45.83	34.52	14.69	3.88	1.08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6. 열심히 일하는 것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43.64	41.69	12.11	1.90	0.67	
성별	남성	43.93	40.02	13.14	2.19	0.73	13.006(4) *
	여성	43.33	43.45	11.02	1.59	0.60	
연령	20대 이하	45.06	38.64	13.08	2.13	1.10	21.168(12) *
	30대	43.30	40.73	13.49	1.92	0.55	
	40대	42.56	44.46	10.69	1.82	0.47	
	50대	43.72	42.41	11.52	1.76	0.59	
지역1	수도권	44.86	41.12	11.50	1.99	0.53	6.849(4)
	비수도권	42.30	42.31	12.77	1.80	0.83	
지역2	대도시	43.01	41.89	12.56	1.91	0.64	4.770(8)
	중소도시	44.05	41.49	12.08	1.72	0.67	
	농어촌	44.38	41.72	10.62	2.49	0.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49	31.81	8.60	0.98	2.12	125.991(12) ***
	중하층	44.81	43.40	10.13	1.32	0.33	
	중간층	39.46	42.62	14.89	2.39	0.64	
	중상층(상층)	40.38	40.56	14.29	3.97	0.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72	35.46	15.72	2.53	2.57	74.139(16) ***
	200만 원대	42.58	42.56	12.80	1.53	0.53	
	300만 원대	43.85	43.05	10.74	1.84	0.53	
	400만 원대	42.40	42.89	12.82	1.70	0.20	
	500만 원 이상	44.66	42.25	10.79	1.98	0.33	
학력	중졸 이하	51.82	28.66	16.20	1.67	1.64	17.104(8) *
	고졸	44.67	40.32	12.13	2.00	0.88	
	대졸 이상	42.21	43.64	11.98	1.78	0.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39	42.58	12.51	2.03	0.49	29.63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1.72	41.98	13.38	2.09	0.84	
	고용주, 자영자	50.70	38.08	9.51	1.51	0.21	
	무급가족 종사자	44.28	39.74	13.50	2.48	0.00	
	실업자	45.25	39.44	12.14	2.32	0.86	
	비경제활동인구	43.64	42.32	11.49	1.34	1.21	
직업	관리자, 전문가	41.98	42.23	13.04	2.27	0.48	12.06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3.44	42.69	11.67	1.85	0.36	
	숙련 및 기술직	44.21	40.56	12.52	2.03	0.68	
	단순노무 종사자	44.91	36.89	14.68	2.21	1.30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42.37	42.35	12.68	2.13	0.46	7.259(8)
	무기계약직	40.40	47.99	10.28	0.94	0.39	
	비정규직	42.54	41.28	13.25	2.04	0.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21	40.47	8.29	1.47	0.57	35.176(8) ***
	중도적	42.15	41.35	13.75	1.91	0.84	
	진보적	43.10	42.97	11.38	2.12	0.43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7. 지역 연고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20.16	36.29	32.06	8.44	3.04	
성별	남성	20.59	34.02	32.53	8.95	3.92	27.538(4) ***
	여성	19.71	38.68	31.58	7.90	2.12	
연령	20대 이하	19.26	31.98	33.30	10.83	4.64	65.436(12) ***
	30대	21.81	33.54	33.06	8.16	3.42	
	40대	18.48	38.34	32.26	8.49	2.43	
	50대	21.23	40.23	30.01	6.57	1.96	
지역1	수도권	20.66	35.34	31.96	8.81	3.23	4.361(4)
	비수도권	19.62	37.33	32.18	8.04	2.84	
지역2	대도시	19.41	35.34	33.44	8.82	2.99	9.072(8)
	중소도시	20.30	36.72	31.57	8.29	3.13	
	농어촌	22.30	38.13	29.02	7.62	2.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74	29.34	24.87	6.39	5.67	184.540(12) ***
	중하층	22.24	37.96	29.99	7.60	2.21	
	중간층	15.65	36.73	35.67	8.63	3.32	
	중상층(상층)	12.40	33.89	35.71	15.11	2.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35	31.40	31.99	9.00	6.26	62.217(16) ***
	200만 원대	22.04	35.21	31.43	8.33	2.98	
	300만 원대	21.80	37.32	31.79	6.36	2.74	
	400만 원대	19.84	37.21	32.66	7.32	2.96	
	500만 원 이상	17.87	37.76	32.33	9.97	2.07	
학력	중졸 이하	26.38	32.28	23.96	9.11	8.28	22.609(8) **
	고졸	21.19	35.58	31.96	7.77	3.50	
	대졸 이상	18.79	37.24	32.38	9.22	2.3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19	36.36	32.14	8.48	2.82	17.024(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1.19	35.28	30.34	9.65	3.55	
	고용주, 자영자	23.42	35.90	29.77	7.84	3.08	
	무급가족 종사자	22.89	37.68	34.03	3.92	1.48	
	실업자	21.04	35.55	31.51	8.78	3.12	
	비경제활동인구	17.34	37.17	34.00	8.08	3.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76	35.94	32.27	11.70	2.33	28.561(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60	36.97	31.43	8.03	2.97	
	숙련 및 기술직	22.91	34.65	32.40	6.09	3.94	
	단순노무 종사자	26.08	33.21	30.19	8.31	2.20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19.74	35.77	32.73	8.79	2.97	10.086(8)
	무기계약직	23.95	40.29	28.33	5.32	2.11	
	비정규직	21.28	36.33	30.05	9.26	3.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20	35.35	30.24	6.64	2.58	26.544(8) ***
	중도적	19.29	36.13	33.12	8.35	3.11	
	진보적	18.86	37.10	31.25	9.60	3.19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8. 뇌물을 주는 것

(단위: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7.12	13.83	32.42	24.88	21.76	
성별	남성	8.90	15.76	31.48	22.88	20.98	59.143(4) ***
	여성	5.24	11.81	33.40	26.97	22.58	
연령	20대 이하	8.56	16.07	34.42	20.46	20.48	62.951(12) ***
	30대	9.20	13.08	33.66	23.63	20.43	
	40대	5.23	12.09	32.18	27.04	23.46	
	50대	6.01	14.20	29.93	27.58	22.29	
지역1	수도권	6.97	13.50	33.70	24.35	21.48	5.021(4)
	비수도권	7.27	14.20	31.01	25.45	22.07	
지역2	대도시	6.83	14.16	33.25	23.93	21.84	12.971(8)
	중소도시	7.01	13.13	32.96	25.31	21.58	
	농어촌	8.50	15.17	27.57	26.66	2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04	16.88	27.20	17.70	23.18	98.328(12) ***
	중하층	7.00	13.15	33.00	25.39	21.47	
	중간층	5.87	13.87	33.20	26.03	21.03	
	중상층(상층)	3.30	13.52	32.21	25.85	25.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35	12.09	31.25	22.07	27.24	35.976(16) **
	200만 원대	9.14	13.77	31.25	23.32	22.52	
	300만 원대	7.10	15.11	31.61	24.92	21.26	
	400만 원대	6.23	14.50	33.71	26.73	18.83	
	500만 원 이상	6.30	13.51	33.37	25.94	20.88	
학력	중졸 이하	1.43	14.80	22.77	34.24	26.76	17.179(8) *
	고졸	7.19	13.63	31.24	24.95	23.00	
	대졸 이상	7.17	14.06	34.06	24.57	20.1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27	14.14	31.87	25.78	20.95	33.844(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8.74	14.94	31.65	22.72	21.95	
	고용주, 자영자	6.56	14.56	35.05	21.51	22.32	
	무급가족 종사자	13.24	16.26	35.00	21.18	14.32	
	실업자	7.47	15.19	32.45	23.11	21.78	
	비경제활동인구	5.53	11.16	32.84	26.42	24.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6.31	11.11	29.90	27.17	25.51	32.682(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14	14.98	33.12	24.85	19.91	
	숙련 및 기술직	8.71	15.37	32.34	23.66	19.92	
	단순노무 종사자	11.05	15.56	31.72	19.60	22.07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7.27	14.06	31.71	26.04	20.92	8.204(8)
	무기계약직	5.44	12.65	35.07	24.85	21.99	
	비정규직	8.89	15.43	31.28	22.96	21.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8.62	15.10	30.42	26.37	19.48	22.543(8) **
	중도적	7.37	13.64	33.74	23.41	21.83	
	진보적	5.83	13.47	31.22	26.58	22.90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9. 종교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5.42	9.82	31.99	24.48	28.29	
성별	남성	5.20	10.07	32.98	23.80	27.94	4.323(4)
	여성	5.64	9.56	30.94	25.19	28.66	
연령	20대 이하	4.19	9.68	25.79	23.22	37.13	101.815(12) ***
	30대	5.28	8.83	33.72	23.32	28.85	
	40대	5.43	9.89	32.96	25.18	26.54	
	50대	6.58	10.68	34.97	25.81	21.97	
지역1	수도권	5.50	10.38	32.18	23.58	28.36	4.353(4)
	비수도권	5.33	9.21	31.78	25.46	28.22	
지역2	대도시	5.38	9.50	33.24	25.07	26.80	10.669(8)
	중소도시	5.40	9.86	30.77	23.78	30.20	
	농어촌	5.61	10.81	31.91	24.87	26.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55	9.00	29.49	18.95	31.00	76.598(12) ***
	중하층	5.26	10.11	32.36	25.81	26.46	
	중간층	4.41	10.07	32.69	23.78	29.06	
	중상층(상층)	3.07	8.08	29.71	27.80	31.3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0	9.01	32.47	21.33	28.50	52.665(16) ***
	200만 원대	7.04	9.57	32.95	23.09	27.36	
	300만 원대	4.24	11.41	32.02	23.34	28.99	
	400만 원대	5.07	11.12	32.85	23.93	27.03	
	500만 원 이상	4.08	8.78	30.85	27.36	28.93	
학력	중졸 이하	14.72	12.52	19.13	21.60	32.03	41.207(8) ***
	고졸	5.19	8.48	31.73	24.14	30.46	
	대졸 이상	5.46	11.36	32.61	24.95	25.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6	10.36	32.84	24.90	27.03	42.429(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89	10.90	32.41	24.66	28.14	
	고용주, 자영자	7.67	9.85	32.42	21.69	28.37	
	무급가족 종사자	9.67	15.70	40.49	19.39	14.75	
	실업자	6.30	9.24	30.89	24.54	29.03	
	비경제활동인구	5.82	7.78	29.39	24.85	32.16	
직업	관리자, 전문가	6.70	10.86	31.95	23.54	26.95	12.53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81	10.14	33.14	24.63	27.28	
	숙련 및 기술직	4.35	9.54	33.89	23.67	28.55	
	단순노무 종사자	5.68	13.87	31.00	25.73	23.71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4.76	9.12	32.90	25.82	27.40	30.032(8) ***
	무기계약직	7.54	15.97	34.45	20.49	21.55	
	비정규직	3.70	13.19	31.85	23.01	28.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6	10.09	32.13	24.01	24.51	49.331(8) ***
	중도적	4.81	9.42	33.23	24.57	27.97	
	진보적	4.32	10.38	29.75	24.58	30.98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0. 성별

(단위 : %)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8.11	22.05	38.88	15.75	15.21	
성별	남성	6.40	16.82	40.02	18.01	18.75	176.065(4) ***
	여성	9.92	27.54	37.67	13.37	11.49	
연령	20대 이하	11.92	21.98	31.20	14.46	20.44	138.763(12) ***
	30대	9.04	19.10	40.66	15.66	15.54	
	40대	5.83	21.63	40.68	16.38	15.48	
	50대	6.31	24.88	42.27	16.31	10.22	
지역1	수도권	7.99	22.78	38.12	15.99	15.12	2.995(4)
	비수도권	8.25	21.25	39.71	15.48	15.31	
지역2	대도시	8.77	22.73	38.76	15.49	14.24	7.373(8)
	중소도시	7.65	21.27	39.12	15.81	16.16	
	농어촌	7.46	22.41	38.42	16.44	15.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62	17.64	33.57	11.92	21.24	99.746(12) ***
	중하층	8.17	23.72	38.95	15.57	13.59	
	중간층	6.69	21.17	40.36	16.80	15.00	
	중상층(상층)	4.80	22.82	38.22	16.68	17.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91	17.16	40.24	15.98	16.70	36.989(16) **
	200만 원대	9.42	20.01	38.64	15.41	16.52	
	300만 원대	7.10	25.16	37.64	14.62	15.48	
	400만 원대	8.55	23.10	40.41	14.24	13.70	
	500만 원 이상	7.07	22.81	38.48	17.18	14.46	
학력	중졸 이하	7.52	13.95	41.46	15.27	21.80	28.258(8) ***
	고졸	7.85	20.93	38.18	15.92	17.12	
	대졸 이상	8.44	23.58	39.65	15.55	12.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71	21.83	39.51	16.71	14.24	48.162(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8.46	23.19	38.86	14.93	14.56	
	고용주, 자영자	5.64	18.09	43.11	14.47	18.69	
	무급가족 종사자	10.97	27.71	37.70	15.53	8.08	
	실업자	11.89	20.01	35.27	16.36	16.48	
	비경제활동인구	7.72	24.78	37.46	13.81	16.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6.49	21.40	41.40	15.67	15.04	15.36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37	21.98	39.02	16.73	13.89	
	숙련 및 기술직	6.77	19.66	42.68	14.00	16.90	
	단순노무 종사자	5.94	23.32	36.97	17.11	16.67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7.76	21.30	39.81	16.81	14.33	5.930(8)
	무기계약직	6.33	24.97	38.92	17.41	12.36	
	비정규직	8.53	23.61	38.20	14.91	14.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32	21.89	38.02	15.54	14.24	24.095(8) **
	중도적	7.26	20.78	39.66	15.84	16.46	
	진보적	8.38	24.33	38.00	15.70	13.59	

주: “귀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 교육 기회

(단위 :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4.89	29.94	33.34	25.02	6.80	
성별	남성	5.83	28.73	33.52	23.75	8.17	35.879(4) ***
	여성	3.91	31.22	33.15	26.36	5.36	
연령	20대 이하	5.80	25.70	36.02	24.88	7.60	51.250(12) ***
	30대	4.53	27.66	34.26	25.88	7.67	
	40대	3.86	30.80	34.81	24.88	5.65	
	50대	5.41	34.59	28.88	24.58	6.53	
지역1	수도권	4.49	29.26	32.53	26.23	7.49	12.691(4) *
	비수도권	5.33	30.69	34.23	23.70	6.05	
지역2	대도시	4.56	30.11	33.20	25.02	7.11	2.258(8)
	중소도시	5.14	29.67	33.61	25.12	6.47	
	농어촌	5.22	30.33	32.88	24.67	6.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6	23.45	26.96	25.48	17.66	230.888(12) ***
	중하층	4.05	28.43	31.90	28.66	6.96	
	중간층	4.96	31.36	37.80	21.93	3.95	
	중상층(상층)	7.32	40.33	27.93	18.96	5.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83	24.09	37.41	24.85	7.82	50.538(16) ***
	200만 원대	4.04	27.63	34.76	25.94	7.63	
	300만 원대	4.59	28.40	33.93	25.83	7.25	
	400만 원대	4.25	29.37	34.33	25.41	6.63	
	500만 원 이상	5.49	34.62	30.20	23.92	5.77	
학력	중졸 이하	1.65	27.73	33.48	29.27	7.87	10.570(8)
	고졸	4.85	29.20	34.96	24.31	6.68	
	대졸 이상	5.02	30.89	31.41	25.76	6.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7	30.10	32.76	25.75	6.81	23.26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13	29.55	33.96	24.08	7.29	
	고용주, 자영자	4.35	29.47	33.83	23.39	8.96	
	무급가족 종사자	8.41	19.52	43.04	19.37	9.66	
	실업자	4.73	27.83	35.30	26.24	5.89	
	비경제활동인구	5.77	31.88	32.54	23.93	5.88	
직업	관리자, 전문가	6.04	29.70	31.66	25.54	7.06	19.97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4	30.38	32.77	25.57	7.14	
	숙련 및 기술직	4.82	27.84	37.59	24.10	5.65	
	단순노무 종사자	5.32	28.60	32.80	22.25	11.03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4.34	30.38	33.53	25.27	6.48	14.131(8)
	무기계약직	6.94	28.11	25.22	31.22	8.51	
	비정규직	5.03	29.40	33.34	24.49	7.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06	35.56	27.49	25.10	4.79	96.398(8) ***
	중도적	4.01	27.14	38.10	23.53	7.22	
	진보적	5.22	31.68	28.34	27.56	7.20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2. 취업 기회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1.80	14.27	34.94	36.73	12.26	
성별	남성	2.71	16.15	35.06	32.85	13.23	75.038(4) ***
	여성	0.84	12.29	34.81	40.82	11.24	
연령	20대 이하	2.70	15.15	32.13	35.97	14.06	31.101(12) **
	30대	1.99	14.31	33.42	36.41	13.87	
	40대	1.36	14.01	37.08	36.96	10.60	
	50대	1.30	13.73	36.51	37.43	11.03	
지역1	수도권	1.71	14.47	33.83	36.80	13.19	7.378(4)
	비수도권	1.89	14.05	36.15	36.66	11.24	
지역2	대도시	1.70	13.36	35.40	37.18	12.35	4.605(8)
	중소도시	1.88	14.63	34.75	36.48	12.25	
	농어촌	1.83	16.16	33.98	36.03	12.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8	8.98	25.31	35.56	27.78	319.806(12) ***
	중하층	1.02	11.31	32.91	41.72	13.04	
	중간층	2.44	17.26	38.97	33.36	7.97	
	중상층(상층)	2.30	23.52	39.47	26.45	8.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3	10.86	33.64	38.22	15.15	44.676(16) ***
	200만 원대	1.74	13.10	34.45	37.36	13.34	
	300만 원대	1.51	12.51	33.93	39.43	12.62	
	400만 원대	1.31	14.16	36.31	36.72	11.50	
	500만 원 이상	2.09	17.27	35.65	34.29	10.71	
학력	중졸 이하	2.73	12.55	36.77	30.82	17.12	9.353(8)
	고졸	1.62	13.36	35.43	37.06	12.52	
	대졸 이상	1.98	15.39	34.31	36.48	11.8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7	14.50	35.16	36.71	11.66	12.757(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67	14.07	33.63	36.56	14.07	
	고용주, 자영자	1.69	15.64	36.03	34.38	12.27	
	무급가족 종사자	2.76	12.40	36.83	37.01	11.00	
	실업자	1.35	12.05	33.36	39.24	14.00	
	비경제활동인구	1.66	14.56	35.31	36.47	12.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25	15.67	36.57	35.14	10.37	19.49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4	14.49	34.53	36.83	12.61	
	숙련 및 기술직	3.04	13.21	37.53	36.23	9.98	
	단순노무 종사자	1.89	14.62	31.14	36.45	15.91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96	15.02	35.34	36.18	11.51	6.613(8)
	무기계약직	1.77	13.09	31.73	40.65	12.76	
	비정규직	1.86	12.89	34.50	37.16	13.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4	18.22	31.53	36.22	10.39	52.527(8) ***
	중도적	1.53	12.81	36.47	35.97	13.22	
	진보적	1.24	14.59	34.19	38.34	11.64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3. 승진, 승급 기회

(단위 :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1.46	9.89	34.44	41.18	13.02	
성별	남성	2.10	12.96	36.81	36.09	12.03	132.815(4) ***
	여성	0.78	6.67	31.96	46.54	14.06	
연령	20대 이하	2.06	10.58	32.80	38.77	15.80	38.999(12) ***
	30대	1.37	10.08	34.23	39.57	14.74	
	40대	1.49	8.80	36.18	41.86	11.67	
	50대	0.98	10.21	34.35	43.89	10.57	
지역1	수도권	1.33	9.18	34.65	41.04	13.79	7.134(4)
	비수도권	1.59	10.67	34.22	41.34	12.18	
지역2	대도시	1.26	9.88	34.88	41.36	12.62	5.673(8)
	중소도시	1.51	9.70	34.91	40.68	13.20	
	농어촌	1.94	10.64	31.28	42.35	13.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6	5.77	25.05	39.39	27.73	347.164(12) ***
	중하층	0.94	6.32	32.24	46.05	14.45	
	중간층	1.87	13.05	38.57	37.99	8.51	
	중상층(상층)	1.50	20.27	39.21	31.56	7.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5	6.76	30.96	43.73	16.50	81.938(16) ***
	200만 원대	1.43	8.40	34.07	41.40	14.70	
	300만 원대	1.26	8.60	32.77	44.47	12.90	
	400만 원대	1.19	8.17	38.91	37.76	13.96	
	500만 원 이상	1.48	13.46	34.87	39.81	10.38	
학력	중졸 이하	2.99	8.11	34.70	39.28	14.92	49.541(8) ***
	고졸	1.28	8.02	33.52	42.43	14.74	
	대졸 이상	1.62	12.18	35.54	39.74	10.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	11.10	34.22	40.70	12.46	42.804(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54	11.29	32.23	40.32	14.61	
	고용주, 자영자	0.96	10.91	35.22	39.89	13.02	
	무급가족 종사자	5.74	9.11	25.14	43.20	16.81	
	실업자	1.25	5.49	35.41	42.94	14.92	
	비경제활동인구	1.33	8.18	35.82	42.34	12.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0	13.69	34.91	38.16	11.64	18.43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8	10.67	33.79	41.30	12.96	
	숙련 및 기술직	2.45	9.64	34.38	41.41	12.11	
	단순노무 종사자	1.56	10.18	31.46	39.61	17.19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66	11.58	34.43	40.24	12.09	9.416(8)
	무기계약직	0.92	7.68	32.75	43.14	15.52	
	비정규직	1.26	10.67	32.51	41.23	14.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3	14.05	34.99	37.06	11.08	55.303(8) ***
	중도적	1.18	8.23	35.01	41.70	13.88	
	진보적	1.17	10.46	33.15	42.59	12.62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4. 법의 집행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1.33	7.27	26.47	36.56	28.37	
성별	남성	1.75	8.58	25.19	35.12	29.35	33.192(4) ***
	여성	0.89	5.89	27.82	38.07	27.33	
연령	20대 이하	2.12	6.97	25.33	35.29	30.28	21.254(12) *
	30대	1.22	7.47	27.13	35.81	28.37	
	40대	1.02	7.86	28.32	36.29	26.51	
	50대	1.04	6.78	25.15	38.51	28.53	
지역1	수도권	1.22	7.14	24.76	36.47	30.42	18.071(4) **
	비수도권	1.45	7.41	28.35	36.66	26.13	
지역2	대도시	1.40	7.26	27.30	36.04	28.01	5.428(8)
	중소도시	1.38	7.00	25.54	36.99	29.09	
	농어촌	0.93	8.24	26.85	36.88	27.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1	4.66	17.90	30.37	45.16	249.386(12) ***
	중하층	0.67	5.38	23.48	39.95	30.51	
	중간층	1.78	8.57	32.20	34.91	22.54	
	중상층(상층)	2.09	15.17	26.60	33.67	22.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7	6.00	27.06	34.18	31.38	22.805(16)
	200만 원대	1.59	7.76	27.74	36.20	26.72	
	300만 원대	1.35	7.36	25.48	35.47	30.34	
	400만 원대	0.89	5.43	25.66	38.97	29.04	
	500만 원 이상	1.36	8.27	26.47	37.17	26.73	
학력	중졸 이하	1.34	7.84	28.26	41.01	21.55	5.984(8)
	고졸	1.33	6.93	26.97	35.66	29.11	
	대졸 이상	1.34	7.66	25.83	37.53	27.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5	7.98	26.45	36.57	27.65	28.590(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19	9.23	24.79	36.79	27.99	
	고용주, 자영자	0.54	5.76	25.68	36.84	31.17	
	무급가족 종사자	3.91	7.19	23.15	42.58	23.18	
	실업자	1.08	4.54	26.95	36.62	30.80	
	비경제활동인구	1.70	6.72	27.67	35.86	28.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13	8.86	30.14	35.65	24.22	19.89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2	7.60	24.79	37.54	28.86	
	숙련 및 기술직	1.88	7.20	26.26	36.96	27.70	
	단순노무 종사자	0.94	8.59	25.49	32.62	32.35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46	8.38	26.49	36.55	27.13	8.440(8)
	무기계약직	1.38	4.27	27.30	36.25	30.79	
	비정규직	0.86	8.67	24.86	36.91	28.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7	10.63	24.04	34.46	28.20	79.813(8) ***
	중도적	1.10	6.83	29.64	36.32	26.12	
	진보적	0.99	6.15	22.33	38.15	32.37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5〉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5. 여성에 대한 대우

(단위 :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5.15	14.01	36.79	33.18	10.86	
성별	남성	9.06	20.23	38.45	25.43	6.83	573.465(4) ***
	여성	1.05	7.48	35.03	41.33	15.11	
연령	20대 이하	9.62	15.86	33.65	24.71	16.16	220.057(12) ***
	30대	6.23	13.74	37.26	31.50	11.26	
	40대	3.13	12.42	40.09	35.46	8.90	
	50대	2.41	14.19	35.92	39.59	7.89	
지역1	수도권	5.15	13.98	35.47	33.44	11.96	10.568(4) *
	비수도권	5.16	14.05	38.22	32.90	9.67	
지역2	대도시	5.25	14.32	36.64	32.70	11.09	6.067(8)
	중소도시	5.30	14.25	36.21	33.41	10.84	
	농어촌	4.32	12.11	39.32	34.09	1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6	10.82	31.71	31.09	18.02	128.663(12) ***
	중하층	3.67	12.39	36.24	35.72	11.99	
	중간층	5.19	15.86	39.00	31.89	8.06	
	중상층(상층)	9.18	18.45	35.76	27.89	8.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21	11.46	35.84	33.84	13.64	46.403(16) ***
	200만 원대	6.51	12.91	37.98	30.14	12.46	
	300만 원대	4.30	13.21	36.92	34.68	10.88	
	400만 원대	3.86	12.74	39.44	34.54	9.42	
	500만 원 이상	5.44	16.65	35.17	33.18	9.56	
학력	중졸 이하	3.31	9.20	32.67	42.62	12.20	14.230(8)
	고졸	4.88	12.96	37.78	33.06	11.31	
	대졸 이상	5.52	15.38	35.70	33.10	10.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1	15.13	38.00	32.04	10.13	52.998(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87	13.53	35.51	33.35	12.74	
	고용주, 자영자	4.63	17.44	35.76	34.67	7.50	
	무급가족 종사자	10.93	10.90	30.53	36.25	11.40	
	실업자	4.94	12.41	35.76	32.15	14.74	
	비경제활동인구	6.48	10.83	35.69	35.91	11.10	
직업	관리자, 전문가	5.82	15.38	36.95	32.48	9.37	31.310(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98	14.97	36.39	33.93	10.74	
	숙련 및 기술직	7.12	15.25	40.67	30.02	6.93	
	단순노무 종사자	4.81	15.57	38.47	27.25	13.90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4.83	15.55	38.37	31.32	9.93	22.024(8) **
	무기계약직	3.09	15.20	42.22	31.93	7.56	
	비정규직	4.92	12.55	33.70	35.37	13.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8	20.23	35.30	27.05	8.04	127.933(8) ***
	중도적	4.58	12.73	39.41	32.46	10.82	
	진보적	3.78	12.78	33.06	37.87	12.52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6〉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6. 남성에 대한 대우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4.31	21.32	50.36	17.55	6.45	
성별	남성	2.53	17.54	51.28	19.49	9.16	174.525(4) ***
	여성	6.18	25.30	49.40	15.51	3.61	
연령	20대 이하	7.91	19.03	41.26	20.46	11.34	273.352(12) ***
	30대	3.94	16.55	51.29	19.93	8.29	
	40대	2.51	20.56	55.84	16.60	4.49	
	50대	3.26	27.86	52.13	14.07	2.68	
지역1	수도권	4.70	21.97	48.94	17.59	6.80	7.539(4)
	비수도권	3.89	20.62	51.91	17.51	6.08	
지역2	대도시	4.45	22.67	49.53	17.16	6.20	7.458(8)
	중소도시	4.32	20.65	50.64	17.68	6.71	
	농어촌	3.81	18.99	52.28	18.47	6.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5	18.54	42.30	19.02	13.98	105.453(12) ***
	중하층	3.63	19.86	53.20	17.51	5.80	
	중간층	4.26	22.91	50.84	16.80	5.20	
	중상층(상층)	6.03	25.58	42.55	19.54	6.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42	19.59	47.37	17.67	9.94	51.238(16) ***
	200만 원대	4.37	18.79	50.91	18.53	7.40	
	300만 원대	3.65	19.62	52.34	18.43	5.97	
	400만 원대	3.46	20.86	53.68	17.07	4.92	
	500만 원 이상	4.62	24.59	48.54	16.68	5.57	
학력	중졸 이하	1.65	18.35	51.43	22.20	6.37	4.552(8)
	고졸	4.32	20.97	50.92	17.11	6.67	
	대졸 이상	4.36	21.82	49.67	17.96	6.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8	20.41	51.56	18.07	6.18	32.849(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08	20.61	52.90	15.49	6.92	
	고용주, 자영자	3.44	22.97	51.15	16.85	5.59	
	무급가족 종사자	12.42	18.20	47.27	12.87	9.25	
	실업자	4.67	22.56	47.62	18.23	6.93	
	비경제활동인구	5.51	22.82	47.35	17.43	6.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9	22.68	50.59	18.32	5.32	26.183(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6	21.48	50.71	17.17	6.38	
	숙련 및 기술직	4.15	14.16	57.14	18.57	5.98	
	단순노무 종사자	2.99	21.99	51.12	15.65	8.26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63	20.22	51.86	17.93	6.37	8.798(8)
	무기계약직	4.89	24.40	52.31	15.19	3.21	
	비정규직	4.18	20.02	51.31	17.51	6.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9	22.24	44.71	20.02	7.94	46.156(8) ***
	중도적	3.59	19.53	52.72	17.25	6.92	
	진보적	5.13	23.93	49.43	16.70	4.81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3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3-17〉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2.04	8.05	28.10	42.43	19.38	
성별	남성	2.97	10.55	30.97	39.17	16.33	140.254(4) ***
	여성	1.06	5.41	25.09	45.85	22.59	
연령	20대 이하	2.71	9.41	30.76	38.12	19.01	46.774(12) ***
	30대	1.77	5.76	27.03	43.55	21.89	
	40대	1.56	6.86	27.33	45.05	19.20	
	50대	2.15	9.86	27.45	42.69	17.86	
지역1	수도권	1.78	6.82	27.34	42.74	21.32	28.325(4) ***
	비수도권	2.31	9.39	28.94	42.09	17.27	
지역2	대도시	1.91	7.71	28.98	41.93	19.47	9.076(8)
	중소도시	2.03	8.03	28.24	42.17	19.53	
	농어촌	2.50	9.31	24.54	45.07	18.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4	7.17	23.43	35.76	29.19	159.911(12) ***
	중하층	1.30	6.51	25.34	45.95	20.89	
	중간층	2.34	8.67	31.84	41.22	15.93	
	중상층(상층)	1.50	14.91	31.62	37.24	14.7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9	7.31	28.90	39.06	22.03	37.571(16) **
	200만 원대	3.03	7.92	28.70	40.47	19.89	
	300만 원대	1.25	6.33	27.73	43.82	20.86	
	400만 원대	2.19	7.77	29.34	42.59	18.12	
	500만 원 이상	1.60	9.50	27.11	43.96	17.84	
학력	중졸 이하	1.40	6.18	28.18	34.35	29.89	11.149(8)
	고졸	2.08	7.78	29.06	41.40	19.67	
	대졸 이상	2.00	8.41	26.96	43.85	18.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7	8.28	27.99	42.56	19.10	14.984(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34	8.25	29.10	39.57	21.74	
	고용주, 자영자	2.75	8.73	28.38	41.53	18.60	
	무급가족 종사자	3.00	10.13	34.09	32.47	20.30	
	실업자	2.25	6.97	28.29	41.68	20.81	
	비경제활동인구	1.77	7.50	27.29	45.02	18.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9	9.97	29.46	41.74	17.44	19.62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5	7.61	27.33	42.45	20.55	
	숙련 및 기술직	2.60	8.50	29.90	42.40	16.60	
	단순노무 종사자	3.02	10.08	30.00	36.16	20.73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97	8.52	28.42	42.30	18.79	8.918(8)
	무기계약직	3.25	7.09	27.37	44.04	18.26	
	비정규직	1.52	7.83	27.55	40.83	22.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7	10.08	30.21	38.38	16.66	116.163(8) ***
	중도적	1.53	7.89	31.01	41.31	18.27	
	진보적	1.45	7.18	21.88	46.64	22.85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8〉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단위 :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3.42	8.47	32.07	39.59	16.45	
성별	남성	4.62	9.44	33.52	37.06	15.36	52.447(4) ***
	여성	2.16	7.45	30.54	42.26	17.59	
연령	20대 이하	4.96	10.19	36.57	33.15	15.13	77.204(12) ***
	30대	4.44	8.23	30.86	38.97	17.50	
	40대	2.86	6.71	31.58	41.81	17.04	
	50대	1.82	8.89	29.66	43.46	16.17	
지역1	수도권	3.78	8.02	31.03	39.34	17.82	13.856(4) **
	비수도권	3.02	8.96	33.20	39.87	14.95	
지역2	대도시	3.18	8.69	32.46	39.56	16.10	7.854(8)
	중소도시	3.49	8.00	32.49	38.91	17.10	
	농어촌	4.02	9.34	29.21	42.09	15.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5	8.62	28.26	32.23	23.65	111.155(12) ***
	중하층	2.66	7.72	29.74	43.83	16.05	
	중간층	3.33	8.29	35.76	37.54	15.09	
	중상층(상층)	3.08	13.49	32.15	35.45	15.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02	8.86	34.08	36.70	16.35	23.497(16)
	200만 원대	4.10	7.79	35.13	37.80	15.18	
	300만 원대	3.09	8.35	30.50	40.94	17.13	
	400만 원대	3.00	7.57	33.74	40.45	15.23	
	500만 원 이상	3.19	9.19	29.68	40.55	17.38	
학력	중졸 이하	3.06	9.26	32.03	37.36	18.30	13.750(8)
	고졸	3.13	8.20	33.97	38.32	16.37	
	대졸 이상	3.77	8.77	29.80	41.16	16.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3	8.08	31.05	40.76	16.67	21.475(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54	7.71	32.14	39.04	17.56	
	고용주, 자영자	3.01	8.99	31.71	40.06	16.24	
	무급가족 종사자	8.66	12.44	36.22	32.26	10.43	
	실업자	3.16	8.80	36.82	36.29	14.93	
	비경제활동인구	3.34	9.20	31.81	38.96	16.6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6	9.18	34.12	37.69	15.94	12.73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36	7.98	29.99	41.25	17.43	
	숙련 및 기술직	4.31	7.56	32.41	41.06	14.65	
	단순노무 종사자	4.07	8.92	33.45	37.84	15.72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55	7.94	31.56	40.52	
무기계약직	2.26	9.83	25.08	45.75	17.07		
비정규직	3.49	7.76	31.93	38.82	18.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6.30	10.97	32.17	35.74	14.81	108.995(8) ***
	중도적	3.16	8.02	35.19	39.31	14.32	
	진보적	2.27	7.85	26.58	42.23	21.06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9〉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9. 소득 분배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1.07	5.80	31.55	40.80	20.78	
성별	남성	1.41	7.00	31.73	37.46	22.40	47.235(4) ***
	여성	0.72	4.54	31.36	44.31	19.07	
연령	20대 이하	2.00	8.32	36.55	34.76	18.38	83.556(12) ***
	30대	1.09	5.08	31.85	40.93	21.06	
	40대	0.55	4.62	31.52	41.96	21.35	
	50대	0.78	5.36	27.07	44.75	22.04	
지역1	수도권	1.10	5.63	31.50	39.26	22.51	13.744(4) **
	비수도권	1.04	5.98	31.61	42.49	18.88	
지역2	대도시	1.03	5.41	31.63	41.42	20.51	6.605(8)
	중소도시	1.02	6.27	32.00	39.54	21.17	
	농어촌	1.41	5.51	29.70	43.07	20.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8	3.64	22.50	32.77	39.11	350.871(12) ***
	중하층	0.50	3.32	27.59	45.54	23.06	
	중간층	1.37	8.03	36.78	39.07	14.75	
	중상층(상층)	1.69	11.83	40.42	33.10	12.9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	5.65	31.36	39.85	21.94	16.848(16)
	200만 원대	1.25	6.20	31.74	39.95	20.86	
	300만 원대	1.16	5.49	30.90	41.00	21.46	
	400만 원대	0.65	3.72	31.21	42.86	21.56	
	500만 원 이상	1.07	6.76	32.04	40.58	19.54	
학력	중졸 이하	0.00	7.50	33.29	37.66	21.54	25.550(8) **
	고졸	1.02	5.50	34.26	39.23	19.99	
	대졸 이상	1.16	6.12	28.28	42.75	21.6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	5.40	30.08	41.66	21.56	33.777(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12	5.07	31.44	41.57	20.79	
	고용주, 자영자	0.55	5.01	31.49	40.46	22.48	
	무급가족 종사자	2.75	9.39	27.50	40.83	19.53	
	실업자	0.81	4.79	34.46	39.99	19.96	
	비경제활동인구	0.76	7.97	34.10	38.74	18.4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4	5.88	30.05	44.08	18.65	13.207(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8	5.19	29.75	41.77	22.21	
	숙련 및 기술직	1.86	5.38	32.95	38.37	21.45	
	단순노무 종사자	0.60	5.60	31.68	38.33	23.79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39	5.51	31.09	40.91	21.10	10.522(8)
	무기계약직	0.91	6.18	22.94	47.68	22.29	
	비정규직	0.95	4.57	29.87	42.31	22.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3	9.88	30.23	39.09	18.98	125.670(8) ***
	중도적	1.14	5.25	35.76	39.03	18.83	
	진보적	0.54	4.47	24.98	44.83	25.17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0〉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0. 부(재산) 분배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1.13	5.59	29.49	38.96	24.82	
성별	남성	1.42	6.63	29.53	36.55	25.88	29.223(4) ***
	여성	0.82	4.50	29.46	41.50	23.72	
연령	20대 이하	1.87	8.05	33.83	34.46	21.79	60.787(12) ***
	30대	1.23	4.60	28.70	40.19	25.28	
	40대	0.75	4.76	28.40	40.06	26.03	
	50대	0.78	5.09	27.47	40.78	25.89	
지역1	수도권	1.20	5.43	28.58	38.30	26.48	10.597(4) *
	비수도권	1.05	5.77	30.49	39.69	23.01	
지역2	대도시	1.00	5.67	30.05	38.93	24.34	2.178(8)
	중소도시	1.24	5.52	28.89	38.94	25.41	
	농어촌	1.18	5.60	29.67	39.13	24.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3	2.83	22.09	31.82	41.23	279.651(12) ***
	중하층	0.49	3.43	26.69	41.73	27.66	
	중간층	1.50	7.33	34.08	38.38	18.71	
	중상층(상층)	1.70	13.11	32.69	35.61	16.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4	5.28	31.15	36.53	25.40	24.054(16)
	200만 원대	1.16	5.00	31.85	38.04	23.95	
	300만 원대	1.31	5.53	28.85	38.64	25.67	
	400만 원대	0.77	3.99	30.51	40.10	24.63	
	500만 원 이상	0.98	6.82	27.43	40.07	24.71	
학력	중졸 이하	0.00	7.78	23.87	47.17	21.18	51.925(8) ***
	고졸	1.12	5.57	33.25	36.98	23.08	
	대졸 이상	1.17	5.57	25.14	41.14	26.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8	5.44	27.55	39.67	26.16	41.878(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64	4.61	30.26	38.68	24.81	
	고용주, 자영자	0.90	3.68	32.70	38.01	24.70	
	무급가족 종사자	1.50	11.08	27.08	35.32	25.02	
	실업자	0.97	4.19	31.05	39.05	24.74	
	비경제활동인구	0.91	7.88	32.03	37.85	21.3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73	5.65	26.37	43.25	24.00	22.691(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5	4.76	28.11	38.94	26.84	
	숙련 및 기술직	1.55	6.73	31.16	37.68	22.87	
	단순노무 종사자	0.65	4.78	33.01	34.27	27.30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22	5.51	28.30	39.08	25.90	4.589(8)
	무기계약직	0.91	5.71	23.62	44.12	25.65	
	비정규직	1.46	4.54	28.23	39.57	26.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1	9.39	29.32	36.70	22.68	140.074(8) ***
	중도적	1.12	5.30	33.64	37.99	21.95	
	진보적	0.71	3.97	22.38	41.92	31.01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1. 지역 간 발전 수준

(단위: %)

		매우 평등하다	대체로 평등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평등하다	매우 불평등하다	χ^2 (df)
전체		0.85	4.19	25.28	44.81	24.87	
성별	남성	1.15	4.75	26.23	42.53	25.35	21.068(4) ***
	여성	0.54	3.61	24.28	47.21	24.36	
연령	20대 이하	1.29	6.44	26.82	38.30	27.15	76.107(12) ***
	30대	1.16	3.91	23.58	43.36	28.00	
	40대	0.48	3.46	25.08	46.73	24.25	
	50대	0.58	3.19	25.53	49.71	20.99	
지역1	수도권	0.86	4.51	25.74	44.95	23.94	4.388(4)
	비수도권	0.84	3.84	24.77	44.66	25.88	
지역2	대도시	0.91	4.00	25.99	44.85	24.25	3.524(8)
	중소도시	0.77	4.38	24.69	45.20	24.97	
	농어촌	0.91	4.19	24.86	43.36	26.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6	2.60	20.57	38.72	36.25	154.493(12) ***
	중하층	0.49	2.78	22.74	46.62	27.37	
	중간층	1.07	5.54	29.23	44.75	19.41	
	중상층(상층)	0.42	7.69	26.52	42.96	22.4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5	3.46	28.67	41.21	25.41	30.896(16) *
	200만 원대	0.74	4.88	26.61	43.69	24.09	
	300만 원대	0.92	4.19	26.10	41.90	26.88	
	400만 원대	0.65	3.22	25.95	45.76	24.43	
	500만 원 이상	0.81	4.53	22.46	48.04	24.16	
학력	중졸 이하	1.40	4.50	26.60	43.46	24.03	58.527(8) ***
	고졸	0.81	4.09	29.12	43.12	22.85	
	대졸 이상	0.88	4.30	20.67	46.86	27.2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4	4.36	23.70	46.08	24.91	38.512(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48	3.59	27.43	41.79	25.72	
	고용주, 자영자	0.51	3.83	31.05	39.57	25.04	
	무급가족 종사자	1.26	8.12	30.27	35.41	24.94	
	실업자	0.99	2.53	26.32	43.73	26.43	
	비경제활동인구	0.32	4.94	24.78	46.66	23.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0	3.83	22.80	47.27	25.50	12.67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0	4.46	25.09	44.01	25.44	
	숙련 및 기술직	1.49	4.69	27.30	42.97	23.55	
	단순노무 종사자	0.66	2.89	29.02	44.05	23.39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0.99	4.34	24.20	45.40	25.08	4.295(8)
	무기계약직	0.91	3.98	21.23	50.79	23.09	
	비정규직	1.21	4.01	25.51	43.82	25.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	6.89	25.87	42.91	22.91	104.468(8) ***
	중도적	0.81	4.30	28.59	43.38	22.93	
	진보적	0.61	2.49	19.20	48.38	29.32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 교육 기회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28.79	51.95	15.11	3.44	0.72	
성별	남성	28.69	49.57	16.74	3.88	1.12	34.783(4) ***
	여성	28.89	54.44	13.40	2.98	0.30	
연령	20대 이하	25.84	46.94	21.56	4.45	1.22	106.538(12) ***
	30대	26.99	51.61	16.59	3.92	0.88	
	40대	30.21	54.92	11.90	2.64	0.34	
	50대	31.39	53.65	11.49	2.95	0.52	
지역1	수도권	29.80	51.61	14.88	3.02	0.68	6.186(4)
	비수도권	27.68	52.32	15.36	3.89	0.76	
지역2	대도시	28.67	51.97	15.08	3.65	0.63	7.448(8)
	중소도시	28.47	52.81	14.71	3.32	0.68	
	농어촌	30.30	48.82	16.63	3.10	1.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02	40.59	12.13	3.04	2.23	154.560(12) ***
	중하층	30.43	53.96	12.83	2.41	0.36	
	중간층	24.41	52.71	18.13	4.18	0.58	
	중상층(상층)	23.30	51.95	17.17	6.16	1.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57	47.25	18.07	4.45	1.66	40.131(16) ***
	200만 원대	27.12	52.72	16.61	3.15	0.40	
	300만 원대	30.43	50.90	14.88	3.22	0.58	
	400만 원대	30.29	52.37	14.85	2.19	0.31	
	500만 원 이상	28.19	53.70	13.39	3.92	0.80	
학력	중졸 이하	24.75	41.85	23.69	6.40	3.32	17.961(8) *
	고졸	28.38	52.24	15.66	3.01	0.70	
	대졸 이상	29.36	51.84	14.25	3.87	0.6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12	52.65	15.37	3.27	0.60	28.142(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7.06	52.69	15.06	4.32	0.86	
	고용주, 자영자	35.55	49.53	10.96	3.20	0.75	
	무급가족 종사자	26.22	48.79	23.52	1.47	0.00	
	실업자	27.15	51.91	17.04	3.07	0.84	
	비경제활동인구	29.44	51.06	14.67	3.91	0.93	
직업	관리자, 전문가	29.24	51.75	14.28	3.83	0.91	10.23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8.47	52.95	15.17	2.96	0.45	
	숙련 및 기술직	29.88	50.66	14.92	3.46	1.08	
	단순노무 종사자	29.30	50.14	14.51	5.36	0.69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27.40	52.81	15.73	3.51	0.55	9.886(8)
	무기계약직	30.90	51.72	15.28	0.86	1.24	
	비정규직	28.89	52.43	13.99	3.94	0.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59	52.63	14.02	4.66	1.09	75.470(8) ***
	중도적	26.28	51.99	18.05	3.13	0.55	
	진보적	33.80	51.50	10.61	3.28	0.81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3〉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2. 취업 기회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40.16	47.28	10.08	1.91	0.56	
성별	남성	38.11	45.97	12.54	2.44	0.94	71.828(4) ***
	여성	42.32	48.66	7.50	1.35	0.17	
연령	20대 이하	39.72	42.24	14.95	2.19	0.90	92.766(12) ***
	30대	38.12	46.88	12.27	2.13	0.61	
	40대	39.85	50.43	7.42	1.90	0.40	
	50대	42.48	48.90	6.72	1.51	0.39	
지역1	수도권	40.67	47.09	9.96	1.76	0.51	1.812(4)
	비수도권	39.60	47.49	10.22	2.08	0.62	
지역2	대도시	40.03	47.17	10.24	1.94	0.62	5.955(8)
	중소도시	40.61	47.62	9.51	1.85	0.41	
	농어촌	39.03	46.50	11.55	2.03	0.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87	33.33	7.79	1.27	1.74	206.783(12) ***
	중하층	42.89	48.12	7.44	1.37	0.18	
	중간층	34.01	50.35	13.03	2.02	0.59	
	중상층(상층)	33.99	46.00	13.62	5.37	1.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0.75	42.77	12.23	3.09	1.16	31.833(16) *
	200만 원대	39.22	47.94	10.79	1.66	0.40	
	300만 원대	42.71	45.24	9.84	1.61	0.60	
	400만 원대	39.41	49.50	9.60	1.40	0.10	
	500만 원 이상	39.38	48.76	9.23	2.02	0.62	
학력	중졸 이하	39.93	35.78	14.31	6.67	3.30	18.093(8) *
	고졸	40.54	47.05	10.14	1.79	0.48	
	대졸 이상	39.72	47.84	9.91	1.94	0.6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30	48.39	10.75	1.89	0.67	19.468(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1.18	46.16	10.00	2.31	0.35	
	고용주, 자영자	42.37	46.56	8.22	2.47	0.38	
	무급가족 종사자	40.19	47.22	12.58	0.00	0.00	
	실업자	41.34	47.14	9.66	1.16	0.70	
	비경제활동인구	42.90	45.30	9.29	2.09	0.43	
직업	관리자, 전문가	38.78	47.53	10.57	2.13	0.99	18.14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9.24	48.94	9.80	1.68	0.34	
	숙련 및 기술직	39.49	45.16	11.46	2.75	1.14	
	단순노무 종사자	39.91	44.73	12.36	2.64	0.3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7.26	48.79	11.29	1.94	0.71	13.755(8)
	무기계약직	42.92	48.01	7.83	0.86	0.39	
	비정규직	42.44	45.57	9.31	2.32	0.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05	47.14	9.81	2.18	0.83	59.923(8) ***
	중도적	37.59	47.55	12.36	2.01	0.49	
	진보적	44.69	46.89	6.29	1.59	0.54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4〉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3. 승진, 승급 기회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2.41	50.71	14.33	1.99	0.56	
성별	남성	30.43	47.89	18.08	2.67	0.93	109.902(4) ***
	여성	34.50	53.68	10.38	1.27	0.17	
연령	20대 이하	35.15	43.07	18.55	2.33	0.90	80.912(12) ***
	30대	31.07	49.67	16.24	2.34	0.68	
	40대	31.49	53.56	13.06	1.55	0.34	
	50대	32.04	55.35	10.39	1.83	0.39	
지역1	수도권	32.54	50.74	14.00	2.21	0.51	2.488(4)
	비수도권	32.27	50.68	14.68	1.75	0.61	
지역2	대도시	32.21	50.33	14.89	1.98	0.59	9.791(8)
	중소도시	32.63	51.23	13.72	2.07	0.36	
	농어촌	32.35	50.22	14.50	1.74	1.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14	37.06	12.26	1.95	1.60	150.927(12) ***
	중하층	33.67	52.74	12.09	1.25	0.25	
	중간층	28.34	52.36	16.16	2.60	0.53	
	중상층(상층)	25.58	49.29	20.83	3.24	1.0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2.67	45.88	17.23	3.18	1.04	35.228(16) **
	200만 원대	31.65	50.69	15.56	1.35	0.75	
	300만 원대	32.94	50.89	13.71	2.04	0.41	
	400만 원대	33.89	50.62	14.32	1.08	0.10	
	500만 원 이상	31.77	52.51	12.87	2.29	0.57	
학력	중졸 이하	27.16	48.57	14.58	4.71	4.97	24.622(8) **
	고졸	33.14	50.61	13.89	1.88	0.48	
	대졸 이상	31.67	50.88	14.84	2.06	0.5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52	51.70	15.38	1.77	0.63	24.822(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4.86	47.02	14.15	3.47	0.51	
	고용주, 자영자	32.88	51.71	12.96	2.07	0.38	
	무급가족 종사자	34.33	51.32	13.11	1.23	0.00	
	실업자	33.54	51.01	13.01	1.75	0.70	
	비경제활동인구	35.25	49.24	13.09	1.99	0.43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07	50.58	14.67	1.94	0.74	14.48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13	52.11	14.49	1.81	0.46	
	숙련 및 기술직	30.77	51.09	15.27	2.10	0.77	
	단순노무 종사자	34.07	43.66	17.72	3.90	0.6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29.87	51.52	16.09	1.85	0.67	26.293(8) ***
	무기계약직	29.55	58.01	11.66	0.40	0.39	
	비정규직	36.10	47.01	13.25	3.16	0.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65	49.41	15.16	1.96	0.83	32.470(8) ***
	중도적	30.38	51.26	15.68	2.28	0.40	
	진보적	35.81	50.49	11.50	1.50	0.69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5〉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4. 법의 집행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53.83	33.65	10.24	1.77	0.51	
성별	남성	55.70	29.83	11.50	2.23	0.74	55.434(4) ***
	여성	51.87	37.67	8.91	1.29	0.26	
연령	20대 이하	51.99	31.51	14.18	1.68	0.65	57.503(12) ***
	30대	52.20	33.10	12.24	1.98	0.47	
	40대	53.99	35.82	8.08	1.70	0.40	
	50대	56.57	33.84	7.31	1.76	0.52	
지역1	수도권	55.65	32.55	9.76	1.55	0.49	9.635(4) *
	비수도권	51.85	34.86	10.75	2.01	0.53	
지역2	대도시	54.51	32.97	10.32	1.68	0.52	2.033(8)
	중소도시	53.28	34.36	10.09	1.83	0.45	
	농어촌	53.42	33.53	10.48	1.88	0.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22	22.99	8.09	2.96	1.74	130.738(12) ***
	중하층	56.45	34.20	8.17	1.00	0.19	
	중간층	48.41	36.33	12.69	2.10	0.47	
	중상층(상층)	51.88	31.54	12.74	2.99	0.8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45	33.43	13.07	3.65	1.40	68.425(16) ***
	200만 원대	50.58	34.06	13.29	1.73	0.34	
	300만 원대	54.51	34.70	9.12	1.42	0.25	
	400만 원대	54.89	34.36	9.06	1.25	0.44	
	500만 원 이상	56.85	32.58	8.60	1.52	0.44	
학력	중졸 이하	39.52	39.49	14.35	3.32	3.32	35.158(8) ***
	고졸	51.98	33.97	11.69	1.91	0.46	
	대졸 이상	56.40	33.13	8.41	1.57	0.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3.69	33.78	10.35	1.68	0.49	18.102(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5.91	30.68	11.16	1.54	0.70	
	고용주, 자영자	57.10	32.36	8.41	1.56	0.58	
	무급가족 종사자	44.47	40.98	13.32	1.24	0.00	
	실업자	52.74	32.81	11.33	2.82	0.30	
	비경제활동인구	52.90	35.42	9.46	1.63	0.59	
직업	관리자, 전문가	55.67	31.34	10.11	1.86	1.02	17.21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4.05	34.49	9.76	1.34	0.35	
	숙련 및 기술직	54.03	31.94	10.77	2.61	0.64	
	단순노무 종사자	52.69	31.46	13.87	1.62	0.3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53.80	32.82	11.03	1.85	0.50	12.946(8)
	무기계약직	53.25	39.64	5.79	0.46	0.86	
	비정규직	55.07	32.99	10.04	1.39	0.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54.10	35.04	8.91	1.38	0.57	146.751(8) ***
	중도적	47.72	36.70	13.02	2.07	0.49	
	진보적	64.30	27.58	6.15	1.47	0.50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6〉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5. 여성에 대한 대우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26.58	42.48	22.65	5.10	3.18	
성별	남성	18.05	38.61	29.30	8.18	5.86	575.674(4) ***
	여성	35.55	46.55	15.65	1.87	0.38	
연령	20대 이하	28.68	31.27	25.60	7.81	6.64	233.157(12) ***
	30대	27.77	37.98	25.45	4.75	4.04	
	40대	26.07	47.38	20.31	4.77	1.48	
	50대	24.33	50.99	20.11	3.39	1.18	
지역1	수도권	27.88	41.25	21.94	5.58	3.36	11.565(4) *
	비수도권	25.17	43.83	23.42	4.58	3.00	
지역2	대도시	26.55	42.24	23.02	5.02	3.17	9.177(8)
	중소도시	26.71	41.55	23.34	5.15	3.25	
	농어촌	26.27	46.63	18.88	5.20	3.0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32	35.40	21.09	4.75	5.44	63.079(12) ***
	중하층	27.37	44.48	21.01	4.77	2.37	
	중간층	24.80	42.70	24.19	5.09	3.21	
	중상층(상층)	21.88	39.46	26.40	7.57	4.7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38	37.69	25.37	4.93	3.63	27.364(16) *
	200만 원대	25.88	41.56	23.03	5.32	4.21	
	300만 원대	28.32	42.34	22.39	4.46	2.49	
	400만 원대	25.21	45.69	22.23	5.04	1.83	
	500만 원 이상	25.95	43.43	21.73	5.43	3.45	
학력	중졸 이하	27.27	39.55	23.22	3.34	6.62	17.819(8) *
	고졸	26.71	41.54	24.27	4.70	2.78	
	대졸 이상	26.41	43.69	20.69	5.63	3.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59	43.56	23.77	5.01	3.07	44.361(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7.51	42.40	22.69	4.35	3.05	
	고용주, 자영자	23.78	43.88	24.63	6.05	1.66	
	무급가족 종사자	33.67	41.27	18.56	2.72	3.79	
	실업자	30.04	36.82	23.48	5.92	3.75	
	비경제활동인구	30.24	42.46	18.44	4.96	3.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26.83	41.98	22.32	6.00	2.87	14.03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47	43.80	23.57	4.53	2.63	
	숙련 및 기술직	21.30	43.78	25.84	5.03	4.06	
	단순노무 종사자	24.08	43.18	23.45	6.31	2.98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24.21	42.83	24.42	5.37	3.17	16.274(8) *
	무기계약직	22.93	49.37	23.56	2.18	1.96	
	비정규직	28.46	43.38	20.91	4.17	3.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84	40.46	23.70	6.94	6.06	86.999(8) ***
	중도적	25.01	42.69	24.60	4.84	2.86	
	진보적	31.40	43.25	18.65	4.54	2.15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7〉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6. 남성에 대한 대응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X ² (df)
전체		17.73	41.69	32.80	5.46	2.31	
성별	남성	19.39	39.57	34.32	4.91	1.81	31.118(4) ***
	여성	15.99	43.92	31.21	6.04	2.84	
연령	20대 이하	19.74	35.20	32.25	7.03	5.78	173.573(12) ***
	30대	21.20	37.91	33.14	5.42	2.32	
	40대	16.21	46.39	32.24	4.55	0.61	
	50대	14.69	45.76	33.54	5.02	0.98	
지역1	수도권	18.19	40.88	32.57	5.82	2.54	5.118(4)
	비수도권	17.23	42.58	33.06	5.07	2.06	
지역2	대도시	17.13	41.83	32.84	5.69	2.50	8.425(8)
	중소도시	17.97	41.04	33.79	5.04	2.16	
	농어촌	19.01	43.48	29.18	6.13	2.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12	35.86	31.32	5.02	3.69	40.935(12) ***
	중하층	17.78	42.65	32.43	5.02	2.13	
	중간층	15.96	43.05	33.24	5.58	2.18	
	중상층(상층)	17.70	37.31	34.78	8.00	2.2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95	38.82	34.89	4.87	3.46	22.002(16)
	200만 원대	17.47	41.88	33.74	4.69	2.21	
	300만 원대	19.54	41.50	31.75	5.06	2.15	
	400만 원대	16.51	42.82	33.27	6.21	1.18	
	500만 원 이상	17.34	42.26	31.86	5.99	2.55	
학력	중졸 이하	19.72	41.02	27.63	6.69	4.94	12.418(8)
	고졸	16.87	41.97	34.00	4.86	2.29	
	대졸 이상	18.71	41.37	31.51	6.14	2.2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7	42.21	33.50	4.96	2.06	27.070(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8.29	40.65	32.81	5.26	2.99	
	고용주, 자영자	19.31	40.50	34.16	5.04	0.99	
	무급가족 종사자	21.98	46.05	27.03	2.48	2.45	
	실업자	16.63	40.34	31.97	8.19	2.88	
	비경제활동인구	18.34	41.90	31.18	5.66	2.9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39	41.39	32.37	5.38	1.48	10.37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32	41.30	34.27	4.91	2.21	
	숙련 및 기술직	17.79	44.71	30.97	3.92	2.60	
	단순노무 종사자	16.91	42.12	33.33	6.34	1.30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17.45	41.53	33.61	5.31	2.09	6.077(8)
	무기계약직	15.52	47.51	32.02	3.00	1.95	
	비정규직	17.94	41.76	33.05	4.60	2.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47	41.57	31.40	5.49	2.07	30.400(8) ***
	중도적	17.85	41.44	34.30	4.51	1.89	
	진보적	16.55	42.19	30.99	7.09	3.18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8〉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3.27	45.37	17.39	2.88	1.09	
성별	남성	29.44	44.33	20.76	3.77	1.70	109.277(4) ***
	여성	37.31	46.47	13.85	1.94	0.43	
연령	20대 이하	34.27	40.97	20.58	2.51	1.67	46.246(12) ***
	30대	35.98	42.87	17.18	2.89	1.08	
	40대	33.54	47.04	16.16	2.58	0.68	
	50대	29.99	49.55	16.01	3.47	0.98	
지역1	수도권	34.83	44.84	16.59	2.73	1.01	8.206(4)
	비수도권	31.57	45.96	18.27	3.03	1.17	
지역2	대도시	32.37	46.58	16.77	3.26	1.01	11.667(8)
	중소도시	33.12	45.26	18.02	2.55	1.05	
	농어촌	36.97	41.53	17.36	2.66	1.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41	36.08	15.38	3.29	2.84	86.916(12) ***
	중하층	34.63	46.86	15.46	2.35	0.70	
	중간층	29.80	46.73	19.23	3.23	1.01	
	중상층(상층)	30.45	42.59	22.05	3.62	1.2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5.30	39.54	18.92	4.14	2.11	47.406(16) ***
	200만 원대	32.99	43.69	20.59	1.65	1.08	
	300만 원대	35.23	44.04	16.98	2.75	1.00	
	400만 원대	31.01	49.49	15.75	2.98	0.76	
	500만 원 이상	32.60	47.40	15.99	3.11	0.90	
학력	중졸 이하	33.81	42.46	13.76	6.68	3.29	13.147(8)
	고졸	33.35	44.49	18.40	2.58	1.18	
	대졸 이상	33.17	46.49	16.28	3.13	0.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99	45.92	17.95	3.02	1.12	17.74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5.95	42.51	18.31	2.36	0.87	
	고용주, 자영자	32.96	45.38	17.97	2.72	0.96	
	무급가족 종사자	38.91	35.57	22.85	1.48	1.19	
	실업자	33.73	44.81	16.51	3.77	1.18	
	비경제활동인구	34.89	46.30	15.33	2.39	1.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75	44.16	17.06	3.78	1.25	19.05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2.68	46.28	17.63	2.49	0.92	
	숙련 및 기술직	32.39	42.67	20.86	2.25	1.82	
	단순노무 종사자	31.64	44.19	19.16	4.65	0.35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1.19	45.99	18.57	3.03	1.21	13.904(8)
	무기계약직	34.84	48.89	13.23	2.64	0.39	
	비정규직	36.65	42.35	17.56	2.59	0.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91	44.27	19.50	3.43	1.90	94.736(8) ***
	중도적	29.66	46.95	19.55	2.83	1.01	
	진보적	40.87	43.26	12.47	2.65	0.76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9>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19.26	41.80	28.45	6.82	3.67	
성별	남성	17.81	39.70	30.19	7.46	4.84	47.662(4) ***
	여성	20.79	44.00	26.62	6.15	2.44	
연령	20대 이하	21.10	34.28	30.58	8.19	5.85	122.810(12) ***
	30대	20.78	37.26	29.44	7.42	5.11	
	40대	19.69	45.57	25.99	6.38	2.37	
	50대	16.05	48.25	28.20	5.60	1.89	
지역1	수도권	19.71	40.47	28.17	7.60	4.05	12.232(4) *
	비수도권	18.77	43.25	28.75	5.98	3.25	
지역2	대도시	18.70	41.11	29.78	6.97	3.45	10.145(8)
	중소도시	18.97	42.25	28.00	6.90	3.88	
	농어촌	22.25	42.61	25.39	6.03	3.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31	33.47	27.83	6.99	7.40	57.602(12) ***
	중하층	18.88	44.35	27.39	6.29	3.09	
	중간층	18.36	41.76	29.41	7.18	3.29	
	중상층(상층)	19.08	38.53	30.62	7.89	3.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52	38.33	32.06	5.92	4.17	13.996(16)
	200만 원대	19.13	41.03	28.81	7.13	3.90	
	300만 원대	19.66	42.84	27.12	7.28	3.11	
	400만 원대	18.90	43.88	28.01	6.23	2.98	
	500만 원 이상	19.18	41.99	27.84	7.00	3.99	
학력	중졸 이하	18.28	45.51	23.39	6.41	6.41	19.830(8) *
	고졸	19.27	41.51	30.00	5.80	3.42	
	대졸 이상	19.28	42.05	26.73	8.05	3.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47	42.22	28.22	7.37	3.71	20.499(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0.43	40.47	28.05	6.08	4.98	
	고용주, 자영자	19.78	40.32	30.03	7.80	2.07	
	무급가족 종사자	25.60	34.02	32.30	4.39	3.69	
	실업자	19.50	40.49	30.65	5.71	3.65	
비경제활동인구	19.99	43.29	26.97	6.08	3.6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18	41.53	26.24	8.01	3.03	16.45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92	40.94	29.22	7.34	3.58	
	숙련 및 기술직	18.30	43.28	29.35	4.91	4.16	
	단순노무 종사자	15.58	44.04	26.79	8.33	5.25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18.10	41.82	28.75	7.50	3.84	7.663(8)
	무기계약직	21.08	45.25	25.73	5.52	2.43	
	비정규직	20.36	41.40	27.07	6.58	4.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60	40.88	28.10	8.94	5.48	66.123(8) ***
	중도적	17.61	41.23	30.63	6.97	3.55	
	진보적	23.61	43.28	24.86	5.38	2.87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0〉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9. 소득 분배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X ² (df)
전체		34.51	43.94	17.44	2.90	1.21	
성별	남성	35.18	40.52	19.03	3.56	1.71	49.596(4) ***
	여성	33.79	47.54	15.78	2.20	0.68	
연령	20대 이하	30.24	40.17	23.92	3.74	1.93	95.255(12) ***
	30대	35.02	42.11	18.68	2.82	1.36	
	40대	34.76	48.19	13.93	2.45	0.67	
	50대	37.49	44.56	14.29	2.69	0.98	
지역1	수도권	34.77	43.26	17.54	3.23	1.20	3.260(4)
	비수도권	34.21	44.69	17.34	2.54	1.22	
지역2	대도시	33.67	44.78	17.46	2.94	1.15	3.152(8)
	중소도시	35.34	43.40	17.13	2.82	1.31	
	농어촌	34.49	42.91	18.51	3.03	1.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52	31.32	12.16	2.64	2.35	185.732(12) ***
	중하층	36.60	45.37	15.37	2.05	0.61	
	중간층	29.16	46.14	19.87	3.49	1.34	
	중상층(상층)	26.18	41.85	24.36	5.20	2.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17	40.51	17.90	3.76	1.66	29.961(16) *
	200만 원대	32.68	42.76	20.70	2.51	1.35	
	300만 원대	37.11	44.28	15.20	2.40	1.01	
	400만 원대	33.77	46.73	16.48	2.36	0.66	
	500만 원 이상	33.77	44.45	17.14	3.32	1.32	
학력	중졸 이하	34.86	37.28	16.24	9.97	1.64	32.246(8) ***
	고졸	33.29	44.43	18.87	2.39	1.02	
	대졸 이상	35.95	43.52	15.78	3.33	1.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30	44.66	17.03	2.87	1.14	16.74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7.20	40.77	18.43	2.57	1.03	
	고용주, 자영자	37.53	42.24	15.19	3.56	1.49	
	무급가족 종사자	28.97	52.07	17.78	0.00	1.19	
	실업자	33.65	43.37	19.51	2.34	1.13	
	비경제활동인구	33.15	44.24	17.86	3.37	1.3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8.12	41.54	14.90	3.94	1.50	21.506(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21	45.66	16.61	2.48	1.03	
	숙련 및 기술직	34.36	41.63	19.59	2.84	1.58	
	단순노무 종사자	34.61	40.79	20.68	3.26	0.66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3.66	44.66	17.63	2.85	1.19	7.650(8)
	무기계약직	40.89	42.00	14.12	2.60	0.39	
	비정규직	36.56	42.61	16.92	2.79	1.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0.06	41.00	23.07	3.79	2.08	144.379(8) ***
	중도적	30.93	45.59	19.24	3.11	1.13	
	진보적	43.21	42.73	11.18	2.04	0.85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0. 부(재산) 분배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3.95	42.14	19.39	3.32	1.20	
성별	남성	34.85	38.63	20.79	4.17	1.56	46.854(4) ***
	여성	32.99	45.84	17.92	2.42	0.82	
연령	20대 이하	31.28	38.55	24.96	3.41	1.80	63.543(12) ***
	30대	34.96	39.63	20.67	3.44	1.29	
	40대	35.03	45.35	15.82	2.92	0.88	
	50대	34.36	44.15	17.05	3.53	0.91	
지역1	수도권	34.83	40.97	19.25	3.68	1.27	6.523(4)
	비수도권	32.98	43.43	19.55	2.93	1.12	
지역2	대도시	33.09	42.64	19.64	3.29	1.34	4.620(8)
	중소도시	35.12	41.11	19.30	3.41	1.06	
	농어촌	32.82	44.05	18.85	3.08	1.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08	30.41	14.24	2.93	2.34	179.294(12) ***
	중하층	36.57	43.27	17.01	2.58	0.58	
	중간층	27.92	44.66	22.14	3.97	1.31	
	중상층(상층)	27.19	38.98	26.34	4.85	2.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5.32	39.13	20.28	3.74	1.53	28.081(16) *
	200만 원대	33.07	40.75	22.52	2.38	1.29	
	300만 원대	35.78	43.36	16.50	3.40	0.95	
	400만 원대	33.30	44.65	18.45	2.95	0.64	
	500만 원 이상	33.18	42.24	19.36	3.81	1.42	
학력	중졸 이하	32.08	38.41	17.92	6.64	4.95	20.051(8) *
	고졸	32.57	42.61	20.68	3.02	1.11	
	대졸 이상	35.63	41.67	17.90	3.59	1.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97	43.04	18.80	3.00	1.18	24.504(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7.58	36.90	21.30	3.55	0.67	
	고용주, 자영자	36.10	39.35	18.13	4.36	2.06	
	무급가족 종사자	35.76	38.66	22.92	1.48	1.19	
	실업자	32.38	43.93	19.24	3.72	0.72	
	비경제활동인구	31.86	42.83	20.49	3.44	1.3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6.35	40.80	17.60	3.68	1.57	15.58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44	42.84	18.84	2.74	1.13	
	숙련 및 기술직	33.97	39.39	21.21	3.83	1.61	
	단순노무 종사자	34.74	38.74	21.46	4.77	0.30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3.37	42.92	19.34	3.17	1.20	9.784(8)
	무기계약직	39.48	42.37	14.78	2.58	0.79	
	비정규직	36.95	39.20	20.01	2.99	0.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11	39.48	24.38	5.74	2.30	186.279(8) ***
	중도적	30.33	43.50	22.10	2.97	1.11	
	진보적	43.49	41.29	11.90	2.57	0.74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1. 지역 간 발전 수준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χ^2 (df)
전체		38.26	43.28	15.17	2.58	0.71	
성별	남성	37.80	40.34	17.33	3.48	1.05	61.344(4) ***
	여성	38.74	46.36	12.91	1.63	0.36	
연령	20대 이하	37.64	38.32	19.97	2.97	1.09	59.269(12) ***
	30대	38.48	42.58	15.66	2.20	1.08	
	40대	38.20	46.60	12.22	2.72	0.26	
	50대	38.65	44.88	13.53	2.42	0.52	
지역1	수도권	35.86	44.42	16.30	2.71	0.70	17.791(4) **
	비수도권	40.87	42.02	13.94	2.43	0.73	
지역2	대도시	37.65	42.82	16.27	2.50	0.77	8.008(8)
	중소도시	38.54	43.58	14.70	2.63	0.57	
	농어촌	39.40	43.83	13.03	2.71	1.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75	36.34	12.64	3.27	1.99	77.790(12) ***
	중하층	39.82	44.68	13.15	1.99	0.36	
	중간층	34.75	44.13	17.58	2.86	0.68	
	중상층(상층)	36.65	40.35	18.17	3.63	1.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05	39.98	17.22	3.62	1.13	16.728(16)
	200만 원대	36.37	44.74	15.88	2.20	0.82	
	300만 원대	38.71	43.33	14.53	2.86	0.57	
	400만 원대	38.19	43.65	14.86	2.79	0.51	
	500만 원 이상	39.18	43.50	14.51	2.14	0.67	
학력	중졸 이하	35.95	40.04	19.02	3.35	1.64	13.271(8)
	고졸	36.46	44.08	16.14	2.61	0.71	
	대졸 이상	40.46	42.39	13.93	2.52	0.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35	42.75	15.43	2.60	0.88	22.905(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0.14	39.91	16.60	2.83	0.51	
	고용주, 자영자	39.51	43.59	12.43	4.13	0.34	
	무급가족 종사자	35.96	48.71	11.66	2.48	1.19	
	실업자	37.80	42.95	15.79	2.58	0.88	
	비경제활동인구	36.89	46.08	14.93	1.68	0.41	
직업	관리자, 전문가	44.20	38.27	13.55	3.13	0.84	25.106(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7.71	44.12	15.16	2.33	0.67	
	숙련 및 기술직	36.95	41.40	16.83	3.55	1.26	
	단순노무 종사자	35.70	43.48	15.86	4.61	0.36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38.14	42.55	15.65	2.73	0.93	9.663(8)
	무기계약직	41.21	46.14	10.62	1.26	0.77	
	비정규직	39.49	40.34	16.96	2.72	0.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49	45.04	17.26	4.29	0.91	119.164(8) ***
	중도적	35.12	44.23	17.42	2.54	0.69	
	진보적	46.94	40.63	10.11	1.69	0.63	

주: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3〉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1.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22.88	38.67	28.52	7.38	2.55	
성별	남성	23.50	36.94	29.12	7.49	2.95	10.958(4) *
	여성	22.23	40.49	27.89	7.26	2.13	
연령	20대 이하	17.29	35.65	32.76	9.74	4.56	99.965(12) ***
	30대	21.67	39.42	29.17	7.30	2.45	
	40대	25.25	39.37	27.53	6.23	1.62	
	50대	26.35	39.99	25.33	6.52	1.81	
지역1	수도권	23.59	39.47	27.37	7.04	2.52	6.556(4)
	비수도권	22.11	37.80	29.77	7.74	2.58	
지역2	대도시	22.87	38.24	29.42	6.85	2.61	9.038(8)
	중소도시	22.23	39.46	28.36	7.58	2.36	
	농어촌	25.20	37.38	25.91	8.51	3.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43	25.70	14.63	4.68	1.55	788.561(12) ***
	중하층	27.24	44.15	22.91	4.19	1.51	
	중간층	12.80	37.27	36.89	9.91	3.13	
	중상층(상층)	6.90	31.72	37.72	16.70	6.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1.78	33.62	25.97	6.97	1.65	131.649(16) ***
	200만 원대	26.56	39.04	26.55	5.59	2.27	
	300만 원대	25.39	37.03	29.05	6.34	2.19	
	400만 원대	21.74	41.03	29.85	5.95	1.43	
	500만 원 이상	16.52	40.22	29.69	9.79	3.78	
학력	중졸 이하	44.12	18.28	24.85	11.11	1.64	60.711(8) ***
	고졸	25.01	37.39	29.19	6.16	2.25	
	대졸 이상	19.82	40.70	27.81	8.74	2.9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18	40.78	28.69	6.84	2.51	58.220(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8.23	39.28	25.07	6.09	1.33	
	고용주, 자영자	25.55	35.30	26.12	9.65	3.38	
	무급가족 종사자	21.83	42.97	26.86	5.65	2.69	
	실업자	27.77	36.08	27.85	6.37	1.93	
	비경제활동인구	20.64	35.56	31.43	9.13	3.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27	40.56	28.86	10.83	3.48	56.144(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3.19	40.51	27.88	6.22	2.20	
	숙련 및 기술직	24.49	39.25	27.65	5.88	2.73	
	단순노무 종사자	32.05	34.73	25.29	6.45	1.48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20.30	40.57	29.46	7.18	2.50	30.528(8) ***
	무기계약직	25.78	44.01	22.98	4.28	2.95	
	비정규직	27.82	39.44	25.22	5.94	1.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64	38.88	24.47	7.71	3.30	44.443(8) ***
	중도적	21.81	37.26	31.96	6.74	2.23	
	진보적	23.20	41.01	24.81	8.30	2.68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4〉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단위: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41.21	33.40	19.46	4.40	1.53	
성별	남성	41.46	31.85	20.28	4.60	1.81	10.923(4) *
	여성	40.94	35.04	18.60	4.18	1.24	
연령	20대 이하	40.62	33.27	20.39	3.47	2.26	27.761(12) **
	30대	42.31	31.10	19.62	5.48	1.49	
	40대	39.88	35.89	19.61	3.39	1.22	
	50대	42.09	32.98	18.40	5.29	1.24	
지역1	수도권	42.67	32.80	18.95	4.13	1.44	6.341(4)
	비수도권	39.60	34.06	20.02	4.68	1.63	
지역2	대도시	41.42	32.95	19.54	4.62	1.47	2.513(8)
	중소도시	41.25	33.81	19.22	4.06	1.66	
	농어촌	40.30	33.55	20.05	4.80	1.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5.81	18.19	12.33	2.11	1.55	461.481(12) ***
	중하층	48.36	33.32	14.06	3.21	1.05	
	중간층	29.13	37.47	26.23	5.34	1.83	
	중상층(상층)	27.13	34.18	26.30	9.62	2.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40	28.74	16.79	4.51	1.56	52.033(16) ***
	200만 원대	43.44	31.03	20.14	4.03	1.36	
	300만 원대	42.60	32.89	19.35	3.73	1.43	
	400만 원대	41.05	36.65	17.40	4.04	0.86	
	500만 원 이상	36.49	35.31	21.11	5.10	1.99	
학력	중졸 이하	49.15	26.74	16.13	3.32	4.65	14.407(8)
	고졸	42.14	32.38	20.03	4.01	1.43	
	대졸 이상	39.89	34.78	18.86	4.89	1.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75	34.19	20.94	4.79	1.33	43.165(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7.07	32.27	17.06	2.75	0.86	
	고용주, 자영자	42.09	31.63	19.49	4.93	1.85	
	무급가족 종사자	42.46	36.18	13.29	5.62	2.45	
	실업자	47.51	29.07	16.84	4.43	2.15	
	비경제활동인구	40.57	35.13	18.67	3.80	1.8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6.24	34.29	21.20	6.15	2.12	28.208(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30	33.48	19.99	4.06	1.18	
	숙련 및 기술직	38.10	36.21	19.51	4.42	1.77	
	단순노무 종사자	47.81	28.28	19.25	4.66	0.00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8.08	34.03	21.75	4.81	1.33	25.240(8) **
	무기계약직	41.72	37.30	14.53	4.68	1.78	
	비정규직	46.10	32.40	17.36	3.29	0.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61	31.94	17.12	4.39	1.94	39.112(8) ***
	중도적	38.04	34.08	21.78	4.48	1.62	
	진보적	44.80	33.06	16.74	4.25	1.15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5〉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3. 실직이나 사업 부진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38.83	33.71	19.88	5.26	2.32	
성별	남성	38.44	33.02	20.26	5.56	2.73	7.327(4)
	여성	39.24	34.44	19.49	4.95	1.89	
연령	20대 이하	38.88	34.03	19.81	3.81	3.47	23.096(10) *
	30대	36.97	33.68	21.51	5.80	2.04	
	40대	39.49	33.19	19.66	5.62	2.03	
	50대	39.63	33.96	18.85	5.73	1.83	
지역1	수도권	39.30	34.50	19.02	4.73	2.46	8.182(4)
	비수도권	38.31	32.85	20.83	5.85	2.17	
지역2	대도시	38.16	32.79	21.11	5.43	2.51	7.776(8)
	중소도시	39.86	34.27	18.77	4.98	2.12	
	농어촌	37.55	34.93	19.52	5.67	2.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64	20.87	12.48	2.58	1.44	441.845(12) ***
	중하층	44.01	35.91	15.48	3.18	1.41	
	중간층	29.02	34.63	26.48	6.91	2.95	
	중상층(상층)	25.83	33.77	22.16	12.65	5.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4.92	29.17	19.66	4.41	1.84	70.331(16) ***
	200만 원대	39.05	36.03	20.44	3.30	1.18	
	300만 원대	40.67	32.00	19.74	4.71	2.88	
	400만 원대	38.86	35.16	20.04	4.21	1.72	
	500만 원 이상	35.33	34.42	19.66	7.50	3.10	
학력	중졸 이하	52.70	18.76	18.92	4.98	4.64	19.200(8) *
	고졸	39.26	32.99	20.82	4.81	2.12	
	대졸 이상	37.98	34.93	18.78	5.81	2.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34	33.65	21.22	6.22	2.57	43.652(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1.80	34.82	17.31	4.09	1.98	
	고용주, 자영자	42.48	34.32	16.35	5.72	1.14	
	무급가족 종사자	39.03	36.92	20.40	2.43	1.21	
	실업자	43.61	33.89	16.94	3.42	2.14	
	비경제활동인구	39.42	32.70	20.97	4.36	2.55	
직업	관리자, 전문가	34.37	32.75	19.91	8.67	4.29	46.206(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8.98	34.49	19.63	4.90	1.99	
	숙련 및 기술직	36.48	34.71	22.34	4.64	1.82	
	단순노무 종사자	40.99	31.17	19.63	7.92	0.30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5.76	33.40	21.76	6.45	2.63	19.313(8) *
	무기계약직	41.15	37.25	14.51	4.83	2.25	
	비정규직	40.77	34.26	18.61	4.32	2.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86	31.40	17.16	5.14	3.44	47.325(8) ***
	중도적	36.50	33.77	22.68	4.95	2.10	
	진보적	40.62	34.89	16.54	5.87	2.07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6〉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4.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17.61	27.54	35.35	10.66	8.85	
성별	남성	13.67	25.98	39.28	11.51	9.56	96.631(4) ***
	여성	21.74	29.17	31.23	9.76	8.10	
연령	20대 이하	11.34	21.27	41.01	14.70	11.67	143.814(12) ***
	30대	18.14	27.54	35.38	10.13	8.81	
	40대	20.37	28.63	33.07	9.50	8.43	
	50대	19.88	31.84	32.69	8.74	6.86	
지역1	수도권	17.97	26.89	35.52	10.17	9.45	5.624(4)
	비수도권	17.22	28.24	35.17	11.19	8.18	
지역2	대도시	17.01	26.54	36.40	11.00	9.04	7.639(8)
	중소도시	18.10	28.61	34.47	10.53	8.29	
	농어촌	17.96	27.22	34.80	9.92	10.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42	20.96	25.26	7.80	11.56	230.963(12) ***
	중하층	19.43	28.24	34.27	9.38	8.69	
	중간층	12.87	28.13	39.26	11.76	7.98	
	중상층(상층)	8.07	29.41	35.68	16.42	10.4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79	22.25	33.15	10.69	11.12	52.339(16) ***
	200만 원대	17.50	26.15	36.60	10.67	9.08	
	300만 원대	19.53	27.57	34.24	9.48	9.18	
	400만 원대	17.04	28.88	37.47	9.38	7.22	
	500만 원 이상	14.87	29.69	35.14	11.89	8.41	
학력	중졸 이하	31.68	25.16	22.25	10.94	9.97	40.576(8) ***
	고졸	19.69	25.81	34.92	10.47	9.10	
	대졸 이상	14.78	29.65	36.18	10.88	8.5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8	27.68	38.14	11.05	9.85	106.864(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1.49	25.03	33.69	10.49	9.30	
	고용주, 자영자	19.67	29.40	33.84	8.12	8.97	
	무급가족 종사자	23.70	30.16	29.31	7.18	9.64	
	실업자	21.35	24.81	34.76	11.59	7.49	
	비경제활동인구	23.67	28.99	30.17	10.55	6.6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31	27.94	38.82	10.98	9.93	34.905(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29	28.50	35.92	10.73	9.56	
	숙련 및 기술직	14.73	24.83	39.23	10.51	10.71	
	단순노무 종사자	25.39	24.43	34.59	7.86	7.73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2.65	27.31	38.12	11.80	10.13	33.642(8) ***
	무기계약직	18.39	29.78	36.74	7.27	7.82	
	비정규직	19.78	26.36	35.40	9.31	9.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11	25.71	34.62	10.26	10.30	14.263(8)
	중도적	17.71	28.35	35.81	10.15	7.98	
	진보적	16.60	27.13	34.97	11.76	9.54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7〉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5.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28.01	39.73	25.08	5.70	1.49	
성별	남성	25.09	39.52	27.24	6.45	1.69	38.850(4) ***
	여성	31.07	39.94	22.80	4.91	1.27	
연령	20대 이하	26.06	37.89	27.34	6.45	2.26	47.928(12) ***
	30대	26.56	37.34	28.79	6.02	1.29	
	40대	27.81	42.21	24.04	4.73	1.22	
	50대	31.03	40.83	21.15	5.75	1.24	
지역1	수도권	27.78	40.23	25.38	5.14	1.47	4.365(4)
	비수도권	28.25	39.18	24.75	6.33	1.50	
지역2	대도시	28.61	39.13	25.18	5.99	1.08	13.395(8)
	중소도시	27.29	40.84	25.03	5.25	1.59	
	농어촌	28.40	37.89	24.88	6.30	2.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39	28.50	13.36	3.37	1.37	500.254(12) ***
	중하층	31.54	43.36	20.56	3.64	0.90	
	중간층	19.65	39.76	31.94	6.98	1.66	
	중상층(상층)	15.14	33.83	32.56	14.36	4.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29	34.86	21.74	3.83	1.27	119.722(16) ***
	200만 원대	31.80	39.66	22.46	5.25	0.82	
	300만 원대	30.13	39.72	23.29	5.09	1.76	
	400만 원대	25.15	42.71	26.68	4.58	0.87	
	500만 원 이상	22.06	40.24	28.09	7.54	2.07	
학력	중졸 이하	47.99	22.13	23.23	3.32	3.32	76.988(8) ***
	고졸	31.41	38.89	23.90	4.41	1.40	
	대졸 이상	23.46	41.15	26.53	7.31	1.5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72	39.82	29.84	6.92	1.69	174.473(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6.09	38.58	19.06	5.07	1.21	
	고용주, 자영자	36.10	40.06	17.67	5.61	0.55	
	무급가족 종사자	34.74	39.50	23.05	1.50	1.21	
	실업자	35.89	38.91	19.58	4.32	1.30	
	비경제활동인구	31.85	40.39	22.21	3.90	1.6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09	35.49	33.61	9.84	1.97	74.481(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81	41.39	25.60	5.02	1.18	
	숙련 및 기술직	26.24	40.76	23.56	7.34	2.10	
	단순노무 종사자	32.97	34.59	24.07	7.06	1.31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20.84	39.93	30.23	7.17	1.83	66.595(8) ***
	무기계약직	25.10	42.40	25.47	6.17	0.85	
	비정규직	34.04	37.80	22.06	4.99	1.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24	39.77	21.48	5.89	1.62	19.899(8) *
	중도적	28.10	39.41	26.05	5.01	1.42	
	진보적	26.04	40.25	25.39	6.80	1.52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8〉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6.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단위: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37.99	36.87	19.38	4.28	1.48	
성별	남성	34.43	36.88	21.70	5.19	1.80	54.884(4) ***
	여성	41.73	36.85	16.94	3.33	1.15	
연령	20대 이하	36.26	37.04	20.65	3.86	2.19	17.839(12)
	30대	37.70	35.75	21.15	3.97	1.43	
	40대	39.02	36.61	18.74	4.54	1.09	
	50대	38.71	37.86	17.49	4.64	1.31	
지역1	수도권	38.51	37.51	18.45	4.00	1.53	5.549(4)
	비수도권	37.42	36.17	20.39	4.59	1.44	
지역2	대도시	37.16	37.47	19.66	4.35	1.35	10.066(8)
	중소도시	38.26	37.45	18.77	3.90	1.63	
	농어촌	39.94	32.70	20.54	5.39	1.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06	19.72	12.52	2.64	2.05	485.788(12) ***
	중하층	44.52	37.73	14.13	2.75	0.88	
	중간층	26.98	40.13	25.86	5.28	1.76	
	중상층(상층)	21.57	38.81	26.41	10.36	2.8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98	27.21	18.67	3.67	2.48	128.379(16) ***
	200만 원대	42.22	34.83	19.14	3.15	0.66	
	300만 원대	41.10	36.31	18.02	3.13	1.44	
	400만 원대	36.55	38.89	20.01	3.52	1.03	
	500만 원 이상	30.70	41.07	20.27	6.16	1.80	
학력	중졸 이하	61.80	12.75	17.18	6.64	1.64	36.311(8) ***
	고졸	39.16	35.28	20.15	3.88	1.52	
	대졸 이상	36.01	39.34	18.51	4.71	1.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38	38.32	21.19	4.63	1.49	61.726(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15	33.41	16.81	3.58	1.05	
	고용주, 자영자	36.49	36.58	19.92	5.50	1.51	
	무급가족 종사자	46.31	29.21	20.55	1.24	2.69	
	실업자	46.13	33.25	15.90	3.58	1.15	
	비경제활동인구	39.35	37.52	17.58	3.74	1.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52	40.35	21.15	5.65	2.34	35.497(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7.81	36.46	20.21	4.26	1.26	
	숙련 및 기술직	33.06	39.58	21.26	4.50	1.61	
	단순노무 종사자	45.48	31.47	18.71	3.98	0.36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3.06	38.72	21.76	4.89	1.56	41.746(8) ***
	무기계약직	44.90	36.63	13.25	4.36	0.85	
	비정규직	43.39	33.92	18.47	3.10	1.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81	35.99	16.40	4.36	1.44	28.229(8) ***
	중도적	36.34	36.95	21.39	3.70	1.62	
	진보적	38.72	37.21	17.56	5.25	1.27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9〉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7.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18.68	34.86	31.89	8.32	6.24	
성별	남성	16.50	33.63	34.78	8.90	6.19	38.202(4) ***
	여성	20.98	36.16	28.85	7.71	6.29	
연령	20대 이하	18.64	34.63	35.08	7.74	3.92	112.326(12) ***
	30대	19.85	35.47	32.45	7.40	4.83	
	40대	20.83	38.31	28.27	7.35	5.24	
	50대	15.73	31.26	32.20	10.50	10.31	
지역1	수도권	19.03	35.01	31.32	8.41	6.23	1.206(4)
	비수도권	18.30	34.70	32.52	8.23	6.25	
지역2	대도시	18.98	34.46	31.60	8.42	6.53	7.399(8)
	중소도시	18.18	35.74	32.47	8.03	5.58	
	농어촌	19.42	33.17	30.85	9.02	7.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96	24.66	20.07	5.22	9.10	442.770(12) ***
	중하층	20.99	38.13	27.71	6.88	6.28	
	중간층	12.16	34.67	39.10	8.89	5.18	
	중상층(상층)	7.91	30.88	35.86	17.94	7.3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93	28.39	29.53	8.90	7.25	102.750(16) ***
	200만 원대	22.24	35.16	30.85	6.28	5.48	
	300만 원대	20.97	35.93	29.24	8.81	5.05	
	400만 원대	16.11	37.21	33.41	6.43	6.83	
	500만 원 이상	13.81	35.47	34.18	9.85	6.68	
학력	중졸 이하	39.36	21.91	20.53	9.93	8.27	49.411(8) ***
	고졸	20.50	32.86	32.03	8.12	6.49	
	대졸 이상	16.02	37.57	32.00	8.52	5.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97	35.96	33.13	8.81	6.13	55.727(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4.25	30.55	30.62	8.01	6.57	
	고용주, 자영자	18.78	31.94	32.28	9.15	7.84	
	무급가족 종사자	20.12	39.98	29.82	1.50	8.58	
	실업자	23.06	32.94	31.87	7.93	4.20	
	비경제활동인구	20.40	36.29	29.17	7.46	6.68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08	35.13	34.81	9.57	6.41	26.989(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01	35.80	31.98	8.40	5.80	
	숙련 및 기술직	17.35	31.59	34.92	7.81	8.34	
	단순노무 종사자	22.84	31.79	27.70	9.46	8.21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5.36	35.73	33.94	9.03	5.94	36.005(8) ***
	무기계약직	20.53	41.54	25.59	5.68	6.67	
	비정규직	22.64	31.15	30.86	8.43	6.9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60	33.92	28.91	8.70	7.88	29.060(8) ***
	중도적	18.64	34.63	33.92	7.32	5.49	
	진보적	17.70	35.80	30.04	9.85	6.62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0〉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8. 주택마련(전세 값) 등의 부채 상환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28.78	32.07	26.88	7.35	4.92	
성별	남성	25.39	31.88	29.79	8.08	4.87	49.634(4) ***
	여성	32.34	32.28	23.82	6.58	4.99	
연령	20대 이하	27.72	35.57	27.95	6.06	2.70	113.428(12) ***
	30대	31.32	32.00	27.73	6.16	2.79	
	40대	31.15	31.61	25.06	7.37	4.81	
	50대	25.35	29.58	27.01	9.39	8.67	
지역1	수도권	30.67	32.09	26.09	6.78	4.37	16.769(4) **
	비수도권	26.71	32.05	27.74	7.97	5.53	
지역2	대도시	29.99	30.87	26.45	7.94	4.75	13.179(8)
	중소도시	28.04	32.96	27.51	6.90	4.60	
	농어촌	27.16	33.15	26.14	6.85	6.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6.58	20.61	15.18	3.63	4.00	547.312(12) ***
	중하층	33.52	34.41	22.28	5.82	3.96	
	중간층	19.05	33.12	34.25	8.62	4.97	
	중상층(상층)	12.52	28.89	32.25	14.85	11.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16	27.65	23.76	6.42	5.01	117.996(16) ***
	200만 원대	33.86	31.87	25.81	5.23	3.23	
	300만 원대	31.12	32.16	25.80	6.99	3.92	
	400만 원대	25.88	36.13	26.42	7.49	4.08	
	500만 원 이상	22.73	31.95	29.48	9.03	6.81	
학력	중졸 이하	47.75	22.39	18.60	4.96	6.30	36.767(8) ***
	고졸	30.96	30.40	27.07	6.82	4.75	
	대졸 이상	25.71	34.31	26.85	8.03	5.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82	32.80	28.28	8.13	4.98	54.839(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4.41	31.83	21.05	6.22	6.49	
	고용주, 자영자	31.47	28.12	28.86	6.70	4.85	
	무급가족 종사자	34.43	34.69	20.83	4.45	5.59	
	실업자	33.68	32.60	24.79	6.10	2.84	
	비경제활동인구	29.32	31.62	26.76	7.07	5.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21	32.62	29.05	8.91	6.21	34.033(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8.34	33.05	26.45	7.52	4.64	
	숙련 및 기술직	26.93	30.14	30.63	6.76	5.53	
	단순노무 종사자	37.64	26.85	22.51	6.75	6.24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25.17	32.73	28.85	8.33	4.92	30.690(8) ***
	무기계약직	28.38	34.70	24.93	6.21	5.78	
	비정규직	33.41	31.74	22.16	6.64	6.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40	29.98	24.16	6.97	6.48	35.205(8) ***
	중도적	28.08	32.83	28.48	6.47	4.13	
	진보적	27.95	31.92	25.61	9.08	5.43	

주: "귀하가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신다면, 귀하가 빈곤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1〉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

(단위 : %)

		심각한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별로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χ^2 (df)
전체		28.55	50.81	17.63	3.01	
성별	남성	28.47	49.58	18.57	3.39	7.844(3) *
	여성	28.63	52.12	16.63	2.62	
연령	20대 이하	25.76	47.95	21.01	5.28	74.357(9) ***
	30대	25.81	53.13	17.65	3.41	
	40대	30.05	52.95	15.45	1.55	
	50대	31.68	49.35	16.80	2.16	
지역1	수도권	28.59	50.98	17.36	3.07	0.357(3)
	비수도권	28.50	50.64	17.91	2.95	
지역2	대도시	30.49	50.14	16.50	2.87	12.723(6) *
	중소도시	26.41	51.89	18.53	3.17	
	농어촌	29.27	49.40	18.38	2.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18	34.16	8.55	2.11	551.207(9) ***
	중하층	32.14	53.76	12.46	1.64	
	중간층	20.46	53.20	22.61	3.73	
	중상층(상층)	12.32	44.47	34.67	8.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48	39.18	11.65	2.69	394.162(12) ***
	200만 원대	37.47	48.30	12.02	2.21	
	300만 원대	32.04	51.80	14.18	1.98	
	400만 원대	20.75	60.23	16.83	2.20	
	500만 원 이상	18.30	51.77	25.38	4.55	
학력	중졸 이하	55.05	34.16	9.46	1.34	80.235(6) ***
	고졸	31.74	50.27	15.39	2.60	
	대졸 이상	24.10	51.86	20.49	3.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85	52.71	21.77	3.67	346.333(15)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1.42	52.51	14.03	2.03	
	고용주, 자영자	51.01	42.64	5.67	0.68	
	무급가족 종사자	38.52	56.10	5.38	0.00	
	실업자	43.22	45.17	10.08	1.53	
	비경제활동인구	25.09	51.76	19.23	3.9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32	51.41	24.35	3.92	51.725(9)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7.86	51.56	18.00	2.58	
	숙련 및 기술직	30.59	51.79	15.04	2.58	
	단순노무 종사자	32.13	50.29	12.65	4.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20	53.14	22.20	3.46	36.616(6) ***
	무기계약직	26.68	47.76	21.25	4.30	
	비정규직	29.50	52.61	14.90	2.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65	47.07	17.36	2.92	27.068(6) ***
	중도적	29.12	51.57	16.23	3.07	
	진보적	25.26	51.60	20.19	2.95	

주: “최근의 코로나19 유행이 귀하의 가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단위 : %)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정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χ^2 (df)
전체		26.11	26.78	36.23	10.88	
성별	남성	27.92	22.66	38.21	11.21	55.363(3) ***
	여성	24.21	31.12	34.14	10.52	
연령	20대 이하	27.44	31.11	29.92	11.53	75.040(9) ***
	30대	25.94	22.34	41.10	10.62	
	40대	26.70	23.56	40.43	9.32	
	50대	24.56	29.76	33.65	12.03	
지역1	수도권	26.11	25.09	37.71	11.09	11.169(3) *
	비수도권	26.12	28.64	34.61	10.64	
지역2	대도시	26.61	26.15	35.58	11.66	6.918(6)
	중소도시	25.18	27.55	36.70	10.57	
	농어촌	27.67	26.30	36.84	9.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86	23.41	29.92	6.81	102.027(9) ***
	중하층	26.17	27.50	36.76	9.57	
	중간층	22.80	26.92	38.00	12.28	
	중상층(상층)	23.78	26.50	32.84	16.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78	25.78	30.66	6.78	145.369(12) ***
	200만 원대	29.75	26.87	34.88	8.50	
	300만 원대	27.26	26.01	38.23	8.50	
	400만 원대	22.22	28.47	39.65	9.66	
	500만 원 이상	21.15	26.77	36.40	15.68	
학력	중졸 이하	25.94	14.15	49.99	9.92	72.755(6) ***
	고졸	28.80	28.29	34.34	8.57	
	대졸 이상	22.91	25.29	38.15	13.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32	23.81	39.53	11.33	99.494(15)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7.05	31.27	33.73	7.95	
	고용주, 자영자	28.03	20.76	35.63	15.57	
	무급가족 종사자	32.13	25.67	28.56	13.64	
	실업자	28.20	36.22	28.08	7.50	
	비경제활동인구	25.22	29.73	34.29	10.7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88	24.54	36.69	14.89	23.865(9)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12	24.60	38.02	11.26	
	숙련 및 기술직	27.18	21.60	41.70	9.52	
	단순노무 종사자	28.57	28.72	35.00	7.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5.51	23.70	39.44	11.34	21.271(6) **
	무기계약직	21.03	23.40	44.35	11.21	
	비정규직	27.22	29.72	34.17	8.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18	22.80	29.00	23.01	230.797(6) ***
	중도적	25.99	28.17	35.58	10.27	
	진보적	26.84	26.61	41.40	5.14	

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단위 : %)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지원	정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지원	X ² (df)
전체		26.11	26.78	36.23	10.88	
성별	남성	27.92	22.66	38.21	11.21	55.363(3) ***
	여성	24.21	31.12	34.14	10.52	
연령	20대 이하	27.44	31.11	29.92	11.53	75.040(9) ***
	30대	25.94	22.34	41.10	10.62	
	40대	26.70	23.56	40.43	9.32	
	50대	24.56	29.76	33.65	12.03	
지역1	수도권	26.11	25.09	37.71	11.09	11.169(3) *
	비수도권	26.12	28.64	34.61	10.64	
지역2	대도시	26.61	26.15	35.58	11.66	6.918(6)
	중소도시	25.18	27.55	36.70	10.57	
	농어촌	27.67	26.30	36.84	9.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86	23.41	29.92	6.81	102.027(9) ***
	중하층	26.17	27.50	36.76	9.57	
	중간층	22.80	26.92	38.00	12.28	
	중상층(상층)	23.78	26.50	32.84	16.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6.78	25.78	30.66	6.78	145.369(12) ***
	200만 원대	29.75	26.87	34.88	8.50	
	300만 원대	27.26	26.01	38.23	8.50	
	400만 원대	22.22	28.47	39.65	9.66	
	500만 원 이상	21.15	26.77	36.40	15.68	
학력	중졸 이하	25.94	14.15	49.99	9.92	72.755(6) ***
	고졸	28.80	28.29	34.34	8.57	
	대졸 이상	22.91	25.29	38.15	13.6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32	23.81	39.53	11.33	99.494(15)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7.05	31.27	33.73	7.95	
	고용주, 자영자	28.03	20.76	35.63	15.57	
	무급가족 종사자	32.13	25.67	28.56	13.64	
	실업자	28.20	36.22	28.08	7.50	
	비경제활동인구	25.22	29.73	34.29	10.7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88	24.54	36.69	14.89	23.865(9)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12	24.60	38.02	11.26	
	숙련 및 기술직	27.18	21.60	41.70	9.52	
	단순노무 종사자	28.57	28.72	35.00	7.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5.51	23.70	39.44	11.34	21.271(6) **
	무기계약직	21.03	23.40	44.35	11.21	
	비정규직	27.22	29.72	34.17	8.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18	22.80	29.00	23.01	230.797(6) ***
	중도적	25.99	28.17	35.58	10.27	
	진보적	26.84	26.61	41.40	5.14	

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4〉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

(단위 : %)

		전혀 심하지 않다: 완전 평등					매우 심하다: 완전 불평등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2	0.08	0.52	1.34	2.33	14.23	9.97	22.83	23.21	10.23	15.04	
성별	남성	0.25	0.03	0.59	1.48	2.26	14.03	9.57	21.59	22.45	10.90	16.86	27.099 (10)**
	여성	0.20	0.14	0.45	1.19	2.40	14.44	10.40	24.13	24.00	9.53	13.12	
연령	20대 이하	0.39	0.07	0.32	1.87	2.40	15.73	11.02	26.75	22.19	6.83	12.44	104.422 (30)***
	30대	0.28	0.13	0.62	1.51	2.59	12.97	9.63	23.75	23.58	8.60	16.34	
	40대	0.20	0.00	0.61	1.03	2.44	14.57	10.84	20.68	24.09	9.92	15.62	
	50대	0.07	0.13	0.53	1.05	1.96	13.64	8.53	20.78	22.92	14.75	15.65	
지역1	수도권	0.25	0.06	0.57	1.46	2.11	13.68	9.80	22.99	22.96	10.70	15.40	6.441 (10)
	비수도권	0.19	0.10	0.47	1.21	2.57	14.83	10.16	22.64	23.47	9.71	14.64	
지역2	대도시	0.15	0.15	0.55	1.71	2.35	13.53	10.13	22.75	22.73	10.26	15.69	23.235 (20)
	중소도시	0.29	0.04	0.48	1.23	2.44	14.76	9.80	22.16	24.38	10.11	14.32	
	농어촌	0.24	0.00	0.57	0.42	1.89	14.83	10.04	25.43	20.72	10.57	15.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7	0.30	0.44	0.96	1.06	10.05	3.41	11.45	21.18	12.51	37.86	576.947 (30)***
	중하층	0.04	0.12	0.74	1.51	2.26	11.08	7.60	21.93	26.19	12.63	15.91	
	중간층	0.25	0.00	0.30	1.06	2.57	19.23	13.69	25.30	20.71	7.52	9.36	
	중상층(상층)	0.40	0.00	0.47	2.23	3.28	12.99	13.91	30.98	21.26	6.90	7.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3	0.12	0.92	1.19	2.27	13.81	8.42	18.55	22.52	10.35	21.23	84.364 (40)***
	200만 원대	0.16	0.08	0.51	1.13	2.82	16.20	9.37	21.99	22.24	9.99	15.49	
	300만 원대	0.35	0.08	0.35	1.25	2.14	14.90	8.92	22.52	22.15	11.50	15.85	
	400만 원대	0.00	0.23	0.76	0.76	2.19	13.03	11.30	25.31	22.54	10.23	13.64	
	500만 원 이상	0.13	0.00	0.36	1.83	2.25	13.45	10.89	23.95	24.91	9.61	12.61	
학력	중졸 이하	0.00	0.00	0.00	3.04	1.64	16.35	12.15	18.56	20.16	4.68	23.43	35.348 (20)*
	고졸	0.24	0.08	0.60	1.21	2.61	15.71	9.56	21.54	22.60	10.00	15.85	
	대졸 이상	0.21	0.08	0.44	1.45	2.01	12.41	10.41	24.46	24.01	10.64	13.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6	0.04	0.47	1.52	2.27	13.35	9.93	23.86	23.05	10.86	14.39	57.126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0.16	0.15	0.87	1.41	1.74	15.35	8.31	23.29	23.12	9.61	16.00	
	고용주, 자영자	0.00	0.00	0.41	1.20	2.14	16.35	8.30	20.85	21.77	9.19	19.79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0.00	0.00	1.24	20.09	15.34	18.17	18.67	8.34	18.14	
	실업자	0.41	0.00	0.46	0.99	2.30	12.42	10.50	21.71	25.17	9.44	16.60	
비경제활동인구	0.17	0.26	0.61	1.16	2.97	15.75	11.04	21.72	23.46	9.94	12.9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39	0.00	0.50	1.89	2.14	13.76	11.07	24.54	23.45	10.16	12.11	52.131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5	0.08	0.49	1.38	2.34	13.28	9.57	23.37	23.03	10.95	15.37	
	숙련 및 기술직	0.34	0.00	0.34	1.05	2.42	15.68	9.26	23.63	20.96	10.65	15.67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1.01	1.50	0.34	18.84	6.64	18.85	23.05	6.61	23.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0.30	0.00	0.51	1.59	2.34	13.64	10.09	23.88	23.20	10.61	13.85	22.181 (20)
	무기계약직	0.00	0.00	0.46	1.87	1.80	12.01	7.69	28.67	19.38	11.18	16.94	
	비정규직	0.12	0.25	0.63	1.14	1.80	14.25	8.89	21.95	23.67	10.70	16.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8	0.09	0.59	2.11	3.98	15.36	10.25	20.26	21.76	10.85	14.17	132.844 (20)***
	중도적	0.15	0.13	0.48	1.23	2.19	17.25	10.56	22.93	21.69	8.86	14.53	
	진보적	0.15	0.00	0.55	1.09	1.66	8.35	8.80	24.08	26.65	12.27	16.40	

주: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5〉 자녀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세대 지위 영향을 받는 정도

(단위 :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완전히 영향 받음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7	0.02	0.31	1.09	1.44	11.14	8.24	19.43	23.22	13.86	20.99	
성별	남성	0.33	0.03	0.38	1.22	1.38	11.70	8.12	19.95	22.49	13.87	20.54	8.457 (10)
	여성	0.21	0.00	0.23	0.96	1.49	10.55	8.37	18.89	23.98	13.85	21.46	
연령	20대 이하	0.39	0.00	0.57	1.29	1.81	14.97	8.50	20.62	21.03	10.51	20.30	88.797 (30)***
	30대	0.07	0.07	0.13	1.09	1.63	10.22	9.36	18.96	20.64	14.22	23.59	
	40대	0.34	0.00	0.20	1.23	1.09	11.12	7.74	19.75	24.22	14.14	20.18	
	50대	0.26	0.00	0.32	0.79	1.29	8.62	7.59	18.49	26.19	16.17	20.27	
지역1	수도권	0.32	0.03	0.28	1.02	1.34	10.54	7.96	19.08	23.04	14.36	22.02	10.095 (10)
	비수도권	0.21	0.00	0.34	1.16	1.54	11.79	8.54	19.82	23.41	13.32	19.87	
지역2	대도시	0.19	0.04	0.36	1.02	1.60	10.56	8.44	18.87	23.31	13.86	21.75	15.157 (20)
	중소도시	0.31	0.00	0.30	1.18	1.46	11.31	8.13	19.61	22.93	14.50	20.27	
	농어촌	0.39	0.00	0.14	1.00	0.81	12.57	7.89	20.76	23.92	11.62	20.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2	0.15	0.50	0.93	0.97	9.88	3.07	10.72	18.16	13.24	41.56	363.774 (30)***
	중하층	0.19	0.00	0.31	1.19	1.37	8.60	7.30	18.92	23.22	15.50	23.40	
	중간층	0.22	0.00	0.24	0.85	1.67	14.78	10.71	21.22	23.91	11.88	14.54	
	중상층(상층)	0.20	0.00	0.39	1.90	1.30	9.27	8.31	25.22	26.59	15.22	11.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5	0.12	0.26	1.26	1.52	15.36	6.79	15.97	22.79	10.82	24.46	91.025 (40)***
	200만 원대	0.08	0.00	0.40	1.32	1.54	12.96	8.88	19.46	20.33	12.40	22.64	
	300만 원대	0.35	0.00	0.27	0.81	1.27	11.45	8.56	20.19	21.14	15.75	20.21	
	400만 원대	0.21	0.00	0.23	0.74	1.52	9.96	9.41	18.89	23.11	14.36	21.56	
	500만 원 이상	0.21	0.00	0.34	1.21	1.40	8.87	7.70	20.56	26.23	14.55	18.92	
학력	중졸 이하	0.00	0.00	0.00	1.34	3.05	19.03	6.65	15.73	14.11	15.54	24.56	75.323 (20)***
	고졸	0.34	0.03	0.28	1.20	1.55	13.28	8.84	20.17	21.73	11.99	20.59	
	대졸 이상	0.18	0.00	0.36	0.95	1.26	8.40	7.56	18.65	25.21	16.05	21.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7	0.00	0.33	1.14	1.25	10.80	7.98	20.48	23.30	14.01	20.54	52.169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0.32	0.00	0.19	0.71	1.03	11.50	8.97	16.45	25.05	14.81	20.98	
	고용주, 자영자	0.79	0.00	0.00	1.34	2.59	10.99	8.10	16.15	22.10	14.11	23.82	
	무급가족 종사자	0.00	0.00	0.00	0.00	2.96	6.40	12.35	15.14	18.53	17.17	27.46	
	실업자	0.29	0.00	0.39	1.33	1.70	12.73	8.29	19.43	19.71	14.55	21.58	
	비경제활동인구	0.27	0.08	0.42	0.94	1.34	11.29	8.33	19.95	25.01	12.26	20.1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25	0.00	0.24	0.79	2.05	9.14	8.62	18.67	23.73	15.95	20.56	37.407 (27)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24	0.00	0.33	1.18	1.45	10.44	7.87	18.79	23.97	13.89	21.83	
	숙련 및 기술직	0.34	0.00	0.18	1.17	0.81	13.99	10.29	22.51	19.38	13.74	17.58	
	단순노무 종사자	0.36	0.00	0.00	0.95	0.69	12.49	5.86	18.89	24.22	12.79	23.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0.20	0.00	0.39	1.22	1.31	10.82	7.97	21.04	22.85	14.66	19.54	24.616 (18)
	무기계약직	0.00	0.00	0.00	0.39	0.87	9.59	7.42	18.05	27.71	10.84	25.12	
	비정규직	0.23	0.00	0.14	0.79	1.02	11.59	8.92	16.43	24.72	13.37	22.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0	0.00	0.80	1.09	1.98	9.36	6.84	20.06	21.71	15.62	22.14	130.960 (20)***
	중도적	0.22	0.03	0.21	1.28	1.51	14.28	9.74	19.04	22.06	12.04	19.59	
	진보적	0.27	0.00	0.22	0.75	1.00	6.68	6.42	19.77	26.07	16.04	22.79	

주: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6〉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님의 지위 영향을 받은 정도

(단위 :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완전히 영향 받음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3.92	0.80	1.74	3.05	3.06	21.61	11.90	18.12	16.50	7.16	12.13	
성별	남성	4.30	1.03	2.08	3.00	2.77	22.28	11.73	18.23	15.81	7.29	11.49	18.028 (10)
	여성	3.52	0.57	1.37	3.09	3.37	20.91	12.08	18.01	17.23	7.03	12.80	
연령	20대 이하	3.10	0.19	1.22	2.70	3.22	24.96	12.81	20.32	15.48	5.74	10.25	105.815 (30)***
	30대	3.63	0.34	1.43	2.80	3.64	20.79	11.48	19.46	15.13	6.83	14.49	
	40대	3.94	0.81	1.49	3.00	2.72	22.72	11.98	17.36	17.57	6.80	11.61	
	50대	4.84	1.70	2.66	3.58	2.80	18.34	11.39	15.89	17.46	8.99	12.33	
지역1	수도권	3.75	0.87	1.66	3.29	2.98	20.72	11.14	18.26	16.97	7.90	12.46	14.513 (10)
	비수도권	4.10	0.73	1.82	2.78	3.16	22.59	12.74	17.97	15.99	6.36	11.77	
지역2	대도시	3.78	0.79	1.77	3.43	2.89	19.64	12.58	17.24	17.14	7.81	12.94	30.717 (20)
	중소도시	3.95	0.73	1.65	2.83	3.23	22.62	11.81	18.42	16.26	6.98	11.51	
	농어촌	4.32	1.14	1.93	2.46	3.06	24.97	9.86	20.17	15.13	5.54	11.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9	0.96	0.81	2.79	2.41	17.48	5.23	9.15	13.80	10.03	30.87	414.748 (30)***
	중하층	3.78	0.80	2.16	3.31	3.14	19.68	10.79	18.25	17.47	7.69	12.92	
	중간층	3.52	0.60	1.53	2.62	3.18	26.20	14.87	19.55	15.30	5.33	7.29	
	중상층(상층)	3.24	1.63	1.54	4.03	2.90	15.43	12.50	22.36	20.64	9.39	6.3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8	0.66	2.15	3.49	3.18	23.19	9.91	12.21	14.26	9.37	17.70	96.570 (40)***
	200만 원대	3.09	0.42	1.56	2.71	2.63	24.80	10.87	17.79	17.03	5.63	13.45	
	300만 원대	4.35	0.86	1.28	2.85	3.11	21.43	11.28	19.34	16.92	6.87	11.73	
	400만 원대	4.44	1.03	1.95	3.15	2.97	20.90	14.19	18.34	15.31	6.10	11.63	
	500만 원 이상	3.93	0.94	1.83	3.13	3.28	19.65	12.54	19.77	17.38	7.85	9.71	
학력	중졸 이하	9.69	3.30	1.66	1.66	1.65	20.36	3.33	21.07	9.36	6.33	21.58	52.898 (20)***
	고졸	4.11	0.91	1.69	3.09	3.20	23.19	11.56	16.95	15.61	6.63	13.08	
	대졸 이상	3.56	0.62	1.79	3.03	2.93	19.77	12.52	19.45	17.75	7.82	10.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4	1.01	1.86	2.98	2.90	21.55	12.15	19.00	15.91	7.60	11.19	50.314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38	0.73	1.22	2.99	2.16	22.75	11.31	16.28	18.16	7.62	12.41	
	고용주, 자영자	5.68	0.62	2.02	2.78	3.16	19.14	11.50	17.33	17.96	5.99	13.83	
	무급가족 종사자	1.28	0.00	1.41	1.21	3.96	21.75	9.58	18.08	15.37	9.68	17.67	
	실업자	3.35	0.16	1.45	4.11	4.14	22.10	11.54	14.15	17.84	7.38	13.78	
	비경제활동인구	3.59	0.82	1.73	2.84	3.18	22.08	12.09	19.45	15.85	6.00	12.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4.42	1.06	2.69	2.76	2.92	20.49	12.63	19.00	16.82	7.01	10.20	42.42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71	0.79	1.43	3.38	2.92	20.83	12.53	18.30	16.46	7.62	12.03	
	숙련 및 기술직	5.30	0.90	2.12	1.93	2.73	24.91	10.87	19.00	15.31	6.81	10.11	
	단순노무 종사자	4.18	1.43	1.63	1.59	2.38	21.83	6.96	16.58	17.78	8.31	17.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89	1.02	1.89	3.07	2.87	21.71	12.35	19.34	16.01	7.42	10.43	18.764 (20)
	무기계약직	5.08	0.94	1.80	1.71	2.98	23.43	10.47	16.10	14.31	9.13	14.06	
	비정규직	3.70	0.80	1.30	3.08	2.47	21.33	11.38	16.77	17.68	7.78	13.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4	0.80	1.79	3.60	3.41	19.17	9.19	18.57	17.50	8.14	13.19	69.305 (20)***
	중도적	3.67	0.63	1.59	3.04	3.16	24.61	12.93	17.47	15.19	6.02	11.69	
	진보적	3.96	1.11	1.96	2.74	2.70	17.78	11.64	19.00	18.23	8.60	12.29	

주: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7〉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의 지위 영향을 받은(받을) 정도

(단위 : %)

		전혀 영향 받지 않음					완전히 영향 받음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36	0.69	0.65	1.46	2.57	20.13	12.31	19.79	19.57	7.72	12.74	
성별	남성	2.96	0.67	0.52	1.33	2.67	21.93	12.94	19.05	18.68	7.02	12.23	33.488 (10)***
	여성	1.73	0.71	0.78	1.60	2.46	18.24	11.64	20.58	20.51	8.45	13.28	
연령	20대 이하	1.88	0.39	0.58	1.22	2.78	24.25	12.41	20.19	17.86	6.06	12.39	87.267 (30)***
	30대	1.64	0.28	0.35	1.43	2.53	17.35	12.12	21.32	19.26	7.23	16.50	
	40대	2.72	0.67	0.75	1.54	2.31	20.20	11.94	20.13	20.64	7.60	11.49	
	50대	3.01	1.31	0.85	1.62	2.67	18.78	12.72	17.90	20.26	9.65	11.23	
지역1	수도권	2.56	0.82	0.68	1.56	2.31	19.70	11.35	19.13	20.31	7.85	13.74	18.969 (10)*
	비수도권	2.14	0.55	0.62	1.36	2.85	20.60	13.35	20.52	18.77	7.57	11.65	
지역2	대도시	2.20	0.71	0.70	1.72	2.28	19.53	11.70	19.45	20.33	7.79	13.58	19.694 (20)
	중소도시	2.34	0.75	0.61	1.12	2.97	20.28	12.62	20.40	19.42	7.73	11.76	
	농어촌	2.96	0.43	0.59	1.79	2.15	21.73	13.32	18.88	17.48	7.40	13.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9	1.17	0.85	0.67	2.14	17.98	6.73	10.13	15.09	8.60	31.14	400.433 (30)***
	중하층	2.41	0.64	0.76	1.57	2.49	18.34	11.38	19.27	20.67	8.92	13.54	
	중간층	1.62	0.63	0.55	1.55	2.59	24.11	14.68	22.19	17.97	6.21	7.89	
	중상층(상층)	1.51	0.67	0.24	1.48	3.49	13.38	13.29	23.91	27.36	7.16	7.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7	0.94	1.11	0.90	2.66	23.39	11.00	15.26	16.11	8.03	16.72	98.451 (40)***
	200만 원대	1.91	0.63	0.53	1.81	2.78	23.14	10.97	18.46	17.68	7.92	14.18	
	300만 원대	2.30	0.64	0.75	1.33	2.74	20.12	12.13	20.76	18.62	8.38	12.24	
	400만 원대	2.25	0.92	0.67	1.51	1.65	20.37	14.52	20.75	18.64	6.67	12.07	
	500만 원 이상	2.12	0.56	0.48	1.54	2.75	17.09	12.64	21.29	22.94	7.60	11.01	
학력	중졸 이하	9.69	0.00	1.64	0.00	6.43	18.81	4.96	17.97	15.72	7.75	17.05	106.415 (20)***
	고졸	2.72	0.97	0.69	1.44	2.86	23.25	12.25	17.91	17.83	6.89	13.20	
	대졸 이상	1.76	0.38	0.58	1.52	2.13	16.44	12.56	22.09	21.75	8.71	12.0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2	0.68	0.61	1.72	2.56	19.48	12.03	21.02	19.76	7.82	11.88	57.530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55	0.19	0.38	1.96	2.44	22.20	13.20	16.24	19.37	7.91	13.55	
	고용주, 자영자	1.99	1.03	0.77	0.96	2.82	21.33	15.73	15.74	18.58	6.94	14.11	
	무급가족 종사자	2.91	0.00	1.50	2.42	5.69	17.29	8.15	19.54	13.83	8.19	20.49	
	실업자	2.68	0.46	0.88	1.17	2.55	21.53	11.50	16.57	21.01	7.03	14.62	
	비경제활동인구	2.04	0.99	0.63	0.87	2.34	19.63	11.75	22.13	19.14	8.10	12.37	
직업	관리자, 전문가	2.24	0.66	0.84	1.87	2.43	18.82	11.26	19.90	22.80	8.74	10.44	57.780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6	0.58	0.59	1.64	2.82	19.20	13.16	19.44	19.28	8.16	13.17	
	숙련 및 기술직	3.52	0.56	0.37	2.09	1.72	24.78	12.86	21.02	17.46	5.38	10.25	
	단순노무 종사자	4.17	1.39	0.71	0.59	3.38	21.00	10.85	18.58	16.00	6.05	17.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55	0.69	0.52	1.70	2.75	19.54	12.02	21.15	19.98	7.96	11.15	27.693 (20)
	무기계약직	1.40	0.85	1.33	1.78	0.79	20.58	12.11	23.37	17.40	5.76	14.61	
	비정규직	2.41	0.27	0.53	1.96	2.38	20.93	12.89	16.43	19.46	8.04	14.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2	0.92	1.07	2.08	2.47	18.67	10.03	19.55	21.24	8.48	13.27	79.011 (20)***
	중도적	2.34	0.53	0.65	1.47	2.87	23.36	12.55	19.35	17.98	6.64	12.25	
	진보적	2.47	0.84	0.41	1.10	2.09	15.34	13.15	20.71	21.42	9.16	13.31	

주: “귀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8〉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41.95	42.91	11.92	2.46	0.76	
성별	남성	41.32	41.63	12.98	3.26	0.81	25.031(4) ***
	여성	42.62	44.25	10.80	1.63	0.70	
연령	20대 이하	32.03	47.60	15.47	4.00	0.90	117.022(12) ***
	30대	41.35	42.38	13.24	2.60	0.41	
	40대	45.15	42.83	9.84	1.56	0.61	
	50대	47.86	39.39	9.81	1.90	1.05	
지역1	수도권	42.82	41.97	11.72	2.70	0.79	4.465(4)
	비수도권	41.00	43.93	12.13	2.21	0.72	
지역2	대도시	42.58	41.86	12.53	2.40	0.62	4.830(8)
	중소도시	41.38	43.98	11.31	2.51	0.82	
	농어촌	41.78	42.80	11.90	2.53	1.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7.71	22.34	7.09	1.39	1.46	494.558(12) ***
	중하층	48.29	41.81	7.79	1.37	0.75	
	중간층	31.41	48.54	16.59	2.87	0.60	
	중상층(상층)	23.43	48.87	18.82	8.19	0.6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6.67	39.42	10.35	2.76	0.80	46.827(16) ***
	200만 원대	45.30	39.92	12.06	1.81	0.91	
	300만 원대	44.90	41.93	10.67	1.79	0.71	
	400만 원대	40.63	45.03	11.63	2.08	0.63	
	500만 원 이상	37.21	45.50	13.27	3.28	0.74	
학력	중졸 이하	51.27	36.01	7.72	0.00	5.00	28.617(8) ***
	고졸	43.35	42.23	11.54	2.08	0.79	
	대졸 이상	40.06	43.88	12.47	2.98	0.6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57	43.51	11.81	2.28	0.84	21.076(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2.62	42.36	11.43	3.08	0.51	
	고용주, 자영자	48.30	37.89	11.34	2.07	0.40	
	무급가족 종사자	46.09	36.33	13.60	2.48	1.50	
	실업자	42.49	43.98	10.26	2.71	0.57	
	비경제활동인구	39.10	43.71	13.61	2.69	0.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8.43	43.81	13.45	3.39	0.93	25.663(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86	42.95	11.36	2.11	0.72	
	숙련 및 기술직	43.25	43.96	10.01	1.91	0.86	
	단순노무 종사자	50.69	32.77	13.58	2.61	0.34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40.16	44.18	12.32	2.48	0.86	15.565(8) *
	무기계약직	51.52	36.31	9.47	1.77	0.93	
	비정규직	44.00	42.59	10.55	2.35	0.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20	44.09	13.07	4.24	1.40	76.206(8) ***
	중도적	40.67	42.49	13.78	2.39	0.66	
	진보적	46.84	42.97	8.03	1.60	0.56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6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3-49〉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24.30	39.45	25.52	7.81	2.93	
성별	남성	27.01	36.99	24.49	8.06	3.45	37.847(4) ***
	여성	21.44	42.04	26.60	7.54	2.38	
연령	20대 이하	20.83	37.80	27.90	9.81	3.66	55.810(12) ***
	30대	24.46	35.85	27.75	8.99	2.94	
	40대	24.34	41.80	24.37	7.04	2.45	
	50대	27.09	41.50	22.77	5.89	2.74	
지역1	수도권	24.74	38.90	25.23	7.74	3.40	6.237(4)
	비수도권	23.81	40.06	25.83	7.88	2.41	
지역2	대도시	23.83	38.98	25.98	8.43	2.77	15.208(8)
	중소도시	24.03	40.32	25.55	6.77	3.32	
	농어촌	26.83	38.04	23.77	9.29	2.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46	32.34	19.81	3.80	1.60	262.736(12) ***
	중하층	26.78	40.77	24.03	5.97	2.45	
	중간층	18.78	40.66	27.80	9.68	3.08	
	중상층(상층)	13.01	35.44	30.39	14.44	6.7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57	37.24	24.51	5.75	1.93	85.182(16) ***
	200만 원대	28.83	38.43	24.31	5.97	2.47	
	300만 원대	24.48	41.87	24.43	7.18	2.03	
	400만 원대	22.79	40.65	25.74	8.31	2.51	
	500만 원 이상	19.94	38.96	27.10	9.75	4.26	
학력	중졸 이하	25.81	48.97	15.78	4.49	4.95	35.871(8) ***
	고졸	26.26	38.64	25.96	6.80	2.34	
	대졸 이상	21.91	40.20	25.22	9.09	3.5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96	39.82	25.22	8.14	2.86	22.734(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4.15	39.44	27.01	7.29	2.10	
	고용주, 자영자	27.88	39.23	22.44	6.91	3.54	
	무급가족 종사자	23.21	44.17	27.01	2.94	2.66	
	실업자	27.04	38.40	25.89	6.08	2.60	
	비경제활동인구	22.03	38.90	26.68	8.96	3.4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60	40.75	23.17	10.23	4.25	42.200(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3.29	40.37	25.93	7.78	2.63	
	숙련 및 기술직	31.34	36.70	24.76	4.82	2.38	
	단순노무 종사자	28.34	38.26	24.63	7.00	1.77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23.58	39.48	25.46	8.43	3.05	6.566(8)
	무기계약직	24.73	41.89	24.24	7.41	1.72	
	비정규직	25.11	40.06	26.02	6.77	2.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53	35.68	23.66	10.91	6.22	80.778(8) ***
	중도적	23.25	40.12	27.35	6.85	2.43	
	진보적	26.55	40.40	23.38	7.73	1.94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0〉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한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7.83	38.01	29.37	11.75	3.04	
성별	남성	20.05	38.80	27.57	10.48	3.10	34.387(4) ***
	여성	15.49	37.17	31.26	13.09	2.99	
연령	20대 이하	18.06	38.77	30.35	10.18	2.64	19.460(12)
	30대	15.97	36.71	31.22	12.67	3.43	
	40대	17.52	37.36	28.81	13.12	3.19	
	50대	19.42	39.02	27.58	11.04	2.94	
지역1	수도권	17.40	38.12	28.96	12.30	3.22	3.374(4)
	비수도권	18.30	37.89	29.81	11.16	2.85	
지역2	대도시	18.17	36.78	29.57	12.26	3.23	5.281(8)
	중소도시	17.32	39.28	29.28	11.16	2.96	
	농어촌	18.45	37.81	28.97	12.10	2.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72	30.13	21.83	6.27	3.05	297.485(12) ***
	중하층	18.80	40.69	27.31	10.46	2.74	
	중간층	12.75	37.39	33.21	13.19	3.46	
	중상층(상층)	9.40	36.33	32.20	19.38	2.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15	39.61	24.24	6.24	1.76	161.200(16) ***
	200만 원대	21.12	38.85	27.93	8.94	3.16	
	300만 원대	17.67	38.85	30.39	10.99	2.10	
	400만 원대	16.60	36.98	30.75	12.57	3.10	
	500만 원 이상	12.70	36.92	30.91	15.50	3.98	
학력	중졸 이하	24.37	39.29	26.92	6.11	3.31	31.719(8) ***
	고졸	20.07	37.36	28.69	11.15	2.72	
	대졸 이상	14.99	38.75	30.23	12.61	3.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54	36.92	30.92	13.04	3.58	104.263(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1.86	38.19	28.19	9.62	2.13	
	고용주, 자영자	18.99	36.17	26.31	14.55	3.98	
	무급가족 종사자	18.12	35.13	30.20	14.08	2.46	
	실업자	25.78	43.88	22.49	6.19	1.65	
	비경제활동인구	16.61	38.36	31.30	11.23	2.5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92	37.65	29.71	13.66	5.07	31.241(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38	36.62	30.81	13.28	2.92	
	숙련 및 기술직	21.30	35.73	29.12	10.22	3.63	
	단순노무 종사자	20.20	40.37	25.27	11.43	2.72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5.32	36.40	30.89	13.71	3.68	28.398(8) ***
	무기계약직	15.94	39.54	31.30	9.26	3.96	
	비정규직	20.74	38.77	28.92	9.49	2.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11	33.90	26.94	16.87	5.19	101.954(8) ***
	중도적	17.00	36.21	32.55	11.31	2.93	
	진보적	19.67	43.43	25.19	9.67	2.04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7.61	37.00	30.19	11.16	4.04	
성별	남성	20.41	37.69	27.91	10.34	3.65	45.679(4) ***
	여성	14.66	36.29	32.59	12.02	4.45	
연령	20대 이하	16.70	34.82	32.55	11.35	4.58	17.145(12)
	30대	17.43	36.17	31.89	10.68	3.83	
	40대	18.49	39.57	27.49	10.71	3.73	
	50대	17.67	37.07	29.41	11.80	4.05	
지역1	수도권	18.30	36.48	30.06	11.12	4.03	2.325(4)
	비수도권	16.84	37.57	30.34	11.20	4.05	
지역2	대도시	17.51	35.94	31.24	11.52	3.78	4.973(8)
	중소도시	17.64	37.57	29.51	11.00	4.28	
	농어촌	17.81	38.72	28.92	10.43	4.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54	31.69	18.18	5.91	2.68	388.992(12) ***
	중하층	18.12	40.56	28.01	9.94	3.36	
	중간층	12.46	35.18	35.11	12.53	4.73	
	중상층(상층)	8.01	32.85	34.42	18.35	6.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9.16	37.23	24.96	6.57	2.08	201.775(16) ***
	200만 원대	22.39	35.90	28.84	8.85	4.03	
	300만 원대	16.15	40.42	31.51	9.09	2.83	
	400만 원대	16.28	37.80	29.67	11.94	4.31	
	500만 원 이상	11.94	35.24	32.45	15.01	5.36	
학력	중졸 이하	29.22	33.89	19.44	12.51	4.94	59.517(8) ***
	고졸	20.25	37.39	29.04	9.96	3.35	
	대졸 이상	14.17	36.61	31.83	12.55	4.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52	37.65	30.95	11.44	4.43	64.251(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3.32	35.40	27.34	10.91	3.04	
	고용주, 자영자	20.40	36.24	26.11	13.61	3.64	
	무급가족 종사자	21.04	36.59	28.58	9.85	3.93	
	실업자	23.44	38.04	27.53	7.36	3.63	
	비경제활동인구	15.28	35.84	33.20	11.73	3.9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07	35.54	31.82	12.21	6.36	42.820(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45	37.69	30.29	11.80	3.78	
	숙련 및 기술직	21.81	37.48	28.36	9.37	2.98	
	단순노무 종사자	23.93	36.32	23.42	12.87	3.46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5.37	37.28	31.17	11.89	4.30	22.436(8) **
	무기계약직	16.66	37.78	32.90	7.37	5.30	
	비정규직	21.35	37.21	27.04	10.79	3.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63	31.50	27.64	17.51	6.71	146.245(8) ***
	중도적	17.07	34.69	33.64	10.41	4.18	
	진보적	19.08	44.10	25.63	8.89	2.30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2〉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단위: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1.10	26.54	49.30	10.25	2.81	
성별	남성	13.00	28.16	45.98	10.29	2.58	42.144(4) ***
	여성	9.10	24.85	52.80	10.21	3.04	
연령	20대 이하	9.79	24.94	54.45	8.76	2.06	43.274(12) ***
	30대	11.38	27.16	50.18	8.55	2.74	
	40대	12.04	28.07	46.46	10.10	3.32	
	50대	11.08	25.96	46.92	13.04	3.00	
지역1	수도권	11.65	27.12	48.29	10.01	2.94	4.880(4)
	비수도권	10.49	25.92	50.40	10.52	2.66	
지역2	대도시	11.15	27.19	48.88	10.12	2.66	5.130(8)
	중소도시	10.93	26.32	49.38	10.21	3.17	
	농어촌	11.51	25.08	50.50	10.87	2.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00	24.34	37.55	11.35	4.75	135.493(12) ***
	중하층	11.95	27.50	48.25	9.58	2.72	
	중간층	8.11	26.11	53.05	10.32	2.40	
	중상층(상층)	6.39	26.18	52.47	12.28	2.7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43	25.76	45.82	9.51	2.48	61.103(16) ***
	200만 원대	11.84	28.52	46.67	10.55	2.43	
	300만 원대	11.93	27.88	45.33	11.48	3.38	
	400만 원대	10.90	26.09	51.77	8.81	2.43	
	500만 원 이상	8.26	25.18	53.22	10.34	3.00	
학력	중졸 이하	10.51	26.72	38.96	14.54	9.27	22.507(8) **
	고졸	11.61	26.49	47.98	10.85	3.07	
	대졸 이상	10.49	26.61	51.13	9.43	2.3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80	27.98	48.37	9.86	2.99	32.209(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2.02	29.32	44.30	11.59	2.78	
	고용주, 자영자	12.83	23.17	50.17	11.29	2.54	
	무급가족 종사자	8.28	23.95	49.95	14.87	2.95	
	실업자	12.98	26.01	49.54	9.37	2.09	
	비경제활동인구	9.67	23.36	53.72	10.38	2.8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13	26.41	49.58	11.09	2.79	12.98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25	27.93	48.65	9.39	2.78	
	숙련 및 기술직	12.76	26.69	44.88	12.12	3.55	
	단순노무 종사자	10.29	28.22	45.53	12.99	2.98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0.64	28.12	47.67	10.45	3.12	5.438(8)
	무기계약직	10.97	29.74	50.36	6.77	2.16	
	비정규직	12.17	27.98	47.12	10.06	2.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66	23.88	47.12	13.12	4.22	46.117(8) ***
	중도적	9.94	26.09	50.62	10.67	2.68	
	진보적	12.79	28.82	48.23	7.92	2.24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3〉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단위 :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1.62	36.70	38.21	10.48	2.99	
성별	남성	13.24	37.68	35.83	10.23	3.02	25.646(4) ***
	여성	9.93	35.67	40.71	10.74	2.95	
연령	20대 이하	8.36	32.87	41.50	13.92	3.36	64.329(12) ***
	30대	11.32	35.30	39.49	10.83	3.06	
	40대	12.58	39.12	36.63	8.89	2.78	
	50대	13.74	38.78	35.87	8.79	2.81	
지역1	수도권	12.30	36.50	37.30	10.97	2.93	5.673(4)
	비수도권	10.88	36.92	39.20	9.94	3.05	
지역2	대도시	11.70	34.73	39.85	10.56	3.15	13.883(8)
	중소도시	10.93	38.37	37.47	10.32	2.90	
	농어촌	13.80	37.71	35.03	10.77	2.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05	32.93	30.64	8.85	5.53	126.676(12) ***
	중하층	12.56	37.93	37.00	9.76	2.76	
	중간층	8.33	36.61	41.17	11.32	2.56	
	중상층(상층)	8.60	35.20	40.56	12.64	3.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06	32.78	37.90	10.49	2.77	50.926(16) ***
	200만 원대	13.04	34.91	37.19	10.96	3.89	
	300만 원대	12.32	37.64	38.18	8.93	2.93	
	400만 원대	12.14	38.02	38.30	9.61	1.94	
	500만 원 이상	8.50	38.07	38.87	11.48	3.07	
학력	중졸 이하	9.34	32.07	41.59	7.51	9.49	15.837(8) *
	고졸	12.28	35.52	38.73	10.52	2.94	
	대졸 이상	10.90	38.22	37.50	10.50	2.8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33	38.78	36.90	10.27	2.73	48.223(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3.31	36.58	35.84	11.90	2.38	
	고용주, 자영자	14.78	36.76	35.49	9.17	3.80	
	무급가족 종사자	7.14	31.01	45.81	10.65	5.38	
	실업자	13.57	33.37	39.63	11.33	2.10	
	비경제활동인구	9.22	33.54	42.84	10.43	3.9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17	36.04	37.57	10.49	3.73	9.41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53	39.17	36.36	10.24	2.69	
	숙련 및 기술직	13.79	37.92	35.71	10.36	2.22	
	단순노무 종사자	11.33	34.90	39.51	10.98	3.28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1.39	38.73	36.69	10.46	2.74	4.125(8)
	무기계약직	10.81	41.36	35.95	10.56	1.32	
	비정규직	12.72	36.58	37.09	10.75	2.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91	33.32	38.05	11.28	4.44	88.170(8) ***
	중도적	10.43	33.72	41.60	11.27	2.97	
	진보적	12.98	43.76	32.40	8.66	2.20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4〉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4.66	40.61	35.29	7.07	2.36	
성별	남성	16.63	39.38	34.28	7.20	2.51	21.620(4) ***
	여성	12.60	41.91	36.36	6.94	2.19	
연령	20대 이하	13.65	39.59	37.73	6.51	2.52	16.796(12)
	30대	14.72	41.16	35.77	6.43	1.91	
	40대	16.19	41.88	32.44	7.05	2.44	
	50대	14.01	39.83	35.56	8.11	2.49	
지역1	수도권	15.54	40.42	35.33	6.55	2.16	7.121(4)
	비수도권	13.71	40.82	35.25	7.64	2.57	
지역2	대도시	14.82	39.09	36.53	7.43	2.14	10.004(8)
	중소도시	14.16	42.57	34.08	6.68	2.51	
	농어촌	15.90	39.05	35.25	7.22	2.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33	34.79	28.92	7.19	4.76	117.151(12) ***
	중하층	15.66	42.20	33.88	6.05	2.21	
	중간층	11.19	40.31	38.98	7.46	2.05	
	중상층(상층)	13.20	40.88	33.57	10.87	1.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78	38.07	33.38	6.96	2.81	36.660(16) **
	200만 원대	16.08	38.04	35.32	7.21	3.34	
	300만 원대	14.60	43.64	32.99	6.77	1.99	
	400만 원대	14.77	40.05	35.80	7.32	2.06	
	500만 원 이상	12.28	41.58	37.07	7.09	1.96	
학력	중졸 이하	12.38	37.38	35.96	4.79	9.49	26.407(8) ***
	고졸	15.54	38.82	35.72	7.51	2.41	
	대졸 이상	13.68	42.84	34.76	6.61	2.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68	41.41	34.64	6.99	2.28	19.821(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7.26	39.83	33.73	7.58	1.60	
	고용주, 자영자	16.37	40.01	34.85	5.81	2.95	
	무급가족 종사자	13.78	36.53	37.39	8.07	4.23	
	실업자	15.60	39.35	35.46	7.59	2.00	
	비경제활동인구	12.01	40.18	37.79	7.27	2.7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61	42.33	33.85	7.32	1.90	13.10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12	41.38	34.89	6.31	2.30	
	숙련 및 기술직	16.70	39.92	33.04	7.46	2.88	
	단순노무 종사자	14.91	35.55	37.09	10.07	2.39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4.59	42.06	33.93	7.02	2.40	16.761(8) *
	무기계약직	12.71	37.15	43.81	4.99	1.34	
	비정규직	17.44	39.38	33.61	7.91	1.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86	35.75	37.99	7.89	3.50	116.729(8) ***
	중도적	12.29	38.83	38.65	7.73	2.50	
	진보적	18.68	46.43	27.94	5.47	1.47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5〉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단위: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0.67	33.36	40.10	11.25	4.61	
성별	남성	13.26	35.25	37.32	9.94	4.23	69.878(4) ***
	여성	7.95	31.38	43.03	12.63	5.01	
연령	20대 이하	10.82	32.73	41.10	9.73	5.62	27.429(12) **
	30대	9.28	31.91	41.93	12.23	4.65	
	40대	11.02	35.97	38.75	9.85	4.40	
	50대	11.34	32.54	39.08	13.11	3.92	
지역1	수도권	11.37	32.43	40.13	11.10	4.97	6.722(4)
	비수도권	9.91	34.37	40.07	11.42	4.22	
지역2	대도시	11.22	32.46	40.54	10.97	4.80	12.156(8)
	중소도시	9.93	34.40	39.74	11.01	4.91	
	농어촌	11.36	32.82	39.87	13.07	2.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95	33.84	28.79	5.99	5.43	252.574(12) ***
	중하층	11.01	35.93	38.34	10.62	4.09	
	중간층	6.88	30.41	45.37	12.64	4.70	
	중상층(상층)	7.02	32.64	39.24	15.07	6.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23	37.48	32.48	8.61	3.21	143.580(16) ***
	200만 원대	13.82	32.36	39.24	9.52	5.07	
	300만 원대	10.04	36.16	39.81	10.79	3.21	
	400만 원대	10.21	32.63	42.04	10.71	4.40	
	500만 원 이상	6.59	31.11	42.77	13.75	5.78	
학력	중졸 이하	15.46	30.89	34.71	9.45	9.49	31.614(8) ***
	고졸	12.26	33.90	39.15	10.55	4.13	
	대졸 이상	8.66	32.78	41.37	12.13	5.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6	32.41	41.77	11.38	4.98	56.194(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4.01	36.30	34.16	12.29	3.24	
	고용주, 자영자	12.00	35.81	36.60	11.59	4.00	
	무급가족 종사자	12.85	29.02	40.87	13.02	4.25	
	실업자	14.23	37.75	35.50	9.14	3.39	
	비경제활동인구	9.35	30.93	42.99	11.36	5.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29	28.72	41.46	13.93	5.60	28.972(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61	34.09	40.77	11.04	4.49	
	숙련 및 기술직	13.48	33.69	38.86	9.88	4.09	
	단순노무 종사자	11.98	38.18	33.00	12.87	3.97	
직업안정성(임금근로자)	정규직	9.52	32.54	41.38	11.52	5.03	17.774(8) *
	무기계약직	8.53	29.17	45.51	12.08	4.71	
	비정규직	12.83	35.76	36.40	11.39	3.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8	29.01	37.14	15.01	8.37	155.728(8) ***
	중도적	9.52	30.39	43.60	12.09	4.40	
	진보적	12.78	40.95	35.68	7.69	2.89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6〉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5.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7.21	37.21	35.70	7.27	2.60	
성별	남성	19.59	38.39	33.59	6.21	2.21	44.580(4) ***
	여성	14.72	35.97	37.92	8.40	3.00	
연령	20대 이하	18.36	37.54	35.46	6.46	2.19	75.840(12) ***
	30대	21.22	39.73	32.74	4.74	1.57	
	40대	15.86	37.70	35.74	7.38	3.32	
	50대	14.31	34.44	38.27	9.91	3.07	
지역1	수도권	18.02	36.53	35.18	7.58	2.68	4.837(4)
	비수도권	16.33	37.95	36.28	6.93	2.50	
지역2	대도시	18.03	36.77	35.42	7.30	2.49	7.588(8)
	중소도시	15.88	38.09	36.08	7.17	2.79	
	농어촌	19.08	35.68	35.37	7.57	2.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64	30.77	31.66	6.40	5.52	85.135(12) ***
	중하층	17.07	38.24	35.87	6.61	2.21	
	중간층	15.05	37.04	37.92	7.60	2.38	
	중상층(상층)	17.48	40.87	29.10	10.61	1.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07	35.22	36.80	5.78	3.12	21.904(16)
	200만 원대	16.48	36.46	37.04	7.59	2.43	
	300만 원대	18.51	38.20	34.57	6.51	2.21	
	400만 원대	17.59	36.53	37.35	6.27	2.26	
	500만 원 이상	16.02	38.15	34.41	8.56	2.86	
학력	중졸 이하	21.52	30.91	33.63	4.25	9.69	37.643(8) ***
	고졸	15.91	35.86	37.30	8.20	2.74	
	대졸 이상	18.67	38.99	33.85	6.25	2.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3	37.55	35.52	7.25	2.44	23.629(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9.17	37.40	32.77	7.93	2.74	
	고용주, 자영자	16.38	41.38	32.98	6.46	2.80	
	무급가족 종사자	19.67	31.40	36.86	9.10	2.98	
	실업자	18.62	37.92	35.28	6.46	1.73	
	비경제활동인구	15.57	34.22	39.12	7.76	3.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27	37.38	32.67	8.27	2.42	16.75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14	38.85	34.74	6.83	2.44	
	숙련 및 기술직	17.22	36.64	37.46	6.62	2.06	
	단순노무 종사자	15.41	34.00	36.49	9.53	4.57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7.44	37.70	34.87	7.60	2.39	3.097(8)
	무기계약직	17.51	38.07	36.90	5.30	2.23	
	비정규직	17.90	36.77	35.27	7.17	2.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7	33.22	38.30	8.37	3.55	133.736(8) ***
	중도적	14.55	35.29	39.15	7.97	3.04	
	진보적	22.20	42.79	28.26	5.46	1.29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7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3-57〉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단위 :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33.96	34.01	23.57	5.72	2.74	
성별	남성	35.15	32.36	23.55	6.16	2.78	9.859(4) *
	여성	32.70	35.75	23.60	5.26	2.70	
연령	20대 이하	35.45	33.94	23.26	5.03	2.32	9.561(12)
	30대	34.53	34.27	22.69	5.29	3.22	
	40대	34.05	33.92	23.21	6.04	2.78	
	50대	32.12	33.97	24.91	6.34	2.67	
지역1	수도권	36.69	32.82	22.04	5.40	3.05	27.086(4) ***
	비수도권	30.96	35.32	25.25	6.06	2.40	
지역2	대도시	34.79	33.08	23.84	5.32	2.98	11.859(8)
	중소도시	33.17	35.38	22.67	5.95	2.82	
	농어촌	33.80	32.45	25.83	6.28	1.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10	23.35	14.48	4.64	4.43	257.711(12) ***
	중하층	37.73	35.55	19.69	4.67	2.35	
	중간층	25.98	34.53	30.13	6.62	2.74	
	중상층(상층)	26.20	37.00	25.42	8.68	2.6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08	32.52	21.73	6.20	2.47	42.120(16) ***
	200만 원대	38.58	32.35	21.21	4.71	3.15	
	300만 원대	34.08	35.52	22.72	5.26	2.42	
	400만 원대	34.74	31.43	26.13	5.29	2.41	
	500만 원 이상	29.73	35.85	24.92	6.55	2.95	
학력	중졸 이하	45.83	21.88	18.02	6.23	8.04	19.830(8) *
	고졸	35.02	33.86	23.29	5.52	2.31	
	대졸 이상	32.40	34.49	24.05	5.94	3.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35	33.60	24.63	5.59	2.83	28.582(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9.77	33.07	18.12	6.39	2.65	
	고용주, 자영자	32.65	33.81	24.14	6.14	3.26	
	무급가족 종사자	35.47	30.82	25.86	6.37	1.48	
	실업자	37.21	35.45	20.28	5.05	2.02	
	비경제활동인구	31.22	35.04	25.04	5.89	2.8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73	31.49	26.25	5.76	3.77	28.379(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53	35.20	22.95	4.99	2.34	
	숙련 및 기술직	33.94	30.18	25.09	7.92	2.87	
	단순노무 종사자	35.43	31.34	20.66	8.20	4.38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2.20	34.68	24.46	5.78	2.88	20.215(8) **
	무기계약직	38.04	30.15	23.51	5.17	3.14	
	비정규직	40.39	30.69	20.83	5.66	2.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41	31.55	24.19	7.74	5.10	143.692(8) ***
	중도적	30.18	34.22	26.66	6.19	2.76	
	진보적	41.94	35.03	17.88	3.77	1.39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8〉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단위 :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36.56	35.72	20.75	4.65	2.31	
성별	남성	35.85	34.15	22.44	4.88	2.67	17.944(4) **
	여성	37.32	37.36	18.98	4.40	1.94	
연령	20대 이하	36.50	32.24	22.94	5.28	3.03	47.594(12) ***
	30대	34.69	34.77	22.38	5.75	2.41	
	40대	34.79	37.58	21.59	3.93	2.10	
	50대	39.83	37.66	16.77	3.92	1.82	
지역1	수도권	37.62	34.00	21.32	4.52	2.54	9.994(4) *
	비수도권	35.41	37.60	20.13	4.79	2.07	
지역2	대도시	36.89	35.18	20.82	4.62	2.49	11.580(8)
	중소도시	36.48	35.67	21.16	4.24	2.45	
	농어촌	35.71	37.78	19.09	6.20	1.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74	26.06	15.77	2.65	3.79	186.927(12) ***
	중하층	40.76	36.06	17.02	4.18	1.98	
	중간층	29.26	37.62	25.59	5.37	2.16	
	중상층(상층)	28.43	37.33	24.81	6.44	2.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36	34.59	18.84	4.39	2.81	24.577(16)
	200만 원대	39.00	32.20	21.66	4.81	2.34	
	300만 원대	36.94	34.87	21.86	4.00	2.32	
	400만 원대	36.27	36.79	21.03	3.77	2.14	
	500만 원 이상	34.05	38.12	20.22	5.43	2.19	
학력	중졸 이하	43.46	23.18	23.84	4.79	4.72	19.166(8) *
	고졸	38.54	35.02	19.65	4.57	2.22	
	대졸 이상	34.04	36.86	22.00	4.74	2.3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02	36.34	22.73	4.69	2.21	53.192(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2.77	33.28	17.74	4.37	1.84	
	고용주, 자영자	36.72	33.34	22.88	4.93	2.13	
	무급가족 종사자	32.20	39.15	20.74	7.91	0.00	
	실업자	43.91	34.73	15.46	3.72	2.19	
	비경제활동인구	36.07	36.75	19.14	4.89	3.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35	36.38	23.92	4.49	2.85	18.35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5.53	36.59	21.55	4.51	1.82	
	숙련 및 기술직	36.22	33.84	22.24	5.34	2.36	
	단순노무 종사자	42.32	28.85	20.74	6.05	2.04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32.98	36.71	23.06	4.93	2.32	25.891(8) **
	무기계약직	42.13	35.19	17.21	3.67	1.80	
	비정규직	41.40	33.25	19.70	3.97	1.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38	32.60	22.37	6.67	3.98	115.836(8) ***
	중도적	33.35	35.96	23.40	5.01	2.28	
	진보적	43.36	37.05	15.25	2.89	1.45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9〉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단위 : %)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χ^2 (df)
전체		13.98	26.80	43.71	11.02	4.49	
성별	남성	14.33	26.14	43.50	11.20	4.82	3.340(4)
	여성	13.60	27.50	43.93	10.82	4.14	
연령	20대 이하	15.98	24.10	44.44	10.90	4.58	53.527(12) ***
	30대	11.39	23.36	47.03	12.19	6.03	
	40대	15.55	29.64	40.29	10.45	4.07	
	50대	12.83	29.15	43.72	10.71	3.59	
지역1	수도권	13.21	25.20	44.43	11.99	5.17	22.255(4) ***
	비수도권	14.81	28.55	42.93	9.95	3.75	
지역2	대도시	13.71	25.24	45.04	11.37	4.64	12.739(8)
	중소도시	13.96	27.68	42.96	10.61	4.79	
	농어촌	14.97	29.19	41.74	11.18	2.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99	26.86	32.78	8.03	8.34	124.869(12) ***
	중하층	14.32	27.85	42.77	11.18	3.89	
	중간층	11.20	25.73	48.13	10.83	4.11	
	중상층(상층)	12.37	26.07	41.85	15.03	4.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6.50	26.47	40.40	12.19	4.45	36.069(16) **
	200만 원대	15.30	23.57	44.64	11.31	5.17	
	300만 원대	14.32	29.33	42.54	9.98	3.83	
	400만 원대	13.94	27.92	46.02	8.69	3.43	
	500만 원 이상	12.09	26.81	44.05	12.06	4.99	
학력	중졸 이하	21.89	22.04	36.89	11.15	8.03	19.307(8) *
	고졸	15.09	27.05	43.49	10.40	3.97	
	대졸 이상	12.46	26.62	44.15	11.74	5.0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9	25.83	45.05	12.09	4.73	42.165(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4.54	27.80	42.05	9.83	5.78	
	고용주, 자영자	16.56	30.02	40.75	8.62	4.04	
	무급가족 종사자	9.79	28.36	43.51	17.08	1.25	
	실업자	14.17	26.07	45.04	10.63	4.09	
	비경제활동인구	17.17	27.73	41.55	9.68	3.8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02	27.68	43.89	10.26	5.15	12.65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2.38	26.70	44.28	11.96	4.68	
	숙련 및 기술직	15.96	25.52	44.84	10.23	3.46	
	단순노무 종사자	13.55	25.99	41.53	12.54	6.38	
직업안정 성(임금근 로자)	정규직	11.66	26.27	44.90	12.23	4.94	9.716(8)
	무기계약직	15.23	23.89	45.31	11.30	4.28	
	비정규직	15.11	26.39	43.33	10.24	4.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81	23.51	42.19	12.80	6.69	48.623(8) ***
	중도적	13.09	25.52	45.96	11.13	4.30	
	진보적	15.05	30.87	40.67	9.82	3.60	

주: “귀하는 정부가 다음 정책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0〉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1.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단위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66	0.59	1.33	1.96	2.62	13.14	11.04	13.71	14.94	11.23	26.79	
성별	남성	3.71	0.70	1.42	2.24	2.83	13.93	11.88	12.63	14.37	10.49	25.80	50.176 (10)***
	여성	1.56	0.47	1.23	1.65	2.40	12.31	10.16	14.86	15.53	12.01	27.82	
연령	20대 이하	3.94	0.39	1.61	2.52	4.32	19.85	12.43	15.18	13.79	7.93	18.04	230.460 (30)***
	30대	3.07	0.21	1.17	1.91	2.68	13.54	11.09	14.34	16.44	9.78	25.78	
	40대	2.11	0.68	1.16	1.70	1.70	10.79	9.62	13.28	14.71	13.04	31.22	
	50대	1.77	0.98	1.36	1.76	2.02	9.34	11.17	12.37	14.94	13.49	30.81	
지역1	수도권	3.25	0.77	1.42	1.77	2.26	12.41	11.04	14.30	13.53	12.04	27.22	34.581 (10)***
	비수도권	2.02	0.39	1.23	2.16	3.02	13.94	11.03	13.07	16.48	10.35	26.31	
지역2	대도시	2.41	0.59	1.54	1.69	2.62	13.44	10.99	14.13	14.50	11.89	26.20	17.024 (20)
	중소도시	3.09	0.63	1.26	2.09	2.56	12.75	10.86	13.71	15.00	11.12	26.92	
	농어촌	2.02	0.43	0.80	2.42	2.85	13.47	11.82	12.25	16.25	9.32	28.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6	0.52	0.49	1.35	1.06	12.48	7.27	9.52	10.69	8.57	44.99	269.617 (30)***
	중하층	2.27	0.51	1.55	1.74	2.07	10.87	9.66	13.44	15.29	12.48	30.12	
	중간층	2.53	0.62	1.04	2.15	3.40	15.95	13.72	14.55	15.59	10.65	19.81	
	중상층(상층)	5.04	0.94	2.58	3.06	4.01	13.06	10.64	16.79	15.43	10.58	17.8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2	0.38	0.81	2.18	3.03	15.50	9.03	13.82	12.59	9.31	30.33	59.857 (40)*
	200만 원대	2.49	0.42	1.05	1.88	3.27	14.57	11.76	12.57	13.49	10.67	27.84	
	300만 원대	1.71	0.66	1.20	1.49	2.15	12.03	12.11	13.98	15.45	11.15	28.07	
	400만 원대	2.29	0.68	1.71	2.15	2.19	13.39	11.72	12.00	17.02	12.08	24.79	
	500만 원 이상	3.33	0.68	1.57	2.09	2.56	11.95	10.47	14.96	15.41	11.94	25.03	
학력	중졸 이하	6.08	1.65	6.37	3.33	3.35	13.96	9.62	12.22	3.03	6.34	34.03	61.174 (20)***
	고졸	2.36	0.54	1.18	1.99	2.29	14.76	11.41	12.70	14.21	10.68	27.88	
	대졸 이상	2.94	0.61	1.38	1.88	2.99	11.19	10.62	14.96	16.10	12.01	25.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7	0.56	1.35	1.83	2.09	11.68	11.77	14.23	15.43	12.13	26.47	64.986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25	0.51	1.41	2.23	3.74	12.05	10.59	14.11	14.79	11.87	25.45	
	고용주, 자영자	3.44	1.02	1.59	1.81	1.93	13.41	10.66	11.50	14.33	9.22	31.08	
	무급가족 종사자	5.16	0.00	1.47	5.71	4.22	10.43	7.92	13.32	8.62	12.39	30.77	
	실업자	2.43	0.45	0.98	2.24	3.27	16.31	9.53	12.14	15.39	9.03	28.23	
	비경제활동인구	2.48	0.62	1.30	1.82	3.32	15.76	10.59	14.13	14.13	10.68	25.18	
직업	관리자, 전문가	4.62	0.40	1.61	1.71	1.74	11.15	11.69	14.21	16.63	11.65	24.58	37.83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22	0.54	1.22	1.70	2.53	11.62	11.31	13.63	15.09	11.93	28.21	
	숙련 및 기술직	2.35	1.05	1.95	2.34	2.43	12.80	11.94	14.76	13.54	10.74	26.09	
	단순노무 종사자	2.95	0.71	1.07	3.82	1.98	14.80	10.39	13.05	13.97	12.26	25.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40	0.57	1.36	2.00	2.22	11.85	11.80	14.77	15.51	12.06	25.46	11.961 (20)
	무기계약직	2.91	0.47	1.31	0.86	2.12	11.83	11.26	9.95	16.07	12.53	30.69	
	비정규직	3.16	0.51	1.37	1.85	2.83	11.35	10.96	13.64	14.50	12.06	27.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4	0.82	2.78	4.14	3.18	14.27	11.56	12.74	13.50	9.58	21.69	317.145 (20)***
	중도적	2.50	0.78	1.18	1.84	3.12	15.81	12.67	14.25	14.62	9.76	23.47	
	진보적	1.21	0.12	0.76	0.94	1.44	7.87	7.91	13.33	16.31	14.72	35.39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1〉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2. 자소득층에 대한 소득자원을 강화하는 것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44	0.99	2.72	3.85	5.62	20.36	14.19	14.45	13.38	8.02	13.99	
성별	남성	2.78	1.04	2.63	3.68	5.30	19.17	13.60	14.33	14.34	8.12	15.00	20.133 (10)*
	여성	2.07	0.94	2.82	4.03	5.96	21.62	14.80	14.57	12.36	7.91	12.93	
연령	20대 이하	3.03	0.97	2.46	4.01	6.51	24.17	16.73	15.29	11.77	4.32	10.76	118.766 (30)***
	30대	2.53	0.75	2.33	4.23	5.82	20.56	12.76	15.88	15.05	7.23	12.84	
	40대	2.24	1.02	3.33	2.92	5.02	19.62	12.48	14.04	13.97	9.50	15.85	
	50대	2.03	1.18	2.67	4.30	5.29	17.66	14.81	12.96	12.83	10.37	15.89	
지역1	수도권	2.88	1.12	2.85	3.56	5.61	20.41	13.94	13.31	13.98	7.88	14.47	16.942 (10)
	비수도권	1.95	0.85	2.58	4.17	5.63	20.31	14.46	15.69	12.72	8.17	13.47	
지역2	대도시	2.36	1.04	2.93	4.24	5.42	20.35	14.01	14.37	13.79	8.62	12.87	15.082 (20)
	중소도시	2.65	1.00	2.55	3.74	5.75	20.38	14.41	14.54	13.04	7.15	14.80	
	농어촌	1.96	0.79	2.59	2.89	5.88	20.35	14.02	14.38	13.12	8.95	15.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5	1.20	1.96	2.08	3.45	11.78	8.49	11.36	12.80	10.14	33.58	401.470 (30)***
	중하층	1.65	0.90	2.33	3.46	4.82	18.21	14.19	15.19	14.42	9.26	15.56	
	중간층	2.66	1.02	3.02	4.35	7.05	24.93	15.47	14.16	12.34	6.61	8.40	
	중상층(상층)	4.86	1.08	4.51	5.99	6.02	21.51	15.42	15.81	13.34	5.01	6.4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2	1.42	2.03	2.83	4.85	16.85	12.94	12.64	13.70	9.23	21.78	148.552 (40)***
	200만 원대	2.36	0.52	2.70	4.25	5.18	20.28	12.38	15.21	12.59	7.76	16.76	
	300만 원대	1.48	0.98	1.84	2.96	4.90	20.23	14.28	15.97	13.80	9.53	14.03	
	400만 원대	1.69	0.79	2.71	4.71	5.19	19.58	16.38	14.97	11.98	8.14	13.87	
	500만 원 이상	3.63	1.19	3.50	4.12	6.78	22.19	14.62	13.60	14.10	6.78	9.49	
학력	중졸 이하	1.46	1.65	2.77	7.98	6.13	11.60	9.35	6.43	12.49	12.15	28.00	64.599 (20)***
	고졸	2.19	0.91	2.32	3.57	5.19	20.14	13.95	14.44	13.13	7.77	16.40	
	대졸 이상	2.76	1.07	3.20	4.09	6.13	20.85	14.59	14.65	13.69	8.20	10.7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8	1.09	3.05	3.84	6.19	20.52	13.84	14.85	13.72	7.98	12.85	70.472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79	0.87	2.34	4.75	6.05	19.84	13.11	11.27	12.48	8.53	17.99	
	고용주, 자영자	2.88	0.82	2.18	2.98	4.67	21.53	13.96	11.99	13.60	10.10	15.29	
	무급가족 종사자	6.84	1.50	0.00	5.71	5.97	16.65	13.85	10.85	12.39	9.61	16.63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54	0.73	1.87	4.45	4.00	17.73	13.13	15.43	15.87	7.49	16.76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4	1.40	3.44	4.07	5.62	21.78	13.49	13.66	13.45	8.21	11.63	27.178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3	0.86	2.48	3.79	6.07	20.60	14.55	13.76	13.23	8.25	14.38	
	숙련 및 기술직	1.82	1.26	3.41	3.68	6.28	19.06	11.42	14.68	15.05	7.94	15.38	
	단순노무 종사자	3.83	1.02	2.43	4.58	5.50	18.82	12.44	14.71	13.00	10.37	13.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07	0.95	3.30	3.75	6.25	20.49	14.08	15.15	13.84	7.49	12.65	31.391 (20)
	무기계약직	2.19	1.32	1.79	5.30	4.62	22.08	12.23	12.10	15.36	10.58	12.42	
	비정규직	2.61	1.31	2.09	4.35	6.36	19.65	13.00	12.09	11.93	9.23	17.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3	2.00	3.83	6.37	7.30	20.85	14.08	10.84	12.55	6.38	11.46	206.084 (20)***
	중도적	2.50	0.92	2.98	4.00	5.56	23.11	14.80	14.15	12.46	6.94	12.59	
	진보적	1.26	0.55	1.65	2.19	4.81	15.32	13.18	16.98	15.42	10.80	17.84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2〉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3.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단위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전체		1.83	0.51	1.57	2.82	3.52	13.25	12.02	15.24	16.30	12.19	20.74	
성별	남성	2.42	0.60	1.67	2.96	4.02	13.96	11.09	14.25	15.86	12.04	21.13	30.641 (10)***
	여성	1.20	0.41	1.47	2.68	3.00	12.49	13.00	16.28	16.77	12.36	20.33	
연령	20대 이하	2.70	0.77	2.58	4.90	4.96	20.90	13.40	15.62	13.40	7.75	13.02	320.298 (30)***
	30대	2.74	0.41	1.50	2.88	3.21	14.36	12.93	15.46	16.63	10.56	19.33	
	40대	1.22	0.21	1.16	2.38	3.05	10.93	10.34	15.40	16.78	14.27	24.26	
	50대	0.92	0.65	1.17	1.43	3.00	8.03	11.72	14.60	18.07	15.31	25.09	
지역1	수도권	2.25	0.57	2.01	2.76	3.71	12.78	12.19	15.37	15.69	11.47	21.21	22.613 (10)*
	비수도권	1.36	0.44	1.09	2.90	3.33	13.76	11.83	15.10	16.98	12.99	20.23	
지역2	대도시	1.91	0.64	1.85	2.74	3.43	12.89	12.05	15.18	16.98	12.65	19.67	17.459 (20)
	중소도시	1.82	0.45	1.51	2.81	3.74	13.40	12.10	15.28	15.94	11.19	21.75	
	농어촌	1.54	0.24	0.82	3.17	3.06	13.95	11.63	15.34	15.23	14.13	20.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5	0.66	0.99	1.77	3.03	10.25	5.31	11.26	14.57	11.57	38.54	347.640 (30)***
	중하층	1.61	0.22	1.00	2.42	3.09	10.61	11.31	14.25	17.12	14.16	24.22	
	중간층	1.67	0.78	2.13	3.22	3.92	16.94	13.91	17.20	15.42	10.95	13.87	
	중상층(상층)	3.55	0.62	2.86	4.62	4.77	13.96	15.76	16.53	18.39	7.95	10.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4	0.52	1.27	2.80	4.27	14.87	9.98	13.10	14.38	10.27	27.20	86.053 (40)***
	200만 원대	1.79	0.18	1.24	2.93	3.36	13.93	13.31	13.76	13.47	13.34	22.69	
	300만 원대	1.35	0.43	1.46	2.49	3.30	12.58	11.29	15.56	17.61	12.62	21.32	
	400만 원대	1.66	0.33	1.27	2.92	3.56	11.78	12.67	14.90	16.67	13.68	20.55	
	500만 원 이상	2.37	0.82	2.08	2.92	3.44	13.29	12.18	16.87	17.74	11.35	16.94	
학력	중졸 이하	1.46	0.00	4.73	6.06	6.13	9.95	10.70	4.72	15.34	11.35	29.56	57.634 (20)***
	고졸	1.40	0.43	1.41	2.75	3.63	13.37	10.72	15.34	15.97	11.84	23.14	
	대졸 이상	2.34	0.61	1.69	2.84	3.33	13.18	13.61	15.39	16.72	12.64	17.6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	0.43	1.48	2.81	3.40	12.55	12.43	14.93	16.81	12.94	20.52	54.924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81	0.50	2.08	2.50	4.00	12.11	10.91	14.22	13.82	13.68	24.37	
	고용주, 자영자	2.11	0.58	1.84	2.06	2.95	11.89	12.43	15.13	16.71	12.43	21.87	
	무급가족 종사자	5.36	0.00	1.20	3.98	2.98	12.98	9.59	14.99	21.22	9.57	18.1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26	0.46	1.38	2.21	4.11	14.67	12.61	13.98	16.13	10.38	22.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9	0.58	2.02	3.61	2.95	13.07	13.62	15.75	18.51	12.12	14.57	75.31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0	0.44	1.31	2.57	3.24	12.35	13.05	15.14	15.94	12.96	21.40	
	숙련 및 기술직	1.33	0.36	1.88	2.55	3.72	11.84	7.96	14.09	15.90	14.93	25.44	
	단순노무 종사자	1.27	0.30	2.38	1.61	5.50	12.32	9.32	11.68	16.51	10.72	28.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1.78	0.46	1.46	2.99	3.39	12.70	13.28	15.50	16.67	12.34	19.43	40.508 (20)**
	무기계약직	0.86	0.47	0.92	2.13	3.22	13.36	6.07	12.07	17.25	15.98	27.68	
	비정규직	1.82	0.36	2.16	2.19	3.92	11.47	10.42	13.38	14.96	14.55	24.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9	0.98	3.27	5.14	3.55	14.91	12.61	14.41	15.09	10.06	15.90	267.066 (20)***
	중도적	1.62	0.53	1.36	2.68	4.37	15.45	13.36	16.03	14.63	10.68	19.29	
	진보적	0.92	0.21	0.99	1.78	2.03	8.48	9.37	14.35	19.90	16.01	25.96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3〉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4.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전체		1.34	0.74	1.20	1.82	3.49	13.39	11.10	14.36	15.07	12.81	24.69	
성별	남성	1.84	1.08	1.52	2.36	3.73	14.33	11.14	13.84	13.54	12.94	23.68	56.493 (10)***
	여성	0.81	0.38	0.86	1.25	3.24	12.41	11.06	14.90	16.69	12.66	25.76	
연령	20대 이하	1.94	0.84	1.99	3.17	6.04	20.20	14.74	15.95	12.82	8.06	14.26	387.312 (30)***
	30대	1.36	0.89	1.09	2.06	3.75	15.06	12.47	15.50	15.33	10.82	21.66	
	40대	1.02	0.61	0.95	1.29	2.18	11.73	8.09	13.55	15.04	15.25	30.28	
	50대	1.11	0.65	0.84	0.98	2.35	7.82	9.77	12.85	16.82	16.11	30.69	
지역1	수도권	1.56	0.73	1.40	1.81	3.05	13.03	10.81	14.19	15.10	12.63	25.68	12.418 (10)
	비수도권	1.09	0.75	0.97	1.82	3.97	13.78	11.42	14.54	15.05	13.00	23.61	
지역2	대도시	1.33	0.70	1.56	1.81	3.35	13.47	11.43	14.77	15.48	12.76	23.34	21.015 (20)
	중소도시	1.17	0.80	0.94	1.70	3.58	13.45	10.59	13.67	15.44	12.68	25.97	
	농어촌	1.96	0.64	0.82	2.24	3.65	12.93	11.75	15.35	12.34	13.38	24.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8	0.50	0.81	1.78	1.91	13.95	6.96	10.61	10.63	11.18	39.78	250.219 (30)***
	중하층	1.39	0.55	1.01	1.52	2.77	10.70	9.27	14.22	16.66	13.88	28.03	
	중간층	1.06	0.82	1.59	1.99	4.52	16.56	13.36	15.03	14.47	12.34	18.25	
	중상층(상층)	1.69	1.70	0.86	2.73	4.60	12.26	15.89	16.86	14.95	11.15	17.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6	1.27	0.96	1.88	3.95	17.30	10.72	12.05	13.67	9.56	27.28	55.174 (40)
	200만 원대	1.23	0.69	1.54	1.99	4.16	15.34	10.80	13.25	14.21	12.61	24.19	
	300만 원대	0.94	0.61	0.94	1.53	3.46	12.97	11.13	14.50	15.70	12.89	25.34	
	400만 원대	1.35	0.53	1.07	1.90	3.13	12.24	11.46	14.15	15.44	12.84	25.90	
	500만 원 이상	1.61	0.73	1.30	1.83	3.12	11.57	11.23	15.88	15.57	14.09	23.07	
학력	중졸 이하	1.46	3.32	0.00	4.97	0.00	13.85	8.03	4.42	15.83	15.44	32.67	51.878 (20)***
	고졸	1.15	0.52	1.19	1.89	3.09	14.08	10.73	13.34	15.46	12.02	26.54	
	대졸 이상	1.56	0.93	1.23	1.66	4.05	12.56	11.61	15.82	14.59	13.68	22.3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3	0.66	1.35	1.59	3.38	12.92	11.12	15.00	15.38	13.18	24.40	58.184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06	1.03	1.07	2.44	3.50	15.42	9.68	14.66	15.21	12.43	22.51	
	고용주, 자영자	2.13	0.98	1.14	1.58	2.98	11.01	10.54	11.37	15.97	13.43	28.87	
	무급가족 종사자	3.94	0.00	0.00	3.99	6.25	8.13	7.98	9.41	17.96	18.30	24.04	
	실업자	1.02	0.81	1.10	2.12	3.69	16.82	13.04	13.49	13.06	12.06	22.79	
	비경제활동인구	1.44	0.69	1.01	1.92	3.71	13.04	11.06	14.74	14.78	11.80	25.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3	1.10	1.57	1.75	3.24	12.42	11.91	13.35	14.58	14.19	23.55	34.850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7	0.72	1.20	1.56	3.37	12.72	11.08	15.35	15.52	12.70	24.61	
	숙련 및 기술직	0.90	0.51	1.07	2.41	3.36	13.24	10.01	13.59	15.29	15.12	24.52	
	단순노무 종사자	1.27	0.36	1.36	1.90	4.09	15.43	7.03	10.90	17.81	11.00	28.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1.06	0.59	1.47	1.75	3.41	12.88	11.67	15.38	15.50	12.66	23.65	28.380 (20)
	무기계약직	0.47	1.32	0.87	0.78	2.11	12.76	7.72	12.19	14.85	15.65	31.29	
	비정규직	1.87	0.97	0.90	1.90	3.76	14.92	9.28	14.33	15.02	13.60	23.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2	1.47	2.64	3.40	3.99	13.86	10.51	14.28	14.22	11.51	20.89	225.564 (20)***
	중도적	1.19	0.65	1.06	1.72	4.14	16.15	11.97	14.78	14.38	11.26	22.69	
	진보적	0.53	0.47	0.63	1.12	2.08	8.33	9.91	13.67	16.75	16.21	30.30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4〉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5.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81	0.51	1.02	1.40	3.05	12.27	10.26	13.44	16.47	13.81	26.96		
성별	남성	1.16	0.61	1.09	1.67	3.54	13.70	10.72	13.15	15.95	12.84	25.58	41.335 (10)***	
	여성	0.45	0.41	0.95	1.11	2.54	10.76	9.78	13.75	17.01	14.82	28.41		
연령	20대 이하	1.29	0.84	1.03	1.80	4.76	19.60	13.28	16.57	15.72	8.20	16.91	345.505 (30)***	
	30대	0.75	0.75	0.76	1.78	3.22	13.62	11.81	14.56	16.00	12.83	23.91		
	40대	0.61	0.20	1.02	0.88	2.18	9.30	8.82	11.91	16.03	16.68	32.36		
	50대	0.65	0.33	1.24	1.23	2.29	7.75	7.82	11.36	17.90	16.62	32.81		
지역1	수도권	1.03	0.51	1.07	1.38	2.89	11.63	10.30	13.61	15.29	13.75	28.55	18.178 (10)	
	비수도권	0.58	0.51	0.98	1.41	3.23	12.96	10.23	13.26	17.75	13.87	25.22		
지역2	대도시	0.90	0.53	1.04	1.41	2.84	12.05	10.45	13.79	17.16	13.13	26.69	15.474 (20)	
	중소도시	0.70	0.45	0.85	1.25	3.15	12.26	10.63	13.18	15.62	14.45	27.45		
	농어촌	0.91	0.64	1.58	1.85	3.45	13.05	8.31	13.17	17.02	13.89	26.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	0.30	0.50	2.08	2.47	11.64	6.16	12.57	11.37	11.70	40.09	186.914 (30)***	
	중하층	0.66	0.42	1.22	1.19	2.41	10.10	8.73	12.70	17.86	14.50	30.21		
	중간층	0.80	0.64	0.92	1.48	3.80	15.07	12.66	14.20	16.21	13.90	20.31		
	중상층(상층)	1.32	0.64	1.10	1.22	3.76	11.56	12.67	15.17	16.63	12.20	23.7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8	0.47	1.26	2.57	3.97	16.32	9.14	12.60	15.27	11.68	25.74	92.215 (40)***	
	200만 원대	0.78	0.18	0.97	1.34	4.77	14.40	10.44	13.10	13.08	14.80	26.14		
	300만 원대	0.59	0.43	1.07	1.47	3.09	12.35	10.36	12.60	17.18	14.01	26.86		
	400만 원대	0.43	0.61	1.36	1.13	2.16	11.27	11.23	14.42	15.88	12.81	28.71		
	500만 원 이상	1.07	0.71	0.79	1.06	2.12	9.94	10.09	13.99	18.70	14.39	27.13		
학력	중졸 이하	1.46	0.00	1.67	1.66	4.66	11.12	11.32	5.84	12.74	14.13	35.40	16.331 (20)	
	고졸	0.63	0.45	1.05	1.37	3.10	12.64	9.63	13.62	16.51	13.35	27.65		
	대졸 이상	1.01	0.60	0.98	1.42	2.96	11.85	10.99	13.42	16.51	14.34	25.9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9	0.41	1.06	1.52	2.94	11.98	10.64	13.50	16.71	14.37	26.28	68.405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16	0.32	1.04	1.95	3.91	15.86	8.80	12.76	15.74	13.34	25.10		
	고용주, 자영자	1.75	0.92	1.81	0.76	2.39	8.34	9.32	13.60	15.31	14.91	30.88		
	무급가족 종사자	1.19	0.00	0.00	1.24	2.73	16.21	10.50	9.00	12.78	15.57	30.78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0.84	0.97	0.88	1.59	4.02	14.08	11.49	14.76	13.83	12.17	25.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3	0.70	1.45	1.23	2.80	10.49	10.77	12.96	16.52	15.39	26.16	32.614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7	0.47	1.06	1.50	2.65	11.96	10.37	14.05	16.15	13.67	27.34		
	숙련 및 기술직	0.34	0.16	0.88	1.35	4.09	14.37	10.42	11.50	16.41	15.88	24.58		
	단순노무 종사자	0.31	0.30	1.37	2.27	4.23	13.37	7.23	11.95	17.20	13.79	27.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0.54	0.33	1.09	1.72	2.92	12.05	11.19	13.81	16.85	14.22	25.29	28.209 (20)	
	무기계약직	0.47	0.87	1.25	0.39	3.02	11.10	7.14	10.98	14.92	18.20	31.65		
	비정규직	1.19	0.49	0.89	1.53	3.69	14.82	8.53	12.68	16.08	13.00	27.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1	0.83	2.20	2.54	2.85	11.37	11.08	11.16	15.95	13.93	25.89	153.872 (20)***	
	중도적	0.58	0.40	0.89	1.43	3.54	14.82	10.91	14.10	15.89	12.29	25.14		
	진보적	0.43	0.52	0.60	0.70	2.32	8.33	8.69	13.59	17.75	16.36	30.71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5〉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6.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83	0.45	0.68	1.13	2.70	10.01	8.20	13.30	17.07	16.23	29.40	
성별	남성	1.22	0.72	0.79	1.35	3.42	11.57	8.60	13.89	16.58	15.07	26.78	77.391 (10)***
	여성	0.42	0.17	0.56	0.90	1.94	8.37	7.78	12.68	17.58	17.45	32.16	
연령	20대 이하	1.49	0.39	0.39	2.07	4.76	14.57	10.69	16.00	16.10	11.73	21.82	291.900 (30)***
	30대	0.96	0.48	0.62	1.50	2.46	12.64	8.20	15.41	18.08	14.18	25.47	
	40대	0.67	0.34	1.03	0.61	1.43	8.15	7.67	12.29	16.66	18.24	32.91	
	50대	0.33	0.59	0.65	0.52	2.35	5.79	6.58	10.26	17.47	19.80	35.68	
지역1	수도권	1.01	0.42	0.91	0.88	2.65	9.82	7.72	14.06	16.01	15.62	30.90	27.329 (10)**
	비수도권	0.64	0.48	0.43	1.39	2.76	10.22	8.72	12.46	18.22	16.90	27.76	
지역2	대도시	0.87	0.53	0.62	1.19	2.61	9.91	7.79	14.71	17.73	15.31	28.74	22.380 (20)
	중소도시	0.70	0.40	0.66	0.94	2.59	10.12	8.53	12.17	16.26	17.21	30.43	
	농어촌	1.15	0.37	0.94	1.59	3.43	10.01	8.47	12.33	17.59	16.01	28.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8	0.17	1.00	0.48	2.71	9.16	4.55	9.36	10.02	15.59	45.07	266.382 (30)***
	중하층	0.48	0.45	0.48	1.07	1.98	7.16	7.00	13.20	18.14	17.52	32.52	
	중간층	0.87	0.53	0.71	1.26	2.96	13.97	10.21	13.98	17.57	15.24	22.69	
	중상층(상층)	1.29	0.44	1.27	1.65	5.54	7.79	9.98	15.73	17.87	14.63	23.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5	0.24	1.19	1.15	3.80	11.71	8.70	12.87	13.94	15.26	29.70	63.909 (40)**
	200만 원대	0.69	0.62	1.05	1.88	3.27	11.06	8.02	12.57	14.91	16.50	29.43	
	300만 원대	0.65	0.27	0.46	1.02	2.74	11.44	8.14	12.41	19.04	15.76	28.07	
	400만 원대	0.41	0.45	0.35	0.81	1.85	8.95	9.10	14.36	16.81	16.11	30.81	
	500만 원 이상	0.97	0.54	0.55	0.90	2.33	8.46	7.73	13.89	18.48	16.77	29.38	
학력	중졸 이하	1.46	1.67	1.66	1.65	3.05	8.29	9.39	7.84	12.42	14.13	38.45	26.201 (20)
	고졸	0.71	0.44	0.65	1.27	2.85	10.22	7.79	13.14	15.85	16.14	30.96	
	대졸 이상	0.97	0.44	0.70	0.95	2.52	9.81	8.66	13.62	18.63	16.39	27.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3	0.46	0.58	1.04	2.92	10.00	8.49	13.89	17.75	16.49	27.66	66.393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17	0.90	0.87	1.51	3.84	11.83	7.87	12.26	13.39	17.00	29.36	
	고용주, 자영자	1.34	0.58	1.41	1.11	2.25	9.00	6.42	12.75	16.34	17.16	31.63	
	무급가족 종사자	2.45	0.00	1.49	4.96	1.25	10.88	3.95	6.92	20.30	15.13	32.68	
	실업자	0.54	0.27	0.43	1.29	2.32	10.44	9.70	13.28	15.89	15.86	29.98	
	비경제활동인구	0.78	0.27	0.61	0.83	2.08	9.31	7.81	12.90	17.93	15.01	32.4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5	0.83	0.72	0.50	2.56	8.27	8.47	14.54	18.93	17.09	26.85	41.131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95	0.37	0.62	1.18	2.62	10.51	7.83	13.72	16.63	16.55	29.02	
	숙련 및 기술직	0.31	0.52	1.09	1.78	3.57	10.69	8.91	12.11	18.47	14.92	27.62	
	단순노무 종사자	0.61	1.02	1.07	1.81	5.17	10.90	7.28	10.36	12.48	19.27	30.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0.75	0.42	0.60	1.14	3.08	9.89	8.98	14.37	18.04	15.77	26.95	35.492 (20)*
	무기계약직	0.00	0.47	0.46	0.00	1.64	10.76	7.27	9.59	16.41	19.65	33.76	
	비정규직	1.20	0.90	0.77	1.35	3.41	11.45	6.77	12.41	14.00	18.30	29.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	0.72	1.10	1.38	3.91	7.85	8.98	14.13	16.85	15.74	27.30	152.038 (20)***
	중도적	0.63	0.22	0.81	1.33	3.12	12.61	8.85	13.74	15.77	15.10	27.81	
	진보적	0.52	0.69	0.22	0.63	1.29	6.71	6.63	12.05	19.44	18.46	33.33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6〉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7.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단위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전체		0.75	0.23	0.61	1.10	2.42	9.39	7.83	12.36	18.20	17.12	29.98	
성별	남성	1.09	0.31	0.69	1.27	2.80	10.43	8.75	12.79	17.35	15.87	28.66	44.790 (10)***
	여성	0.39	0.14	0.54	0.93	2.03	8.30	6.86	11.92	19.09	18.43	31.37	
연령	20대 이하	1.36	0.32	0.71	1.48	3.86	14.51	9.48	14.05	19.06	12.83	22.34	234.717 (30)***
	30대	1.03	0.20	0.55	1.38	2.33	11.55	8.01	13.88	18.06	15.02	27.99	
	40대	0.47	0.27	0.75	0.54	2.19	6.55	8.45	10.58	18.04	19.35	32.81	
	50대	0.26	0.13	0.45	1.10	1.49	6.00	5.67	11.43	17.72	20.33	35.41	
지역1	수도권	0.88	0.25	0.63	1.15	2.29	9.06	7.03	13.13	18.26	15.97	31.34	20.896 (10)*
	비수도권	0.60	0.21	0.60	1.05	2.57	9.75	8.69	11.53	18.13	18.37	28.50	
지역2	대도시	0.76	0.27	0.60	1.27	2.30	9.19	7.79	12.94	18.96	16.54	29.37	18.302 (20)
	중소도시	0.58	0.22	0.57	0.84	2.47	9.41	7.91	11.40	17.81	17.82	30.97	
	농어촌	1.27	0.12	0.82	1.46	2.67	10.04	7.68	13.75	16.88	16.65	28.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2	0.00	0.53	0.96	2.07	8.17	4.36	6.68	14.40	14.49	46.52	253.147 (30)***
	중하층	0.39	0.20	0.49	0.98	1.65	7.06	6.97	12.03	18.54	18.56	33.12	
	중간층	0.80	0.21	0.64	1.30	3.28	12.55	9.16	13.47	18.61	16.09	23.90	
	중상층(상층)	1.05	0.80	1.34	1.04	3.04	8.71	10.77	16.46	19.30	17.50	19.9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2	0.00	0.66	1.45	3.21	11.05	6.52	11.53	17.05	15.04	32.17	61.467 (40)*
	200만 원대	0.67	0.43	0.80	1.64	2.82	10.80	8.16	12.35	16.97	15.07	30.30	
	300만 원대	0.32	0.27	0.60	1.21	2.19	9.85	7.72	12.02	16.53	20.78	28.52	
	400만 원대	0.63	0.12	0.62	1.17	2.37	8.07	7.98	12.54	20.18	15.44	30.89	
	500만 원 이상	0.87	0.23	0.50	0.58	2.06	8.32	8.13	12.80	19.36	17.77	29.38	
학력	중졸 이하	1.46	0.00	4.98	0.00	1.39	9.69	6.34	6.15	9.41	20.78	39.79	41.894 (20)**
	고졸	0.65	0.30	0.55	1.09	2.63	9.65	7.35	11.71	17.83	16.94	31.29	
	대졸 이상	0.84	0.15	0.59	1.15	2.20	9.07	8.43	13.30	18.85	17.23	28.1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1	0.29	0.50	1.12	2.47	9.43	8.85	12.23	18.88	17.09	28.54	58.905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0.97	0.19	1.25	0.81	3.38	11.54	5.17	11.91	16.84	17.14	30.77	
	고용주, 자영자	1.48	0.00	0.21	1.97	2.15	8.65	6.80	11.87	15.64	19.65	31.58	
	무급가족 종사자	1.26	0.00	2.72	1.49	3.69	9.25	4.24	12.46	18.55	19.85	26.49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0.68	0.14	0.43	1.00	2.18	8.70	7.28	11.90	17.89	15.55	34.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2	0.11	0.70	1.32	1.83	10.10	7.55	13.25	17.59	19.29	26.95	36.815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3	0.28	0.48	1.22	2.24	9.18	8.23	12.50	18.70	16.83	29.62	
	숙련 및 기술직	0.34	0.16	0.56	0.84	4.06	10.44	7.87	11.66	17.16	17.67	29.25	
	단순노무 종사자	0.61	0.36	1.43	1.31	4.46	10.32	7.81	7.21	17.61	17.51	31.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0.56	0.27	0.54	1.23	2.33	9.48	9.26	12.45	19.12	16.93	27.83	32.182(20)*
	무기계약직	0.46	0.47	0.00	0.46	3.31	7.85	6.40	9.69	17.67	19.12	34.58	
	비정규직	1.05	0.25	1.04	0.71	3.36	11.26	5.57	12.03	16.98	17.07	30.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8	0.57	1.07	0.98	2.55	10.22	7.42	12.53	17.82	17.01	28.15	124.589 (20)***
	중도적	0.54	0.19	0.60	1.34	2.91	11.42	8.91	12.62	17.36	15.59	28.52	
	진보적	0.59	0.10	0.38	0.77	1.51	5.41	6.17	11.82	19.87	19.84	33.55	

주: “성공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줄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7〉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4.51	49.33	33.84	12.32	
성별	남성	5.58	50.80	31.49	12.13	29.087(3)***
	여성	3.38	47.77	36.32	12.53	
연령	20대 이하	5.84	49.86	34.24	10.06	34.487(9)***
	30대	3.41	46.45	37.43	12.72	
	40대	3.92	50.41	33.57	12.09	
	50대	4.81	50.14	30.88	14.17	
지역1	수도권	4.42	49.36	33.53	12.70	1.078(3)
	비수도권	4.61	49.29	34.19	11.91	
지역2	대도시	4.63	48.88	33.25	13.25	4.748(6)
	중소도시	4.51	49.88	34.05	11.56	
	농어촌	4.08	48.93	35.21	11.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98	31.55	32.27	31.20	423.417(9)***
	중하층	2.97	45.65	36.81	14.57	
	중간층	5.08	56.28	32.59	6.05	
	중상층(상층)	9.84	59.74	25.20	5.2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1	43.44	35.40	16.35	66.088(12)***
	200만 원대	3.55	46.88	35.26	14.31	
	300만 원대	3.34	46.50	36.80	13.36	
	400만 원대	5.29	50.12	32.81	11.77	
	500만 원 이상	5.23	54.18	31.26	9.33	
학력	중졸 이하	6.41	42.31	33.71	17.57	25.025(6)***
	고졸	4.81	47.18	34.23	13.79	
	대졸 이상	4.10	52.06	33.39	10.4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0	49.49	35.01	11.79	30.946(15)**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65	48.29	34.36	12.70	
	고용주, 자영자	7.42	49.73	29.89	12.97	
	무급가족 종사자	4.26	41.70	36.46	17.59	
	실업자	4.90	46.50	33.44	15.15	
	비경제활동인구	5.00	51.40	32.40	11.21	
직업	관리자, 전문가	5.50	51.66	31.94	10.90	35.747(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38	49.62	35.41	11.59	
	숙련 및 기술직	6.51	46.27	34.69	12.52	
	단순노무 종사자	4.61	45.26	30.60	19.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8	50.23	34.74	11.35	6.866(6)
	무기계약직	4.22	44.18	39.04	12.55	
	비정규직	4.32	47.77	34.23	13.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11	52.93	28.46	12.50	29.507(6)***
	중도적	3.56	48.51	35.75	12.18	
	진보적	5.25	48.73	33.54	12.48	

주: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8〉 일반적인 부모 세대 대비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χ^2 (df)
전체		3.67	58.48	32.07	5.78	
성별	남성	3.80	57.68	32.27	6.24	3.393(3)
	여성	3.53	59.31	31.85	5.30	
연령	20대 이하	4.90	52.36	35.85	6.90	73.727(9)***
	30대	3.14	53.47	37.20	6.20	
	40대	3.73	62.69	28.69	4.90	
	50대	3.00	63.69	27.96	5.35	
지역1	수도권	3.59	57.39	33.07	5.95	3.844(3)
	비수도권	3.76	59.66	30.98	5.60	
지역2	대도시	3.84	57.72	32.05	6.39	3.657(6)
	중소도시	3.53	59.06	32.12	5.30	
	농어촌	3.61	59.09	31.93	5.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6	48.12	29.34	18.47	228.696(9)***
	중하층	2.66	58.60	33.76	4.98	
	중간층	4.33	61.22	30.79	3.66	
	중상층(상층)	5.65	58.04	32.42	3.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6	52.36	34.17	8.90	46.116(12)***
	200만 원대	3.53	55.67	33.12	7.69	
	300만 원대	3.50	58.42	32.61	5.46	
	400만 원대	3.74	62.23	29.98	4.05	
	500만 원 이상	3.48	60.69	31.33	4.50	
학력	중졸 이하	2.84	59.80	30.98	6.38	13.092(6)*
	고졸	4.16	59.13	30.48	6.22	
	대졸 이상	3.11	57.66	33.99	5.2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4	59.00	32.14	5.52	17.745(15)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49	56.31	33.85	6.35	
	고용주, 자영자	4.02	60.29	30.43	5.26	
	무급가족 종사자	4.43	50.58	40.77	4.21	
	실업자	3.44	56.38	32.03	8.15	
	비경제활동인구	4.58	59.07	31.20	5.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4.14	58.50	33.06	4.30	18.531(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09	58.82	32.84	5.25	
	숙련 및 기술직	4.03	57.60	31.64	6.72	
	단순노무 종사자	3.67	59.68	27.23	9.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19	58.88	32.55	5.38	2.497(6)
	무기계약직	4.15	57.75	31.56	6.55	
	비정규직	3.70	57.81	32.22	6.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4.13	59.52	30.23	6.12	13.794(6)*
	중도적	3.01	57.65	33.46	5.87	
	진보적	4.56	59.32	30.67	5.45	

주: “귀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8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3-69〉 지난 10년 동안 가구 생활수준 변화

(단위 : %)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df)
전체		2.86	31.34	39.37	19.14	7.29	
성별	남성	2.89	30.56	40.41	18.70	7.44	3.887(4)
	여성	2.82	32.16	38.27	19.61	7.14	
연령	20대 이하	3.80	28.49	40.72	20.28	6.71	32.780(12)**
	30대	3.47	30.78	40.40	18.31	7.04	
	40대	2.25	34.11	38.91	18.48	6.25	
	50대	2.14	31.55	37.81	19.49	9.00	
지역1	수도권	3.30	31.51	37.52	19.76	7.91	14.912(4)**
	비수도권	2.38	31.15	41.38	18.47	6.62	
지역2	대도시	3.04	29.89	40.01	18.93	8.12	10.483(8)
	중소도시	2.76	32.46	39.18	19.24	6.37	
	농어촌	2.55	32.45	37.81	19.56	7.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4	9.83	28.98	26.55	34.20	1,305.464(12) ***
	중하층	1.06	26.46	40.94	24.81	6.73	
	중간층	3.78	38.97	43.55	12.01	1.69	
	중상층(상층)	11.84	50.34	23.41	12.26	2.1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2	15.15	36.74	28.64	17.76	583.293(16)***
	200만 원대	1.61	21.69	39.68	25.34	11.68	
	300만 원대	1.08	30.18	43.15	19.93	5.66	
	400만 원대	1.99	33.40	42.61	17.04	4.96	
	500만 원 이상	5.40	42.66	36.56	12.56	2.82	
학력	중졸 이하	1.65	23.59	28.24	21.61	24.91	57.795(8)***
	고졸	2.81	29.12	39.56	20.53	7.98	
	대졸 이상	2.94	34.17	39.40	17.44	6.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3	35.17	40.46	15.61	5.53	152.803(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84	28.22	34.09	26.59	8.26	
	고용주, 자영자	2.77	28.12	39.94	19.73	9.43	
	무급가족 종사자	0.00	33.15	32.21	26.45	8.19	
	실업자	0.99	23.32	37.14	25.72	12.84	
	비경제활동인구	3.21	28.84	40.62	20.19	7.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4.00	40.62	36.48	12.94	5.96	55.38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3	32.82	39.20	18.67	6.18	
	숙련 및 기술직	2.14	28.68	45.15	17.47	6.56	
	단순노무 종사자	1.85	26.99	37.45	24.10	9.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17	36.45	40.16	15.12	5.10	61.653(8)***
	무기계약직	5.53	25.36	39.98	22.30	6.82	
	비정규직	2.45	28.82	36.97	23.20	8.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7	34.01	36.06	18.82	7.54	81.277(8)***
	중도적	2.03	27.51	43.64	19.43	7.39	
	진보적	3.89	36.49	33.80	18.83	6.99	

주: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0〉 앞으로 10년 이내 가구 생활수준 전망

(단위 : %)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df)
전체		3.49	30.28	43.18	19.20	3.85	
성별	남성	3.57	30.55	41.78	20.01	4.08	6.139(4)
	여성	3.40	29.99	44.65	18.35	3.60	
연령	20대 이하	5.79	31.77	44.31	14.90	3.22	174.336(12)***
	30대	4.02	33.59	43.61	15.03	3.74	
	40대	3.26	31.86	44.09	17.65	3.13	
	50대	1.30	24.82	41.00	27.72	5.17	
지역1	수도권	3.86	30.99	42.01	19.24	3.89	5.941(4)
	비수도권	3.08	29.50	44.46	19.16	3.80	
지역2	대도시	3.30	30.93	41.58	20.09	4.11	11.053(8)
	중소도시	3.47	29.57	44.71	18.88	3.36	
	농어촌	4.18	30.51	43.43	17.23	4.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2	17.27	35.49	24.90	19.71	654.099(12)***
	중하층	2.13	29.09	43.42	22.49	2.86	
	중간층	4.10	33.54	46.66	14.61	1.08	
	중상층(상층)	9.37	38.42	34.79	15.50	1.9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6	23.43	39.22	24.50	9.39	178.393(16)***
	200만 원대	2.21	26.39	43.73	22.30	5.38	
	300만 원대	3.19	28.16	46.39	19.36	2.91	
	400만 원대	3.70	31.46	44.88	17.06	2.90	
	500만 원 이상	4.29	35.74	41.79	16.34	1.84	
학력	중졸 이하	3.05	20.16	42.71	19.67	14.41	38.870(8)***
	고졸	3.54	28.28	43.57	20.45	4.15	
	대졸 이상	3.43	32.91	42.73	17.70	3.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1	32.46	43.82	17.76	2.75	78.323(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98	28.59	40.02	23.46	3.95	
	고용주, 자영자	4.09	33.23	38.41	19.89	4.37	
	무급가족 종사자	0.00	20.22	50.51	22.10	7.18	
	실업자	3.45	26.11	40.97	21.92	7.55	
	비경제활동인구	3.96	27.04	46.15	18.79	4.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4.51	37.37	38.79	16.56	2.77	47.13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9	31.81	43.91	18.25	3.04	
	숙련 및 기술직	2.65	28.02	44.60	21.92	2.82	
	단순노무 종사자	4.88	24.60	39.96	24.20	6.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27	32.86	43.62	17.53	2.72	13.964(8)
	무기계약직	3.79	26.83	46.22	20.49	2.67	
	비정규직	3.40	30.00	41.02	21.82	3.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8	32.48	37.90	21.18	4.67	63.858(8)***
	중도적	2.93	27.19	47.53	18.46	3.89	
	진보적	4.30	34.42	38.58	19.38	3.32	

주: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30.93	39.41	21.62	6.73	1.31	
성별	남성	29.64	36.99	24.68	7.04	1.65	46.202(4)***
	여성	32.28	41.94	18.41	6.40	0.96	
연령	20대 이하	25.19	38.91	24.94	8.57	2.39	74.846(12)***
	30대	30.37	37.86	22.81	7.45	1.51	
	40대	33.69	39.29	19.96	6.18	0.88	
	50대	33.64	41.19	19.43	5.08	0.66	
지역1	수도권	32.48	39.10	20.73	6.36	1.34	9.034(4)
	비수도권	29.24	39.75	22.60	7.13	1.29	
지역2	대도시	31.31	38.78	21.44	6.98	1.50	3.727(8)
	중소도시	30.76	39.64	21.77	6.73	1.10	
	농어촌	30.21	40.78	21.76	5.82	1.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10	26.56	15.62	3.31	1.41	325.884(12)***
	중하층	34.36	41.82	17.84	5.07	0.91	
	중간층	23.21	39.70	27.10	8.60	1.39	
	중상층(상층)	19.78	41.47	24.12	11.52	3.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90	33.22	21.25	5.87	1.75	65.326(16)***
	200만 원대	32.04	38.86	22.62	5.51	0.97	
	300만 원대	31.79	39.35	22.88	4.86	1.13	
	400만 원대	31.40	39.51	21.62	6.25	1.22	
	500만 원 이상	26.95	42.06	20.49	9.01	1.49	
학력	중졸 이하	30.83	37.03	22.65	4.74	4.75	39.629(8)***
	고졸	33.63	37.83	21.70	5.70	1.14	
	대졸 이상	27.71	41.34	21.51	8.00	1.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55	40.82	22.48	6.88	1.27	32.188(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34.56	37.57	19.82	6.51	1.55	
	고용주, 자영자	37.42	36.41	19.00	6.41	0.76	
	무급가족 종사자	41.45	36.75	15.22	5.39	1.19	
	실업자	32.86	39.33	19.92	6.65	1.24	
	비경제활동인구	30.60	38.16	22.89	6.71	1.6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7.24	40.21	22.63	8.57	1.34	30.81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0.31	40.60	20.96	6.92	1.22	
	숙련 및 기술직	32.45	37.91	24.06	4.78	0.80	
	단순노무 종사자	39.76	35.19	18.79	4.28	1.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7.53	40.54	23.43	7.15	1.34	24.742(8)**
	무기계약직	34.25	44.38	15.86	4.66	0.85	
	비정규직	34.57	38.32	19.38	6.37	1.3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46	40.57	16.52	7.20	2.26	87.345(8)***
	중도적	28.82	37.97	26.07	6.11	1.02	
	진보적	33.18	41.25	16.74	7.54	1.29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2〉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단위 : %)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24.34	39.91	26.88	7.28	1.59	
성별	남성	25.92	40.46	25.44	6.65	1.53	15.516(4)**
	여성	22.67	39.34	28.40	7.94	1.65	
연령	20대 이하	23.15	37.81	27.42	9.22	2.39	32.549(12)**
	30대	25.15	37.48	27.99	7.54	1.84	
	40대	24.81	41.20	26.37	6.40	1.22	
	50대	24.24	42.43	26.02	6.26	1.05	
지역1	수도권	25.53	39.02	26.59	7.33	1.54	5.484(4)
	비수도권	23.03	40.89	27.21	7.23	1.64	
지역2	대도시	24.54	39.48	27.32	6.93	1.73	3.157(8)
	중소도시	24.17	39.93	26.61	7.76	1.52	
	농어촌	24.22	41.35	26.31	6.82	1.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65	31.44	19.11	3.20	1.61	304.986(12)***
	중하층	26.96	42.24	24.09	5.67	1.04	
	중간층	17.47	39.61	32.13	8.71	2.07	
	중상층(상층)	16.09	39.54	27.20	14.92	2.2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25	36.23	24.72	7.23	1.57	53.493(16)***
	200만 원대	26.57	39.09	27.25	5.79	1.29	
	300만 원대	25.56	41.27	26.45	5.47	1.24	
	400만 원대	23.00	37.86	29.15	8.23	1.76	
	500만 원 이상	20.75	41.95	26.70	8.73	1.88	
학력	중졸 이하	28.00	43.73	18.79	6.38	3.10	33.763(8)***
	고졸	26.31	38.43	27.68	6.15	1.43	
	대졸 이상	21.89	41.59	26.13	8.65	1.7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38	40.81	27.38	6.88	1.55	44.419(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8.11	38.58	22.97	8.94	1.41	
	고용주, 자영자	27.83	42.19	24.01	5.18	0.79	
	무급가족 종사자	35.05	32.73	25.59	5.44	1.19	
	실업자	26.80	38.02	25.87	8.01	1.30	
	비경제활동인구	21.19	38.71	29.56	8.19	2.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1.63	40.69	27.18	8.69	1.80	33.69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4.31	40.04	27.08	7.26	1.30	
	숙련 및 기술직	26.98	43.30	24.69	3.88	1.15	
	단순노무 종사자	32.72	38.91	21.03	5.32	2.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22.99	40.53	27.78	7.10	1.59	18.274(8)*
	무기계약직	22.57	43.36	28.37	4.84	0.86	
	비정규직	28.33	39.35	22.58	8.24	1.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28	42.15	22.58	5.90	2.09	64.505(8)***
	중도적	22.98	38.16	30.81	6.70	1.35	
	진보적	25.05	41.70	22.47	9.06	1.72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3〉 현재 우리 사회 신뢰도 평가

(단위 : %)

		→										X ² (df)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41	2.28	5.12	10.81	9.74	29.50	15.95	14.31	6.41	0.86	0.61	
성별	남성	4.81	2.44	5.01	10.43	9.41	28.33	15.99	15.38	6.53	0.86	0.82	17.486 (10)
	여성	3.99	2.10	5.22	11.22	10.09	30.72	15.92	13.19	6.29	0.86	0.39	
연령	20대 이하	4.85	2.57	5.98	13.48	12.86	27.00	14.34	13.33	4.06	0.90	0.65	93.299 (30)***
	30대	5.54	2.47	4.51	10.99	9.96	29.57	15.64	13.72	6.93	0.47	0.20	
	40대	3.46	1.77	4.89	8.90	7.70	32.63	16.48	15.47	6.87	1.16	0.68	
	50대	4.05	2.36	5.08	10.23	8.87	28.55	17.08	14.53	7.56	0.85	0.85	
지역1	수도권	4.29	2.62	5.95	11.44	8.80	28.16	15.92	14.64	6.73	0.91	0.53	27.199 (10)**
	비수도권	4.55	1.90	4.20	10.12	10.77	30.95	15.99	13.95	6.06	0.80	0.70	
지역2	대도시	4.35	2.56	4.96	10.32	9.33	29.26	15.85	15.61	6.43	1.02	0.34	32.283 (20)*
	중소도시	4.61	1.81	5.26	11.71	9.76	29.10	16.54	13.04	6.63	0.83	0.70	
	농어촌	3.96	2.92	5.14	9.38	11.12	31.73	14.27	14.28	5.55	0.41	1.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55	5.27	8.31	13.63	8.27	26.51	7.71	8.42	4.36	0.64	1.31	545.034 (30)***
	중하층	4.25	2.57	5.76	13.41	11.65	30.16	14.23	12.14	5.07	0.37	0.41	
	중간층	2.22	1.20	3.73	7.47	8.57	31.56	19.77	16.37	7.46	1.12	0.53	
	중상층(상층)	1.26	1.94	4.01	8.78	6.65	19.37	17.94	24.46	11.65	2.67	1.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60	3.05	6.30	10.32	9.89	32.56	10.53	13.05	5.22	0.74	0.75	132.771 (40)***
	200만 원대	5.78	2.10	5.06	11.93	10.01	32.31	14.21	13.06	4.39	0.53	0.62	
	300만 원대	4.10	2.65	5.74	11.51	9.56	31.75	15.67	12.16	5.45	0.87	0.53	
	400만 원대	3.61	2.03	4.19	10.65	9.83	30.02	17.26	13.51	7.18	1.14	0.58	
	500만 원 이상	2.97	1.98	4.77	10.05	9.60	25.22	18.56	17.09	8.19	0.95	0.61	
학력	중졸 이하	6.21	3.04	9.38	12.42	4.72	38.97	7.80	9.68	4.68	0.00	3.10	87.302 (20)***
	고졸	5.43	1.97	4.82	11.34	10.11	31.91	14.42	12.88	5.64	0.83	0.66	
	대졸 이상	3.16	2.62	5.36	10.14	9.43	26.39	17.98	16.13	7.37	0.92	0.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1	1.85	5.04	10.19	8.92	28.52	17.41	15.99	6.75	0.89	0.64	97.425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23	3.19	5.54	11.05	10.51	31.61	13.02	12.58	5.64	0.92	0.71	
	고용주, 자영자	5.27	3.13	3.75	9.90	7.66	33.14	13.87	13.57	8.69	0.20	0.82	
	무급가족 종사자	4.09	2.70	5.77	8.06	11.33	30.88	15.50	14.70	2.49	4.48	0.00	
	실업자	5.56	2.74	6.86	13.02	13.24	26.30	14.40	11.65	5.66	0.30	0.27	
비경제활동인구	4.55	2.24	4.66	11.64	10.34	31.19	15.45	12.60	5.51	1.17	0.6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76	2.66	5.42	10.71	8.01	25.30	19.01	16.13	8.10	1.12	0.79	59.422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7	1.80	4.98	10.30	8.87	29.45	16.47	15.66	6.91	0.85	0.53	
	숙련 및 기술직	4.70	2.28	4.15	8.99	10.16	34.07	15.21	14.06	4.64	0.90	0.83	
	단순노무 종사자	7.07	4.24	5.05	10.77	10.70	32.93	10.43	11.22	6.26	0.30	1.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70	1.57	5.09	10.10	8.87	28.22	17.55	16.42	6.92	0.96	0.60	36.463 (20)*
	무기계약직	2.88	2.11	6.03	9.32	10.01	31.95	15.38	15.27	5.84	0.46	0.75	
	비정규직	5.46	3.68	4.94	11.38	9.90	30.70	14.37	12.33	5.65	0.80	0.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0	2.38	8.25	13.25	9.88	25.70	14.14	13.10	6.66	0.66	0.48	254.322 (20)***
	중도적	5.16	2.17	4.78	11.21	10.18	34.24	15.43	11.36	4.49	0.64	0.33	
	진보적	2.49	2.41	3.95	8.75	8.90	23.37	17.88	20.12	9.60	1.35	1.17	

주: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4〉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

(단위 : %)

		→										X ² (df)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5.51	2.55	4.61	9.67	9.94	30.10	12.46	14.45	7.91	1.82	0.97	
성별	남성	6.12	2.33	4.52	8.99	9.47	29.59	13.04	14.81	7.88	1.93	1.32	21.269 (10)*
	여성	4.86	2.79	4.71	10.39	10.43	30.64	11.84	14.08	7.94	1.71	0.61	
연령	20대 이하	5.55	1.61	5.50	10.00	9.93	28.55	12.31	14.56	8.33	2.00	1.68	47.230 (30)*
	30대	6.15	2.73	4.38	9.82	9.27	30.52	13.01	14.84	6.83	1.71	0.74	
	40대	4.82	2.51	3.60	8.51	9.93	32.56	12.61	15.05	8.26	1.28	0.87	
	50대	5.62	3.26	5.01	10.38	10.50	28.73	12.00	13.49	8.08	2.28	0.65	
지역1	수도권	6.16	2.76	4.93	10.09	10.30	28.33	12.01	14.91	7.69	2.01	0.80	22.258 (10)*
	비수도권	4.79	2.33	4.27	9.21	9.55	32.03	12.95	13.96	8.14	1.61	1.16	
지역2	대도시	5.53	2.95	5.18	8.91	9.53	28.84	13.18	14.70	8.18	2.04	0.97	31.285 (20)
	중소도시	5.60	1.97	4.34	10.63	10.02	30.70	12.31	14.16	7.85	1.66	0.76	
	농어촌	5.11	3.24	3.59	8.92	11.08	32.43	10.47	14.65	7.16	1.63	1.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21	10.42	11.11	13.61	7.06	20.69	4.57	3.80	1.63	0.79	1.11	1,672.7 67 (30)***
	중하층	4.99	2.45	5.87	13.83	13.77	32.20	10.33	10.40	4.78	0.91	0.48	
	중간층	1.70	1.02	2.09	5.25	7.02	32.95	17.56	19.33	9.95	2.21	0.92	
	중상층(상층)	0.88	0.20	1.23	2.50	6.42	16.50	9.85	27.83	24.14	6.56	3.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03	5.56	6.84	11.78	8.86	31.30	8.25	8.46	4.16	1.53	1.22	421.075 (40)***
	200만 원대	8.15	2.50	6.01	11.14	11.71	33.40	10.28	9.84	5.55	0.51	0.91	
	300만 원대	4.36	3.36	4.26	11.54	12.27	30.59	12.81	13.45	5.26	1.35	0.78	
	400만 원대	4.24	1.96	4.32	9.07	10.18	29.91	12.74	16.65	7.95	1.94	1.05	
	500만 원 이상	2.77	1.26	3.30	7.26	7.92	27.59	14.96	18.90	12.14	2.89	0.99	
학력	중졸 이하	13.65	4.93	2.79	19.14	9.45	28.44	4.99	7.16	3.04	3.29	3.10	124.675 (20)***
	고졸	7.11	2.63	5.41	10.39	10.21	31.04	11.37	12.24	7.19	1.45	0.95	
	대졸 이상	3.40	2.40	3.70	8.58	9.63	29.02	13.94	17.27	8.88	2.23	0.9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95	1.72	3.49	8.63	9.39	29.87	14.65	16.81	8.40	2.13	0.97	238.203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11	3.40	4.84	9.44	12.64	30.10	13.33	11.53	6.70	1.76	1.16	
	고용주, 자영자	7.42	2.72	6.87	10.03	10.04	33.29	8.19	11.72	7.26	1.72	0.75	
	무급가족 종사자	5.47	5.98	6.47	11.17	8.38	30.70	13.74	12.39	2.73	2.97	0.00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1.63	4.47	7.84	14.91	9.79	27.46	7.64	9.18	5.64	0.30	1.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2.92	1.99	2.35	6.66	8.00	27.66	15.66	21.01	9.81	2.96	0.99	91.113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90	1.97	4.70	9.63	10.35	29.30	13.76	14.70	7.94	1.91	0.85	
	숙련 및 기술직	3.81	2.80	3.88	8.57	10.11	37.13	12.70	12.97	5.49	1.55	0.99	
	단순노무 종사자	7.67	2.71	4.93	10.26	10.63	32.92	9.15	10.82	7.62	1.67	1.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60	1.56	3.14	8.82	9.26	29.87	14.99	16.86	8.70	2.30	0.91	48.531 (20)***
	무기계약직	4.29	2.13	5.58	7.73	12.17	28.14	13.98	16.89	6.56	0.46	2.06	
	비정규직	5.84	3.34	5.01	8.86	11.32	30.54	12.77	12.80	6.75	1.80	0.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5	3.25	4.31	10.11	11.72	26.80	11.70	13.30	8.54	2.29	1.14	121.866 (20)***
	중도적	5.42	2.46	4.80	10.13	9.83	34.03	11.91	13.58	5.93	1.34	0.58	
	진보적	4.91	2.32	4.46	8.63	9.13	25.12	13.85	16.62	11.00	2.40	1.56	

주: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5〉 어제 행복한 정도

(단위 :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X ² (df)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42	2.34	3.76	7.06	7.71	29.49	12.55	15.00	11.32	3.40	2.95	
성별	남성	4.98	2.14	3.62	6.88	7.75	29.60	12.99	15.83	10.19	3.19	2.83	18.318 (10)*
	여성	3.82	2.55	3.90	7.25	7.66	29.38	12.10	14.14	12.50	3.62	3.08	
연령	20대 이하	4.78	2.13	4.33	7.54	7.80	28.62	11.02	16.58	9.15	3.60	4.44	60.043 (30)***
	30대	5.48	2.67	4.03	7.84	6.07	30.24	12.50	15.00	10.51	3.27	2.38	
	40대	3.73	2.23	2.99	6.92	8.22	30.36	12.76	14.03	12.19	3.46	3.10	
	50대	3.92	2.35	3.78	6.15	8.45	28.80	13.71	14.60	12.98	3.27	2.00	
지역1	수도권	4.69	2.69	4.25	7.22	7.97	29.13	12.00	14.63	11.01	3.74	2.68	16.469 (10)
	비수도권	4.12	1.96	3.22	6.88	7.42	29.89	13.16	15.41	11.65	3.03	3.25	
지역2	대도시	4.45	2.65	3.94	6.57	7.43	28.49	13.33	14.73	11.76	3.85	2.80	24.010 (20)
	중소도시	4.63	1.95	3.74	7.51	7.37	30.07	12.37	15.02	11.19	3.10	3.04	
	농어촌	3.54	2.61	3.19	7.17	9.87	30.97	10.47	15.92	10.23	2.86	3.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24	8.46	9.55	10.39	6.12	27.28	5.69	4.84	4.14	1.10	2.21	1,172.3 45 (30)***
	중하층	3.83	2.21	4.77	9.41	10.94	31.63	12.16	12.56	8.14	2.52	1.83	
	중간층	1.39	1.22	1.66	4.28	5.23	30.57	15.00	18.53	14.81	4.09	3.22	
	중상층(상층)	1.51	0.43	0.60	2.95	3.67	14.79	11.85	25.20	21.80	8.12	9.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53	5.25	6.09	9.28	7.36	31.24	9.65	10.45	7.23	1.06	2.85	360.257 (40)***
	200만 원대	6.56	2.65	4.81	9.09	8.49	33.35	11.25	11.69	7.25	2.26	2.60	
	300만 원대	3.53	1.45	4.18	7.76	8.51	32.14	12.93	13.34	10.35	2.94	2.88	
	400만 원대	3.14	2.32	3.16	4.85	8.05	31.61	13.35	14.51	12.60	3.36	3.06	
	500만 원 이상	2.35	1.57	2.31	5.69	6.79	24.17	13.81	19.78	15.13	5.21	3.19	
학력	중졸 이하	12.23	4.71	6.36	10.34	8.30	25.44	6.64	8.77	9.16	3.29	4.77	118.139 (20)***
	고졸	5.53	2.59	4.11	7.62	7.60	31.99	12.13	13.16	9.27	2.84	3.18	
	대졸 이상	2.90	1.99	3.27	6.31	7.83	26.62	13.20	17.35	13.82	4.07	2.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2	1.36	2.83	6.28	7.48	28.60	14.12	16.60	12.82	3.76	2.83	209.765 (5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95	3.01	4.32	8.18	9.56	28.75	11.34	14.89	8.42	3.20	3.39	
	고용주, 자영자	6.76	3.16	3.20	6.39	7.48	33.44	11.93	13.46	8.97	2.54	2.67	
	무급가족 종사자	5.66	6.83	4.21	5.21	8.37	31.21	10.80	13.38	6.92	2.99	4.42	
	실업자	7.82	5.18	7.50	11.74	7.94	28.30	9.30	10.57	7.17	1.91	2.57	
비경제활동인구	3.86	2.26	3.96	6.20	7.32	31.03	11.33	14.27	12.60	3.86	3.3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49	1.81	2.16	6.59	6.06	22.50	14.17	19.93	16.71	4.41	3.18	101.516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47	1.83	3.13	6.59	8.22	29.94	13.39	15.16	10.97	3.59	2.71	
	숙련 및 기술직	2.70	1.79	3.59	5.20	8.03	35.39	15.52	13.99	8.28	2.78	2.72	
	단순노무 종사자	6.85	2.98	4.36	8.51	8.20	29.81	7.48	15.26	10.29	1.97	4.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3.22	1.29	2.39	6.09	7.68	28.55	14.34	17.01	12.78	3.91	2.74	46.311 (20)***
	무기계약직	3.30	1.30	5.21	8.24	7.32	28.04	11.53	17.90	11.13	1.72	4.31	
	비정규직	4.84	2.78	4.63	7.74	8.39	29.04	12.13	13.63	10.27	3.45	3.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89	2.76	3.74	6.63	8.24	27.38	10.83	15.01	11.47	4.45	3.60	125.131 (20)***
	중도적	4.22	2.19	3.82	7.86	7.74	33.49	12.92	13.74	9.22	2.40	2.42	
	진보적	3.94	2.37	3.66	5.91	7.35	23.74	12.88	17.21	14.88	4.54	3.52	

주: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6〉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단위 : %)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df)
전체		11.91	60.08	24.07	3.93	
성별	남성	12.85	57.32	25.09	4.75	25.991(3)***
	여성	10.93	62.99	23.01	3.07	
연령	20대 이하	7.97	59.00	27.60	5.42	82.381(9)***
	30대	9.22	61.42	24.96	4.39	
	40대	13.60	61.31	22.43	2.65	
	50대	15.82	58.75	21.91	3.52	
지역1	수도권	10.70	59.81	25.23	4.26	13.742(3)**
	비수도권	13.23	60.38	22.81	3.57	
지역2	대도시	11.86	60.59	23.59	3.96	2.025(6)
	중소도시	11.86	60.20	24.15	3.78	
	농어촌	12.28	57.91	25.47	4.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6	44.70	32.56	12.48	202.525(9)***
	중하층	11.53	60.27	24.90	3.30	
	중간층	11.83	64.69	21.09	2.39	
	중상층(상층)	16.74	56.80	22.71	3.7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3	54.44	27.58	5.85	41.123(12)***
	200만 원대	10.54	58.38	26.33	4.75	
	300만 원대	11.59	59.11	26.16	3.13	
	400만 원대	11.99	63.69	20.96	3.36	
	500만 원 이상	12.75	62.08	21.72	3.45	
학력	중졸 이하	25.95	46.83	21.22	6.00	23.848(6)***
	고졸	11.89	58.48	25.47	4.15	
	대졸 이상	11.59	62.32	22.47	3.6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9	61.09	23.32	3.60	28.029(15)*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0.92	58.04	27.82	3.22	
	고용주, 자영자	16.55	55.55	23.41	4.49	
	무급가족 종사자	13.80	55.61	26.60	3.99	
	실업자	10.06	58.95	25.32	5.68	
	비경제활동인구	11.01	61.51	23.61	3.88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57	60.99	22.29	3.15	20.134(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19	61.34	23.87	3.60	
	숙련 및 기술직	15.38	56.40	24.30	3.92	
	단순노무 종사자	14.21	51.79	28.92	5.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73	61.47	23.15	3.65	8.472(6)
	무기계약직	14.86	59.80	22.90	2.44	
	비정규직	11.24	58.01	27.26	3.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3	55.83	23.89	6.06	175.889(6)***
	중도적	7.67	60.78	27.68	3.87	
	진보적	17.99	61.25	17.91	2.86	

주: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9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Ⅶ): 사회통합과 사회이동(2)

〈부표 3-77〉 이념적 성향

(단위 : %)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X ² (df)
전체		1.82	15.14	52.70	26.76	3.58	
성별	남성	2.08	17.01	49.43	27.41	4.08	35.255(4)***
	여성	1.56	13.18	56.14	26.07	3.05	
연령	20대 이하	2.32	15.08	55.36	24.29	2.96	83.410(12)***
	30대	1.92	13.79	55.27	25.68	3.34	
	40대	1.29	11.20	55.37	28.78	3.37	
	50대	1.83	20.08	45.79	27.79	4.51	
지역1	수도권	1.85	15.57	53.22	25.73	3.63	3.775(4)
	비수도권	1.79	14.68	52.13	27.87	3.52	
지역2	대도시	1.80	15.44	52.27	27.07	3.42	1.907(8)
	중소도시	1.91	15.16	52.96	26.27	3.70	
	농어촌	1.59	14.04	53.28	27.37	3.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6	14.63	54.42	20.73	5.86	121.178(12)***
	중하층	1.69	15.71	51.08	27.96	3.57	
	중간층	1.16	13.65	57.48	24.90	2.81	
	중상층(상층)	2.45	20.05	35.78	37.31	4.4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58	13.78	55.59	24.31	3.74	51.959(16)***
	200만 원대	2.45	15.52	56.05	23.37	2.62	
	300만 원대	1.49	14.47	56.01	23.55	4.48	
	400만 원대	1.58	14.40	51.67	28.96	3.39	
	500만 원 이상	1.48	16.17	48.31	30.40	3.64	
학력	중졸 이하	1.68	25.52	48.95	17.43	6.41	52.494(8)***
	고졸	1.91	14.07	56.11	24.04	3.88	
	대졸 이상	1.71	16.18	48.72	30.23	3.1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	15.02	51.09	28.96	3.40	62.739(2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2.55	17.60	49.99	25.87	3.99	
	고용주, 자영자	2.54	19.96	45.91	26.49	5.10	
	무급가족 종사자	0.00	12.63	66.87	17.94	2.55	
	실업자	2.34	12.80	54.80	26.57	3.49	
	비경제활동인구	1.73	13.54	59.38	22.09	3.26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1	17.89	47.39	27.93	4.78	15.99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8	14.81	51.37	28.86	3.29	
	숙련 및 기술직	1.69	17.06	52.52	24.53	4.20	
	단순노무 종사자	1.97	18.13	48.51	28.40	2.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1	14.69	51.25	29.14	3.40	11.440(8)
	무기계약직	2.64	19.59	44.83	29.89	3.05	
	비정규직	1.98	16.63	51.61	25.85	3.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74	89.26	0.00	0.00	0.00	12,000.000(8)***
	중도적	0.00	0.00	100.00	0.00	0.00	
	진보적	0.00	0.00	0.00	88.20	11.80	

주: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8〉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df)
전체		10.32	43.88	38.17	7.44	0.19	
성별	남성	12.03	41.97	37.36	8.41	0.24	32.691(4) ***
	여성	8.53	45.90	39.03	6.41	0.13	
연령	20대 이하	7.75	37.49	42.60	11.58	0.58	121.020(12) ***
	30대	9.83	42.66	40.93	6.44	0.14	
	40대	10.73	46.41	37.25	5.61	0.00	
	50대	12.53	47.91	33.04	6.45	0.07	
지역1	수도권	10.15	43.63	38.08	7.97	0.18	3.006(4)
	비수도권	10.52	44.16	38.27	6.85	0.20	
지역2	대도시	11.12	41.73	39.01	7.93	0.21	22.646(8) **
	중소도시	9.91	44.28	37.97	7.70	0.14	
	농어촌	8.97	50.05	35.95	4.76	0.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00	0.00	0.00	0.00	0.00	17,997.000(12) ***
	중하층	0.00	100.00	0.00	0.00	0.00	
	중간층	0.00	0.00	100.00	0.00	0.0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97.56	2.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92	44.27	19.12	2.70	0.00	1,279.089(16) ***
	200만 원대	14.77	56.63	26.15	2.37	0.08	
	300만 원대	8.53	54.10	34.26	3.03	0.08	
	400만 원대	5.43	46.39	42.96	5.12	0.10	
	500만 원 이상	2.10	29.61	52.21	15.66	0.42	
학력	중졸 이하	35.61	42.57	18.71	1.65	1.46	319.493(8) ***
	고졸	14.17	48.22	32.04	5.42	0.14	
	대졸 이상	5.12	38.74	45.96	9.98	0.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5	42.64	42.20	7.92	0.09	181.239(20) ***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16.96	49.18	28.04	5.65	0.17	
	고용주, 자영자	11.79	45.76	35.90	6.38	0.17	
	무급가족 종사자	16.90	41.88	38.52	2.71	0.00	
	실업자	17.59	49.61	28.21	4.18	0.41	
	비경제활동인구	10.02	40.39	39.47	9.78	0.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4.98	34.19	47.05	13.56	0.23	195.416(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36	44.97	40.35	6.28	0.04	
	숙련 및 기술직	12.24	49.49	33.53	4.59	0.15	
	단순노무 종사자	21.79	49.86	23.19	4.85	0.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 자)	정규직	6.59	41.27	43.58	8.49	0.07	113.508(8) ***
	무기계약직	8.72	49.62	36.84	4.44	0.38	
	비정규직	15.64	49.81	28.98	5.44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55	45.00	33.33	9.65	0.47	84.617(8) ***
	중도적	10.66	42.53	41.63	5.09	0.09	
	진보적	9.05	45.60	34.87	10.28	0.20	

주: “우리 사회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족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록 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사회이동인식 조사

〈부표 4-1〉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Having a secure job	55%	28%	23%	60%	66%	52%	16%	25%	20%	41%	22%	68%	35%	19%	26%	26%	56%	22%	75%	73%	52%	34%	35%	64%	47%	48%	21%	22%	22%	40%	31%
Having a successful career	66%	41%	28%	67%	69%	69%	25%	45%	33%	36%	49%	76%	55%	36%	27%	27%	69%	36%	84%	74%	67%	59%	50%	67%	55%	63%	40%	33%	40%	52%	37%
Having enough money to live well	54%	32%	24%	60%	74%	51%	18%	29%	22%	37%	26%	75%	32%	25%	22%	22%	48%	30%	71%	66%	59%	43%	44%	62%	45%	51%	23%	26%	32%	45%	28%
Having a good education	68%	65%	55%	70%	85%	72%	39%	57%	55%	70%	31%	84%	40%	61%	51%	81%	72%	42%	82%	81%	74%	54%	42%	74%	85%	72%	74%	60%	57%	55%	55%
Being free to be true to yourself	73%	59%	43%	69%	76%	70%	42%	59%	61%	57%	59%	71%	65%	59%	41%	62%	71%	51%	73%	79%	71%	72%	40%	67%	63%	68%	53%	53%	49%	53%	53%
Having access to information	84%	84%	77%	84%	86%	84%	66%	78%	83%	82%	79%	83%	87%	76%	78%	82%	84%	80%	81%	90%	87%	86%	77%	78%	86%	86%	84%	78%	78%	81%	81%
Having access to entertainment like film, music, books	78%	82%	76%	79%	85%	79%	70%	80%	85%	78%	78%	86%	83%	78%	73%	80%	83%	78%	76%	88%	86%	85%	77%	73%	83%	82%	83%	75%	78%	83%	79%
Being able to travel abroad	59%	68%	54%	63%	69%	66%	53%	71%	62%	69%	64%	79%	76%	69%	53%	67%	58%	66%	72%	79%	84%	79%	66%	65%	80%	72%	79%	67%	54%	71%	41%
Being able to own your own home	51%	19%	23%	64%	70%	55%	20%	28%	14%	34%	24%	72%	18%	26%	26%	53%	54%	20%	70%	69%	48%	37%	43%	61%	43%	49%	28%	22%	24%	42%	28%
Being safe from crime or harm	41%	25%	22%	51%	60%	45%	18%	25%	18%	35%	15%	57%	31%	18%	27%	53%	35%	19%	57%	53%	39%	37%	30%	64%	54%	35%	28%	22%	38%	19%	19%
Being able to live comfortably when you retire from work	54%	31%	20%	55%	70%	47%	13%	20%	19%	37%	16%	69%	37%	17%	22%	60%	48%	20%	66%	68%	31%	34%	33%	64%	44%	52%	23%	21%	41%	27%	27%

출처: Ipsos (2020) Global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p.14

〈부표 4-2〉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Having a secure job	31%	51%	63%	29%	55%	23%	20%	37%	66%	52%	59%	38%	57%	23%	46%	69%	45%	45%	62%	42%	33%	24%	43%	51%	42%
Having a successful career	18%	33%	45%	21%	40%	12%	13%	17%	52%	27%	39%	36%	31%	15%	23%	43%	32%	32%	62%	42%	24%	21%	25%	33%	33%
Having enough money to live well	29%	47%	63%	27%	57%	19%	13%	33%	62%	42%	58%	44%	57%	16%	46%	61%	61%	37%	61%	37%	37%	23%	32%	37%	45%
Having a good education	20%	17%	26%	21%	21%	16%	7%	19%	39%	21%	25%	21%	55%	11%	45%	23%	19%	8%	34%	38%	15%	15%	16%	27%	23%
Being free to be true to yourself	12%	20%	31%	17%	19%	11%	13%	15%	29%	21%	17%	27%	19%	20%	17%	24%	23%	17%	17%	20%	18%	17%	20%	34%	20%
Having access to information	6%	7%	10%	9%	7%	6%	6%	9%	15%	9%	7%	12%	11%	9%	7%	12%	8%	8%	5%	6%	11%	6%	5%	14%	6%
Having access to entertainment like film, music, books	5%	6%	11%	10%	7%	7%	6%	8%	12%	7%	5%	12%	10%	9%	9%	9%	9%	9%	7%	5%	12%	7%	7%	4%	8%
Being able to travel abroad	17%	15%	26%	17%	28%	9%	7%	18%	24%	9%	20%	13%	22%	12%	12%	16%	18%	15%	12%	13%	19%	7%	10%	20%	30%
Being able to own your own home	33%	66%	65%	25%	68%	22%	18%	32%	55%	46%	73%	46%	65%	20%	72%	58%	40%	31%	51%	29%	26%	42%	59%	66%	48%
Being safe from crime or harm	42%	54%	57%	38%	55%	33%	15%	38%	55%	46%	62%	38%	67%	34%	46%	60%	42%	25%	46%	39%	22%	25%	45%	47%	54%
Being able to live comfortably when you retire from work	29%	49%	67%	34%	60%	26%	15%	41%	72%	62%	65%	41%	74%	20%	44%	71%	52%	21%	49%	44%	21%	39%	56%	69%	50%

출처: Ipsos (2020) Global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p.16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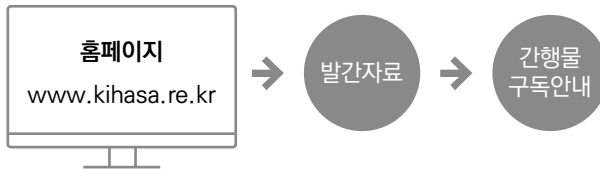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